

한국 근현대 식품사

이철호 저

韓國 近現代 食品史



韓國 近現代 食品史

李哲鎬 著



도서출판 식안연

한국 근현대 식품사

韓國 近現代 食品史

이철호 저



KFSRF
한국 식품안전연구원

도서출판 식안연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www.foodsecurity.or.kr)

본 재단은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개발과 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2010년 4월 설립된 순수 민간 연구기관이다. 재단은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식량공급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식량정책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단은 독지가들의 후원금을 모아 식량안보에 관한 학술활동을 지원하며 출판사업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재단은 식량자급실천 국민운동 추진본부로서 식량부족의 위험이 없는 사회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서출판 식안연(食安研)은 재단의 출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근현대 식품사

인 쇄 2023년 1월 13일

발 행 2023년 1월 20일

지 은 이 이철호

발 행 인 박현진(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발 행 처 도서출판 식안연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109A호

전 화 02-929-2751

팩 스 02-927-5201

이 메 일 foodsecurity@foodsecurity.or.kr

홈페이지 www.foodsecurity.or.kr

편집·인쇄 한림원(주) <http://www.hanrimwon.com>

ISBN 979-11-86396-75-9 (95400)

₩32,000

*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를 금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노승옥 교수와
세 딸 정실, 문실, 한실에게

한국 근현대
식품사

머리말

식품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때부터 인류와 함께해온 물질이며 식품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이다.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 많은 전쟁과 정변, 민족의 이동이나 기술의 발전들이 대부분 식량 획득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식품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지난 천년동안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매몰되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까지 겹쳐져 찬란했던 민족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국가적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받고 있는 오늘의 한국인에게 식품사는 잃어버린 고대사를 복원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목적으로 2021년 ‘한국식품사연구(도서출판 식안연)’를 저술했다. 이 책은 우여곡절 끝에 세계적인 출판사 스프링거(Springer Nature)에서 ‘Korean Food and Foodways; The Root of Health Functional Food (Springer 2022)’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일만년 전부터 한반도의 토기문화에서 시작된 음식문화가 한(韓)민족의 영육의 세월 동안 어떻게 성장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 문명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예측했다.

최근 동북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세계가 놀라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찾아와 반도체 기업총수를 만나고 K-POP으로 온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말로 된 노래를 부르며 열광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지난 150년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이다. 도대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는 물음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다. 집필을 마치면서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 기후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에서 중국에 기대어 천년을 잠자던 은둔의 나라가 구한말의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 일제의 억압과 수탈, 그리고 이어진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백성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버려진 상태에서 민족적 울분과 대오각성의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때 동북아시아의 선진민족으로 고조선문명을 꽃피우고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의 국시로 주변국들을 다스려온 한민족이 통일신라 이후 천년동안 중국에 기대어 살면서 잃어버렸던 민족적 자존심과 패기를 극도의 배고픔과 외세의 억압 속에서 되찾게 된 것이다.

필자는 2021년 ‘한국식품사연구’를 펴내면서 5천 년의 역사에 간혀있던 한민족의 뿌리를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과 고대사 연구 성과에 힘입어 원시토기문화(Primitive-Pottery Culture)에서 시작된 1만년의 한국 음식의 역사를 개관했다. 우리의 역사는 그동안 중국의 오만과 편견에 밀려 그들의 역사와 비슷한 동북아 국가형성기(기원전 3,000년경)를 시발점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대한해협연안의 원시토기문화는 그보다 5,000년이나 앞선 신석기초기에 구이문화(roasting culture)에서 진일보한 끓임문화(boiling culture)로의 진입을 선도했다. 서양은 오랫동안 구이문화에 머물러 있었던 관계로 육식문화(肉食文化)로 굳어진 반면 동북아인은 토기의 발명으로 단단한 곡물과 근채류를 물에 불려 찌개를 끓이고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는 채식문화(菜食文化)를 농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발달시켜 왔다. 원시토기문화로 인한 식량공급의 원활화와 식품위생의 향상으로 동북아인의 체위와 지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하여 동북아 국가형성기에 이지역의 선진민족으로 성장하였다고 본다.

이 책은 서론에서 한민족 1만년의 음식역사와 그 인류사적 의의를 요약하여 소개하면서 시작된다(식품과학과산업, 55권 4호). 저자는 1994년 연구년을 이용하여 미국 스미소니안연구소(Smithsonian Institution)에서 개화기의 외국 문물 유입이 우리의 음식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국역사박물관(Museum of American History)의 테리 샤라(Terry Sharrer)박사와 함께 구한말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를 방문한 서양 사람들의 영문 기록(견문록 등) 40여 편을 찾아 식품에 관한 내용을

복사하여 한국에 가져왔다. 현직에 있는 동안 이 자료들을 서재 한 구석에 쌓아두었다가 정년퇴임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다시 들춰내어 ‘제2장 구한말 사회변혁과 식량사정’과 ‘제3장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인 식량영양 상태’를 썼다(식품과학과산업, 55권 2호).

실제로 구한말에서 한국전쟁의 전혼이 가실 때까지의 한국 식품사의 기록은 극히 희귀하고 신뢰성이 낮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기록은 조선총독부의 기록이 유일하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대외 선전용이어서 미국의 학자들도 그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남긴 자료들을 가능한 많이 인용하였다. 한국전쟁 중의 한국인 식량사정에 관한 자료는 미국 국가문서보관소(US National Archive)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전쟁 중 기록물을 복사하여온 자료를 정리하여 ‘제4장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중의 식량사정’을 기술하였다(식품과학과산업, 55권 3호). 풍전등화와 같았던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이승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한국전쟁이 가져온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재평가하였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대립되어 논쟁을 벌이는 불행한 상황에 놓여있다. 진영에 따라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고 왜곡된 부분도 많아 정도를 찾기가 어렵다. 이 책에서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한국사 교재로 사용하는 ‘사실로 본 한국 근현대사’를 주로 인용하였다. ‘제5장 5.16혁명과 경제개발과정의 한국경제와 식량안보’에서는 군사쿠데타와 장기집권으로 폄하되고 있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성과와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태에서 쌀 자급을 이루어낸 역사적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6장 무역자유화 세계질서속의 한국 농업과 식품산업’은 1980년대와 90년 중반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될 때까지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과 국내 식품 수급상황의 변화를 기술하였다. ‘제7장 세계화시대의 한국경제와 식량 대란’에서는 1990년대 말에 일어난 IMF 구제금융 중에 소리소문 없이 팔려

나간 국내 종자산업의 이야기에서부터 2008년 광우병대란까지의 안전한 식량 확보를 위한 소용돌이를 기술하였다.

한국의 식량사정은 광복이후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식량의 해외 의존도는 높아졌으나 국민의 영양상태는 선진국 수준으로 좋아졌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다. ‘제8장 분단 65년의 남북한 식량사정 비교’는 북한의 경제사정과 식량난의 역사와 현실을 조명하고, 남한의 과잉과 과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인 식량영양 최적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9장 신(新) 냉전시대의 식량위기와 한국의 대응’에서는 2007/2008 세계 곡물파동, 세계금융위기, 기상이변에 의한 식량생산 감소, 가축전염병의 만연,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지는 세계 식량위기의 실체를 진단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논하였다. 특히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설립과 식량위기를 막기 위한 재단의 노력과 위기 극복을 위한 대비방안을 소개하였다. ‘제10장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은 글로벌 무역자유화 시대는 끝나가고 자국 우선 보호무역시대로 회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세계 식량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그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한국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소개하고 세계 식품시장에서 한국 식품과 식품기업의 위상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봤다. 또한 세계 식량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서 한국 정부와 식품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국의 역사학자 아더 쉐레진저(Arther M. Schlesinger, 1888-1965)는 그의 저서 ‘Paths to the Present(현재로 가는 길)’에 ‘Food in the making of America(미국을 만든 식품)’이라는 챕터를 썼다. 그는 이 챕터의 서두에 아래와 같이 썼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인간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거의 실마리 한 가지를 놓치는 게 있다.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음식이 있어야 한다. 음식은 사람의 모든 희망과 목표와 성취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질이다. 이 식량의 필요성이 미국인의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 신세계의 발견은 바로 식량을 찾는 과정의 부산물이었다”(Schlesinger, 1949).

저자가 이 책 ‘한국 근현대 식품사’를 저술한 것은 지난 150년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놓치고 있는 식량과 음식의 영향을 조명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저술을 마치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 150년간의 우리 역사에서 식품의 역사가 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15세기 유럽인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상륙한 곳이 신대륙이었다면 19세기 굶주림과 외세의 억압에서 한민족이 발견한 것은 민족적 자각과 대외각성이었으며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잃어버린 천년의 꿈을 되찾으려는 노력이었다. 이 신사고(新思考)의 발현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한국의 식량사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변천했는가 하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의 방향과 추진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식품산업의 발전방향은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과 가능성을 알리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식품을 통해 한국의 발전 역사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영문 명칭을 ‘Food in the making of Modern Korea’로 하고 영문판을 저술하고 있다. 이 책의 집필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사님들과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원고 작성을 도와준 재단의 김미경 간사와 (주)한림원 임직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조언과 관심을 바라마지 않는다.

2023년 1월

광릉숲 솔개마을에서 저자 **이철호**

목 차

... 머리말

제1장 서론 • 13

1. 동북아 한(韓)민족 음식문화의 기원 ... 14
2. 쌀과 콩의 전파경로 ... 27
3. 한(韓)민족 음식문화의 발전역사 개관 ... 29
4. 한국 근현대 식품사 기술의 의의 ... 36

제2장 구한말 사회변혁과 식량사정 • 41

1. 조선 후기 양반사회의 사회상 ... 42
2. 조선 후기의 식량사정 ... 47
3. 개항 이후의 국제 교역 ... 56
4. 대한제국의 성립과 개화기의 사회상 ... 60
5. 개화기의 식량사정 ... 64

제3장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인의 식량·영양 상태 • 77

1. 일제 강점기에 대한 공정한 평가 ... 77
2. 일제 강점기의 사회상과 농민 계층 ... 84
3. 일제 강점기의 식량 생산과 교역 ... 89
4.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식량·영양 상태 ... 102
5. 일본이 독점한 식품산업 ... 112

제4장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중의 식생활 • 122

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 122
2. 전쟁 중의 식량 수급 ... 140
3. 광복 이후 제1공화국의 한국인 식량·영양 상태 ... 153
4. 한국 식품산업의 태동 ... 159

제5장

5·16 군사혁명과 경제개발과정의 식량사정 • 165

1. 5·16 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 165
2. 새마을운동과 식량의 자급자족 노력 ... 176
3. 경제개발과정의 식량·영양 상태 ... 185
4. 경제개발 초기 성장기의 식품산업 ... 195
5.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구축 ... 202

제6장

무역자유화과정의 한국경제와 식량안보 • 211

1. 1980년대 한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 ... 211
2. WTO 자유무역체제가 개발도상국에 미친 영향 ... 218
3. 한국의 산업화와 식량수급 패턴의 변화 ... 230
4. 경제성장과 한국인의 영양 및 건강상태 ... 234
5. 한국 식품산업의 선진화 도약 ... 242

제7장

세계화시대의 식품 이슈와 안전 관리 • 259

1. 세계화시대의 국내외 정세변화 ... 259
2. IMF 구제금융 중에 일어난 종자전쟁 ... 264
3.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의 식량수급 ... 268
4. 곡물 해외유통망 확보를 위한 노력 ... 277
5. 2008년 광우병 대란 ... 288
6.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과학화 ... 296
7. 성숙기에 들어선 한국의 식품산업 ... 304

제8장

분단 65년의 남북한 식량사정 비교 • 318

1. 북한정권의 성립과 3대 세습 ... 318
2. 북한 경제상황의 변화와 식량사정 ... 325
3. 남북한의 식량 및 영양 상태 비교 ... 344
4. 한국인 식량 및 영양 최적화 모델 ... 359

제9장

신(新) 냉전 시대의 식량위기와 한국의 대응 • 364

1. 초강대국에 대한 도전과 응전 ... 364
2. 21세기 세계 식량위기의 엄습 ... 368
3. 2000년대 한국의 식량사정 ... 399
4. 한국 식품산업 규모 변화와 현황 ... 406
5.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설립과 활동 ... 417

제10장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 436

1. 한국의 재발견 ... 436
2. 한국 식품산업의 수출 실적과 세계화 사례 ... 444
3.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와 한국 식품산업의 기여 ... 464
4. 세계 식량위기를 막기 위한 식품기업의 역할 ... 473
5. 한국 식품산업의 미래 ... 484

... 색 인

오늘날을 사는 한국인은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롭게 잘 먹고 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중산층은 조선시대 왕족이나 양반가에 버금가는 식생활을 하고 있다. 죽기 전에 흰쌀밥에 고깃국을 양껏 먹어보고 싶었던 한민족의 천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세계 138개국 중에서 열 번째로 높고, 뉴욕타임스지(2017. 2. 27)는 란셋지에 보고된 논문(Kontis et. al., 2017)을 인용하여 2030년에는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국민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세기 전만해도 피죽도 못 먹고 보릿고개를 넘느라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 민족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오래 사는 국민이 되었을까? 필자는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인의 음식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민족 1만년의 음식문화를 개관하는 한국식품사연구(이철호, 2021a)를 저술한바 있다. 이 책은 영문으로 번역되어 Korean Food and Foodways: The Root of Health Functional Food(Cherl-Ho Lee, 2022, Springer)로 출판되었다. 본고에서는 가장 처참한 가난과 굶주림의 시대에서 오늘의 풍요로운 식생활로 발전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더 나은 식량·영양 환경을 마련하게 된 동인과 식품산업의 발전 역사를 연구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한국음식의 세계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

1. 동북아 한(韓)민족 음식문화의 기원

한국의 식품사를 인류학적인 관점과 철학 사상적 배경을 심도 있게 파헤쳐 기술한 고(故) 강인희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식생활사(1978)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음식물은 그 자체가 문화적 소산이며 그 음식물의 조리 방법이나 식사 습관 등은 생활사로서 문화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식생활의 연구는 좁은 의미의 식품이나 조리의 역사는 물론, 넓게는 인류 문화의 제반에 걸친 문화사의 일부로서.. 다른 문화와의 비교 연구에서 한 민족의 문화의 특색을 밝히는 민족학(民族學)의 한 분야로서도 그 중요성이 큰 것이다”(강인희, 1978).

그는 문화인류학에서 언어학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구조주의(構造主義)를 확립한 레비 스트로스(Claude Leveí Strauss)의 ‘요리 삼각형’ 이론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요리에서 ‘날 것(le cru), 익힌 것(le cuit), 찌운 것(le pouri)’을 삼각형의 세 정점에 놓는다.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이항대립에서 ‘손을 댄 것’과 ‘손을 대지 않은 것’을 대치시켜 날 것에 비하여 익힌 것은 문화적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익힌 것은 다시 두 가지 요리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구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삶은 것’이다. 구운 것은 식물(食物)을 직접 불에 대서 실현되는 요리임에 비하여, 삶은 것은 물을 담은 그릇에 매개되어 간접적 화력으로 실현되는 요리이다. 따라서 이 양자를 대립시킨다면 ‘구운 것’이 자연에 속하고 ‘삶은 것’이 문화에 속하는 요리법이다... 이때 ‘그릇’은 바로 문화와 자연을 구별하는 바로메타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한 한반도 원시토기문화는 인류발생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임에 틀림없다(이철호, 2021a). 이로 인해

끓임문화와 발효문화가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서양 음식문화의 기본이 되는 구이(roasting)문화와 대별되는 동양의 탕(湯), 찌개문화가 형성된 것이다(이철호, 2021b). 한(韓)민족의 음식문화는 동북아(중국, 일본, 한국) 고대 음식문화를 선도해 왔으며 동이족(東夷族)의 발흥과 쇠퇴의 역사 속에서 5,000년간 성장과 적응을 거듭해 왔다.

1.1. 동북아 토기문화의 식품사적 의의

식량의 획득 방법과 가공 분배 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의 발전 단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동물 사냥의 효율을 결정짓는 타제석기(뎨석기)와 마제석기(간석기)의 사용 여부로 구석기시대(약 100만년전-기원전 1만년)와 신석기시대(기원전 1만년-기원전 3,000년)를 구분한다. 토기의 사용이 비교적 늦게 시작된 서양의 유목민족에게는 이와 같은 시대편년이 별 무리가 없으나 비교적 이른 시기에 토기를 음식조리에 사용한 동북아인들에게는 이런 시대구분이 맞지 않는다(이철호, 2021a).

동아시아 최초의 토기는 남중국 양쯔강 연안의 우선암동굴(Yuchanyan cave, 18,300-15,300년)을 비롯한 고대 유적들에서 발견되고 있는 토기조각들이다(Liu and Chen, 2012). 북중국에서는 허베이성 후두량유적 조개무덤에서 기원전 1만 2,000년으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구석기말 토기유적이 발굴되었다. 한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아무르강 유역의 가시아유적과 쿠미유적에서 기원전 1만년으로 추정되는 토기 조각들이 발굴되고 있다(Zhushchikhovskaya, 1997). 일본열도 남부 큐슈의 후꾸이동굴과 시고꾸의 가미꾸로이와동굴에서도 기원전 1만년으로 추정되는 토기 조각들이 발견되었다(Barnes, 1993).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원시토기는 제주 고산리유적으로 기원전 8,0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의 많은 조개무덤에서 기원전 6,000년대의

원시 무문토기 조각들이 발굴되고 있다(Lee G.A., 2017). 대한해협 연안의 동삼동유적과 상노대도유적, 서포항유적에서는 빗살무늬(줄문) 토기층보다 더 오래된 아래쪽에서 원시 무문토기와 세션 용기문토기가 출토되고 있다(한병삼, 1974). 이들 조개무덤에 묻힌 토기는 동굴에서 발견되는 토기보다 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흙으로 환원되므로 대한해협 연안의 토기들의 사용연대는 중국이나 연해주의 원시토기들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이철호, 2021a)(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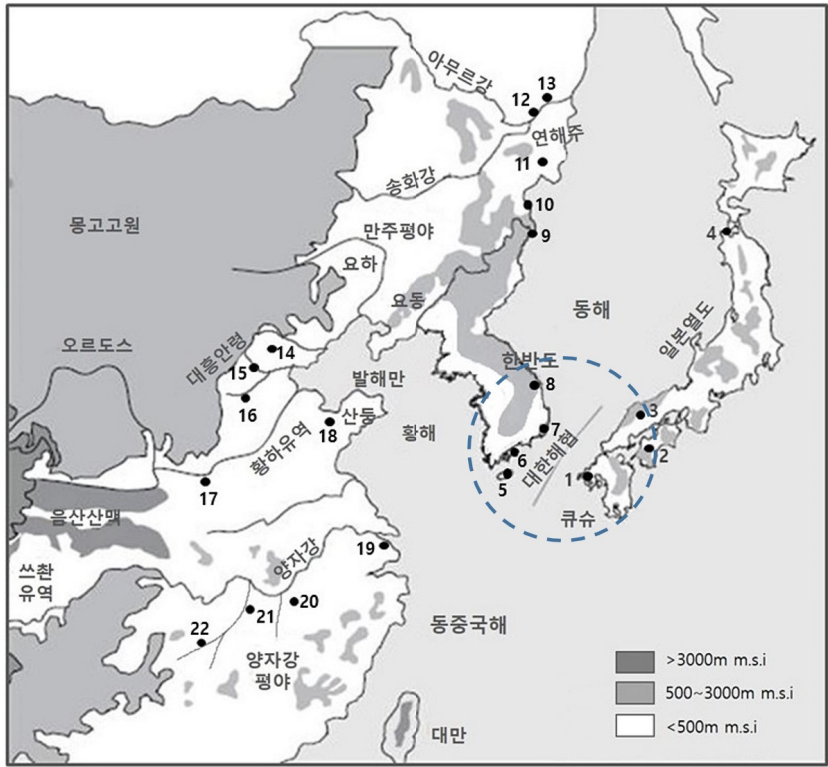


그림 1-1. 동북아 원시토기 발굴 유적지

1:후쿠이동굴, 2:가미쿠로이와, 3:마와타리, 4:오다야마모토, 5:고산리 6:상노대도, 7:동삼동, 8:오산리, 9:서포항, 10:우스티노브카, 11:알마진카, 12:가시아, 13:쿠미, 14:후두량, 15:동후린, 16:남장두, 17:이가구, 18:편편동, 19:상산, 20:선인동, 21:우선암, 22:증피암

고고학자들은 토기의 형태, 문양, 연대 등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만 식품과학자의 눈에는 토기의 사용이 인류 최초의 생물반응기(bioreactor)로 보이는 것이다. 토기가 만들어지기 전 인류는 물을 담아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토기를 사용함으로써 젖은 음식을 오랫동안 담아둘 수 있었으며 불 위에 얹어 끓일 수 있었다. 젖은 음식을 토기에 담아두면 미생물이 번식하여 부패하거나 발효를 일으킨다. 이것을 불 위에 얹어 끓이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된다. 동북아 특히 한국민족이 끓임(boiling)문화, 탕(湯)문화, 발효문화를 오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원시토기문화(Primitive pottery culture)의 발상지라는 가설을 가능하게 한다.

한반도는 지형학적으로 중국 대륙과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육교(land-bridge)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와 주변 동북아시아의 구석기유적 발굴지를 지도에 찍어보면 동·서해안에 위치한 유적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지리산에서 태백산맥을 거쳐 묘령산맥으로 다시 장백산맥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협준한 육로 주변의 강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그림 1-2) (Lee CH, 2001).

그림 1-2는 동북아 구석기 유적지를 연결하여 구석기인들의 이동 통로를 나타낸 좌표이다. 이 통로에서 대한해협은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는 장애물이었을 것이며 계절적으로 사냥거리를 쫓아 대한해협을 건너려는 사람들로 대한해협 연안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았을 것이다. 해안에 모인 사람들은 자연히 들짐승의 사냥보다는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물고기를 잡아 식량으로 사용하게 되고 점차 어로 채집이 주요 산업이 되었을 것이다(Lee CH, 2018). 이러한 환경에서 원시토기문화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동남해안에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하여 20여 곳에서 바위에 새겨진 그림과 문양들이 발견되고 있다(이철호, 202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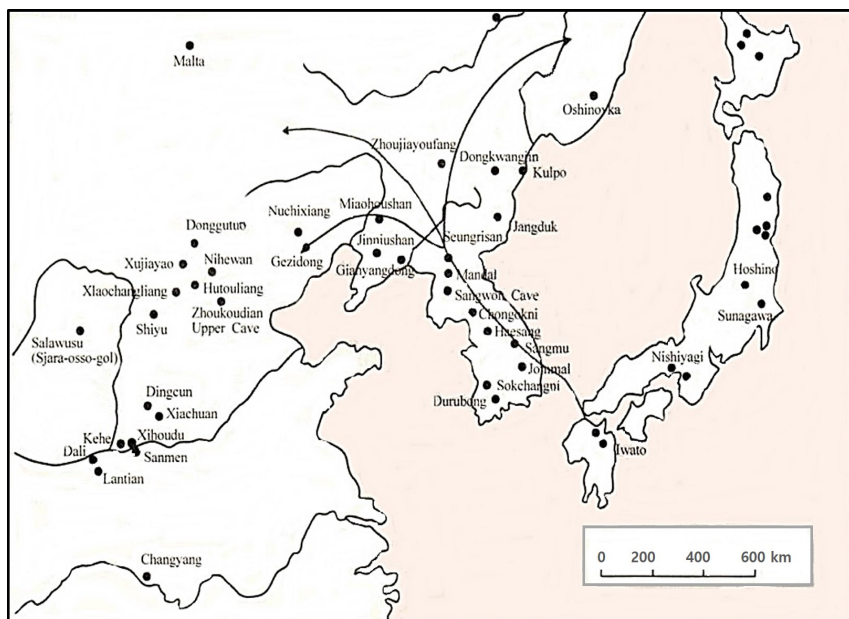


그림 1-2. 동북아시아의 구석기 유적지와 구석기인의 이동통로

이들 암각화가 한반도 동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체류한 곳으로 원시토기문화시대의 이동통로로서 선사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대한해협 연안은 신석기 초기 원시토기문화의 발상지로 추정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져 있다(이철호, 1999; Lee CH, 2022).

동북아시아인의 원시 토기 사용은 인류의 음식문화를 구이(roasting)문화와 끓임(boiling)문화로 양분하는 분기점이 된다. 유목민족의 후예인 서양인의 구이문화는 육식 위주의 음식문화로 발전하였고, 토기를 사용한 동양인은 단단한 곡물이나 식물조직, 뿌리 등을 물에 불려 끓여먹는 채식 문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그림 1-3).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농업 이전에 해변의 채집인(littoral foragers)으로 어로 채집 기

술이 발달하여 해산물과 함께 끓여 먹는 찌개문화가 농업이 시작되기 이전의 이른 시기에 이미 정착되었다고 본다. 원시토기문화는 농업 이전에 상당한 수준의 정주생활이 동북아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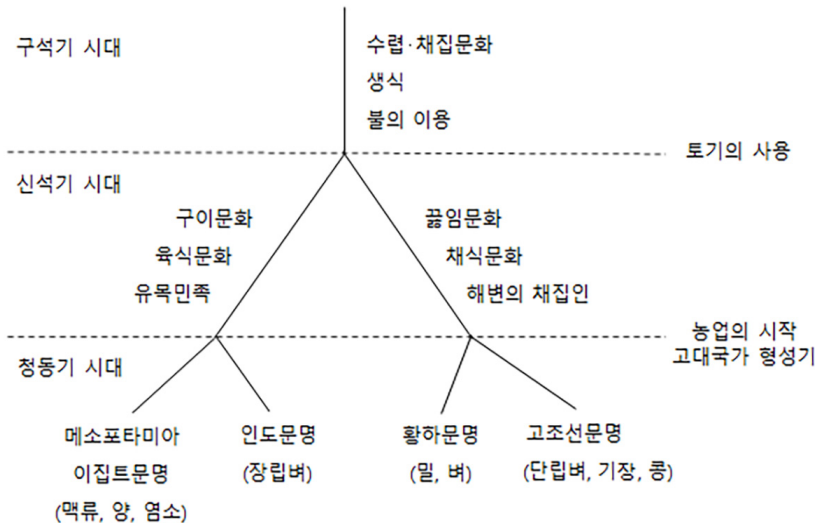


그림 1-3. 세계 음식문화의 발전 계보

1.2. 기장과 쌀의 재배 기원

신용하(2014)는 토인비(Arnold J. Toynbee)의 ‘역사의 연구’에서 제시한 농업의 시작으로 형성된 세계의 독립문명(Independent civilization)을 수정하여 메소포타미아 문명(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문명), 이집트 문명(나일강 문명), 인도 문명(인다스강 간지스강 문명), 고조선 문명(한강 대동강 요하문명), 고중국 문명(황하 문명), 중앙아메리카 문명(마야 문명), 안데스 문명(잉카 문명) 등 7개 지역으로 기술하고 있다.

인류는 발상지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륙의 끝 지점인 한반도에 도달하게 된다. 약 5만 3,000년 전에 시작된 홍적세 마지막 빙하기(제4 빙하기, Würm glacial)에는 북위 40도(신의주와 북경을 연결하는 위도) 이북에서는 사람이 상주할 수 없었으며 동아시아 구석기인들은 석회암 동굴이 가장 많은 한반도에 밀집하여 동굴 생활을 하게 된다(신용하, 2018). 1만 3,000년전 빙름 빙기가 끝나고 기후가 온난해 지자 동굴에서 살던 구석기인들이 동굴 밖으로 나와 강변과 해안에서 살게 되면서 어로와 농업이 시작된다. 동북아에서는 가장 인구밀도가 높았던 한반도, 특히 비옥한 남한강유역과 금강 상류의 퇴적 평야지대에서 가장 먼저 쌀과 기장의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본다(신용하, 2014). 남한강유역에서 12,000년 전의 소로리 벼씨가 발견되면서 단립벼의 재배기원은 12,000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고, 동북아 신석기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5,000년경으로 추정하던 기존의 학설이 기원전 1만년으로 수정하게 되었다(이철호, 2021a). 신용하(2014)는 동아시아에서 농업의 시작은 기원전 1만년경 한반도 한강유역에서 시작되었으며, 고조선 문명의 단립벼 재배가 한강유역에서 대동강유역 > 요동반도(대취자유적) > 산동반도(양가권 벼씨, BCE 2,040년경)로 동이족의 이동과 함께 전파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존의 동아시아 농업의 시작을 양사오유적(BCE 5,000년)과 용산유적(BCE 3,000년)에 근거하여 주장해온 중국기원설(황하문명)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조선 문명의 단립벼 쌀문화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밀, 인도 문명이 장립벼 쌀, 마야문명이 옥수수, 잉카문명이 감자를 식량의 기본으로 발전시킨 것과 대비되는 독립문명으로 인류문화사적 의미를 갖는다(신용하, 2018). 그림 1-4는 세계 독립문명의 분포와 각 지역의 기초식량자원을 표시하고 있다.

Robbeets 등(2021)은 트랜스유라시아어족의 기원을 신석기 초기인 9181년전(BP) 서요하지역으로 보고, 6811년전에 원시알타이어족(Proto-Altaic family)인 터키어, 몽골어, 통구스어로 분화하였으며, 4491년전 몽골-통구스어족, 5458년전 일본-한국어족으로 분화하였다고 결론지었다(그림 1-5). 흥미 있는 것은 신석기시대까지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분화되지 않았다고 보며, 청동기에 두 언어가 분화된 것으로 본다. 이들 초기언어들에는 공통적으로 ‘밭, 파종, 식물, 성장, 재배, 싹’ 등 작물재배에 관한 어휘와 ‘기장, 기장죽, 피(barnyard millet)’ 등 곡식 이름, ‘밭효, 갈기, 으깨기, 양조’ 등 식품가공기술 용어, ‘호두, 도토리, 밤’ 등 정주생활의 식품 이름들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때 언어에는 돼지와 개만 언급되었으며 다른 가축 사육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약 3,500년 전)로 오면 벼, 밀, 보리, 다른 가축 이름들이 혼입되면서 신석기시대의 동북아 어족들의 독창성은 가려지고 역사시대의 국가체제로 고착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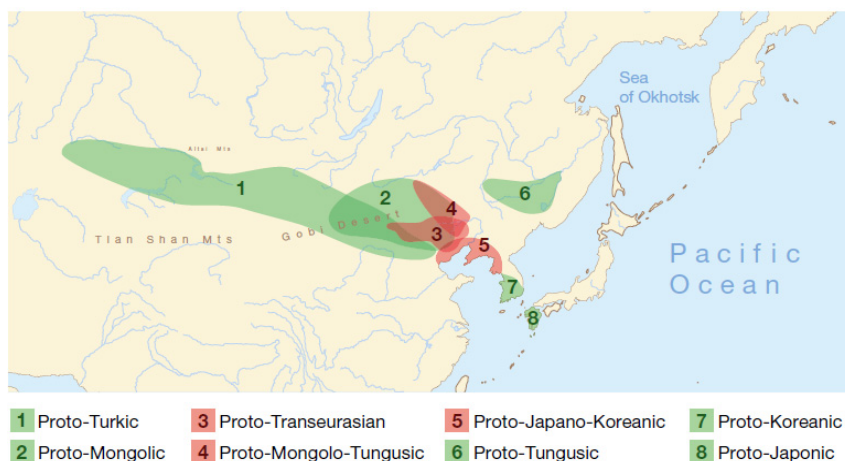


그림 1-5. 신석기시대(적색)와 청동기 이후(녹색)의 트랜스유라시아 언어의 분포
(Robbeets M. et a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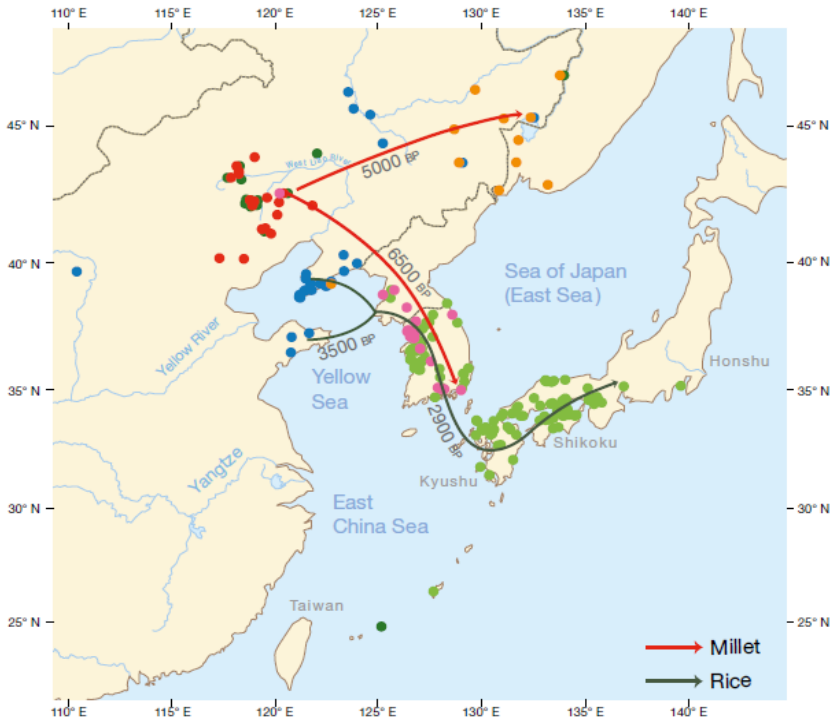


그림 1-6. 신석기시대(적색)와 청동기 이후(녹색) 고고학 발굴지와 기장과 쌀의 전파경로 (Robbeets M. et al., 2021)

Robbeets 등(2021)에 의하면 9,000년 전에 서요하유역에서 수수(broomcorn millet)의 재배가 시작되었으며, 동쪽으로 6,500년 전에 한반도의 즐문토기 지역과 5,000년 전에 요동, 아무르(Amur), 연해주의 신석기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본다(그림 1-6)(Robbeets M. et al., 2021). 또한 벼의 재배는 4,000년 전에 요동·산둥반도 지역에서 시작되어 청동기 초기(3,300-2,800 BP)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는 3,000년 전에 전파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하(2014)는 벼의 재배는 1만년 전에 남한강유역과 금강 상류의 퇴적 평야지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충북 청원군 소로리유적에서 12,500년된 범씨가 출토되면서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이용조, 2014). 이곳에서 출토된 범씨는 모두 127톨이었으며, 고대벼로 단립벼 17톨, 장립벼 1톨, 유사벼 1형과 유사벼 2형 109톨로 유사벼가 우점종으로 밝혀졌다. 고대벼의 소지경(벼줄기에 범씨가 달린 꼭지 부분) 형태는 야생벼의 길쭉하고 뽀죽한 모양과는 달리 찢림이 돼있지 아니하며, 주사전자현미경(SEM) 촬영 결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잘라진 특징이 관찰돼 재배벼의 특징을 보였다(그림 1-7)(Lee CH, 2022).



그림 1-7. 충북 청원군 소로리 유적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범씨

1.3. 콩의 재배와 이용 기원

콩의 원산지(原產地)는 남만주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일대이며 이곳은 동이족의 생활 터전이였다. 식물학에서 작물의 발상지를 추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쓰는 것이 야생종의 분포 유무인데, 남만주와 한반도지역에서 콩의 야생종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이영호, 박태식, 2006). 일본의 후쿠다(福田) 박사는 야생콩의 분화가 많이 된 곳이 원산지라는 주장을 토대로 만주와 한반도를 콩의 원산지로 보았다(Fukuda, 1933). 반면 미국의 하이모워츠(Hymowitz, 1970) 박사는 중국 주(周)나라의 시를 수록한 시경(詩經, 기원전 11-6세기)에 콩 속(菽, 중국어로 Shu)자가

있다는 근거로 중국을 원산지라고 주장하였다.

콩을 재배하고 이용한 확실한 증거는 신석기 중기 이전의 유적에서는 발견된 것이 없다(Liu and Chen, 2012). 야생콩을 채집한 흔적은 북중국 허난성(Henan)지역의 가호유적(賈湖, Jiahu, 7,000-5,500 BCE)과 반촌유적(班村, Bancun, ca. 5,500 BCE), 산둥(Shandong)지역의 악장유적(岳庄, Yuezhuang, ca. 6,000 BCE) 등에서 발견되었지만 식용의 근거는 없다. 중국 이락하(Yiluo river) 유역의 후기 양사오(기원전 3,000년) 대하촌유적(大河村, Dahecun, Henan)에서 콩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중국에서는 용산문화기(기원전 3,000-2,000년)와 상(商)나라 시대까지의 유적에서 콩이 다수 발견되었다. 일본에서는 조몬 중기(기원전 3,000년경)의 시모야게베(Shimoyakebe) 시료가 가장 오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이후 조몬 후기까지 발견된 콩이 없다(Lee G.A. et al., 2011). 이경아 교수는 한·중·일 삼국에서 신석기시대에 발굴된 949개의 탄화콩에 대한 크기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한반도 초기 무문토기시대(기원전 1,600-600년)의 탄화콩들이 길이(L)와 넓이(W)가 뛰어나게 큰 대두(大豆)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양사오, 룡산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탄화콩들은 대부분 야생콩이며 재배콩은 기원전 2,000년 전후의 한반도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유력해 진다.

기원전 6세기에 쓰여진 일주서(逸周書, Yi Zhou Shu)에는 중국 동북지역의 콩이 처음 언급되고 있다(Liu and Chen, 2012). 여기에는 ‘산용(山戎)은 동북이이(東北異夷)다. 용숙(戎菽)이 나는데 큰콩(巨豆)이다’라고 쓰여있고, ‘서주(西周, 기원전 1046년경)가 상(商)을 정벌하고 조공을 받는 과정에서 산용에서 보내온 콩, 용숙(戎菽)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홍콩대학의 Ho Ping-ti(1975)는 이에 근거하여 재배 콩은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볼 때 초기 통구스족(proto-Tungusic)에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는 ‘기원전 623년에 산옹이 연나라를 쳤는데, 연이 위급을 제나라에 알리자 제나라의 환공이 연을 구해주고, 북으로 산옹을 정벌하고 고죽국 지역까지 갔다가 용숙을 얻어 돌아왔다. 제(齊) 환공은 이 용숙을 이웃나라 노(魯)나라에 주었다’고 하였다. 관자(管子, Guanzi)에는 ‘제나라의 환공이 북쪽으로 산옹을 쳐서 겨울과와 용숙을 가져와 온 세상에 펼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기원전 7세기에 남만주의 재배콩이 중국으로 전래되었다는 주장이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한국콩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2017). 결론적으로 야생 콩은 신석기 초기부터 동북아 지역에 알려져 있었고 채집의 대상이 되었으나 콩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은 기원전 2,000년 경 남만주와 한반도의 큰콩(大豆)이 재배되면서 콩을 주요 식량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시토기문화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원주민들은 어로 채집과 지역에서 자생하는 벼, 피(稗), 기장(黍), 조(粟)를 비롯한 곡류채식문화를 점진적으로 발전 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기마 유목민족이었던 북부지역의 퉁구스족이 한반도로 들어와 농경 정착을 하면서 가축을 많이 기를 수 없게 되므로 고기를 대체할 안정적인 단백질 급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그들은 이 지역에서 자생하던 콩을 채집하여 물에 불린 후 토기에 담아 삶아 냄으로서 트립신인hibiter와 같은 영양 저해인자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을 것이다(이철호, 1999). 예맥족(濊貊族)은 아마도 인류사상 최초로 콩을 음식으로 이용한 사람들로 여겨진다(이성우, 1984). 그 시기는 동북아 국가형성기(기원전 3,000-1,000년) 초엽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부 유목민들이 백두산을 중심으로한 남만주와 한반도에 농경 정착을 시작한 후기 신석기에는 콩의 경작이 시작되었을 것이며, 초기 청동기시대(기원전 1,500년)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콩의 식용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이철호, 권태완, 2005).

2. 쌀과 콩의 전파경로

고조선문명의 기초식량인 쌀과 콩의 재배기원과 전파경로에 대하여는 최근의 고고학 발굴과 고대사 연구 성과로 인해 기존의 학설이 크게 도전 받고 있다. 쌀의 재배기원에 대한 바빌로프(N.I. Pavilov)의 인도기원설은 중국학자들에 의해 중국기원설로 굳어져 가고 있다(Ping-Ti Ho, 1975; Liu & Chen, 2012).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충북 청원군 소로리유적에서 12,500년된 벼씨가 출토되면서 단립종 벼의 재배기원이 제기되고 있다(이용조, 2014). 따라서 쌀은 장립종벼(Indica type)가 인도 간지스강 아삼(Assam)지역과 버마, 라오스, 태국 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남중국 양쯔강 유역까지 전파되고, 단립종벼(Japonica type)의 재배는 한반도에서 시작되어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를 거쳐 황화유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6). 기원전 4,000년경의 재배벼(인디카계열)가 양자강 유역 하모도유적(Ching-lien-kang)에서 발굴되었으며, 양저문화유적(Chien-shan-yang)에서는 기원전 3,300년의 재배벼가 발굴되었는데 여기에는 인디카쌀과 자포니카쌀이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이철호, 2021a).

이성우(1990) 교수는 “인류사상 콩을 가장 먼저 음식으로 사용한 민족은 동이족 중에서도 예맥족(濊貊族)”이라고 결론짓고 ‘동북아 국가형성기 초엽’이라고 하였다. 그는 북부 유목민들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남만주와 한반도에서 농경정착을 시작한 신석기시대에 콩의 경작이 시작되었고 초기 청동기시대(BCE 1,500)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콩의 식용이 보편화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덕경(2009) 부산대 교수에 의하면 “중국의 제반 역사 기록들을 참조하면 대두는 주나라 초기 동북지방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춘추 중기 이후(기원전 7세기) 화북에 보급되었으며, 진한 이후 중국 전역으로 재배지역

이 확대되면서 ‘숙(菽)’의 명칭이 ‘대두(大豆)’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서기 700년까지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 전역에 콩이 전파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림 1-8은 단립벼와 콩의 원산지와 전파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8에는 그림 1-6의 로베이트츠 등(2021)의 주장과는 달리 단립종 쌀이 한반도에서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로 전파된 시기는 기원전 4,000년경(6,000 BP)으로 수정되었다. 콩은 남만주에서 기원전 7세기(2,700 BP)에 황하유역으로 전파되었으며 일본으로 전래된 것은 단립벼의 전파시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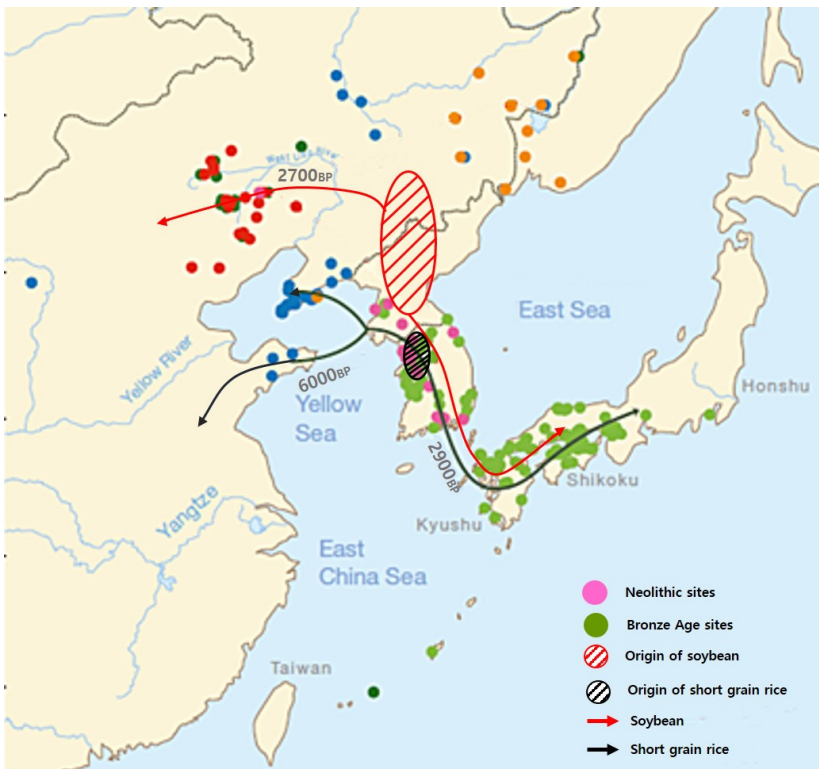


그림 1-8. 쌀(단립벼)과 콩의 원산지와 전파경로
(Robbeets M. et al., 2021; Modified by Cherl-Ho Lee)

Shurtleff and Aoyagi(2021)는 한국의 콩과 관련된 문헌총람에서 제민요술(齊民要術) 이후의 콩의 재배와 이용에 관한 문헌과 자료를 수집·발표하였다. 콩이 유럽에 알려진 시점은 1712년으로 일본에 다녀온 독일 학자 캠퍼(Engelbert Kaempfer)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콩을 소개하였다는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1739년 프랑스 선교사가 중국으로부터 콩 종자를 가져와 파리식물원에서 재배한 것이 최초이다. 1790년 영국 식물원에서 콩이 재배된 이래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동서 아프리카에서도 재배실험이 이루어졌다(이철호, 권태완, 2005). 콩이 미국에 전파된 경로는 두 갈래다. 하나는 1764년 동인도 회사 선원이었던 사무엘 보웬(Samuel Bowen)이 중국 광둥에서 살다가 조지아주 사바나로 와서 콩을 재배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 프랑스 대사였던 벤자민 플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1770년 영국에서 콩씨를 구해 집(필라델피아)에 보냈다는 편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18세기 후반 동양의 콩이 서양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경제적 작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후의 일이었다. 아편전쟁(1840-1842) 이후 미국의 농학자들은 중국인들이 콩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들판의 젖소’라고 칭하고 그 재배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콩은 사료용, 녹비작물에서 ‘신데렐라 작물’, ‘기적의 작물’로 불리며 세계의 주요곡물이 되었다(이철호, 권태완, 2005).

3. 한(韓)민족 음식문화의 발전역사 개관

한반도와 남만주의 맹주로 자리 잡은 한민족은 동이족(東夷族)의 후예로서 신석기 농업의 시작 이전에 원시토기문화를 선도하여 동북아의 엘리트

트그룹으로 성장한 민족으로 초기 국가 형성기에 고조선을 일으켜 홍산문화와 고조선 문명을 남기고 쌀과 콩을 중심으로 하는 발효음식문화를 시작했다(표 1-1)(이철호, 2021a).

표 1-1. 초기 한국문화의 연대기

700,000~12,000 BP	구석기 시대 초기 구석기 유적(700,000~300,000 BP)-6개 유적 중기 구석기 유적(300,000~40,000 BP)-12개 유적 후기 구석기 유적(40,000~12,000 BP)-7개 유적 골각기의 사용, 산속 동굴에서 이동식 사냥 생활
10,000~4,000 BCE	원시 토기 시대 토기의 발명, 활과 화살의 이용, 조각한 골각기와 어로용구, 패총, 수렵과 어로생활, 움집 주거생활, 빗살무늬 토기
4,000~2,000 BCE	신석기 시대(신화시대) 농업의 시작, 연마된 골각기, 무문토기, 부족국가 출현(신화), 전설속의 환국(桓國 7,197~3,987 BCE), 배달국(倍達國 3,897~2,333 BCE)
ca. 2,333~108 BCE	고조선시대
ca. 2,333 BCE	단군에 의한 조선왕국 창건
ca. 1,122 BCE	청동기 시대 시작, 검정토기, 위성국 기자조선
ca. 800~400 BCE	거석문화, 고인돌, 선돌, 농기구 제작, 철기시대
ca. 238 BCE	만주 예맥족(濊貊族) 국가 부여(夫餘)의 출현, 열국시대
ca. 194 BCE	한반도 남부의 한(韓)족 삼한시대(진한, 마한, 변한)
ca. 75 BCE	고구려 건국
57 BCE	신라 건국
18 BCE	백제 건국
18 BCE~668	삼국시대
660~668	백제의 말망(660), 고구려의 멸망(668)
668~918	통일신라시대
918~1392	고려시대
1,392~1,910	조선왕조 시대

3.1. 역사시대 이전의 한민족 음식문화

해변의 채집인으로 토기를 사용하면서 이제까지 동물의 혈액이나 내장에서 섭취하던 미네랄과 염분을 수산식품에서 주로 공급받게 되고 점차 짠맛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짠맛은 식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하므로 수렵이 어려워 육류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에도 식물성 대체식품으로 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짠맛을 알게 되고 그 획득방법을 터득한 동북아의 원시토기인들은 해변가에 거주하면서 바닷물과 해산물을 토기에 담아 끓이고 여기에 들판에서 채집한 채소와 풀씨와 나무뿌리, 견과류를 섞어 먹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음식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뚝배기 찌개문화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Kwak 등(2017)은 금강 연안의 송국리유적(2,900-2,400 BP)에서 발굴된 토기조각에서 유기물의 잔존 여부를 GC-MS로 분석한 결과 27개 시료 중 18개에서 유기물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유지성분이 최고 59mg/g (평균 33mg/g)이 검출되었다. 이들 유지성분의 대부분이 팔미트산(C16:0)과 스테아르산(C18:0)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물성 식품이 포함된 음식을 끓인 토기그릇(찌개그릇)으로 확인되었다.

끓임문화가 발전하여 농경시대로 들어오면 물을 끓여 밥을 짓고 찌개나 탕을 끓여 함께 먹는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가 정착된다. 토기에 저장된 곡물이나 전분질 구근류들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자라 당화되고 알코올이 형성되는 양조기술이 발전하고, 바닷물(염도 3%)에 채소와 수산물을 저장할 때 자연발생적으로 관찰되는 김치발효와 젓갈발효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발효기술에 의하여 부패하기 쉬운 어패류나 채소류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음식맛의 증진도 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은 구석기시대 사람들에게 비하여 원시토기인들의 영양 상태를 크게 향상시켰을 것으로 보이며, 수명

의 연장, 출산율의 증가로 인하여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발전은 기원전 3,000년대 농업의 시작과 부족국가의 형성을 촉진하였을 것이며, 군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동북아 거석문화의 주역으로 등장할 동이족(東夷族, Eastern Archers)을 키워내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이철호, 1999).

콩을 발효하여 장(醬)을 만드는 기술은 콩의 식용과 거의 동시에 개발되었다고 본다(Lee and Kim, 2016). 이렇게 보는 근거는 기원전 6,000년경의 원시토기문화시대에 이미 탄수화물을 발효한 알코올제조기술이 개발되어 기원전 3,000년경에는 누룩을 이용한 곡주(穀酒)의 제조가 보편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콩을 삶아 먹기 시작하였다면 곰팡이를 이용한 메주의 제조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토기를 이용하여 바닷물에 수산물과 채소, 낱알 등을 함께 끓여 찌개를 만들어 먹으면서 소금의 존재를 알게 되고 소금을 이용한 염장기술이 장류제조에 이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콩을 이용한 장류의 제조가 청동기시대 기원전 1,000년대에 한반도와 남만주 지역의 동이족에 의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철호, 2021a). 콩나물, 두유, 두부 등 콩 가공식품도 같은 시기에 동이족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 고대사에서 동이족에 대한 뚜렷한 정의나 한(韓)민족의 조상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 동북아 국가형성기에 대한 사학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우리민족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에 가려 변방의 소수민족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韓)민족 음식문화의 맥을 이으려면 우리민족의 동이족 역사가 확립되어야 한다.

3.2. 동이족 이야기

윤내현(2015)은 그의 일생을 통한 고조선 연구에서 고조선(기원전

2333-108)은 한반도와 만주 전 지역을 강역으로 하고 있었던 대국이었으며, 서쪽은 북경에서 가까운 지금의 난하(灤河)와 그 하류 동북유역에 있는 갈석산(碣石山)을 경계로 하여 북쪽은 아르군강, 동북쪽은 흑룡강(때에 따라서는 연해주까지), 남쪽은 한반도 남부의 해안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었다고 주장한다. 동이족(東夷族)은 중국의 고문헌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다(그림 1-9)(이병도, 최태영, 1989). 후한서(後漢書, AD 25-220)를 비롯하여 삼국지(三國志, 8-265), 진서(晉書, 265-418), 양서(梁書, 502-557), 수서(隋書, 581-618),



그림 1-9. 동이족의 분포지역

신당서(新唐書, 618-907)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정사(正史)에 동이열전(東夷列傳)이 수록되어있다(신용하, 2018).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제75에는 부여국(夫餘國), 읍루(挾婁), 고구려(高句麗), 구려(句麗 - 일명 맥(貊)), 동옥저(東沃沮), 예(濊), 한(韓)이 포함되어 있다(이철호, 2021a).

설문(說文, AD 100)에 의하면 이(夷)는 大(큰 대), 弓(활 궁), 人(사람 인)의 합자(合字)로 큰활(大弓)을 사용하는 부족 명칭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동이(東夷)를 사전에서 ‘동쪽의 오랑캐’로 해석하는 것은 후세 중국인들이 동이족을 폄하하기 위해 조작한 결과이며, 원래 뜻대로 ‘동방의 활을 쓰는 민족(Eastern Archers Tribe)’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고구려인들이 새의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쓰는 것은 칼과 창을 주 무기로 사용하는 주변국과는 달리 활로 새를 사냥하는 민족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실제로 동이족은 중국 고대사에서 한족(漢族)과 대등한 세력을 행사하였던 거대 민족으로 중국문명의 이른 시기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이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字源)에는 동이인에 대하여 대단한 호감을 표시하여 중원지방의 선주(先住) 토착민임을 암시하고 인자 온후한 덕성과 도리를 분별하는 문화인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에도 동이를 천성이 유순하여 주변의 다른 오랑캐들과는 다르다고 기재하고 있다(이철호, 2021a).

3.3. 역사시대의 한민족 음식문화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오면서 도구의 발달로 농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병기의 발달로 소국들의 병합이 가속화 되면서 만주와 한반도에는 여러 개의 왕국들이 성립되고 소멸되는 열국시대(列國時代)가 열린다. 고조선이 쇠퇴하면서 발흥한 부여(夫餘)는 기원전 3세기에 세워져 700년 동안 있었던 나라로, 고조선에 뒤이어 우리 역사에 두 번째로 등장

한 나라이나 중국과 일본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기』〈화식열전〉에 의하면 부여를 한(漢)나라와 대등한 관계로 조공까지 받은 대제국으로 묘사되고 있어 부여가 하북성 북부, 요녕성 북부, 내몽고, 동몽고, 동시베리아의 광활한 지역을 지배한 대국임을 알 수 있다(이철호, 2021a). 『삼국사기』와 『삼국지 위지동이전』 등 역사서를 보면 부여는 전성기 때 인구 8만호에 사방 2,000리의 영토를 가진 큰 나라였다. 당시 인구 3만호에 불과한 고구려보다 국력이 훨씬 강대한 나라였다. 또 한반도에서 청동기 유물인 세형동검을 사용할 때, 부여는 수준 높은 철제 무기를 사용한 군사 강국이었다.

부여는 목축이 발달한 나라로 가축을 중요하게 여겼다. 고위관리의 이름에 가축 이름을 따 붙일 정도였다. 부여의 가장 높은 관리는 네 명의 ‘가(加)’였는데 이름을 마가(말), 우가(소), 저가(돼지), 구가(개)라고 했다(이성우, 1984). 사람들은 토착하며 살고, 집에 거주하며 창고가 있었다. 산과 구릉, 넓은 연못이 많고, 동이(東夷)의 지역에서 가장 넓은 평야 지대였다. 땅은 옅고 알맞고, 음식은 조와 콩을 주로 먹었다고 한다.

삼국시대(BCE 18-AD 668)에 불교가 도입되면서 채식을 위주로 하는 곡류가공과 의례음식(떡, 한과 등)의 전통을 남겼다. 삼국통일(AD 918)을 계기로 한반도에 단일 정치체제가 갖추어 졌으나 압록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대부분 잃어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급기야, 13세기에 징기스칸이 세운 원(元)의 침략으로 80여년간 몽고인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기간 고려인들의 채식문화는 쇠퇴하고 육식과 병행하는 오늘날의 식사 구성이 이루어진다. 조선왕조가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표방하면서 채식과 육식이 균형 잡힌 한국인의 식단이 형성되었다(이철호, 2021a).

한(韓)민족의 음식문화는 신석기 원시토기문화(기원전 8,000년) - 신화

시대(기원전 4,000년) - 청동기 고조선시대(기원전 2,000년) - 철기 열국시대 (기원전 1,000년) - 삼국시대 - 통일신라시대 - 고려시대 -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에서 계승·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1-10).

원시토기문화(기원전 8,000년) - 탕·찌개문화, 발효기술의 태동

↓ 대한해협연안의 어로 채집인

신화시대(기원전 4,000년) - 기장, 벼 재배, 염장발효문화

↓ 요동 만주지역의 선주(先主) 홍산문화

고조선시대(기원전 2,000년) - 콩의 재배와 이용

↓ 동북아의 맹주, 동이족

열국시대(부여)(기원전 1,000년) - 콩의 중국 전래

↓ 쌀과 콩의 주식 정착

삼국시대(기원전 18년-668년) - 술, 장 제조기술 일본에 전래

↓ 불교의 전래, 곡류가공기술 발전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림 1-10. 한민족 음식문화의 기원과 발전 역사

4. 한국 근현대 식품사 기술의 의의

식품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국 음식의 역사를 정치 사회 경제적 시대 구분에 따라 선사시대, 국가형성기(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구분하여 기술해 왔다. 광복 이후의 한국사는 현대사의 범주에서 정치, 사회·경제적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1800년대부터 2022년 신냉전 시대에 이르는 근현대 한국식품사를 다루려고 한다. 식품사의 관점에서 한국의 근현대는 (1) 착취와 전란의 궁핍시대(1880-1960), (2) 식품산업 태동 시대(1960-1980), (3) 과소비와 식량 해외의존 시대(1980-2000), (4) 한국음식 세계화 시대(2000-2020), (5) 신냉전 시대의 한국 식품산업(2020년 이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한국인의 피해는 대단히 컸으며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민초들의 고난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한국의 음식문화가 대거 일본으로 전래되고 일본과의 음식 교류가 확대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의 공론과 사색당쟁의 심화로 국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1910년에는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명치유신으로 국력을 키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한국인의 식량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전통적인 음식문화가 크게 손상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방 후 혼돈 속에서 6·25 동란을 맞았고, 3년간의 전투와 이어진 남북 분단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기아선상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러한 수난을 겪으면서 남한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하였다. 반면 북한은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공산주의 폐쇄정치로 인해 기아 난민이 속출하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다. 이와 같이 드라마틱한 한국인의 역사에서 지난 150여 년 동안 겪은 식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1세기를 맞이한 한국의 근현대는 극심한 가난과 기아선상에서 헤매던 한국민족이 외세의 압제와 수탈 속에서 민족적 자각과 대오각성으로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힘을 모아 경제번영을 이룬 기적 같은 민족사의 결정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식량은

국민의 생존을 지켜낸 장본인이며 현대 한국을 만들어낸 주역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덧붙여 현대 한국을 만들어낸 식품산업이 식량위기로 치닫고 있는 앞으로의 세계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참고문헌

- 강인희, 한국식생활사, 삼영사, p.252 (1978)
- 신용하, 고조선문명 형성의 기반과 한강문화의 세계최초 단립벼 및 콩의 재배
경작, 고조선단군학, 31집, 127-185 (2014)
- 신용하, 고조선문명의 사회사, 지식산업사 (2018)
- 윤내현, 고조선연구, 상, 하, 만권당 (2015)
- 이병도, 최태영, 한국상고사입문, 고려원 (1989)
- 이성우, 한국식품문화사, 교문사 (1984)
- 이성우, 고대 동아시아속의 두장에 관한 발상과 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
화학회지』 5(3), 313-316 (1990)
- 이영호, 박태식, 출토유물과 유전적 다양성으로 본 한반도의 두류 재배 기원,
농업사 연구, 제5권 1호, 1-31 (2006)
- 이용조, 소로리법씨, 왜 중요한가?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제72회 학술발표회,
중원포럼 (2014)
- 이철호, 동북아시아 원시토기문화시대의 특징과 식품사적 중요성, 민족문화연
구, 제 32호, 325-357 (1999)
- 이철호, 동북아 발효문화의 기원에 관한 고찰, 식품과학과 산업, 53(2) 134-147
(2020)
-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도서출판 식안연 (2021a)
- 이철호, 지속가능한 식량체계를 위한 식품과학기술의 중요성- 동북아시아의
관점, 식품과학과산업, 54(3) 102-115 (2021b)

- 이철호, 권태완, 콩의 이용 역사, 『콩』, 한국콩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편. 고려대학교출판부, 3-44 (2005)
- 최덕경, 대두의 기원과 장·시 및 두부의 보급에 대한 재검토, 『역사민속학』, 제30호, 한국 역사민속학회, 364-417 (2009)
- 한국콩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콩스토리텔링』, 도서출판 식안연 (2017)
- 한병삼, 토기와 청동기, 교양국사총서 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Barnes, G.L., 「*China, Korea and Japan, The Rise of Civilization in East Asia*」, Thames and Hudson, London (1993)
- Fukuda, Y., Cytogenetical Studies on the wild and cultivated Manchurian soybeans (*Glycine* L.), *Japanese J. Botany*, 6:489-506 (1933)
- Ho Ping-Ti, *The Cradle of the Eas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 Hymowitz, T., On the domestication of the soybean, *Economic Botany*, 24(4):408-421 (1970)
- Kwak S.K., Kim G.T. and Lee G.A., Beyond rice farming: Evidence from central Korea reveals wide resource utilization in the Songgukri culture during the late-Holocene, *The Holocene*, 27(8), 1092-1103 (2017)
- Lee, C.H., *Fermentation Technology in Korea*, Korea University Press, Seoul (2001)
- Lee, C.H., Korean Foods- History, Culture, and Characteristics, in *Korean Functional Foods* (Ed.) Park KY, Kwon DY, Lee KW and Park S., CRC Press, London (2018)
- Lee, C.H., *Korean Food and Foodways: The Root of Health Functional Food*, Springer, Singapore (2022)
- Lee, C.H. and Kim, M.L., History of fermented foods in Northeast Asia, in J. P. Tamang(ed.) *Ethnic Fermented Foods and Alcoholic Beverages of Asia*, 1-16, Springer, India (2016)
- Lee, G.A., The Chulmun period of Korea: Current findings and disclosure

- on Korean Neolithic culture, in *Handbook of East and Southeast Asian Archeology*, Ed. Habu j., Lape P.V. and Olsen J.W., Springer, 451-481 (2017)
- Lee, G.A., Crowford, G.W., Liu, L., Sasaki, Y., Chen, X., Archeological soybean (*Glycine max*) in East Asia: Does size matter?, *PLoS ONE*, 6 (11), e26720, 1-12 (2011)
- Liu, L. and Chen, X., *The Archeology of China from the Late Pleistolithic to the Bronze 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2)
- Kontis, V., J.E. Bennett, C.D. Mathers, G. Li, K. Foreman, and E. Ezzari. Future Life Expectancy in 35 Industrialized Countries: Projections with a Bayesian Model Ensemble. *The Lancet* 389(10076): 1323-1335. (2017). [http://dx.doi.org/10.1016/S0140-6736\(16\)32381-9](http://dx.doi.org/10.1016/S0140-6736(16)32381-9)
- Robbeets M., Bouckaert R., Conte M., Savelyev A., Li T., An D., Shinoda K., Cui Y., Kawashima T., Kim G., Uchiyama J., Dolinska J., Oskolskaya S., Yamano K., Seguchi N., Tomita H., Takamiya H., Kanzawa-Kiriyama H., Oota H., Ishida H., Kimura R., Sato T., Kim J., Deng B., Bjorn R., Rhee S., Ahn K., Gruntov I., Mazo O., Bentley JR., Fernandes R., Roberts P., Bausch IR., Gilaizev L., Yoneda M., Kugai M., Bianco RA., Zhang F., Himmel M., Hudson MJ. and Ning C., Triangulation supports agricultural spread of the Transurasian languages, *Nature*, 599, 616-621 (2021)
- Shurtleff W. and Aoyagi A., History of soybeans and soyfoods in Korea, and in Korean cookbooks, Restaurants, and Korean work with soyfoods outside Korea (544 CE to 2021): Extensively annotated bibliography and sourcebook, Soyinfo Center, USA (2021)
- Zhushchikhovskaya, I., On early pottery-making in Russian Far East. *Asian Perspective*, 36(2), 159-174 (1997)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한민족은 유사 이래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대를 살았다. 동북아시아의 맹주로서 이 지역 국가형성기를 선도했던 고조선인과 고구려인의 기상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사그라졌고, 요동과 흑룡강까지 뻗어났던 구토(舊土)를 잃고 압록강 이남의 한반도에 갇혀 중국문화의 변방으로 고려와 조선이 명맥을 이어왔다. 그래도 임진왜란(1592-1598)이 일어나기 전인 조선 중기까지는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 근거한 혁신과 요동 정벌의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홍익인간 이화세계(弘益人間 理化世界)의 전통이념과 유교적 가치관, 중앙집권적 법치로 일본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국가적 자존심은 쇠락하고 선비들은 성리학의 공론으로 걸들었으며, 사색당쟁으로 인해 왕권은 나약하고 정치는 부패하여 민생이 토탄에 빠져들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누루하치가 이끄는 만주족에 의해 한족(漢族)의 명(明)나라가 멸망하고 청(淸)나라(1636-1912)를 세웠으며,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현 도쿄)를 본거지로 명치유신 이전까지 265년간 계속된 에도막부(1603-1868)를 세웠다. 이와 같은 격변기에 조선은 양반계급의 횡포와 착취로 대다수의 평민과 노비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말기적 사회로 퇴화해 갔다.

1. 조선 후기 양반사회의 사회상

1.1. 천주교의 전래

조선 후기 사회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외부요인은 천주교의 전래라고 생각된다. 천주교는 조선 중엽에서 말기 사이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義)를 통해 ‘서학’(西學)이라는 학문으로서 전래했으며, 주로 중국을 왕래하던 사절단이나 역관들에 의해 유입되었다. 중국의 성리학 공론에서 벗어나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하던 조선의 실학과 지식인(선비)들과 평등사회를 염원했던 민초들에게 천주교 교리는 새롭고 충격적인 것이었다. 18세기에는 사대부의 서가에도 《도덕경》과 불경(佛經)과 함께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가 꽃혀 있었다고 한다.

실학파의 비조(鼻祖) 반계 유형원(蘅溪 柳馨遠, 1622-1673)과 그를 계승한 성호 이익(星湖 李瀾, 1681-1763)은 《반계수록》과 《성호사설》을 저술하여 정치의 길(道), 지방제도, 경제, 과거제도, 학제(學制), 병제(兵制), 관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장래에 대한 이상과 구상을 논하였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도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지어 현실의 개혁을 부르짖었다. 서학은 숙종 때의 이익에게서 크게 이해되어 마침내 그 문하에서 홍유한(洪有漢), 이벽(李穡), 이승훈(李承勳), 권일신(權日身), 정약중(丁若鍾) 등의 천주교 실천자가 배출됨으로써 서학이 종교로 발전하게 된다. 정약용 형제, 이벽, 이승훈과 권일신 등이 김범우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미사를 집전하고 교리 공부 등을 했는데, 1785년 천주교 교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주위의 고발로 포졸이 들어와 그들을 잡아들였다. 이로써 천주교의 종교 활동이 처음으로 조선 조정에 노출되었다. 이후 점차 신도가 늘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이르렀다.

천주교 신도인 윤지충과 권상연이 교리상의 금지령에 따라 조상의 신주

(神主)를 불사르자, 조선 조정에서는 천주교를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가치관에 반대하는 사학(邪學)으로 규정하고, 1791년 12월 8일 이들을 처형하였다(신해박해). 1801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승훈, 정약중 등 많은 천주교 신자들과 주문모 신부가 처형되었다(신유박해). 1839년(헌종 5년), 로랑 조제프마리위스 앵베르 주교, 피에르 모방 신부, 자크 샤스탕 신부를 비롯한 119명의 천주교인이 투옥·처형되었다(기해박해). 흥선 대원군 이하응 시대에 조선 천주교회 교세는 교인수 23,000명,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12명에 달했다. 대원군은 프랑스 천주교회 선교사들을 통해 영불동맹(英佛同盟)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자 천주교 선교사들과 신자들을 처형하는 강경책으로 바뀌었다. 1866년에 시작되어 8년여에 걸쳐서 계속된 대원군의 박해를 통해서 조선에서 선교하던 프랑스 천주교회 선교사 9명을 비롯해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절두산(切頭山), 해미읍성 등에서 순교되었다(병인박해). 1868년 9월에 벌써 박해에 희생된 사람이 2천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5백 명이 바로 한성(서울)에서 죽었다. 1870년에 조선에서 공공연히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희생된 사람의 수가 8천에 이르렀다(문갑순, 2021). 그러나 이러한 박해는 1876년 조선의 개항으로 전기를 맞았고, 1886년 조선 정부와 프랑스가 맺은 한불수호통상조약에 전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1.2. 동학의 발흥과 동학란

최제우(1824-1864)는 서학에 대항하는 유교·불교·선교 등의 교리를 종합한 민족 고유의 신앙인 동학(東學)을 창시하였다. 동학은 후에 천도교로 발전하였다. 동학의 근본사상은 ‘인내천’(人乃天)이다. 즉, 인본주의를 강조하면서, 성실과 신의로써 새롭고 밝은 세상을 만들자는 외침이었으며 어지러웠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사상이었다. 또 모든 사람은 평등함을

주장하였는데, 갈수록 신도가 늘어나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1864년 교조 최제우가 처형된 후 동학도들은 매년 교조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교조 신원 운동을 벌였다.

1882년 이후의 각종 사회 혼란과 정부의 부패로 민심이 동요하던 가운데 고부군 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도화선이 되어 농민운동이 일어났다. 1882년 구식 군대 폐지와 관련하여 5군영에 소속되었던 군인들에 의해 임오군란이 일어났으며, 이어 1884년에는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일어난다. 임오군란(壬午軍亂) 때는 흥선 대원군이 반란 세력을 등에 업고 궁중에 들어와 대권을 장악했다가 곧 청군에 의해 납치되었고,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 때 궁중을 습격한 개화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청나라군에 의해 밀려남으로써 왕권은 크게 실추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이 이 변란을 계기로 조선에 진주해 세력 다툼을 벌여 조선의 자주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민씨 정권과 고종은 친청(親淸)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모색했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혼란은 점차 가중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건 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급기야 그것은 1894년 3월 동학혁명으로 폭발되어 관군과 농민 사이의 전면전으로 발전하였다.

전봉준을 총대장, 김개남(金開男), 손화중(孫和中)을 장령(將領)으로 삼은 농민군은 1894년 음력 3월 하순에 백산에 모여 다음과 같은 농민군의 4대 명의(四大名義)와 봉기를 알리는 격문을 발표하고, 백성의 쫓겨난 호소했다. 격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2.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3.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는다.
4.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제거한다.

동학농민군의 세력은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맹위를 떨쳤다. 민씨 내각의 조선 조정은 농민군을 제거할 계획으로 일본과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전봉준의 동학군은 전라북도 전주부 삼례역 역촌에서 다시 새로운 봉기를 일으켰다. 일본군의 왕궁 점령에 분격한 농민군은 이 해 음력 9월 척왜(斥倭)를 구호로 내걸고 재기하였다. 이제는 내정 개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일본과의 항쟁이라는 반외세가 거병이 주요 목표였다. 이를 ‘제3차 동학농민운동’, 9월 봉기 또는 삼례봉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의 공격으로 동학군은 패퇴하였으며, 생포하면 막대한 포상금을 준다는 포고문을 보고 밀고한 자들에 의해 전봉준을 비롯한 주동자들이 체포되어 사형된다. 일부 농민군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산중에 은신하거나 항일 의병 전쟁에 흡수되기도 했다.

1.3. 조선인의 수명과 인구수

조선의 개국 당시 인구수는 550만 수준으로 추산되며 임진왜란(1592-1598) 직후에는 1,100만 명, 병자호란(1636-1637)을 겪은 1700년에는 1,4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표 2-1)(김재호, 2016). 표 2-1의 인구수 추산에서 1800년의 1,844만 명은 제임스 게일(Gale, 1909)의 1907년의 1,000만 명 수준, 조선총독부의 1910년 1,331명, 1920년 1,728만 명(조선총독부, 1935)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1800년대에 기근이나 전염병의 창궐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결과일 수도 있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조선 초기의 0.5% 수준에서 후기에는 0.2%대로 낮아지고 19세기말/20세기 초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서 이 시대의 어려웠던 사정을 짐작케 한다.

표 2-1. 조선시대의 인구수 변화

연도	인구수(천명)	연평균 증가율(%)
1392	5,549	
1400	5,730	
1500	9,412	0.50
1600	11,722	0.22
1700	14,359	0.20
1800	18,443	0.25
1900	17,082	-0.08
1910	17,427	
1392-1910		0.22
1911-1940		1.29
1946-2010		1.45

조선인의 평균수명은 1908년 23세, 1930년에는 30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세계 평균수명의 변화 추이를 보면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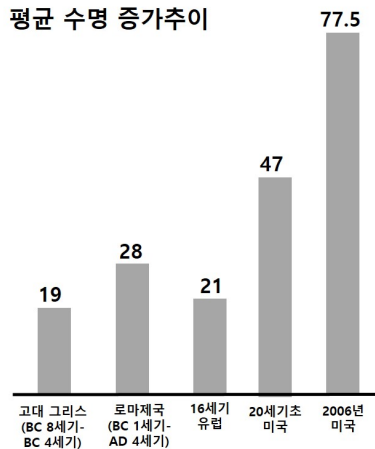


그림 2-1. 세계의 평균수명 변화 추이

*자료: WHO '세계보건통계' 등

2. 조선 후기의 식량사정

2.1. 고문헌에 기술된 조선인의 음식

조선후기에는 농업과 식품에 관한 서적들이 많이 저술되었으며 한문으로 된 원전을 번역한 서적도 많다(이성우, 1981).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저술된 서유구의 <임원십육지> 제8편 정조지(鼎俎志)는 개화 이전의 우리나라 식생활상을 나타내는 좋은 자료가 된다. 정조지는 9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제1장 식감촬요는 오늘날의 식품재료학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식품의 종류를 FAO 식품 수급표와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감촬요의 목록을 보면 물(11종)을 중요한 식품재료로 제일 선두에 놓고 있으며, 곡물(36종), 채소류(72종), 과실류(48종) 등 다양한 식물성 식품재료를 열거하는 한편 우유류와 유지류가 없는 대신 조미료를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1800년대 말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의전서(是議全書)》(저자 미상)의 내용을 보면 상권에는 장류, 김치류, 장아찌류를 제조하는 방법을 기술한 후 밥, 죽, 자반, 나물, 조치, 수정과, 화채의 순서로 기술되며, 하권에는 정과, 떡, 식혜, 조과, 생실과, 사탕류, 술, 마른안주, 제물, 두부, 묵, 엿, 감주와 같은 기호식품과 젓갈, 해조류, 건어, 생선, 채소들의 목록과 각종 반상의 구성이 도해되어 있다.

이들 문헌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개화 이전의 구한말 한국인의 식사패턴은 밥과 죽을 주식으로 하고 국, 찌개, 김치, 지짐, 나물을 반찬으로 구성하는 기본식과 국수, 만두, 떡 등의 보조식(별식) 및 정과, 음료, 술 등의 기호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시대의 특징은 다양한 곡물과 채소류 및 과실류가 이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오늘날 구황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야생식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대 사람들

의 영양섭취 상태의 평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식품종류별 섭취량에 근거하여 계산될 수 없으며 현행 식품분류 목록에 없는 다양한 야생식물로부터 영양보충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 시대에는 식의동원의 보건개념에 근거를 둔 표준 상차림이 있어 3첩, 5첩, 7첩 반상 등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은 구한말까지의 우리나라 전통식단의 기본 틀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 구성을 보면 밥, 국 혹은 찌개, 김치 및 장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나물, 구이, 조림, 젓갈, 수육, 자반, 생채, 회, 전 등이 수에 따라 첩수가 증가되는 것이다(이철호 외, 1988; 이철호, 2021). 그러나 이러한 고문헌에 수록된 대부분의 음식과 상차림은 양반가에서 먹는 음식들이며 일반 서민이나 소작민, 노비들이 먹는 음식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음식이다. 따라서 국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들의 식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이 시대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춘향전의 판소리 한 대목에 잘 서술되어 있다.

“금 술잔에 담긴 맛있는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반에 담긴 각색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춧불녹아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한의 소리 또한 높다”

양반들의 주식은 주로 쌀밥이었고 여러 고문헌에 수록된 3첩, 5첩, 7첩 반상의 갖가지 부식으로 배불리 먹었으나 대다수의 평민과 노비들, 특히 전 국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잡곡밥에 국(찌개)과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잘 먹는 것이고, 하루 세 끼를 먹기 어려웠다. 실제로 하루 두 끼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오주연문장전산고(1850년경)에는 “사람들이 2월부터 8월까지의 일곱 달 동안에만 세끼의 밥을 먹고 9월에서 정월까지의 다섯 달 동안에는 점심을 거르고 두 끼만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강인희, 1978). 그래서 흔히 “조식(朝夕)으로..”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조선 후기의 식량부족사태는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나 전염병의 창궐로 악화되어 대규모 기아사태가 빈번히 일어났으며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1734년의 기록에 따르면 전국에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백성이 72,000여 명이었으며, 1806년에는 호남에 기근이 들어 56만여 명에게 구호곡 25,000여 섬을 분배한 기록들이 있다(강인희, 1978).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조선 인구수는 1,400만-1,700만 명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 수가 상당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시대 조선인의 염원은 배불리 먹는 것이었다. 속설에 중국 사람들은 맛으로 먹고, 일본 사람은 눈으로 먹고, 조선 사람은 배로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배불리 먹는 습관은 오래된 한국인의 습관으로 굳어진 것 같다. 고려도경(1123)에 기술된 서궁(徐兢)의 견문기에도, 고려인들은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듯 자꾸 권했다고 쓰고 있다.

2.2. 서양인이 본 조선인의 식습관

19세기 중엽 중국 상해에 와 있던 유태계의 독일 상인 오페르트(Ernst Oppert)가 남긴 ‘조선기행(Oppert, 1880)’에도 조선인의 특이한 식습관이 기술되어 있다. 그는 1866년에 두 차례, 1868년에 한차례 조선을 방문했는데 한 관리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의 일과 조선 요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자꾸 많이 먹도록 권했으며, ... 같이 초대된 조선의 저명인사들은 염증이 나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는데, ... 사람들은 곧 몹시 기분 좋아 하였다... 거의 자정이 되어서야 우리를 놓아 주었다”(강인희, 1978).

한국인이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전통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음식을 질보다 양으로 판단하는 습관도 유별나다. 한국인이 주변 민족들에 비해 대식가인 것은 한국 고대사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민족은 동북아 국가 형성기에 토기문화를 바탕으로 탕/찌개문화와 발효기술이 뛰어나 영양상태가 좋았으며 체구가 장대하여 이 지역의 엘리트 그룹으로 초기국가 형성을 선도했던 민족이었다(이철호, 2021). 그 민족이 조선 후기의 난정으로 국력이 쇠퇴하고 국민은 극심한 가난과 식량부족을 겪으면서 폭식의 식습관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은둔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 1882)’을 저술한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는 조선 사람들의 폭식 습관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인의 놀랄만한 단점 중의 하나는 식사 때 보이는 폭식의 관행인데, 이것은 일본인, 프랑스인, 화란인, 중국인 등이 공통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양반이나 평민이나 가릴 것 없이 많이 먹는 것을 명예스럽고 자랑거리로 알고, 잔치의 훌륭함을 제공된 음식의 질보다는 양으로 평가한다. 식사할 때 입안 가득한 밥이 튀어 나올 까봐 말을 하지 않는다. 배꼽이 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므로 어려서부터 배가 마음껏 늘어나게 키운다. 엄마들은 아기를 무릎위에 앉히고 마치 총포에 화약을 채워 넣듯 아이가 더 이상 삼키지 못할 때까지 흔들어가며 배가 불룩하도록 음식을 채워 넣는다. 조선인들은 언제나 먹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뭐든지 먹으며, “그만”이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식사 때가 아닌 때에도 주는 것은 무엇이든 먹는다. 일반 노동자의 한 끼 식사는 쌀 1콧(1.14 리터)인데 밥을 지어 놓으면 상당한 양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양은 있으면 2-3배 게걸스럽게 먹는 식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선에서는 먹기 대회가 흔하다. 소를 잡으면 김이 무럭무럭 나는 고기더미를 담은 그릇을 내놓는데 이런 연회에서는 놀랄 일이 아니다. 개고기는 일반적인 먹거리인데 삶은 개 등심고기가 큰 쟁반에 올려 진다. 연회에서 손님들은 낮고 작은 독상을 받는다... 쇠고기는 일반

농민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며, 소의 도살은 법으로 규제되며 왕이 허락하는 특별한 연회에만 허용된다. 조선인은 음식에 까다롭거나 음식 장만에 공을 들이지도 않는다. 찜은 곡식은 모두 입에 들어간다. 그래서 음식을 버리는 것이 없다”(Griffis, 1882).



그림 2-2. 잔치집의 식사 풍경(서울, 1899-1901, 작자미상)

그리피스는 1870년부터 '74년까지 일본 후쿠이(福井) 반주(潘主) 초청을 받아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으므로 일본인들의 관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의 전통적인 식사 예법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야만적인 표현도 많다. 그러나 ‘은둔의 나라 한국’은 조선 후기와 근세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의 하나가 되었으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와 선입견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런 선입견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선인들은 지나치게 폭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기행문에서 볼 수 있다(Savage-Landor, 1985).

오페르트(Ernst Oppert)는 ‘조선기행’에서 조선의 요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조선에서 영양 수단으로 중요한 것은 쌀이며, 중국식과 같이 마른 뒤에 삶아서 밥으로 하는데, 식사 때의 주요리가 된다. 부식으로는 각종 야채, 생선, 조류 또 때로 돼지고기가 있고, 쇠고기는 별로 먹지 않는다. 그것은 목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리법은 중국과 비슷하나 일반적으로 중국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식가에게는 입에 잘 맞지 않을 것이다. 메밀, 수수, 옥수수 등과 그 외의 것도 역시 식료의 일부가 되는데, 옥수수는 갈아서 일종의 가루로 만들어 진다. 중국의 빈촌에서는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밥장수, 떡장수, 죽장수 등은 전혀 볼 수 없다.

식기는 보통 도기나 밥을 담은 흙으로 된 독사발 등이다. 중국사람 같은 식봉을 쓰지 않고 아주 긴 손잡이가 달린 토제나 나무로 된 숟가락을 쓴다. 그러므로 중국과 같이 식기를 직접 입에 대어 속에 있는 음식을 되도록 빨리 식봉으로 끌어넣는 식이 아니고, 숟가락으로써 요리를 가져가게 되어 그 식사하는 양식이 중국보다도 훨씬 우아하고 아름답다.

술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수수나 쌀로 만들며, 중국이나 일본의 ‘사케’와 비슷하여 맛이 없고 시고 탄 냄새를 풍긴다. 강한 음료를 애용하는 점에 있어 일본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식사 시에 절제한다는 것은 거의 볼 수 없다. 그들이 참으로 어떻게 무절제한 것인가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끝없이 폭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하여간 그들은 소주, 사과술 또 그 밖의 독한 술을 좋아하였다”(Oppert, 1880).

필자는 우리나라 개화기에 외국의 문물 유입에 의한 우리 식생활의 변화, 특히 미국의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1994년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안연구소(Smithsonian Institution) 내 미국역사박물관(Museum of American History)의 큐레이터 테리 샤라 박사(Terry Sharrer) 연구실에서 한 학기 동안 방문연구자로 지낸바 있다. 그 때 서양 사람들이 쓴 견문록

약 40여 편을 수집했는데, 여러 편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백주에 길에서 싸움을 벌이는 광경을 기술하고 있었다. 1800년대 구한말 민초들의 한(恨)과 우리사회의 퇴폐적인 풍조를 엿볼 수 있었다. 기독교가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술을 금하도록 한 까닭을 이해할 것 같았다(Lowell, 1886; Carles, 1888; Underwood, 1904).

조선의 수도 서울에 대한 인상도 대단히 더럽고 비위생적이며, 고압적으로 서있는 왕궁은 왕권의 횡포와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로 얼룩진 현장으로 묘사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20%가 양반이나 관가에 붙어서 양민을 수탈하여 놀고먹는 사람들이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썼다. 조선은 군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중국과 일본의 대치 사이에서 안주하므로 군인들은 경찰처럼 청탁을 해결하는 정도의 일을 한다. 조선 인들은 거의 몸을 씻지 않는 반면 옷은 대단히 깨끗하게 그것도 흰옷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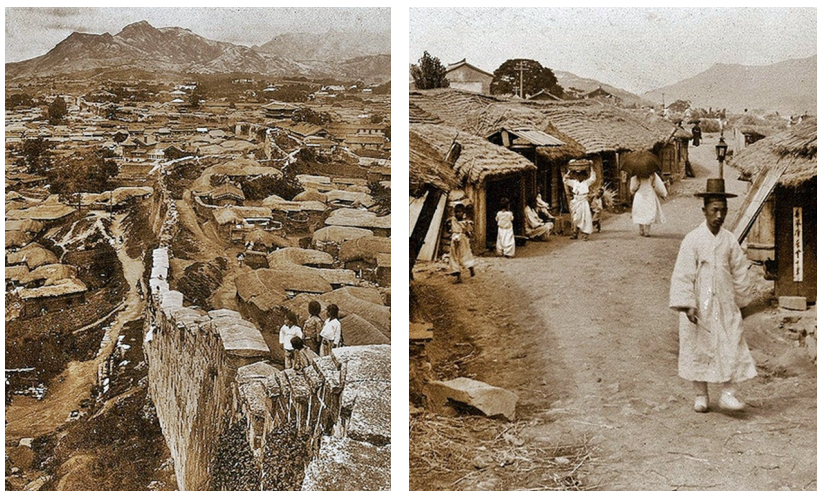


그림 2-3. 동대문 성곽에서 본 남대문(승례문)과 인왕산 기슭(좌)과
서울 근교의 거리 모습(우) (Photo 1800년대 말, 작자미상)

입는다. 이것은 몸은 열심히 씻으나 옷을 더럽게 입는 일본인들과 대조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인은 긴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피운다(Cavendish, 1894). 이러한 부정적인 묘사는 단기간 조선에 머무른 여행자들의 기록에서 주로 나타난다.

구한말의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모든 방면에서 의욕을 상실한 무기력한 사회의 단면을 보이고 있었다. ‘수도에서 본 한국(Korea from its Capital)’을 쓴 조지 길모어(Gilmore, 1892)는 농지의 1/20은 경작하지 않고 있으며, 광물자원이 풍부함에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해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적었다. 삼면이 바다임에도 수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며, 서울 근교에는 숲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했다. 산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낮은 지역은 벼를 심고 높은 지역은 과일이나 채소를 심는데 대부분의 토지가 왕의 소유이거나 양반의 소유이므로 소작으로 착취당하는 농민들은 경작할 의욕을 상실하였다, 축력을 사용하고 쟁기를 사용하는데 밭갈이 방식이 대단히 후진적이었다. 사과와 배는 품종이 개량되지 않아 맛이 없었으며, 자두, 살구, 복숭아 등이 생산되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가을에 수확하는 감인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맛있는 품질이었으며 말려서 껏감을 만드는 것도 특이하다. 대추도 많이 생산되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설사를 일으켰다. 참외, 오이, 가지, 양파, 호박 등이 생산되었으며, 상추, 배추, 오이가 많이 생산되고 중요한 음식이다. 이들 채소를 날것으로 먹기 때문에 콜레라 발생이 자주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감자는 북쪽지역, 고구마는 남쪽에서 생산되며, 고구마 생산은 일본에 비해 아주 적었다. 콩의 생산이 많았으며 특히 겨울에 콩나물을 키워 먹는다. 고추의 생산도 많아서 거의 모든 음식에 고추를 사용한다. 조선 고추는 미국 고추처럼 맵지 않으며, 가을에는 빨간 고추를 지붕이나 마당에 널어 말리는데 산에서 내려다보면 대단히

아름다운 경치를 만든다고 썼다. 조선의 주곡은 쌀이지만 생산이 수요에 못 미쳐 항상 모자란다고 한다. 보리가 다소 생산되나 밀은 대단히 적다. 반면에 좁쌀은 제법 생산된다. 주요도시에는 곡물창고가 있어 세금으로 걷어드린 쌀을 주로 보관한다. 밤의 생산이 많아서 음식에 많이 사용된다. 소는 대단히 큰데 일하는 소이며 우유를 생산하지 않는다. 반면 말과 당나귀는 대단히 작다. 닭을 많이 키우며, 달걀은 10개를 길이로 나란히 놓고 짚으로 포장하는 것이 이색적이다. 한국의 인삼은 중국에서 명약으로 알려져 이어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왕의 전매품으로 개인은 수출할 수 없다. 한국인은 낚그릇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 식기와 수저를 금속으로 만들어 쓰지만 수출하지는 않는다(Gilmore, 1892).

오페르트(Oppert, 1880)는 한반도의 비옥한 토양과 아름다운 강산, 그리고 특히 온화한 날씨에 놀라면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의 날씨는 남부 유럽과 유사해서, 인도나 중국처럼 강렬한 태양과 열기로 외국인들이 졸도하는 염려가 없다. 콜레라와 이질이 가끔 만연하지만 기후 때문에 생기기보다는 사람들의 무지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봄과 가을에는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훌륭(magnificent)하다. 그래서 이곳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후로 인해 식물이 잘 자라고 도처에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꽃들이 자생하고 있다. 산에는 숲이 울창하고 사람들은 약초를 캐러 다닌다. 숲에는 호랑이를 비롯한 표범, 곰, 멧돼지 사슴들이 살고 있으며, 조선의 호랑이 표피는 가장 크고 고급 제품이다. 그러나 가축은 많지 않다. ...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한국은 황무지이고 사람이 살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어서 외국에서 애써 개항을 위해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들 말하는데 와서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편견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며, 일부는 조선 조정이 외국의 관심을 흐리게 하기 위해 일부러 퍼뜨린 소문일 수도 있다. 하여튼 조선인들은 그들의 나라가 얼마나 값진 자연자원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가꾸면

그 땅이 엄청난 선물을 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터무니없이 등한시하고 있다.”

아와 같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다. 도시지역을 주로 봤는지, 아니면 산림을 관찰했는지에 따라 다른 평가, 상반된 내용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대 우리 선조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받고도 제대로 관리하지도 이용하지도 못했으며 굶주림에 시달리며 실의에 찬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3. 개항 이후의 국제 교역

조선은 1876년에 개항을 했는데 1888/89년 수출입 내역은 표 2-2와 같다(Cavendish, 1894).

표 2-2. 조선 후기(1888/1889) 조선의 수출입 통계

	1888년	1890년
수 입	\$3,046,443	\$4,727,839
수 출	867,058	3,550,478
관세 순수입	267,215	514,600

1890년 수입액 중 국가별 기여도를 보면 영국이 57%, 일본 19%, 중국 12%, 기타 독일,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순이다. 주요 수출품은 곡물과 어류이다(Cavendish, 1894). 1890년도 곡물 수출량은 표 2-3과 같다. 쌀이 52,946톤(200만 달러), 콩이 39,923톤(100만 달러)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결국 전체 수출액의 87%가 곡물 수출임을 알 수 있다.

쌀과 콩은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특히 콩은 일본의 두부, 미소(일본 된장), 간장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 이들 자료로부터 산출한 톤당 가격은 쌀 39달러, 콩 25달러, 밀 22달러, 보리 21달러 순이다. 1990년대의 톤당 국제 곡물가격, 쌀 300달러, 콩 200달러, 밀 120달러 수준에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표 2-3. 1890년도 조선의 곡물 수출량(Cavendish, 1894)

	수출량(톤)	수출액(달러)	톤당 가격(달러)
쌀	52,946	\$2,057,868	\$38.87
콩	39,923	1,004,762	25.17
밀	2,664	60,381	22.66
보리	2,388	50,341	21.08

(주) Cavendish(1894)의 자료를 재구성: 1￦ = 9.23\$(당시 환율)

나머지는 어류 가공품으로 건조품, 염장품, 비료용 등이며 1890년의 수출액은 434,000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함경남도 북청 이북 해역에서 잡히는 명태는 대단히 유명한데 말린 북어의 형태로 수출 되는데 원산항에서 수출되는 것만 359,000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 어류 수출액의 82%를 차지한다. 고래는 부산 해역에서 주로 일본인들이 잡고 있으며 서해안에서는 중국인들이 청어잡이를 하고 있다(Cavendish, 1894).

당시 외국인에 개항된 항구는 제물포(인천), 부산, 원산이었는데 각 항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통계는 표 2-4와 같다(Cavendish, 1894).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아 총 6,435명, 중국인이 517명, 독일인과 영국인이 각각 23명, 13명이었다. 외국인은 부산항에 제일 많아 4,184명, 제물포항에 2,078명, 원산항에 739명이었다.

표 2-4. 1890년 조선 3개항에 거주한 외국인 수

	제물포	부산	원산	합계
미국인	4	-	-	4
오스트리아인	3	-	-	3
영국인	7	4	2	13
중국인	425	47	45	517
덴마크인	-	-	1	1
프랑스인	2	-	-	2
독일인	19	2	2	23
이태리인	1	1	-	2
일본인	1,616	4,130	689	6,435
스페인인	1	-	-	1
합계	2,078	4,184	739	7,001

조선 후기의 식생활과 식량부족에 관한 국내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18-19세기의 고 문헌에 기술된 음식 조리법이나 상차림은 전체 국민의 10%도 안 되는 양반가 사대부들의 음식이며 일반 서민이 먹는 음식이나 식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서양 사람들의 기행문에서 자료를 찾는 것은 이들이 중국이나 일본사람들 보다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덜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미국의 스미소니안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근세사에 관한 자료를 비교적 많이 찾을 수 있었다. 근세 우리나라의 식생활을 언급한 가장 오래된 서양문헌은 아마도 1653년 제주도에 표류한 하멜(Hendrick Hamel)의 표류기일 것이다(Hamel, 1668). 난파선에서 표류한 38명의 선원들이 제주 해변에서 처음 주민들에게 얻어먹은 음식은 쌀을 끓인 죽이었는데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굶어 갑자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죽을까봐 미음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조금

양은 많았지만 쌀밥만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필자가 찾은 두 번째로 오래된 문헌은 1818년 맥로드(Hohn M'Loed)가 쓴 항해(Voyage)라는 책으로 한국 해안에 대한 최초의 항해 기록이다. 중국을 출발해 산둥반도를 지나 한반도 서해안(북위 37°45', 동경 124°40')에 도착하여 남쪽으로 북위 34°26' 지점까지 내려오면서 섬들과 사람들을 만난 기록이다. 큰 갯을 쓴 촌장을 만나 손짓발짓으로 소통하며 주민들의 표정을 읽은 글을 남기고 있다. 그들은 온순하고 협조적이었으며 촌장의 말에 순종하였다. 촌장이 글을 썼는데 해독할 수 없어 항해가 끝난 후 중국에 돌아와 알아보니 “누군지 알 수 없는데 이곳에서 뭘 합니까?”였다고 한다. 책에는 조선사람 가족과 촌장과 주변의 관원들을 그린 그림 2점을 수록하고 있다. 사람들은 기꺼이 물과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으며 자유롭게 평화로웠다. 그들은 필요한 곡식을 충분히 재배하며 소를 키우고 생선을 많이 먹는다. 맥로드는 그의 책에서 아래와 같은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 한국에 관한 지식을 주로 중국의 예수회 사람들(Jesuits)을 통해 접하는데, 그들은 모든 면에서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다. 특히 지리, 문학, 예절이나 풍습의 기술에서 그들의 미신과 연관 없으면 그들의 유별난 문자체계에서 조작하고 사실을 기만한다. 한국은 삼년마다 충성 표시를 하는 사절을 중국에 보내야하는 중국의 속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와보니 이 나라는 주권이 확고하고 국민이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주변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가장 믿을만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북서쪽으로는 큰 산맥으로 돌궐과 분리되어 있고, 요동과는 협곡으로 분리되었으며, 서쪽은 황해이며 동쪽은 동해와 86마일의 대한 해협으로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있다”(M'Loed, 1818).

4. 대한제국의 성립과 개화기의 사회상

4.1. 대한제국의 성립

1897년 10월 12일 조선왕국의 26대 왕 고종이 환구단에 올라 하늘의 신 황천상제에게 고하고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로 하여 황제로 즉위했다. 임오군란 이후의 청나라의 간섭과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을 위시한 외세로 말미암아 열강 세력의 이권 침탈을 비롯한 국가의 자주성이 크게 위협받자 자주성을 띤 국가 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그야말로 썩어가는 고목에 새순을 틔우려는 안간힘이었다. 고종은 1863년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10년을 그의 부친 대원군 이하응의 섭정 그늘 아래 있다가 1873년부터 친정을 시작했다. 그의 치세는 외세의 침략과 천주교와 기독교의 유입으로 인한 개화기의 사상변화, 동학운동,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의한 일본의 패권 장악 등으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불운한 시대이다. 표 2-5는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 배경을 요약한 것이다.

표 2-5.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의 배경

고종의 즉위(1863)	조대비의 수렴청정, 흥선대원군의 섭정
경복궁 중건(1865)	원난전, 당백전 발행, 국고의 고갈, 초인플레이션 초래
병인양요(1866)	천주교에 대한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함대 강화도 침공
신미양요(1871)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책임과 통상교섭을 명분으로 미국이 강화해협 침범
고종의 친정 시작(1873)	대원군의 실각, 호포제, 사창제, 서원철폐, 호전의 혁파
운요호 사건(1875)	일본 해군선이 해안탐사를 빙자하여 강화도와 영종도 습격
강화도 조약(1876)	조선과 일본이 맺은 12개 조항의 조일수호조규. 불평등 조약
임오군란(1882)	구식군인의 차별에 대한 반란, 청나라 대원군 납치, 명성황후의 복귀

갑신정변(1884)	급진 개화파들이 일본의 지원으로 정변, 삼일천하, 한성조약, 텐진조약
동학농민운동(1893)	천주교의 합법화에 자극받은 동학이 합법화를 요구
청일전쟁(1894)	동학란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조선에서 벌인 전쟁. 시모노세키조약
갑오개혁(1894)	일본이 조선정부에 간섭한 제도개혁, 계급제도 타파, 노비매매 금지 등
을미사변(1895)	일본군 한성수비대에 의한 명성황후의 암살, 시체유기
아관파천(1896)	고종, 러시아 공관으로 1년간 피신
대한제국 선포, 광무개혁(1897)	외세의 배제와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선언

산업혁명을 일으킨 유럽 국가들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넘쳐나는 재화를 소비할 해외 시장이 필요했으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문호를 개방할 것을 강요했다. 그들은 발달한 해양술과 신식 무기로 장착된 함대를 이끌고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까지 진출했다. 무력으로 조선 정부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외국인들은 천주교를 앞세워 그들의 영향력을 넓혀갔다. 이로 인해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많은 양민이 살해되었다.

4.2. 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약(또는 병자수호조약)은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만든 불평등 조약의 시작이었다. 1875년 5월 일본정부가 파견한 운요호 등 순함 3척이 동래 앞바다에서 함포사격을 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고, 함경도 영흥만까지 북상했다가 돌아갔다. 다시 3개월 뒤 운요호는 강화도 초지진과 영종도 영종진을 포격하였고, 약탈과 살상까지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1876년 1월 일본 육군중장 구로다(黒田清隆)가 8척의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에 와서 400명을 무단 상륙시키고 무력으로 위협하며 회담을 강요하였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조약은 일본이 요구한 13개 조항 가운데 최혜국대우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조선 정부의 요구는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다(이남택 외, 2005). 제1관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조선과 청국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의 조선침략을 청국이 저지할 가능성을 봉쇄한 것이다. 부산 이외의 2개 항구를 개항하도록 한 제4관이나, 일본의 해안 측량을 허가한 제7관은 일본의 군사적 침략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자유무역을 규정한 제9관은 조선의 영세한 산업과 상인의 보호를 불가능하게 만든 규정이었으며, 제10관 치외법권 조항은 조선영토에서 발생한 일본인의 범죄를 일본 관원이 재판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11관에 의거하여 1876년 6월에 체결한 수호조규 부록과 조일통상장정은 일본화폐의 유통과 관세주권의 포기, 그리고 미국의 무제한 수출 허용 등이 규정되었다. 이것은 결국 조선경제를 일본경제에 강압적으로 예속시킨 조약이었다(이남택 외, 2005).

이 조약의 체결로 오랫동안 지탱해온 쇄국정책이 끝나고 1876년 조선의 개항이 시작되었다. 부산, 제물포, 원산항 3개항이 개방되었다. 이 조약을 계기로 조선의 서구문화 수용이 시작되었으며, 상당부분 일본을 통하여 이루어져 불평등 조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보다 20년 앞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굴욕적인 통상조약을 맺은 일본은 조선에 대해 꼭 같은 불평등 조약을 강요했으며, 조선이 서양 국가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도록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다. 일본은 조선에서의 경제침탈을 매개로하여 자본을 축적해 나갔으며, 한국을 식민지화 시킬 수 있었다. 표 2-6은 강화도 조약 이후 대한제국이 체결한 수교국들이다.

표 2-6. 대한제국의 통상 수교 연표

일본 제국(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
미국(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
대영 제국(1883년 11월 26일)	조영수호통상조약
독일 제국(1883년 11월 26일)	조독수호통상조약
이탈리아(1884년 6월 26일)	조이수호통상조약
러시아 제국(1884년 7월 7일)	조로수호통상조약
프랑스(1886년 6월 4일)	조불수호통상조약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92년 6월 23일)	조오수호통상조약
청나라(1899년 9월 11일)	한청통상조약
벨기에(1901년 3월 23일)	한백수호통상조약
덴마크(1902년 7월 15일)	한정수호통상조약

4.3. 외국인 거류지와 국제교역

표 2-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90년에 7,001명이던 3개항(제물포, 부산, 원산) 외국인들이 1897년에는 11,278명으로 증가하였다(표 2-7) (Bird, 1905). 시간이 갈수록 일본인 거주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며 중국인은 감소하였다. 전체 외국인 중에서 일본인의 숫자가 10,771명으로 95%를 차지하였다. 제물포항은 조선인 거주자가 6,757명인데 반해 외국인 거주자가 4,357명으로 상당수(39%)를 차지했다.

표 2-7. 1897년 3개항의 외국인 거류자수

	제물포	부산	원산	합계
일본인	3,904	5,508	1,299	10,711
중국인	404	34	39	477
영국인	15	10	2	27
미국인	7	7	8	22
독일인	12	2	3	17
프랑스인	7	1	2	10
노르웨이인	3	-	1	4
그리스인	3	-	-	3
이태리인	1	1	-	2
덴마크인	-	1	1	2
러시아인	-	-	2	2
포르투갈인	1	-	-	1
합 계	4,357	5,564	1,357	11,278
조선인 거주자	6,757	33,000	15,000	54,757

5. 개화기의 식량사정

5.1. 개항 이후의 국제교역

이들 3개항을 통해 수출된 상품은 주로 식량 자원이었는데 1895년과 '96년의 통계자료는 표 2-8과 같다(Bird, 1905). 당시에 수출품의 가장 큰 품목은 쌀과 콩이었으며, 1896년 쌀과 콩의 수출액은 378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 472만 달러의 80%를 차지했다. 쌀과 콩의 가장 큰 수출항은 부산항이었으며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인삼과 건어류, 말린 해조류(김)가 수출되었으며 소가죽과 종이(한지)도 주요 수출품이었다.

표 2-8. 1895년과 1896년 조선의 3개 항구에서 수출된 품목과 수출액

	제물포		부 산		원산	
	1895	1896	1895	1896	1895	1896
쌀	\$575,860	\$853,258	\$162,872	\$1,650,800	-	\$5,067
콩	421,617	447,516	206,170	606,697	\$295,812	222,738
인삼	5,307	274,491	-	-	-	-
여류(건조품)	-	-	5,898	39,652	2,880	40,557
해조류(김)	369	508	35,157	61,887	-	-
소가죽	129,552	81,122	343,587	102,241	56,783	40,833
종이	16,475	21,469	20,638	16,669	83	226
기타	82,996	117,340	86,402	125,832	33,136	19,392
합계	1,232,176	1,795,704	860,724	2,603,778	388,694	328,813

(주) Isabella Bird(Mrs. Bishop) (1905) 자료를 재구성: 1£ = 9.23\$(당시 환율)

표 2-9는 개항이후 1886년부터 1896년까지 3개항을 통한 수출액과 수입액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Bird, 1905). 교역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남긴 이사벨라 버드(Isabella Bird) 주교는 실제 교역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주를 달고 있다. 이들 수치는 교역이 허용된 3개항에서 공식적으로 수출입된 액수이고, 3개항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교역된 양이 적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의 주요 수입품은 목화(면직물, 무명, 실 등) 제품이었으며 1895년 전체 수입액의 56%를 차지했다. 그 외 모직물, 금속류, 염료, 모시, 성냥, 석유, 식량, 일본술(사케), 비단 등이었다.

표 2-9. 조선의 개항이후 3개항을 통한 수출입액 변화

년도	총 수입액	총 수출액	총 교역액
1886	\$2,474,185	\$504,225	\$2,978,410
1887	2,815,441	804,996	3,620,437
1888	3,046,443	867,058	3,913,501
1889	3,377,815	1,233,841	4,611,656
1890	4,727,839	3,550,478	8,278,317
1891	5,256,468	3,366,344	8,622,812
1892	4,598,485	2,443,739	7,042,224
1893	3,880,155	1,698,116	5,578,271
1894	5,831,563	2,311,215	8,142,778
1895	8,088,213	2,481,808	10,570,021
1896	6,531,324	4,728,700	11,260,024

5.2. 서민층의 영양상태

1895년 동경의학잡지에 발표된 ‘한인 상식 조사표’는 동절기에 한국인 종류 서민층(상인, 노동자) 8인을 대상으로 7일간의 식사를 실측법으로 조사한 결과로 아마도 한국인의 영양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자료로 평가된다(이기열 외, 1998). 주목할 점은 이 시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일 2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문수재(1989)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8인의 7일간의 식사인 110회의 끼니에 사용된 식품의 가짓수는 불과 21종이었으며, 출현빈도가 40% 이상인 종류는 10종에 불과하였다. 동물성 식품으로는 쇠고기의 빈도가 40%였으며, 해산물로는 주로 멸치, 새우젓, 조개젓과 같은 저장식품 형태의 것을 섭취하고 있었다. 이들 자료에 근거하여 영양섭취상태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당질,

단백질, 지질의 섭취량은 각각 2,638kcal, 558.2g, 80.5g, 17.2g으로, 오늘날(1985년)의 영양권장량에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았으나, 비타민 C와 비타민 B1은 권장량의 75% 미만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에너지 구성비는 당질 : 단백질 : 지방질이 82.4 : 12.0 : 5.6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급원은 77.7%가 식물성이었으므로 당시의 식생활은 질보다 양이 위주였음을 알 수 있다(문수재, 1989).

그러나 위의 연구는 당시 비교적 여유 있는 가정의 식사 수준이라 사료되며, 대부분의 국민은 쇠고기 구경을 별로 하지 못하는 삶을 산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인의 밥상이 아침, 점심, 저녁이 하나같이 동일한 상차림으로 나온다는 것은 서양인에게는 유별난 것으로 보여 한국을 여행한 서양인들이 남긴 견문록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주는 치즈를 맛보고 구역질하는 한국인의 모습도 일제시대 까지 빠지지 않는 기사거리였다(Drake, 1930).

5.3. 서양인이 본 조선말기 생활상

고종의 황실 고문이었던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는 가장 한국에 대한 연민과 공정한 시각으로 글을 남긴 사람이다. 그는 1906년에 출판한 한국여행기(The Passing of Korea)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고통스러운 격동기에 제대로 평가받기 보다는 악의에 찬 비평으로 시달림을 받아온 한국인의 실상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랑의 사역이다. 한국인은 수적으로 중국에 가리우고, 일본에게는 꺾(wit)에 치인 민족이다. 그들은 중국인처럼 명석한 상인도 아니며, 일본인처럼 싸움을 잘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훨씬 영국인(Anglo-Saxons)의 기질에 가깝고 극동 지역의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함께하기 좋은 유쾌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실패는 세계

흐름에 대한 무지에 따른 것이나 기회가 호전되면 그들의 처지를 곧 개선할 것이다”(Hulbert, 1906).

헐버트는 한국인과 조선 정부, 고대 역사와 중세 한국사, 그리고 이 장에서 논하는 한국 근세사에 대해 소상히 기술하면서 저자가 직접 보고 들은 한국의 언어, 문화, 예술, 교육, 사회제도와 풍습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한국의 임업, 과수, 곡물생산, 특히 쌀과 조/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과 콩, 보리, 밀, 고추, 배추, 무, 김치, 미나리, 감자, 마늘, 시금치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인삼의 재배와 품질, 중국으로의 수출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꽃을 대단히 좋아하고 봄에 피는 진달래와 길가에 피는 으아리와 인동을 극찬하고 있다. 그는 인동을 금은화(gold and silver flower)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한국의 산업에 대해 여러 가지를 기술하고 있으나 아직 식품산업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한국인이 온돌을 뜨겁게 데우느라 산에 나무와 검불을 다 걷어 때므로 산이 황폐해 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인의 난방양식과 비교하여 “일본인은 추위에 떨며 산의 경치를 즐기나 한국인은 온돌의 따뜻함을 즐긴다”라고



그림 2-4. 서울의 나무장사(photo 1800년대 말, 작자미상)

묘사하고 있다. 도시에는 소와 당나귀에 나무를 실은 나무장사 행렬로 붐비는데 겨울에 난방비로 생활비의 1/4을 쓴다고 기술하고 있다.

1908년에 출판된 호레이스 알렌(Horace N. Allen, M.D.)의 여행기 ‘한국의 사물(Things Korean)’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알렌은 의사로 중국에서 1년, 조선에서 3년 의사로 생활했고, 그 이후 18년을 외교관으로 조선에 머문 사람인데, 당시 한국의 사정을 여러 가지 일화로 기술하고 있다(Allen, 1908). 한국의 주곡은 쌀이며, 그 다음으로 콩인데 이것으로 두부와 콩떡을 만들고 특히 장(醬)을 만드는데 품질이 좋아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되어 영국식 소스를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썼다. 조,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과 목화, 채소류가 생산된다. 밥이 주식이며 콩과 국수도 먹는 데 낮은 독상에 차려 먹는다. 국과 생선, 고기 등의 반찬과 함께 먹는데, 소금에 절인 무와 배추(김치)를 무미한 밥과 함께 먹는다. 김치를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악취로 내다 버리라고 했는데 마늘을 넣지 않은 김치는 맛있게 먹게 되었다고 한다(Allen, 1908). 한국에는 ‘부엌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유래는 옛날에 궁중에서 상궁이 임금의 간식으로 농익은 감을 상에 담았는데 바람이 불어 먼지가 덮혔다. 상궁은 먼지를 닦으면 감이 터질 것이라 울고 서있는데 갑자기 피가 생각이 나서 먼지 묻은 감을 입으로 훔아서 다시 담아내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알렌의 전문기에는 이런 일화들이 많다. 이들 내용을 보면 구한말 한국인의 음식은 지금 우리가 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1909년의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의 ‘전환기의 한국(Korea in Transition)’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Gale, 1909). 그는 한국을 쌀의 나라(land of rice), 벼는 모든 작물의 황제라고 표현하고 전 국토가 부산에서부터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논으로 뒤덮혀 있어 다른 작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콩과 보리, 참깨들이 있으나 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배, 복숭아, 사과, 대추 등이 있으나 야생종에 가깝지만, 한국의 감은 세계 최고의 과일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담배는 1645년 청나라 대사로 나가있던 조선왕자 장유(Chang-yu)에 의해 전래되었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피운다며, 동양작가 에손 서드(Esson Third)의 글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였다.

“나는 북경주재 미국대사 로크힐(Hon. W.W. Rochhill)로부터 한국인은 세계에서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라고 들었다.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물론 그렇다. 그러나 실제 담배 소비량은 서양인보다 훨씬 작다. 한국인은 그냥 긴 파이프를 입에 물고 즐기고 편안히 즐기기도 한다.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건지 담배가 사람을 피우는 건지 알 수 없다. 담배를 피우면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담배연기가 그의 영혼을 편안하게 잠재운다. 반면 서양인들은 담배를 맹렬하게 빨아대고 꾹초를 씹고 연기를 빨아들여 한 시간 안에 조선인들이 하루 종일 피운 양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 한국인에게 흡연은 남녀노소 모두가 새벽닭이 울 때부터 밤에 소등할 때까지 하는 일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자를 찾기 어려운 것은 마치 10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사내아이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Gale, 1909).



그림 2-5. 담뱃대를 물고 있는 호랑이 사냥꾼들(좌)과 바둑을 즐기고 있는 여인들(우)
(1800년대 말, 작자미상)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냥꾼이나 여염집에서 바둑 두는 아낙이나 여아들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

게일은 한국사람들의 유별난 식습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한국인은 아직 사탕을 모르고 있다. 꿀이 소량 사용되고 있으나 초콜릿 크림이나, 편지, 청량음료를 본 적이 없다. 단것보다는 짠 것과 매운 맛을 좋아한다. 그들은 장아찌, 나물, 국 등에 고추장(chilli sauce, chilli soy), 소금, 고춧가루를 버무려 먹는다. 외국인들은 한국음식을 먹을 때 자주 입을 벌리고 부채질은 심하게 하며 찬바람을 들이 마신다. 무미한 쌀밥에 배추김치, 국, 콩, 간장 등을 먹는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 찢찢 매는 모습이 마치 불타는 석탄덩어리를 입에 넣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음식이 조선 사람들이 매일 먹고 일 년 열두 달 먹는 음식이다. 그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 민족이 아니며, 서양인이 먹는 고기, 감자, 빵 대신 쌀, 콩, 배추를 먹는다. 이렇게 단순한 음식을 먹지만 한국인은 대단히 건강하고 힘이 세다. 말처럼 일하고 엄청난 무게의 짐을 나를 수 있다”(Gale, 1909).

게일은 한국인의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글을 남겼다.

“조선인의 영혼은 중국인의 아들이지만 언어는 일본과 더 관계가 있어 보인다. 일본인은 영어의 걸(girl)을 ‘게이루’라고 말하고, 중국인은 아메리칸(American)을 ‘아멜리칸’으로 발음하지만, 한국인은 엘(L)과 알(R)을 모두 발음할 수 있다. 한국인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나, 그들의 가슴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기에는 때가 오면 한국인은 그들 중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일어설 것으로 확신한다”(Gale, 1909).

게일은 이미 100년도 더 전에 한국의 오늘을 예언한 것 같다. 디지털시대에 한국인의 언어와 문자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게일이 수록한 당시의 조선인 인구 통계는 표 2-10과 같다. 충청도를 동과 서로 나누었는데 현재 체제에 맞게 남과 북으로 고쳤다. 이 표에 제주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표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조선의 총 인구는 1천만 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는데 표 1의 자료와는 차이가 많다. 표 1에는 1900년의 조선 총 인구를 1,70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 2-10의 자료는 일본 기독교회 자료(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에서 인용된 것이므로 부정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상도와 황해도에 인구가 비교적 많고 경기도가 작은 것은 오늘날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10. 1907년 발표된 조선인 도별 인구 통계

도 명	인구수
전라북도	597,393
전라남도	850,635
충청북도	491,717
충청남도	649,756
함경북도	390,055
함경남도	582,463
강원도	627,832
경기도	869,020
경상북도	1,062,991
경상남도	1,270,214
평안북도	600,119
평안남도	689,017
황해도	901,099
합계	9,581,311

5.4. 개화기 외래 식품의 전래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에도 서양의 문물은 계속 유입되었다. 우리나라에 서양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한 첫 저작물은 유길준(1856-1914)의 ‘서유견문(西遊見聞, 1895)’이다(강인희, 1978). 유길준은 1881년 일본으로 유학한 최초의 유학생이며, 1883년에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었다. 그는 수년간의 유학과 서구 여행을 통해 배운 것을 서유견문에 수록하였는데, 모두 20편으로 서양의 지리적 조건으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 학술의 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 책 제16편 ‘의복 및 주택 제도’에 서양의 음식 제도에 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음식은 사람의 원기와 혈액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조리하는 방법이 거칠어 소화시키기 어렵다면,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체증으로 평생의 고질이 되기도 한다. 혹은 사람의 생명이 이런 것 때문에 천수를 다하지 못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식료품을 이화의 법으로 실험하여 그 품질을 규명한 연후에, 그것이 가진 이로운 점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서양 사람들에게 체증이 드는 이유는 사실은 음식물에 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이 마시는 물도 더러움에 오염되어 있게 되면 이를 마시는 이들의 병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므로 깨끗한 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더러울 염려가 있으면 반드시 여과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쇠고기도 너무 익히면 사람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하여 반쯤 익히며, 또 그대로는 독이 있다 하여 반드시 감자와 함께 먹어서 그 독을 중화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인희, 1978).

유길준은 이 책을 통해 서양의 앞선 식품위생과 영양학의 개념을 소개하고, 식사기구와 그릇의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음식의 종류와 풍습을 소개하고 있다. 서양 사람들의 주식은 빵, 버터, 생선, 육류이며, 차나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송냥이나 냉수 마시듯 한다는 사실을 소개 했다.

한편, 선교를 위해 입국한 가톨릭 신부와 기독교 선교사들이 빵을 들여왔고 서양 외교관들이 커피를 소개했다. 그러나 조선에 서양식 빵이 공식 등장한 것은 1885년 손탁(Antoniette Sontag)에 의해서였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함께 조선에 온 손탁은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감각을 지녀 고종과 명성황후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다. 고종은 손탁이 배일운동의 거점을 만들어 주길 원했고 이를 위해 왕실의 토지와 가옥을 하사했다. 정동에 들어선 손탁빈관에는 정동구락부로 불리던 개화파와 외교사절들이 모여들었다. 손탁은 이들에게 빵과 커피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서양식 빵의 등장으로 알려져 있다. 7년 후인 1902년, 손탁빈관은 서양식 호텔인 손탁호텔로 거듭났다. 손탁은 호텔 1층에 레스토랑을 열어 카스텔라와 쿠키, 커피 등을 정식으로 판매하였다. 당시 조선인들은 손탁호텔의 서양식 빵을 면포라 불렀고 부드러운 카스텔라를 눈처럼 흰떡이라 하여 설고(雪飴)라 불렀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우리 고유의 술인 탁주와 소주는 가정이나 객주집에서 생산되었으나, 일본인에 의해 1883년부터 공업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1883년 1월 부산에 최초의 청주공장을 세운 뒤 전국에 청주 제조공장을 설립했다. 1906년 인천에 설립된 조일양조주식회사, 조선인이 경성에 세운 중립양조소를 시작으로 소주와 탁주공장이 전국적으로 들어섰다. 가공한 형태로 조선에 등장한 최초의 식품은 1892년 일본인이 전남 완도에 세운 전복통조림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다.

참고문헌

- 강인희, 한국식생활사, 삼영사, p.252 (1978)
- 김재호,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 생각의 힘 (2016)
- 문갑순, 한국 천주교 순교 성지를 찾아서, 도서출판 프리뷰. p.205 (2021)
- 문수재, 19세기 말엽 한국인의 식생활 양상과 체위에 관한 생태학적 분석, 한국영양학회지, 22(3): 194-208 (1989)
- 이기열, 이기원, 박영심, 박태선, 김은경, 장미라, 한국인의 식생활 100년 평가 (I), 신광출판사, p.21 (1998)
- 이남택 외 9인, 사실로 본 한국 근현대사, 장병 정신교육 발전 연구위원회, 도서출판 황금알 (2005)
- 이성우,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1981)
-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도서출판 식안연 (2021)
- 이철호, 주용재, 안기옥, 류시생, 지난 일세기 동안의 한국인 식습관의 변화와 보건영양상태의 추이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3(4), 397-406 (1988)
- 한국식품산업협회, 국민과 함께 걸어온 식품산업 반세기, 한국식품산업협회 50년사, 경성문화사 (2019)
- Allen, H.N.. *Things Korean*, Fleming H. Revell Co., New York. p.119 (1908)
- Bird, I. (Mrs.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he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Vicissitudes and Position of the Country, John Murray, London. p.305 (1905)
- Carles, W.R.. *Life in Corea*, Macmillan and Co., New York (1888)
- Cavendish, A.E.D.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George Philip & Son, London. p.23 (1894)
- Drake, H.B.. *Korea of the Japanese*, William Clowes and Sons, London. p.45 (1930)
- Gale, J.S.. *Korea in Transition*, Laymen's Missionary Movement, New York. p.9 (1909)

- Gilmore, G.W.. *Korea from its Capital*: with a Chapter on Mission,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Philadelphia. p.199 (1892)
- Hamel, H.. *An Account of the Shipwreck of a Dutch Vessel on the Coast of the Isle of Quelpaert*, Together with the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Corea, Translated out of French, (Published in Netherland in 1668, Translated by Minutoli into French in 1670), Smithsonian Institution (1668)
- Hulbert, H.B.. *The Passing of Korea*, Doubleday, Page & Company. New York (1906)
- Kontis, V., Bennett, J.E., Mathers, C.D., Li, G., Foreman, K., and Ezzari, E.. Future life expectancy in 35 industrialized countries: Predictions with a Bayesian model ensembles, *The Lancet* (2017)
- Lowell, P.. 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Ticknor and Company, Boston (1886)
- M'Loed, J.. *Voyage*, of His Majesty's Ship along the Coast of Corea to the Island of Lewchew with an Account of Her Subsequent Shipwreck, 2nd Edition, John Murray, London. p.42 (1818)
- Oppert, E.. *A Forbidden Land: Voyage to the Korea*, with the Account of Its Geography, History, Productions, and Commercial Capabilities, G.P. Putnam's Sons, New York. p.163 (1880)
- Savage-Landor, H..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William Heinemann, London, p.146 (1895)
- Underwood, L.H..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American Tract Society, Boston (1904)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인의 식량·영양 상태

1910년 조선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강제적으로 합병하게 된 것은 한민족 5천 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서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수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왕실의 무능과 무지, 관료들의 정쟁과 부정·부패가 나라를 병들게 했으며 국민은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 전염병으로 민심이 이반되어 있었다(이철호, 2022). 서구열강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넘쳐나는 상품을 처리할 시장이 필요했고, 신식 무기와 항해술로 동아시아 식민지 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서양에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외교적 역량을 앞세워 한국과 중국을 공략하고, 말기적 중병으로 허덕이던 조선을 접수하고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성장하였다. 주권을 잃은 한국민은 말할 수 없는 멸시와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민족적 분개와 각성을 경험하게 된다.

1. 일제 강점기에 대한 공정한 평가

일본은 영어로 된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대외적으로 유포하면서 한국의 식민화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한국민은 게으르고, 더럽고, 미개하여 그들 스스로 통치할 수 없는 나라이므로 일본이 이를 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im J, 2011). 당시 한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도 상당부분 이러한 논조에 동조했다. 앞에서 언급한 그리피스(Willian E. Griffis)나 오페르트(Ernst Oppert)의 기행문도 한국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주기에 충분했다(이철호, 2022).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조선총독부가 그들의 식민지 경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치밀히 선별되고 조작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1944년 콜롬비아대학 정치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저술된 앤드류 그라얀제프(Andrew J. Grajdanzev)의 ‘모던 코리아(Modern Korea)’의 서문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 관한 자료들이 1910년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후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세상에 한국처럼 많은 인구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에 대해 서양 문헌에서 이처럼 관심 없는 경우는 희귀한 일이다. 1919-21년 한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직후 그 일에 대해 한두 권의 책이 출판되긴 했으나 곧 관심에서 멀어졌고, 1921년 이후에 발간된 책들은 일본정부가 펴냈거나 그걸 인용한 책이거나, 아니면 한국을 잠깐 둘러본 사람들의 기행문 밖에 없다. 일본정부가 영어로 발간한 책들은 특수한 목적이 있다. 그들이 기술한 내용이 대부분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치밀히 선택되고 해석이 편향된 것들이다. 한국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일본의 학자들은 한국의 실상을 외국에 알릴 수 없었다. 한국의 독립을 거론하는 일본학자는 일본 정부와 국수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았다. 외국의 학자들은 선교사 외에는 입국이 불가능했고, 선교사들도 교회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더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2천4백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더욱이 이 나라는 한때 인류문명을 선도했던 오래되고 빛나는(brilliant)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Grajdanzev, 1944).

이 글은 한국인의 억울한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역사의 단절과 왜곡의 원인을 100년 전 서양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한민족의 잃어버린 고대사를 되찾기 위해 ‘한국식품사연구’를 저술했다(이철호, 2021).

1.1. 일본의 국권 피탈과정

러·일전쟁은 제국주의의 선두주자 격인 영·미·불·독 등 강대국들의 대리전이었고, 그것은 세계 제1차 대전 나아가 제2차 대전으로 가는 길목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이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는 점이다(이남택 외, 2005). 러·일전쟁은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고, 당시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의 중재 하에 러시아와 일본은 미국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러시아제국은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제국의 지도, 보호, 감독권을 승인한다.
- 러시아제국은 뤼순과 다렌의 조차권 승인 및 장춘 이남의 철도 부설권을 할양한다.
- 일본제국이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러시아는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 섬을 할양한다.
- 러시아제국은 동해, 오희츠크해, 베링해의 러시아령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제국에 양도한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묵인했고, 러시아는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을 거쳐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성공적으로 중재한 미국의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대단한 친일 인사였다. 그는 1914년에 발표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몫을 취하라(Fear God and Take Your Own Part)”라는 제목의 책에서 일본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일본과의 공동 번영을 강조했다. 그는 조선총독부 테라우치 총독이 쓴 ‘조선의 개혁과 발전(1912-1913)’이라는 보고서를 극찬하며, 서구 열강들이 배워야 할 식민지정책의 표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서로 상충할 일이 없으므로 서로 믿고 협력하자고 호소했다(Roosevelt, 1916). 식민지시대에 앞장서서, 불과 27년 후에 진주만에 폭격을 맞은 미국의 대통령이 가졌던 그릇되고 근시안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한국 정부를 협박해 군사 요지를 선점했고(한·일의정서), 승리가 굳어진 뒤에는 한국 조정에 재정·외교 고문을 배치했으며(제1차 한·일협약), 전쟁이 종결된 뒤에는 통감을 배치하고(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해 갔다. 이에 따라 영·미·불·독·러 등 각국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외교업무를 중단하고 철수했으며, 한국에 관한 외교 사무는 동경에 있는 외교대표를 통하여 집행하게 되었다. 사실상 대한제국의 합병과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표 3-1).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일본 통감부가 설치되는 것을 보고 국민은 경악했으며 육군부장 민영환, 의정 조병세 등 수많은 관리와 지사들이 의분 강개하여 자결했다. 심지어 청국인 반종례와 일본인 니시자카도 동양평화를 꾀 일본을 지탄하며 투신자살하였다(이남택, 등 2005). 수천 년간 동양 삼국이 지켜온 평화공존의 전통을 짓밟은 만행이었다. 1909년 안중근은 조선통감부의 통감을 지낸 을사늑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 하얼빈역에서 포살했으며, 정명운과 장인환은 한국의

표 3-1.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
- 러·일전쟁, 1904년 2월 8일- 인천항에서 일본 어뢰정이 러시아 전함 기습, 포츠머스조약
 -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 내 일본군 주둔
 -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 22일- 고문정치,
 - 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대한제국 친위대 해산, 시위대·진위대 감축
 - 화폐정리사업, 1905년~1909년- 조선 상업자본의 몰락, 화폐 경제의 붕괴, 일본 화폐에 예속
 - 을사조약(2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통감 정치
 - 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고종 강제 퇴위, 순종 즉위
 - 정미 7조약(제3차 한·일협약), 1907년 7월 24일- 차관 정치
 - 대한제국 군대해산, 1907년 8월 1일- 시위대·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정미의병 발발
 - 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일본제국에 사법권·교도 행정권 위탁
 -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모든 의병 소탕, 항일 의병 만주 이동
 - 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일본제국에 경찰권 위탁
 - 한·일 병합 조약(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 멸망,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
-

외교고문으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스티븐스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했다. 합방에 가담한 매국노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내각 인사들을 처단하기 위한 의열단이 구성되기도 했다. 한·일합병조약은 반만년 이래 처음으로 국권을 다른 민족이 강탈해간 민족사상 최대의 수난이었다.

1.2.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과 3·1운동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항한 한국 국민의 저항은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으로 일어났다. 의병전쟁은 유생과 농민이 참여한 일제에 대한 무장투쟁이었으며, 해산군인을 비롯한 민중세력이 의병에

대거 참여하였다. 연합부대를 조직하여 서울 탈환작전을 감행할 정도로 그 규모나 조직이 성장하였으나 일본군의 우세한 근대무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권피탈을 전후한 시기에 만주나 노령 등지로 활동무대를 옮겨 독립군으로 전환하여 무장독립투쟁을 계속하였다.

애국계몽운동은 교육과 식산의 개발을 내세운 개화지식인 주도의 실력양성문화였다. 실력양성을 내세운 계몽운동은 러·일전쟁 이후 교육구국운동이 중심이었는데, 한 군에 20개가 넘는 사립학교들이 설립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또 정치·사회단체가 결성되고 언론·출판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어문과 역사연구, 민족종교활동, 신문화 보급 등 구한말 암흑기에 잠자고 있던 민족의식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제국주의의 본연의 경제수탈과 한국지배의 특징인 민족말살정책을 지배의 기조로 삼았다. 일본 본국의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언어를 비롯한 모든 부분을 식민지인 한국에 적용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무리한 민족동화정책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났으며 1919년 3·1 저항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전국 각처에서 대한독립을 외치는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때의 광경을 묘사한 외국인들의 글 중에 엘리자베스 카이스(Elizabeth Keith)의 글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Kaith, 1947).

“나와 내 여동생은 한국에서 그 비극적인 사건 ‘3·1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한국에 도착했다. 수천 명의 한국애국자들, 심지어 어린 학생까지 감옥에 갇혔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고문을 당했다. 그들은 단지 한국 국기를 흔들며 ‘만세!’ (Long Live Korea)라고 외치며 행진한 것뿐이었다. 우리는 여러 영웅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침착한 얼굴 표정에서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통을 받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감옥에서 고문을 받는 한 여성을 그렸는데, 그녀의

얼굴에서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을 볼 수 없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식은 한국인들의 불굴의 투지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하였다. 그들은 속임수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고, 그들의 황후가 사살되었으며, 그들의 전통의복을 입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학생들은 일본말을 하도록 강요되었다. 나는 남자들이 입은 흰색 한복에 잉크가 뿌려진 것을 여러 번 봤다. 한국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경찰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생각 없는 보통 일본인은 한국인을 멸시하는 말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존경하고 숭배하기까지 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오랜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Kaith, 1947).

한국의 일본 합병은 당시 동아시아를 연구하던 서양의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1926년에 출간된 알레인 아일랜드(Alleyn Ireland)의 ‘새로운 한국(The New Korea)’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는 20여 년 전 극동의 식민지경영에 대한 책을 3부작으로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이 지배한 버마,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북보르네오, 홍콩, 그리고 미국령의 필리핀, 네덜란드가 지배한 자바, 프랑스의 인도-차이나에 관한 것이었다... 1922년 극동에 와서 1년여 지내면서 일본의 한국 경영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 대만에 대해 쓰는 것보다 더 흥미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 이유는 대만의 경우는 식민지시대에 흔히 일어나는 문명화된 인종이 저개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문명화된 민족이 다른 문화민족을 지배하는 희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1910년 당시 한반도의 생활상은 아주 어려웠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민족이 본질적으로 지적 수준이 낮거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조선왕국의 어리석음과 부패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Ireland, 1926).

2. 일제 강점기의 사회상과 농민 계층

일제는 합방 초기 한국민족의 끈질긴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헌병경찰제를 수립하여 무단정치를 강행했다. 1920년대에는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도로 전환하여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문화통치를 표방하였으나, 그 본질은 민족분열정책이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사편수회를 조직하여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조선사’ 편찬 작업을 하면서 한국사를 왜곡하는 일을 본격화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열등의식, 패배감, 좌절감 등을 조장하고 친일세력을 육성하여 국론을 분열시켰다.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와 대륙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였다. 1931년 7월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고, 이어 1937년 7월에는 중·일전쟁을 도발했으며, 1941년 12월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한국에서 수탈해 갔다.

2.1. 거주자 분포와 직업별 인구 구성

1935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한국 내 거주자 분포에 대한 자료는 표 3-2와 같다. 1910년부터 1934년까지 한국인의 숫자는 1,312만 명에서 2,051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일본인은 17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기타 외국인인 1만 2,000명 수준에서 5만 명으로 증가했다(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35).

표 3-2. 한국내 거주자 분포 변화 추이

		한국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	합 계
1910	가구수	2,749,956	50,992	3,155	2,804,103
	인구수	13,128,780	171,543	12,694	13,313,017
1920	가구수	3,191,153	94,514	7,312	3,292,979
	인구수	16,916,078	347,850	25,061	17,288,989
1930	가구수	3,679,463	126,312	15,789	3,821,564
	인구수	19,685,587	501,867	69,109	20,526,563
1933년 말	가구수	3,805,684	135,707	10,658	3,952,049
	인구수	20,205,591	543,104	42,626	20,791,321
1934	가구수	3,857,169	141,417	12,020	4,010,606
	인구수	20,513,804	561,384	50,639	21,125,827

아일랜드(A. Ireland)는 나름대로 실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했으나 그 시대 한국자료의 부족으로 주로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일제 강점기 초기에 일어난 한국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였다. 합병 당시 1910년의 한국 인구수는 1,331만 명이었으나 1923년에는 1,7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구성을 보면 표 3-3과 같다. 1897년 1만 명 수준이던 일본인이 합병 당시 1910년에 17만 명, 합병 16년 만에 38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국인 85%가 농림업에 종사했으며,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은 87%에 달했다. 한국인의 남녀 비율은 남자 100명당 여자 94명이었다(Ireland, 1926).

표 3-3. 1926년 한국의 직업별 인구 구성(Ireland, 1926)

직업	한국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	합계
농림업	14,738,126	38,573	5,346	14,782,045
어업, 제염업	213,266	10,775	25	224,066
공업	358,205	63,999	3,517	425,721
상업, 운수업	984,405	126,893	16,080	1,127,378
공무원, 전문직	325,733	117,080	1,576	444,389
기타	410,561	20,642	4,737	435,940
기록부재	177,943	8,531	848	187,222
합계	17,208,139	386,493	32,129	17,626,761

표 3-4. 직업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1920-1939)(Grajdanzev, 1944)

	한국				일본	미국
	1920	1929	1938	1939	1930	1930
농업	85.6	81.9	73.6	68.3	47.7	21.4
어업	1.2	1.6	1.5	1.6	1.9	0.5 ^a
광업	-	-	1.2	1.8	0.9	2.0
제조업	2.2	2.6	3.1	3.5	19.2	28.9
무역	-	-	7.0	7.9	15.1	12.5
통신	6.2	7.2	1.0	1.3	3.7	7.9
공무직	2.2	3.4	3.9	4.8	6.9	8.5
기타 직업	1.7	1.8	6.9	8.3	2.0	8.2 ^b
가사일	1.7	-	-	-	2.6	10.1
직업이 없거나 기록이 없음	1.9	1.5	1.8	2.5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 어업+임업, b: 사무직

표 3-4는 1920년부터 1939년 사이에 일어난 직업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Grajdanzev, 1944). 농림업 종사자는 전체인구의 85.6%에서 68.3% 줄었다. 당시 미국의 21.4%나 일본의 47.7%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그라얀제프는 표 3-4를 제시하면서도 그 정확성이나 신뢰도에 다소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경영을 미화하고 성과를 과장하려는 의도에 대해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2. 농업 경영 형태와 계층

일제는 식민지 수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 강점 직후인 1910년 9월부터 조선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농민이 토지조사사업에 반대하여 신고를 거부한 토지는 물론, 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유지를 모두 국유화했다. 이렇게 해서 일제는 1919년 2월 현재 102만여 정보의 미간지를 포함한 총 137만여 정보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일제는 이 토지를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불이흥업주식회사 등 식민농업회사와 일본인 이주민에게 불하하여 소작제로 경영케 함으로써 식민지 농업 수탈을 감행했다. 또한 기존 봉건지주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강화하여 친일파를 만들고, 농민 대증은 국유지에 형성된 사적 소유권과 소작지에 발생한 도지권(賭地權), 미간지를 개간하여 소유할 수 있던 개간권을 박탈하여 자영농민으로의 성장을 봉쇄했다. 따라서 한국 농민은 완전 무권리 상태의 소작농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1924년 한국의 농가 호수는 2,702,838호이며 완전 소작농의 수는 전체의 42%, 부분 소작농은 35%로 전체 농가의 77%가 땅 주인에게서 농지를 빌려 농사짓고 있었다(표 3-5).

표 3-5. 1924년 한국의 농업 경영 형태(Ireland, 1926)

	농가호수	백분율
자경농	627,896	23%
자경+소작	951,667	35%
완전 소작농	1,123,275	42%
합 계	2,702,838	100%

일본 조선총독부는 지주들의 농지규모에 대한 통계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라얀제프는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표 3-6과 같은 추정치를 발표하였다(Grajdanzev, 1944). 수적으로 3% 미만인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이들은 주로 총독부에서 탈취한 국유 농지를 불하받은 일본인과 일부 양반계층)이 전체 농지의 63.9%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민의 16.3%를 차지하는 자작농이 전체농지의 25.7%를 경영하고 있었으며, 자기 땅이 모자라 일부 소작을 붙이는 농민이 23%인데 전체 농지의 10.4%를 경작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생활도 여유롭지는 못하였다. 전체농민의 57.4%를 차지하는 소작농, 화전민, 노동자들은 농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극빈자들이다.

표 3-6. 농업 경영형태에 따른 농지 규모 추정(Grajdanzev, 1944)

경영 형태	농가수	소유면적 (1,000 acres)	전체에 대한 비율(%)	
			농가수	면적
지주	83,000	7,198	2.7	63.9
자작농	502,320	2,888	16.3	25.7
부분소작(자작+소작)	729,320	1,174	23.6	10.4
순수소작농	1,583,435	0	51.3	0
화전민	71,187	0	2.3	0
노동자(일용직)	116,020	0	3.8	0
Total	3,085,282	11,260	100.0	100.0

표 3-7은 농업 경영 계층별 쌀 생산량과 농가 1인당 연간 가용한 쌀의 양을 추정한 자료이다(Grajdanzev, 1944). 대지주들의 1인당 연간 쌀 가용량은 1,588kg인 반면 자작농은 137kg, 부분소작농은 168kg에 불과하다, 특히 순수소작농은 연간 1인당 쌀 가용량은 57kg에 불과해, 1980년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195kg에 비교하면 1/3도 안 되는 양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생산된 쌀의 절반을 일본으로 공출당한 것을 감안하면 일제 강점기 대부분의 한국인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농업 경영 계층별 쌀 생산량과 농가당 가용한 쌀의 양(Grajdanzev, 1944)

경영 형태	쌀 생산량(톤)	1인당 쌀 가용량(kg)
지주	901,554	1588.8
자작농	358,342	137.6
부분소작(자작+소작)	679,988	168.2
순수 소작농	478,160	57.0
합 계	2,418,044	261.3(평균)

(주) 부분소작농(자작+소작)과 소작농의 실제 쌀가용량은 더 적을 수 있음.
본 계산에서는 소작료 이외의 도지쌀 량은 계산되지 않았음.

3. 일제 강점기의 식량 생산과 교역

표 3-8은 1912년과 1923년의 농작물 경지면적을 비교한 것이다(Ireland, 1926). 벼는 전체 경지면적의 58%(1912)-36%(1923)를 차지하는 절대 주곡이며, 콩은 34%(1912)-35%(1923)를 차지하는 제2 주곡이다. 이모작을 하는 땅이 많으므로 실제 경작면적은 총 경지면적보다 76%(1912)-41%(1923) 높게 집계되었다.

표 3-8. 1912년과 1923년의 농작물 경지면적 비교(Ireland, 1926)

(단위: 헥타르)

	1912년	1923년
벼	1,417,174	1,550,399
보리	622,392	813,145
밀	267,422	356,269
나뭇	45,359	55,178
콩	841,349	1,525,860
수수, 옥수수	634,954	874,517
귀리	58,817*	117,312
기장	92,531	114,912
좁쌀	114,114	114,692
면화	64,565	158,879
삼(대마)	21,406	30,743
참깨	12,726	22,943
채소	87,238	199,035
비료작물	1,682*	31,316
덕나무	-	4,992
골풀	1,909	3,227
합 계	4,349,571	6,076,099
총 경지면적	2,464,904	4,320,864

* 1913년 데이터

(주) 원본의 단위환산: 1cho(町, 정)=10단보(段步)= 3,000평, 9917.4m² = 약1 Hectare

수산물 통계를 보면 1912년 전국 어획고는 4백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1923년에는 2,6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신선 어류의 수출액은 1923년 450만 달러였는데 90%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1923년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액은 1,450만 달러였으며, 수출액은 7백만 달러였는데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1923년 어획된 어류의 생산액 크기에 따른 어종을 보면 고등어, 정어리, 멸치, 명태, 연어, 청어, 도미, 대구, 가자미 등이다.

3.1. 농업 생산 통계

표 3-9는 1935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1933년도 농산업 생산 통계이다(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35). 일본식 도량형 단위와 엔화를 메트릭 단위와 달러로 환산하였다. 이들 통계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한 당위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어로 발표한 자료인데, 자료의 정당성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참고한 것이다.

표 3-9. 1933년 한국 농산업 생산 통계(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35)

(생산량 단위: 별도단위 없을 시 M/T)

품 목	생산량(M/T)	생산액(\$)
쌀	2,528,788	170,759,000
콩	633,217	22,000,730
밀, 보리	1,441,533	38,027,927
기장(수수, 좁쌀)	715,197	20,157,270
밀가루	-	4,050,925
설탕	32,688	3,270,554
사과	44,613	2,324,645
배	13,039	938,713
포도	2,449	323,875
복숭아	4,129	194,772
감	22,485	713,318
밤	9,474	581,671
버섯	57	78,984
인삼(백삼)	86	671,240
홍삼	29	-
기타 한약재	2,144	171,760
소(두)	1,663,136	-
꿀(kg)	968,005	381,157

품 목	생산량(M/T)	생산액(\$)
어류(생선)	1,007,258	25,689,079
어류(건조, 염장)	8,015	1,007,942
통조림(상자)	147,576	716,011
소금	201,925	-
김(장)	41,663만	1,249,870
미역	5,035	638,241
어류비료	76,765,670	2,393,019
대마(삼)	19,785	2,725,282
가마(개)	53,844,735	2,885,272
돗자리(거적) (개)	5,320,549	1,045,365
새끼	-	2,131,471
담뱃잎	16,552	2,431,180
담배	-	17,613,519
숨	95,650	9,933,514
누에고치	90,853	10,932,345
비단	1,596	7,965,878
숯	13,256	1,104,015

(주) 원본의 단위환산: 1koku(斛, 곡)= 5.12Bushel= 139kg(곡물 1Bushel=27.2kg)
1관=3,75kg, 1근= 0.6kg, 1yen= 0.5USD 당시환율

1933년 한국의 쌀 생산량은 252만 톤, 콩은 63만 톤, 밀과 보리는 144만 톤이었다. 기장(수수, 좁쌀)의 생산량도 72만 톤으로 적지 않은 양이다. 설당은 이때 이미 제당 공장이 있어 원당을 수입하여 설당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3에 설탕 수입액이 292만 달러인 것은 원당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인삼과 홍삼의 생산량은 115톤으로 이때 이미 인삼재배가 활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삼은 당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대표적인 한국의 영약으로 중국 사람들이 특히 애호하는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인삼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서양인들의 견문록에서 소개되고 있다

(Bergman, 1938).

표 3-10은 1910년부터 1939년까지 곡물과 콩 생산량의 변화이다 (Grajdanzev, 1944). 1910년 144.6만 톤이던 쌀 생산량이 1938년에는 335.5만 톤으로 증가했다. 콩은 같은 기간 50.5만 톤에서 66.4만 톤으로 생산량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 곡물생산량이 1910년에서 1920년까지 10년 동안 48.7% 증가하고, 1920년부터 1935년까지 15년 동안 9.8% 증가한 반면 다시 1936년에서 '37년까지 1년 동안에 34% 증가한 것은 설명되기 어렵다. 그라얀제프는 이런 사례를 들어 일본 정부의 통계자료가 조작된 부분이 많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Grajdanzev, 1944).

표 3-10. 주요 곡물과 콩 생산량의 변화(1910년-1939년) (Grajdanzev, 1944)

(단위: 1,000톤)

	1910	1912-21 (평균)	1934-36 (평균)	1937	1938	1939
쌀	1,446	1,942	2,503	3,725	3,355	1,995
보리, 밀, 귀리	863	1,360	1,568	2,041	1,705	-
기타 곡물	736	1,231	1,020	1,271	1,056	-
콩	505	747	7,088	752	684	-
합 계	3,551	5,279	5,798	7,789	6,799	-
전년도 대비 증감(%)	-	48.7	9.8	34.3	-12.7	

(주) 원본의 단위환산: 1koku(斛, 곡)= 5.12Bushel= 139kg(곡물 1Bushel=27.2kg)

그림 3-1은 한반도의 쌀, 밀, 보리, 콩의 주산지 분포를 표시한 지도이다. 북한의 동북지역은 산악지대이므로 쌀과 밀의 재배가 어려우나 보리는 동북지역, 콩은 동서 해안지역과 남한 전역에서 재배 된다. 쌀은 호남지역에, 보리는 호남과 경남이 주산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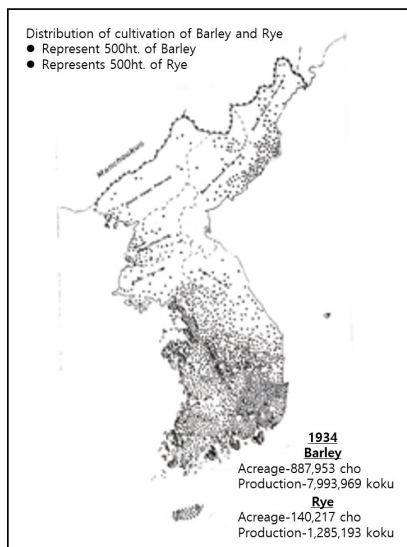
쌀 재배 논지 분포



밀 재배지역 분포



보리와 호밀 재배지역 분포



콩 재배지역 분포



(1 cho ÷ 1 hectare, 1 koku = 0.139 ton)

그림 3-1. 한반도의 쌀, 밀, 보리, 콩의 주산지 분포 지도(1934)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35)

그림 3-2는 주요 곡물의 재배 한계선을 보여주고 있다(Grajdanzev, 1944). (n)은 북방한계선, (s)는 남방한계선이다. 지구온난화로 오늘날의 재배한계선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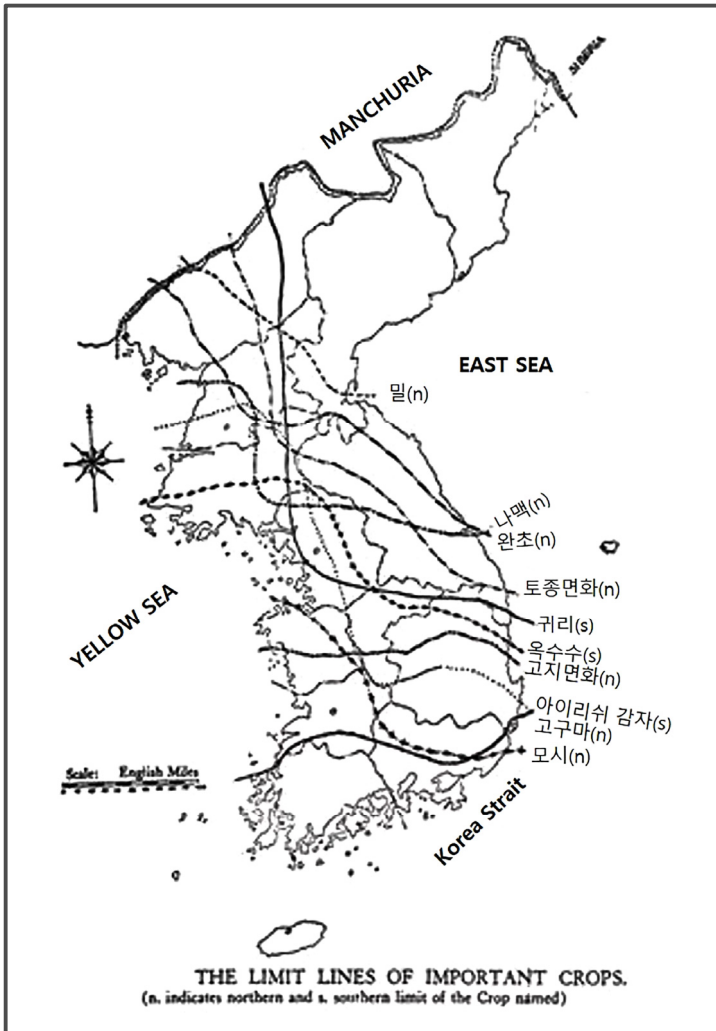


그림 3-2. 주요 곡물의 재배 한계선(Grajdanzev, 1944)
(n)은 북방한계선, (s)는 남방한계선

3.2. 축산업 통계

한국의 축산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었다. 특히 소는 농업 노동력으로 중요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식용보다는 농업용으로 가치가 크다. 표 3-11은 일제 강점기의 가축 마리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통계자료이다. 여기에서도 그라얀제프는 통계수치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의 경우 농가당 평균 마리수가 1919년 0.55에서 1938년 0.56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데 146만 두에서 171만 두로 증가한 것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돼지는 같은 기간 96만두에서 150만 두로, 가금류는 499만 마리에서 716만 마리로 증가했다. 돼지의 농가당 마리수는 1919년의 0.36에서 1938년 0.49두로, 가금류의 농가당 마리수는 같은 기간 1.92에서 2.35로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Grajdanzev, 1944).

표 3-11. 일제 강점기의 가축 마리수의 변화(1919-1938) (Grajdanzev, 1944)

(단위: 1,000마리)

	가축 마리수			농가당 마리수	
	1919	1929	1938	1919	1938
소	1,462	1,1586	1,717	0.55	0.56
말	53.2	55.8	51.6 ^b	0.020	0.017
당나귀	13 ^a	7	3	0.001	0.001
양	0	2	27	0	0.009
염소	114 ^a	22	44	0.065	0.014
돼지	963	1,327	1,507	0.36	0.49
가금류	4,998	6,185	7,165	1.92	2.35

a: 1915, b: 1936

3.3. 수산물 통계

그라얀제프는 한반도의 수산 환경과 어업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Grajdanzev, 1944). 한반도의 해안선은 무수한 섬과 만, 하구 등을 모두 포함하면 대단히 길어서 11,000마일에 달하며, 이것은 일본의 해안선 17,500마일에 비해서도 적은 수치가 아니다. 더욱이 한반도 근해는 찬 해류와 따뜻한 해류가 마주치는 지역이어서 어족이 풍부하다. 해안에는 75종의 식용 어류, 20종의 조개류, 15종의 해조류와 기타 10여종의 바다 동식물이 살고 있다. 중요한 어종은 정어리, 명태, 고등어 등 이다. 일본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912년 한반도 수산물 생산액은 430만 달러였는데 1938년에는 4,400만 달러로 10배 증가했다. 1939년 전국 어류 생산량은 1,596,000톤이며, 조개류, 해조류 및 기타 수산물을 합치면 도합 1,758,000톤에 달한다(Grajdanzev, 1944). 이와 같은 생산량 증가는 주로 정어리의 어획량이 증가한데에 기인하는데, 1932년 275,900톤(전체 어획량의 23.6%)에 불과하던 정어리 생산량이 1937년에 1,388,200톤(전체 어획량의 65.5%)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938년에는 975,500톤으로 급감했는데, 어민들은 남획으로 고기가 씨를 말렸다고 불평했다. 쌍끌이 남획으로 수산자원의 고갈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일 년에 거의 200만 톤에 달하는 어획고는 대단히 큰 양으로 당시 인구 수를 적용하면 1인당 220파운드(100kg)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수산물 생산량 중에 식용으로 사용된 것은 어류의 1/4, 수산 가공품의 절반 이하였다. 더욱이 수산업이 발달하면서 수산물의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표 3-12에 보면 수산물 교역에서 수출이 대부분으로 수입액은 수출액의 3-4%에 불과하다. 1926년부터 '38년까지 12년 동안 수출량은 거의 5배, 수입액은 3배 증가 했다. 어류와 기타 수산물 가공품의 5/8가 수출되었으므로, 수산물 생산 증가가 한국인의 식량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1941년도 한국의 수산물 교역 통계(Grajdanzev, 1944)

(in thousand USD)

년도	수입		수출		
	수입액 (1,000\$)	수입량 (1,000톤)	수출액 (1,000\$)	수출량 (1,000톤)	순수출액 (1,000\$)
1926	948	11	12,833	103	11,888
1929	1,497	12	18,202	159	16,705
1932	1,435	13	11,008	161	9,573
1935	1,476	14	21,108	248	19,632
1938	2,759	21	42,931	510	38,172

Source: Chosen Nenkan, 1941

3.4. 주요 산물 수출입 통계

표 3-13은 1933년도 한국의 수출입 통계이다(조선총독부, 1935). 쌀의 수출액이 7,735만 달러로 표 3-9의 쌀 총생산액 17,076만 달러의 45%에 달한다. 콩의 수출액은 963만 달러로 총생산액 2,200만 달러의 44%에 달한다. 한국인은 굶주리는데 생산된 쌀과 콩의 거의 반을 일본에 빼앗긴 것이다. 수입쌀은 주로 동남아에서 생산된 값싼 장립종(Indica type)으로 맛이 없어 평상시에는 먹지 않는 것이나 굶주린 상태에서 우리쌀은 공출되고 수입쌀을 먹어야만 했다. 전체 수출액 중 70%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수입액 역시 63%(1911), 88.6%(1939)가 일본과의 교역으로 이루어 졌다(Grajdanzev, 1944).

표 3-13. 1933년도 한국 주요 수출입 통계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35)

수입품목	수입액(1,000\$)	수출품목	수출액(1,000\$)
쌀	919	쌀	77,353
기장	6,393	콩	9,637
콩	1,368	어류(생선, 건조, 염장)	6,079
밀가루	1,994	김	1,726
담배	204	누에고치	887
개솔린	2,732	비단	7,004
등유	1,507	흑연	523
성냥	746	석탄	2,301
면화직물	4,791	금괴	941
목화실	3,400	철강석	953
명주실	4,706	설탕	1,268
면직물	21,901	소가죽	713
중국대마	573	어유	588
모직물	4,264	충진솜	3,250
설탕	2,925	구리	2,866
일본술(사케)	559	철	4,378
맥주	1,055	소	2,130
소금	1,384	종이	2,031
비단	9,222	목재	2,878
고무신	453	비료	11,303
종이	4,307		
석탄	5,367		
시멘트	1,674		
토기	1,456		
철	10,238		
기계	6,260		
목재	3,067		
비료	5,726		

(주) 원본 단위 환산: 1yen= 50cents U.S. 당시환율

표 3-14는 가축과 주요 농산물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한 것이다 (Grajdanzev, 1944). 1929년 이들 농산물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51.6%를 차지했으며 1938년에는 41.2%를 차지했다. 1939년은 극심한 흉년을 겪은 해로 농산물 수출액 비율이 22.7%로 극감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12.8%에서 3.9%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1939년 흉년에는 6.6%로 상승했다. 농산물의 수입액은 수출액의 30.5%(1929)에서 12.1%(1938)로 낮아졌다.

표 3-14. 가축과 주요 농산물의 수출액과 수입액 비교(1929-1939) (Grajdanzev, 1944)

(단위: 1,000USD)

	1929	1936	1937	1938	1939
A. 주요 농산물 수출액	88,545	142,601	136,078	180,348	114,125
B. 총 수출액	171,372	295,629	339,921	438,697	501,727
A / B (%)	51.6	48.3	40.1	41.2	22.7
C. 주요 농산물 수입액	27,019	34,628	29,077	23,317	48,861
D. 총 수입액	210,965	380,162	429,664	526,458	691,962
C / D (%)	12.8	8.9	6.5	3.9	6.6
C / A (%)	30.5	24.3	21.4	12.1	42.8

(주) 주요 농산물: 가축(living animals), 곡물, 밀가루, 콩

3.5. 일제의 양곡 수탈 정책

일제의 미곡 수탈정책은 산미증산계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산미증산계획은 1918년 8월 동경에서 발생한 ‘쌀소동’을 겪으며 일제의 식량·미가 안정을 위하여 한국에서 쌀을 공급하기 위해 입안된 것으로, 한국을 식량 공급기지로 확정하는 식민지 정책이었다. 산미증산계획은 수리시설 확충을 통한 토지개량사업과 품종개량 및 비료사용 증가에 의한 농사개량사업

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토지개량을 위한 장기 저리자금의 융통과 수리조합의 설립 등이 대지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대다수 한국 농민들의 경제적 몰락을 초래했다. 표 3-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의 토지개량 사업으로 땅 부자가 된 일본인 지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자작농이나 소작농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부분소작농과 순수소작농의 수가 전체의 80%가 되었으며, 특히 자작농들이 순수 소작농으로 떨어져 1918년의 37.7%에서 1932년 53.8%로 급증했다(Grajdanzev, 1944). 한국농민의 소작농화, 노예화를 유도한 것이다.

표 3-15. 농업인의 계층별 분포 변화(1918-1932) (Grajdanzev, 1944)

	1918	1928	1932
비농업 지주	0.6	0.7	1.2
농업 지주	2.5	3.1	2.5
자작농	19.7	18.5	16.6
부분소작농(자작+소작)	39.5	32.3	25.9
순수소작농	37.7	45.4	53.8
합 계	100.0	100.0	100.0

농사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본인 입맛에 맞는 소위 ‘우량품종’ 보급과 화학비료의 사용 증가 역시 농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겨 주었다. 일제는 합방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 반도에서 자생하는 동식물에 대한 조사와 신품종에 대한 학명을 부여하는 사업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식물의 학명에 이를 최초로 발견한 일본인 이름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일본의 식물에 최초 발견한 서양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것을 그대로 훔쳐낸 것이다.

일본의 1911-12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총 1,451종의 벼 품종을 한반도에서 수집했는데 그중 멍쌀이 876종, 찰쌀이 383종, 발벼가 192종이었다(이철호, 2012). 이들 벼 품종은 일본쌀 육종에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이 같은 산미증산계획은 사업실적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식량수탈을 강행했다. 한국의 미곡 평균생산량이 1920/22년 1,472만 석에서 1930/32년 1,713만 석으로 16% 증가한 반면, 일본으로의 미곡 반출량은 같은 기간 295만 석에서 725만 석으로 2.5배 증가했다(이남택 외, 2005). 이 수치는 표 3-14의 자료에서 산출한 1933년도 쌀 공출률 45%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4.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식량·영양 상태

4.1. 식량 공급량 변화

이 시대는 특히 우리의 전통적인 보양섭생 개념에 서구식 영양이론이 도입된 시기이다. 이 시대의 식량자원에 대한 자료는 김호직의 《조선식물개론》(김호직, 1944)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곡식류는 임원십육지의 36종에서 17종으로 많이 줄었으며, 나머지는 산야초류에 포함시켜 구황식물 범주에 넣고 있다. 곡물과 함께 소채류(25종), 산야초류(304종), 해조류(7종), 버섯류(81종), 과실류(11종)의 식물성 식품과 204종에 달하는 어패류 및 어란류가 중요한 식품으로 열거되어 있는 반면 수육류 및 난류는 소, 돼지, 개, 노루, 닭, 꿩 및 계란만을 적고 있으며 특히 우유류는 이때까지도 우리의 식생활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이철호 등, 1988).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12-1940)에 수록된 식품재료의 목록을 보면 곡류 15종, 두류 6종, 서류 2종, 채소류 13종, 과실류 5종, 가축류 3종 및

다수의 수산물 종류가 포함되며 전체적으로 정부 통계에 기록되는 식품 재료의 수는 실제 이용되는 종류보다 훨씬 적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쌀 소비량을 추산한 그라얀제프(Grajdanzev, 1944)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1인당 연간소비량(kg)과 1일 소비량(g)을 계산한 결과는 표 3-16과 같다. 합방 초기의 1인당 쌀 소비량 260g에서 점차 감소하여 1934-38년에는 148g으로 감소했다.

표 3-16. 일제 강점기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 변화 추이(Grajdanzev, 1944)

평 균	연간 소비량(kg)	1일 소비량(g)
1915-1919	95.15	260
1920-1924	86.77	238
1925-1929	69.63	191
1930-1933	61.06	167
1934-1938	53.86	148

표 3-17은 쌀, 기장, 보리, 콩 등 곡물의 1인당 소비량을 추산한 표이다. 합방 초기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기장(좁쌀, 수수)의 소비량은 다소 증가했으나 보리, 콩, 기타 곡물의 소비량은 쌀과 마찬가지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이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양의 쌀과 곡물을 한반도에서 수탈해간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근거로 하여 연도별 1일 1인당 주요 식품 공급량을 3년 평균치로 추산한 결과는 표 3-18과 같다(이철호 등, 1988).

표 3-17. 한국인 1인당 연간 곡물 및 콩 소비량 변화 추이(Grajdanzev, 1944)

(단위: kg)

평균	1915-1919	1930-1933
쌀	95.15	61.06
기장	41.21	44.20
보리	58.48	55.90
콩	25.84	19.31
기타	54.67	46.65

표 3-18. 일제 강점기의 연도별 주요 식품의 1일 1인당 공급량(이철호 외, 1988)

(단위: g)

년도	1913-15	1922-24	1930-32	1937-39
곡류	454.2	414.4	372.0	436.5
(쌀)	248.9	196.1	162.4	222.0
(밀가루)	29.5	31.3	26.0	37.4
(보리)	65.7	61.5	65.0	75.0
(기타)	110.1	125.5	118.6	102.1
설탕류	-	-	-	-
서류	36.4	70.3	70.5	90.1
두류	94.6	76.8	65.7	52.0
견과류	-	-	-	-
종실류	-	-	-	-
채소류	95.3	102.7	134.7	127.4
과실류	0.6	2.6	8.3	12.6
육류	13.4	15.7	14.2	11.8
계란류	-	-	-	-
우유류	-	-	-	-
수산물	26.3	37.6	73.5	84.0
유지류	-	-	-	-

곡물 전체 소비량은 1913/15년 454g에서 1930/32년 372g으로 18% 감소했으며, 쌀은 같은 기간 35% 감소했다. 설탕류, 견과류, 종실류, 계란류, 우유류, 유지류는 일반인은 먹을 수 없는 식품이었다.

합병 초기에 비하여 1930년대로 가면서 식량공급량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자료로부터 영양공급량을 추산한 결과는 표 3-19와 같다(이철호 등, 1988).

표 3-19. 일제 강점기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추이(이철호 등, 1988)

년도	1913-15	1922-24	1930-32	1937-39
총에너지(kcal)	2089	1916	1775	1980
식물성(kcal)	2083	1849	1676	1874
단백질(g)	80.7	72.7	71.7	73.6
동물성(g)	6.6	8.9	14.3	15.6
지방(g)	24.3	20.4	19.5	18.5
Ca(mg)	314	310	325	311
Fe(mg)	23.5	21.4	20.8	22.7
비타민A(IU)	414	591	985	1076
B ₁ (mg)	1.66	1.63	1.58	1.59
B ₂ (mg)	0.74	0.72	0.78	0.80
Niacin(mg)	15.6	15.1	15.3	16.0
C(mg)	42	51	60	61

1913~1915년의 1인당 1일 총 에너지 공급량은 2,089kcal이며 이 중 식물성 재료가 97.5%를 차지하고 있다. 총 단백질 섭취량은 80.7g이며 이 중 식물성 단백질이 91.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식사습관이 거의 채식에 의존을 나타내는 것이다. 에너지의 구성을 보면 탄수화물 에너지 74.1%, 단백질 에너지 15.4%, 지방에너지 10.5%로서 김호직의 기본 식단 구성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 식품공급의 절대량이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었으나 그 구성비는 1940년대까지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다.

4.2. 전통 표준식단의 영양 평가와 식사목표

고문헌에 나오는 첩반상에 관한 기록은 반상을 구성하는 음식의 종류를 나열하는데 그치고 양적 개념이 제시된 것은 거의 없다. 1944년 김호직 교수가 쓴 《조선식물개론》에 7첩반상의 구성과 재료의 분량이 제시되어있다. 표 3-20은 김호직의 7첩반상 구성 예에 근거하여 한국 전통 표준식단의 영양학적 평가를 시도한 것이다(이철호, 류시생, 1988). 밥, 국, 김치로 구성된 기본 식단은 한국인 성인 남자의 1일 영양권장량(RDA)의 4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48.7%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 기본식단에 3가지 요리(시금치나물, 불고기, 건어무침)이 추가된 3첩반상은 RDA의 47.2% 에너지와 98.3%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들 식단은 현대의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균형 잡힌 식단이며 열량이 충분히 공급되면 무기질과 비타민도 충분하게 공급되는 균형식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첩반상의 열량 구성비를 보면 기본식단과 3첩반상에서 탄수화물에 의한 열량 공급이 각각 77%와 64.4%로 높은 편이고, 지방 에너지는 각각 8.3%와 11.6%로 대단히 낮다. 잔치상에 해당하는 5첩반상에서도 지방에너지는 12%를 넘지 않는다.

표 3-20. 한국 전통식단 첩반상의 영양가 분석(이철호, 류시생, 1988)

반상의 종류	기본식단	3첩반상	5첩반상	7첩반상
식단의 구성	밥, 국, 김치	기본식단 + 시금치 나물, 불고기, 건어	삼첩반상, 찌개 + 편육, 명란젓	5첩반상 + 굴전, 깍두기
총 열량(kcal)	995 (40.0)	1181 (47.2)	1320 (52.8)	1672 (66.8)
탄수화물(%)	77.0	64.4	60.1	53.4
단백질(%)	14.7	24.0	28.0	27.7
지방질(%)	8.3	11.6	11.9	18.9
총 단백질(g)	36.5 (48.7)	70.7 (94.3)	92.5 (123.3)	115.5 (154.0)
동물성단백질(g)	28.7	59.5	69.0	72.3
Ca(mg)	161.1 (26.9)	216.3 (36.1)	255 (42.5)	596 (99.3)
Fe(mg)	12.1 (121.9)	23 (230)	26.8 (268)	40.3 (403)
Vit. A(I.U.)	426.6 (17.1)	8761.6 (350.5)	9129 (365.2)	9965 (398.6)
Vit. B ₁ (mg)	0.62 (47.6)	0.86 (66.2)	1.08 (83.1)	2.16 (166.2)
(%)Vit. B ₂ (mg)	1.92 (127.9)	3.03 (202.2)	3.44 (229.3)	4.35 (290.4)
Niacin(mg)	11.6 (68.3)	28.9 (169.9)	37.1 (218.2)	45.8 (269.4)
Vit. C(mg)	19.7 (35.9)	83.7 (152.2)	86.4 (157.2)	99.6 (181.2)

() 한국인 성인남자의 일일영양권장량의 백분율

한국인의 전통 표준식단에서 볼 수 있는 식사목표(dietary goal)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1일 2,000-2,500 kcal의 열량과 80-90g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사로 그 에너지 구성비는 탄수화물에서 73-77%, 단백질에서 15-18%, 지방에서 10-12%를 얻으며 동물성 단백질은 전체 단백질의 20-30%를 섭취하는 것을 이상적인 식단으로 생각한 것 같다(이철호, 권태완, 2003). 그러나 김호직의 7첩반상 구성은 양반가의 부유한 집안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문헌상의 이상적인 식단으로 봐야하며, 일반인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식단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일반인은 기본식단인 밥,

국, 김치만으로 매일의 식사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4.3. 일제 수탈에 의한 한국인 영양상태

1937년 7월 중일전쟁과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에 혈안이 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군량확보가 시급해지자 ‘조선증미계획’을 실시하여 미곡 증산계획을 재개했다. 아울러 식량의 소비규제를 위해 배급제도를 실시하였고, 더 나아가 미곡공출제도를 감행했다. 그리하여 한국농민은 생산한 쌀을 일제 당국에 부락단위로 강제로 팔았고, 수입된 안남미나 잡곡을 배급받아 끼니를 이어가야 했다. 일제는 전쟁물자의 조달을 위해 금속제 그릇을 강제로 공출하고, 농기구, 식기, 제기는 물론, 심지어 교회나 사원의 종까지도 징발하여 전쟁무기 제작에 이용했다.

1939년 일본인 히로가와(廣川)가 경성부 내에 거주하는 상류생활자 두 가정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영양소 섭취량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일일 섭취에너지는 2,363kcal이고, 당질 339.5g, 단백질 116.4g, 지질 53.0g으로 보고되고 있다. 에너지 구성비는 당질 59 : 단백질 20 : 지질 21로 계산되었다(이기열 외, 1998). 또한 이석신(1931)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 상류가정의 1인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635kcal이고, 단백질은 102.7g으로 조사되었다.

히로가와는 1939년 경성부내 월수입 100-150원 수준의 중류생활자 세 가정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인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441kcal, 당질 432.7g, 단백질 79.8g, 지질 37.6g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칼슘 섭취량이 낮았으며, 에너지 구성비는 73 : 13 : 14로 나타났다(이기열 외, 1998). 이석신(1930)은 중류층에 속하는 조선인 젊은 여성의 겨울철 영양소 섭취량을 에너지 2,110kcal, 단백질 98.0g, 지질 28.5g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의 에너지 구성비는 68 : 19 : 13으로 나타났다.

히로가와는 두 소작농 가정의 아침·점심·저녁 삼식의 1인 분량에 대한 분석 결과 에너지 섭취량은 3,334kcal, 당질 692.6g, 단백질 77.6g, 지질 21.7g으로 나타났다(이기열, 1998). 하층민의 에너지 섭취가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생활계층별로 에너지의 주식 의존율은 하류층 95.4%, 중류층이 76.1%, 상류층이 56.7%로 계산되었다.

1940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학생이 서울 부근의 토착민을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조사대상 103호의 1호당 평균 월수입은 44원 61전이며, 이중 음식물비가 31원 71전으로 전 지출액의 73.3%를 차지했으며, 주택비가 81전, 피복비가 2원 41전, 광열비가 8원 24전으로 조사되었다(이기열 외, 1998). 1954년의 한국 농가의 엔겔계수 73.3과 동일하다(이철호 등, 1988). 광열비가 전체지출의 19%를 차지하는 것은 1906년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가 기술한 내용을 회상 시킨다(Hulbert, 1906; 이철호, 2022).

한편 일제의 식량 배급제 실시 이전에는 보리 외에 콩, 조, 팥 등을 혼식하였으나, 배급제 실시 이후에는 개별적 차이는 없어지고 모두가 보리와 쌀만 먹었다. 배급제에서는 성인, 소아 할 것 없이 1일 1인당 쌀 1.5홉(270cm³)과 보리 1.5홉을 배급받았다. 그러나 이 양은 육체노동자에게는 크게 부족한 양이었으므로 거의 배에 가까운 보리를 더 구매하여 보충하였다. 배급쌀은 주로 수입쌀(안남미)이었으며, 보리는 활맥 또는 압맥이었다. 당시의 쌀 35%에 보리 65%의 비율로 지어진 밥의 외관은 순 보리밥과 같았고, 쌀은 안남미였으므로 끈기가 거의 없었다(이기열, 1998). 이상에 나타난 주식물 섭취량은 그들의 생활이 순조로울 때이고, 질병, 가뭄, 홍수, 춘궁기 등에는 식량이 모자라 식사 횟수를 줄이거나 걸식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

4.4.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건강 상태

구한말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높은 영아사망률과 전염병 만연으로 23세 내외였으나, 192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1942년에는 44.9세(남자 42.8세, 여자 47.1세)에 이르렀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한국인의 사망률은 1910-‘15년 인구 1,000명당 16.1에서 1926-‘30년 21.6을 기록했으며, 영아사망률은 1910-‘15년 49.2/48.4(남/여)에서 1938-‘42년 105.7/91.4(남/여)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당시의 통계자료의 불확실성이나 미비에 기인한 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0세에 사망할 확률은 1,000명당 1926-‘30년 252.2/230.0(남/여)으로 대단히 높았으며, 1938-‘42년에는 120.1/109.0(남/여)으로 감소하였다.

알레인 아일랜드(Alleyne Ireland)의 1923년 한국인의 사망률은 1,000명당 21명이었으며,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는 표 3-21과 같다(Ireland, 1926).

표 3-21. 1923년 한국인 사망자 원인별 통계(Ireland, 1926)

사망 원인	사망자 수
신경계질환	72,086
소화기질환	53,320
호흡기질환	46,691
전염병	34,302
김기	33,022
노환	18,935
순환기질환	14,899
체질질환	10,789
정신이상	9,820
비뇨기질환	9,576
피부병	8,128
이비인후과질환	7,717

자료: 조선총독부 행정연보 1922-23

표 3-21에 언급된 원인별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89%에 해당한다. 이들 수치는 한국보건인구연구원이 발표한 1933부터 1942까지의 원인별 사망자 수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보건인구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소화기계 질환 사망자 수는 1933년 197,000명, 1938~42년 247,000명, 신경계 장애 216,000-200,000명, 호흡기계 질환 146,000-213,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한국보건인구연구원, 1984). 이러한 차이 역시 자료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일랜드(Ireland, 1926)가 기록한 전염병에 관한 통계(1912-1923)를 보면 콜레라는 1916년, '19년과 '20년에 크게 발생했으며, 1916년에는 2,066명이 이환되어 1,253명이 죽었으며, 1919년에는 16,803명 발병에 10,009명 사망, 1920년에는 24,229명 발병에 13,568명이 사망했다. 이질은 매년 인구 10만 명당 1-2천 명이 발생하며 300-500명이 사망했다. 장티푸스도 매년 10만 명당 1-3천 명이 발생하여 300-700명이 사망하였다. 천연두는 1919년 이후에 크게 발생했는데 1920년에는 11,532명이 발생해 3,614명이 사망했다. 성홍열 환자는 1914년부터 늘기 시작해 1933년에는 1,008명 이환에 242명이 사망했다.

조선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전 기간 동안 이질로 사망한 숫자는 인구 10만 명당 매년 683명, 장티푸스 1,208명, 천연두 365명, 발진티푸스 225명, 디프테리아 477명, 유행성 뇌척수막염 12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이기열 외, 1998).

김인달(1956)은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신장과 체중 변화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한국인 성인의 평균 신장은 1913년의 남자 161.5cm, 여자 147.5cm에서 1940년 남자 166.1cm, 여자 154.4cm로 증가했다. 아동들의 평균키는 일본인보다 현저히 작았다. 한국인 성인의 평균 체중은 1913년 남자 55.5kg, 여자 45.5kg에서 1940년 남자 58.2kg, 여자 52.1kg으로 증가했다.

5. 일본이 독점한 식품산업

5.1. 식품산업 규모

1910년 한일합방에서부터 1945년 광복까지는 서구문명의 유입에 의한 서양음식의 부분적 소개와 인식이 태동한 시기이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수탈과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물자공출로 인하여 온 나라가 극심한 식량난으로 점차 빠져 들어간 기간이었다. 이 시대는 서구식 영양이론이 소개되고 빵, 과자 문화가 이 나라에 유입된 기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식생활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일본의 제빵기술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1920년대 초에 최초의 양과자점인 명치옥(明治屋)이 충무로에 서게 되며 1940년대 초에는 서울에 제빵업소 40여 개소, 제과점 140개소가 생기게 되었다(채예석, 1948).

1922년에 발간된 《조선식료품 동업발달지》(선만실업조사회, 1922)에 의하면 이때에 이미 일본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도정업(208개소), 제분업(8), 과자제조업(44), 한천제조업(3), 제면업(21), 양조업(172), 청량음료제조업(6), 제빙업(2), 제염업(21), 통조림 제조업(19) 등 도합 504개의 식품 제조업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는 우리의 전통적인 식사패턴이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분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제분, 제면, 과자제조, 청량음료, 통조림 등이 소규모이긴 하나 일부 층에서 항상 먹을 수 있는 양이 생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이철호 외, 1988). 그러나 이들 산업화는 일본인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며 한국인은 여러 가지 규제와 차별에 막혀 철저히 배제되었다.

표 3-22는 1929년부터 1938년까지 한국의 식품산업 규모 변화이다 (Grajdanzev, 1944), 이 표는 기업화된 식품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경영한 가내수공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식품업체 수는 1929년 1,958개소에서 1938년 2,399개소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식품업 종사자수는 24,756명에서 37,929명으로 증가했다. 1935년의 가내수공업을 제외한 식품기업들의 생산액이 3,825만 달러인 것에 비해 주로 한국인이 경영한 가내수공업 생산액이 4,645만 달러인 것을 보면 한국인이 경영한 소규모 식품업이 상당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22년의 《조선식료품 동업발달지》에서 파악한 일본인 식품제조업체수가 504개소라면 당시 한국인이 경영한 가내 수공업수는(1958-504=1454) 1,000여 곳이 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표 3-22. 한국의 식품산업 규모 변화(1929-1938) (Grajdanzev, 1944)

	1929	1933	1935	1937	1938
식품제조업소수	1,958	2,183	2,326	2,273	2,399
고용자수	24,756	32,293	34,957	34,999	37,929
가내 수공업을 제외한 생산액(1,000USD)	-	-	38,253	-	70,750
식품산업 총 생산액 (1,000USD)	111,706	61,364	84,710	119,016	137,200

표 3-23은 1935년과 1937년의 식품산업 생산액과 생산량 통계이다 (Grajdanzev, 1944). 전체적으로 당시 가공식품 생산액은 연간 약 1억 달러 수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5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매출액의 42%가 주류이다.

표 3-23. 주요 식품의 매출액과 생산량(1935, 1937) (Grajdanzev, 1944)

	생산액(\$1,000)		생산량	
	1935	1937	1935	1937
맥주(hectolitres)	1,836	3,476	72,640	133,714
탁약주(1,000 hectolitres)	15,994	24,921	3,534	4,123
일본 청주(1,000 hectolitres)	3,528	5,653	174	262
소주(1,000 hectolitres)	10,866	13,706	1,419	1,106
기타 주류(1,000 hectolitres)	3,753	1,638	-	-
주류 합계	35,978	49,395		
간장(1,000 hectolitres)	10,641	15,592	4,136	4,587
된장(M/T)	4,250	5,363	79,940	132,044
밀가루(M/T)	4,649	5,868	56,375	56,337
기타 곡분	1,112	997	-	-
청량음료	472	875	-	-
캔디	4,229	5,167	-	-
전분	1,174	2,109	-	-
설탕	4,261	5,273	-	-
통조림	1,376	2,232	-	-
소금(M/T)	1,315	1,251	98.663	90,129
해조류, 건조가공품	1,433	2,156	-	-
빵(M/T)	1,624	1,882	15,198	15,080
기타	12,194	20,855	-	-
Total	84,710	119,016		

(1) 주류산업

일제는 1907년 통감부 주세령을 공포하여 가정마다 담그던 술을 불법화하고 주류제조 허가제를 시행했다. 1916년에는 주세법을 제정하여 한국의 술을 약주, 탁주, 소주로 획일화하고, 약주의 침전물 재(滓)를 거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사케와 경쟁할 수 없는 저질의 술로 전락시

켰다. 1917년 총독부는 주류제조면허를 정비하여 판매권 배정제를 실시하여 친일 도구화 하였다(이철호, 2021). 1933년 대일본맥주가 1.5백만 엔을 투자하여 조선맥주를 설립했고, 기린맥주(Showa Kirin Beer)가 1.2백만 엔을 투자하여 경성 근교에 맥주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맥주를 거의 마시지 않았고 주로 한국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소비층이었다. 한국인들은 수많은 소규모 양조장에서 제조된 약탁주를 애용했다. 일본식 청주인 사케 생산 공장은 130여 개가 있었으나 주로 일본인 상대였다. 소주도 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았으나 점차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했다. 간장과 일본식 된장(미소)의 생산액이 비주류식품 생산액의 30%를 차지하였다.

(2) 제분산업과 기타 식품산업

밀가루 제분공장은 1919년 만주제분에 의해 진남포에 현대적인 롤 밀 방식의 제분공장이 처음 설립되었으며, 1921년 한국제분(Hokoku)이 두 번째로 경성에 설립했다. 그 후 1931년 풍국제분주식회사의 용산 공장, 1935년 일본제분주식회사(현 대한제분)의 인천공장과 제등제분주식회사(현 삼화제분)의 인천공장, 1936년 일청제분주식회사(현 대선제분)의 영등포공장이 차례로 설립되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1944년에는 7개 제분회사가 가동 중이었으며, 제분 생산능력이 5,000 바렐 정도이나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밀가루를 일부 수입하였다(Grajdanzev, 1944).

청량음료 제조사는 약 10개소이며, 제과공장은 한국제과와 경성제과가 대표적이며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 전분제조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는 일본 미쓰비시사 계열의 일본곡산공업으로 옥수수를 원료로 전분을 생산하였다. 연간 생산량은 45,000톤 정도이나 대부분 수출하였다. 통조림 공장은 통조림용 어류가 잡히는 동해안에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국내

수요는 거의 없고 주로 수출에 의존하였다.

(3) 제당산업

설탕공장은 세계전쟁 중에 조선제당주식회사(Chosen Seito Kaisha)가 사탕무우에서 설탕을 생산하기 위해 해주(Heijo)에 생산능력 5만톤의 공장을 설립했으나 한국에서 사탕무우가 생산되지 않아 회사를 일본설탕공사에 매각하였다. 일본설탕공사는 원당을 수입하여 설탕을 생산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는 아이스케키 같은 저렴한 설탕가공식품들이 인기를 끌었으며 가정용 요리에도 설탕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표 3-24는 설탕의 수출입 통계 자료이다(Grajdanzev, 1944). 설탕의 수출량은 중일전쟁(1937)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수입량은 설탕 완제품이 일본에서 수입된 양도 있었으나 점차 원당으로 원료를 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인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 평균치가 1.5kg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일반인의 설탕 소비는 극히 적은 양이고 주로 상류층이나 한국에 거주한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소비하였다고 본다.

표 3-24. 한국의 설탕 수출입 통계와 1인당 소비량 변화(Grajdanzev, 1944)

	1929	1936	1937	1938	1939
수출(1,000톤)	30.0	33.0	32.5	22.1	12.5
수입(1,000톤)	52.8	66.4	66.5	55.5	57.4
순수입(1,000톤)	22.8	33.4	34.0	33.4	45.4
1인당 연간 소비량(kg)	1.17	1.50	1.52	1.48	1.90
일본인 소비량(kg)	12.1	14.7	14.0	-	-
미국인 소비량(kg)	48.7	46.3	41.8	43.7	48.8

(4) 수산물 가공산업

일제 강점기의 수산물 가공산업은 1918년 1,910만 엔에 불과하던 수산물 가공품 생산액이 1938년에는 5배가 넘는 9,680만 엔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주로 정어리 가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어리 어획량은 1932년 275,900톤(전체 어획량의 23%)에서 '37년에는 1,388,200톤(전체 어획량의 65.5%)으로 증가했다(Grajdanzev, 1944). 정어리는 기름을 짜서 정어리유와 착유박(비료)으로 나뉘는데 정어리유는 글리세린, 지방산, 화약, 의약품 등 군수용품 생산에 사용된다. 1938년에 어획된 정어리의 91%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표 3-25. 1938년 수산물 가공품 생산 통계(Grajdanzev, 1944)

	생산량(M/T)	생산액(\$1,000)
건어품	34,800	6,416
염건어품	7,300	889
자숙건어품(멸치)	15,600	3,372
염장어류	42,500	3,200
통조림(1,000 상자)	2019 ^a	2,089
자반류(Salty fish)	12,900	1,608
해조류(김, 미역 등)	10,200	3,457
기타 수산가공품	12,600	1,297
식품 소계	135,900	22,330
농업용 비료	198,900	14,463
산업용 어유	116,000	10,989
기타제품	2,500	626
수산가공품 합계	453,300	48,409

a: 합산에 포함되지 않음

표 3-25는 1938년의 수산물 가공 통계이다(Grajdanzev, 1944). 건어품, 염장건어품, 자숙건어품(주로 멸치), 염장품, 통조림, 자반류, 해조류 등이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어유와 비료로 사용되는 어유박이 포함된다. 표 3-25에 보면 수산 가공품의 54%가 비식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상당부분이 전쟁을 위한 군수품 제조에 사용되었다.

(5) 유가공업

명치유신 이후 우유소비를 본격화한 일본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우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1911년 5월 ‘우유영업취제규칙’을 마련하였다. 서울역과 청량리 인근에 목장을 조성한 일제는 이후 충남 성환, 강원도 평원, 화양군 난곡 등 전국적으로 목장을 확대하였다. 젖소 사육기반이 마련되면서 1934년 청량리농유조합이 최초로 출범하였다. 한국인과 일본인 15명이 합작해 설립된 청량리농유조합은 젖소에서 짠 우유를 가마솥에 끓여 냉각한 뒤 병에 담아 배달을 했다. 그러나 개인의 우유 판매를 금지한 일제의 방침으로 조합은 해산되었다. 대신 일제는 자국에서 기반을 형성하고 있던 서구식 유가공설비를 바탕으로 근대적인 우유공장을 조선에 세웠다. 1938년 7월 경성우유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독점판매를 했으며, 1945년 9월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전환되어 우리나라 우유공업의 모태가 되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5.2. 주권을 잃은 국민의 고통

일제는 식량과 물자, 경제 수탈뿐만 아니라 전시 동원체제를 갖추어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전선이 확대되자 한국인을 전쟁터로 몰아넣어 일본을 위해 싸우게 했다. 처음에는 군대보충을 위해 육군특별지원병제도(1938)를 실시하다가 이를 징병제도(1943)로 바꾸어 패전할 때까지 약

20만 명의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지원병제도(1943)를 실시하여 약 4,500명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이남택 외, 2005).

이 밖에도 일제는 전시노동에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였다. 1939년 국민징용령이 실시되면서 1백만 명 이상의 한국 청장년들이 전시노동자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사할린 등지로 강제 동원되었다. 이들은 광산 및 비행장, 군수공장, 철도 등의 공사장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했으며, 공사가 끝난 뒤에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무더기로 학살되기도 하였다.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는 어린 학생들을 근로동원이라 하여 군사시설 공사와 토목공사에 동원하였으며, 여성들도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각종 공사에 동원하였다.

군 위안부 제도는 1931년 9월 만주침략 이후 일본군의 중국인에 대한 강간사건이 빈발하여 현지인의 반일의식이 높아지고 군대 내에 성병이 만연하여 전력 유지에 차질을 빚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1932년경부터 도입되었다. 특히 1937년 난징대학살을 계기로 일본군은 군 전속 위안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군 위안부는 식민통치 하에 있는 한국에서 주로 모집하였으며, 점령지였던 중국, 타이완, 필리핀 등지에서도 모집하였다. 모집방법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여공, 식당종업원 모집 등을 구실로 하는 인신매매수법을 이용하였으나, 1941년 이후에는 총독부가 뒤에서 관여하여 면장의 책임 하에 군부대 잡역, 간호보조, 군수공장 여공, 특수근속 근무로 속여 동원하였다. 1938년까지 일본군이 군 위안소를 직접 관리하였으나 그 이후는 형식적으로 민간업자에게 맡겼다. 위안부는 외출이 금지되었고 탈출을 막기 위해 엄중하게 감시받았다. 전쟁 말기 일본군은 패주하면서 일부 일본인 위안부에게만 패주 사실을 알리고 다른 위안부에게는 알리지 않아 폭격 등으로 상당수 위안부들이 사망하였다(이남택,

2005). 일제 패망 이후 위안부는 미군정 당국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귀환하였는데, 상당수의 한국인 위안부들이 귀국하지 않고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 돌아온 사람들도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전력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

참고문헌

- 김인달, 한국인의 체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 자연과학 3: 75-133 (1956)
- 김호직, 조선식물개론, 생활과학사 (1944)
- 선만실업조사회, 조선식료품발달지 (1922)
- 이기열, 이기완, 박영심, 박태선, 김은경, 장미라, 한국인의 식생활 100년 평가 (I), 신광출판사, 서울, pp.28 (1998)
- 이남택 외 9인, 사실로 본 한국 근현대사, 장병 정신교육 발전 연구위원회, 도서출판 황금알 (2005)
- 이석신, 동계에 있어서 조선인의 영양소 및 에너지의 섭취량, 조선화학회지, 1. (1930)
- 이석신, 조선인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조선의 농촌위생 (1931)
- 이철호, 식량전쟁, 도서출판 식안연 (2012)
-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도서출판 식안연, pp.289 (2021)
- 이철호, 구한말 사회변혁과 식량사정, 식품과학과산업, 55(2), 218-238 (2022)
- 이철호, 권태완, 한국식품학입문, 고려대학교 출판부, 서울. pp.125, 141 (2003)
- 이철호, 류시생, 한국 전통식단의 영양가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3), 275-280 (1988)
- 이철호, 주용재, 안기옥, 류시생, 지난 일세기 동안의 한국인 식습관의 변화와 보건영양상태의 추이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3(4), 397-406 (1988)
- 채예식, 「경성을 중심으로 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조사 보고」, 국립화학연구

- 소 보고, 1: 65 (1948)
- 한국식품산업협회, 국민과 함께 걸어온 식품산업 반세기, 한국식품산업협회 50년사 (2019)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인의 사망수준 및 인구 이동추세 (1984)
- Bergman S., *In Korean Wilds and Villages*. John Gifford Ltd., London. pp.49 (1938)
- Grajdanzev AI, *Modern Korea, He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under the Japanes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USA. The Haddon Craftsmen Inc. (1944)
- Ireland ET, *The New Korea*, Dutton & Company, New York. pp. 25, 242 (1926)
- Hulbert HB, *The Passing of Korea*, Doubleday, Page & Company. New York (1906)
- Keith E. and Scott EKR, *Old Korea, The Land of Morning Calm*, Philosophical Library, New York. pp.7, 14 (1947)
- Kim J, *Representing the Invisible: The American Perceptions of Colonial Korea, 1910-1945*. Ph.D. Thesis. Columbia University (2011)
- Roosevelt T, The Japanese in Korea, in *Fear God and Take your Own Part*. The Metropolitan Magazine Company (1915), pp.293-304 (1916)
-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Thriving Chosen*, A Survey of Twenty-five Year's Administration. Seoul. pp.41 (1935)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중의 식량사정

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1.1. 일본의 패망과 광복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은 이미 국력 이상의 무리한 전선의 확장으로 연이은 패배로 군대가 거의 궤멸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이에 연합군은 포츠담 선언 등을 발표하며 일본에게 전쟁을 끝낼 기회를 주었으나 일본제국이 이를 묵살하고 결사 항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본의 전쟁 의지를 꺾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각각 한 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이로 인해 히로시마에서는 군인 2만 명 이상, 민간인 16만 명이 사망했으며, 나가사키에서는 9만 명이 사망했는데 조선인도 3만 명이 사망했다.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연합국에 항복을 통보하고, 8월 15일에 천황 쇼와 덴노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미국은 1945년 9월 2일 도쿄 만에 정박한 전함 미주리호의 선상에서 항복 조인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 외무대신 시게미츠 마모루가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시게미츠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다리를 다쳐 의족을 달고 지팡이를 짚고 항복문서 조인식에 나왔다. 이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은 종결되고 연합군의 일본 점령으로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또한 천황 중심의 일본제국은 멸망하고 일본국 헌법을 기축으로 하는 일본국으로 바뀌었다. 태평양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일본의 책임을 묻는 도쿄 국제군사법정은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 7인을 도쿄 스가모에서 교수형에 처했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범은 25명뿐이고, 당시 일왕이자 최대 책임자였던 히로히토와 난징 대학살 지휘관이었던 아사코노미야 야스히코를 비롯한 일본 왕족들은 처벌을 면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에서 판결을 받고 사형이나 징역 등 끝까지 추적되어 처벌 받았지만 일본의 전범들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 살아남거나 일본 정·재계로 되돌아갔다. 처형된 A급 전범들도 1978년 쇼와순난자라는 이름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

일제의 패망으로 우리 민족은 감격스러운 해방을 맞았으나 36년간의 일제의 수탈로 들판은 비었고 국민은 만성 기아와 영양실조로 굶주리고 있었다(이철호, 2022). 게다가 만주와 북한에서 230만 명의 동포가 일시에 귀국하여 식량난은 더욱 극심해졌다. 광복 직후 150원에서 200원 정도였던 쌀(정백미) 한 말의 가격이 1946년 700원, 1948년에는 1,900원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한미재정협정을 체결하여 경제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시기 경제를 지탱해준 것은 미군정의 원조였다. 미군정은 남한의 식량부족, 전염병, 폭동 등을 막기 위해 밀가루, 비료, 의복, 석탄, 석유 등을 제공했다. 미군의 점령지 구제 정부자금(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은 1948년까지 4억 달러 규모로 제공되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8년 12월 한미원조협정이 체결되었고 원조경제체제가 본격화되었다.

1.2.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

한국의 독립은 1943년 11월 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미국, 영국, 중국 연합국의 모임에서 논의되어, 같은 해 12월 1일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 민족의 노예 상태에 주목하여 적절한 유예기간과 과정을 거친 후에 독립시키기로 약속되었다. 이 약속은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전 약속은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인이 국내외에서 보인 독립의지와 항일무장투쟁으로 얻어진 것이다.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와 행정권 이양 교섭을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활동하였으나 곧 미국과 소련의 점령군이 한반도에 진입한다. 미국과 소련은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보고 소련은 8월 말 개성과 춘천을 포함한 38선 이북을, 미군은 9월 8일 38선 이남을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은 2차 세계 대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1945년 12월에 개최하여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협의하여, 미·소 공동위원회의를 설치하고 임시 민주정부의 수립, 정부 수립과정에서 정당과 단체의 참여, 최대 5년간 신탁 통치의 실시 등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우익은 신탁 통치 반대의 입장을, 좌익은 신탁통치 반대에서 미·소공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는 등 이후 좌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로 인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발언(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위원회를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을 철퇴 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분단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좌우합작 김규식과 여운형 등 중도 세력에 의해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하여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난다.

1947년 9월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키고 유엔에서는 인구비

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유엔 한국위원단이 파견되지만 북한과 소련의 입북 거부로 결국은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된다. 이승만 등의 우익세력 한민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김구 등의 한독당은 반대하여 남북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김구·김규식 등은 ‘남북대표자 연석회’ 개최를 제의하여 북한에까지 다녀왔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남한만의 총선을 반대한 남로당은 1948년 2월 7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 4월 3일에는 제주도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다(제주 4·3사건). 이러한 혼란 속에서 1948년 5월 10일 역사상 최초의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선거가 실시되어 총의원수 300명 중 북한지역에 배당된 100명과 제주도 의석 2명을 제외한 19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으며, 5월 31일에 최초로 국회가 개원되었고,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만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여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제헌국회를 시작했다.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표 4-1).

표 4-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

-
-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 3·1운동에 기초한 망명정부
 - 카이로 선언, 1943년 12월 1일. 이집트 카이로, 한국민족의 독립 약속
 - 포츠담 회담, 1945년 7월 17-8월 2일. 독일 포츠담, 한국의 독립 재확인
 - 일본의 항복, 1945년 8월 15일. 한국의 광복, 미·소 분할 통치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 15-9월 7일. 김규식, 여운형 등
 - 미·소 점령군 한반도 진출, 1945년 8월 말(소련군), 9월 8일(미군), 군정 시작
 - 모스크바 3상회의, 1945년 12월. 한반도의 신탁통치안, 5년간 신탁통치 합의
 - 미·소공동위원회, 1946년 3월 20일. 임시민주주의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유엔총회, 한반도의 총선안 통과, 1947년 11월 14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파견
 - 남한 총선, 1948년 5월 10일. 198명 국민대표 선출, 제헌국회 창설, 이승만 대통령 선출
 -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



그림 4-1. 대한민국 건국수립 선포식, 1948년 8월 15일

제헌국회 기도문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어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만방의 앙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걸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출처: <https://jinanmuzik.tistory.com/19> [JiNan's Story]

1.2.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역할



〈건국대통령 이승만〉

이승만(1875-1965)은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어나, 대한제국 시절 독립신문과 협성회회보 주필, 독립협회 활동 등 계몽운동을 하였고, 왕정폐지와 공화국 수립을 도모하였다는 반역의 죄목으로 한성감옥에 투옥되었다. 수감시절 기독교로 개종하고, 옥중 계몽운동을 하면서 ‘독립정신’을 저술하였다. 대한제국 말기 특별 사면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제 강점기 조선에 귀국하여 계몽교육을 하다가 일제의 체포 위협을 피해 1912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한인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을 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외교독립론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민회의, 상해임시정부, 한성정부 등에서 임시정부의 수반을 거쳐 1919년부터 1925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을 역임했으며, 그 이후 주로 미국에서 외교중심의 독립운동을 펼쳤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제헌국회 의장, 초대 대통령을 역임(1948-1952)하였으며, 제2차 이승만 정부(1952-1956), 제3차 이승만 정부(1956-1960)를 이끌었다. 1960년 85세의 나이로 대통령 4선에 당선되었으나, 개표 과정에서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위한 개표조작이 발각되어 3·15 부정선거 반대시위가 일어났고, 4·19 대학생 총궐기시위가 일어났다. 부통령 당선자 이기붕은 4월 28일 경무대에서 이기붕의 장자이자 이승만의 양자인 이강석에 의해 가족들과 함께 사살되었다. 이승만은 1960년 4월 27일 국회에 대통령직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즉시 수리되었다. 자진하야 후 하와이로 망명한 이승만은 귀국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망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전국대통령 이승만의 공과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승만은 좌파쪽에서는 물론이고, 소위 박정희 대통령을 옹호하는 보수 쪽에서조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선불리 평가를 하면서, 그의 공적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과오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매도하는 경향이 크다. 최근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룬 주요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시도를 저지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초석을 닦은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이승만의 업적이다. 소작제도를 철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여 6·25전쟁으로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으며, 전쟁 중에 ‘이승만 라인’ 평화선(Peace Line)을 선포하여 독도와 한반도 영역을 확고히 했다(그림 4-2). 그러나 1996년 5월부터 2년 3개월간 진행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측 협상대표의 미숙으로 독도영유권이 흔들리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이철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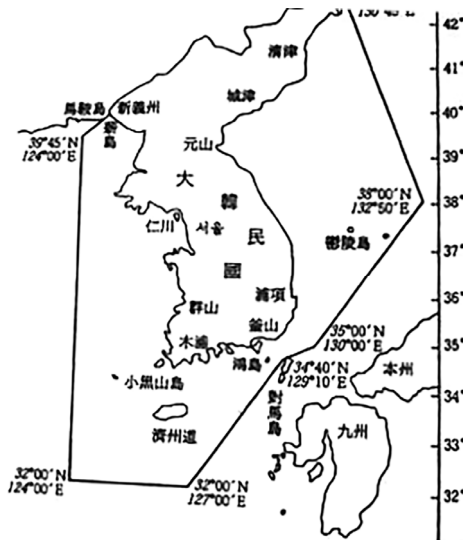


그림 4-2. 평화선(Peace Line) ‘이승만 라인’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 미군이 제시한 일본군과 대만군의 국내주둔 및 지원의사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미국에게 우리의 자주적인 권리를 천명했다. 휴전을 끝까지 반대하여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억 달러 부흥 원조와 한국지상군 20개 사단 증강,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충주비료공장, 문경시멘트공장, 인천판유리공장 등을 준공하여 중화학공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의 세계적인 원자력 국가의 토대를 닦았다. 1953년 인하공과대학을 설립해 문과를 강조하던 전통을 바꾸어 공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의무교육을 실시해 10년도 되지 않아 초등학교가 2800개에서 4600개로 신설되어 학생 수가 136만에서 360만으로 증가했고, 대학도 19개에서 68개, 대학생은 8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중학교는 10배, 고등학교는 3.1배, 대학교는 12배로 늘어났다. 또 문맹퇴치 운동을 통해 1948년 문맹률 80퍼센트에서 1959년 22.1퍼센트로 줄였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 불교, 유교를 포용하고 아우르는 정책들을 펼쳤으며, 전후 56종의 일간신문과 177종의 월간지를 포함하여 411종의 언론 매체가 활동하는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건국과 부흥의 과정에서도 식목일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등 산림녹화와 사방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쳤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시작하여 내각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의 토대를 만들었다.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을 1인당 6천 달러를 들여 인재들을 국비유학을 보냈다. 1953년~1960년 기간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나간 유학생이 4,884명, 1953~1961년 기간에 해외로 떠난 단기연수 기술훈련생은 2,309명, 미국을 다녀온 군 장교와 하사관은 1만 명으로 이들 모두 나중에는 공업화와 근대화의 기수가 되었다. 그의 공과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은 건국대통령이었다.

(출처: <https://swk3169.tistory.com/109>)

1.3. 농지개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농지의 합리적인 배분은 구한말 실학파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실학파의 거두 유형원(1622-1673)은 반계수록의 첫머리에 “토지의 경제가 똑바르면 만사가 필한다. 토지제도를 바로 잡지 않으면 경제생활이 끝내 뒤흔들지 못할 것이요... 그 까닭은 토지는 천하의 대본이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강인희, 1978). 연암 박지원(1737-1807)은 그 자신 군수로 있으면서 허생전(許生傳)과 양반전(兩班傳) 등의 저술을 통해 토지가 없는 농민들의 한숨과 농토의 분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농민의 실태를 고발하였다. 철학사상의 완성자라 할 수 있는 정약용(1762-1836)도 정치의 주체를 민중에 두고 경제개혁 사상의 중심을 전제개혁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농지개혁은 시대적 과제였으며 조선왕조의 몰락과 함께 출발한 대한민국 공화정부의 가장 시급한 사회개혁 과제였다.

1945년 8·15광복 전후의 농지소유 실태를 보면 농지 총면적 222만 5,752ha로 1호당 평균 1.078ha였으며, 자작농(自作農)이 전농토의 37%인 85만 ha, 소작농이 63%인 147만 ha였다. 농가호수에서는 순자작 13.7%, 자작 겸 소작 34.6%, 순소작 48.9%, 피용자(被傭者)가 전체 호수의 2.7%였다. 또 소작료는 경작자 대(對) 지주의 비(比)가 5:5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45년 10월 5일 미군정법령에 의거, 종래의 고율소작료를 수확량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일본인 소유토지와 재산을 군정청 관리 하에 두도록 하였다. 또한 1946년 2월 21일 법령으로 이 재산을 신한공사(新韓公社)에 귀속시켜 귀속농지라 규정하면서 농지개혁의 기본정책 수립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입법의원 내의 다수의석을 차지하였던 지주계급 출신의 한민당 의원들이 정부수립 후에 농지개혁을 실시하자면서 계속

이를 반대하였다. 미군정 당국은 1948년 3월 11일 과도정부법령을 공포하여 신한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일본인 소유농지, 즉 귀속농지에 한하여 우선 농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이것을 제1차 농지개혁 또는 미군정하의 농지개혁이라 한다. 그 개혁의 골자는 유상매수(有償買收)와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농가 호당 2ha(논·밭 포함)를 상한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농지가격은 해당 농지에서 생산되는 연간생산량의 3배의 현물로 하되, 지불방법은 연간생산량의 20%씩을 15년간에 상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연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인 소유농지였던 귀속농지 29만 1,000ha가 미군정의 관리 하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던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또 그 업무를 맡았던 중앙토지행정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농림부에 이관, 접수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제정된 헌법 제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방법, 소유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지개혁을 정책화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이 공포되고, 일부 개정안이 1950년 3월 10일 공포되면서 농지개혁 실시를 위한 입법조치가 완전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 농지개혁법의 주요 골자는 유상매수·유상분배, 한 가구 당 3정보를 소유 상한으로 하고 그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지주에게 지가 증권을 발급하여 매수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가진 농지도 정부가 사들여 이 토지를 소작농에게 역시 3정보를 상한으로 분배하고 매년 평균 생산량의 30%씩 5년 동안 현물로 상환하게 하는 것이다(제2차 농지개혁).

농지개혁법시행령 및 이 시행규칙이 공포될 무렵인 1949년 6월 21일에 집계된 총 매수대상면적은 60만 1,000ha로, 총 경지면적의 27%에 달했으

며, 귀속농지 29만 1,000ha를 포함한 총 분배예정면적은 89만 2,000ha에 이르러, 총 경지면적 222만 6,000ha의 40%에 달했다.

농지개혁에 의해 영세농에 분배된 농지는 일반 수매농지가 75만 5,000ha, 적산농지 26만 9,000ha로, 총면적은 102만 4,000ha였다. 그런데 농지개혁이 있게 되자 이에 앞서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전매가 이루어져 농지개혁 전에 이미 절반 이상의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지개혁이 구체적인 실시단계에 들어갈 무렵 불행하게도 6·25전쟁이 일어나 전화를 모면한 경상남도 일대를 제외한 전국이 농지개혁 실시를 부득이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9·28 서울수복과 더불어 농지개혁 관계 서류의 소실 및 분실 등의 애로가 중첩되었음에도 농민의 오랜 숙원이던 농지개혁사업은 다시 착수하게 되었다.

농지개혁 자체는 당초 목적인 대로의 성과는 올리지 못하였다. 귀속농지를 포함하여 8·15광복 당시의 소작면적 144만 7,000ha의 42.4%(61만 3,000ha)만 <농지개혁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개혁이 되었고, 나머지 83만 4,000ha(은폐소작지 15만 8,000ha)는 <농지개혁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지개혁 직후 은폐소작지로 남아 있던 면적은 15만 8,000ha로 8·15광복 당시 전체 소작지면적 144만 7,000ha의 11%에 불과하고, 전농지의 8%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농지개혁으로 분배되지도 않고 은폐소작지로 남아 있지도 않았던 67만 7,000ha의 행방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면적은 결국 농민 소유로 돌아가 자작지화(自作地化)되었다. 그것은 농지개혁의 절차에 따라 분배되지는 않았지만, 지주와 소작인간의 합의에 따라 농지개혁에서 정한 지가수준(地價水準)이나 상환조건에 준해서 직접 양도가 되었기 때문이다(한국민

죽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편 북한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북조선 토지개혁법〉에 의해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빈농·머슴을 중심으로 한 농촌위원회를 각지에 조직하고, 그 주도에 일본인·민족 반역자·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의 땅을 무상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에게 가족 수에 따라 무상 분배했다. 분배된 토지는 일체의 채무나 부담액 등이 면제되었고,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 지주 중에서도 항일독립운동에 공헌한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었고, 토지개혁에 우호적으로 스스로 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옥과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고 고향에서 사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반항하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토지를 몰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로써 전경지면적의 50%에 달하는 98만 1,390정부가 72만 4,522호의 농가에 분배되었다.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 농촌의 계급관계는 크게 달라져, 지주계급이 청산되고 부농이 위축된 반면, 소작농·빈농·농업노동자들이 농촌의 주요계층으로 등장, 당과 정권의 지지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은 곧 전 국토 국유화 공산정책에 의해 모두 몰수되었다(한국근현대사사전).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은 농지개혁을 경쟁적으로 단행했다. 처음에는 북한의 토지개혁이 과감하고 정당해 보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기반한 토지개혁은 개인재산의 몰수를 위한 방편이었다. 북한의 상황에 대한 칼드웰(J.C. Caldwell)의 기술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북한은 1946년 민심을 얻기 위해 단 25일 만에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1948년 이들은 공산당에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선택적 혜택을 주기 위해 전면적인 재분배를 실시하면서, 토지 소유가 아닌 토지사용권(utilization right)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북한정권은 사용권을 박탈함으로써

서 국민을 노예화할 수 있었다. 1947년 북한은 벼농사에 27%의 세금을, 기타 곡식에는 25%의 세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더하여 관개비용(irrigation fees), 군사세금(army levies), 기타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수확의 거의 모두를 걷어갔다. 공산당개혁에 대한 나의 지식은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에게서도 확인되었다. 어떤 개혁은 처음에는 대단히 뛰어난 혁신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런 개혁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미끼일 뿐이고, 결국은 경찰국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들의 개혁은 허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거짓 신화를 많은 미국의 지식인들도 아직 믿고 있다”(Caldwell and Frost, 1952).

1.4. 한국전쟁(1950-1953)

한국전쟁(또는 6·25사변)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이 남한을 불법 기습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 전쟁이다. 북한의 김일성은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미·소 양국의 군대를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소련은 그해 10월부터 철병을 개시했으며, 미국은 1949년 6월에 약 500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7,500명의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9년 3월 17일 북한은 소련과 조소군사비밀협정을 체결하고, 중공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중국 공산군에 있던 조선군 2만 5,000명이 북한에 인도되었다. 1949년 10월 중국대륙이 공산화되었고, 1950년 1월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1949년 말경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남한에 대한 무력 침공계획을 스탈린(I. V. Stalin)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김일성은 남한의 혼란 상태에서 밀고 내려가면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들이 북한군을 환영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전해에 농지개혁으로 농토를 소유하게 된 남한의 농민들은 북한군을 환영하지 않았다. 북한은 기습공격으로 전쟁발발 3일 후인 6월 27일 서울을 점령하고 7월 3일에는 한강을 넘어 파죽지세

로 남진하여 호남지방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소위 ‘해방전선’에 적극 가담할 줄 알았던 남한 인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고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이 북한군의 군수품과 식량 수송을 차단했다.

국제연합(UN)은 북한의 남침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다국적 유엔군을 창설하여 한국전쟁에 투입했다. 참전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의 16개국과 병원선을 보낸 스칸디나비아 3국 등이 참여했다. 7월 7일 맥아더(D. MacArthur)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조직되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했다.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0일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했으나 더 이상 진격을 멈춘 사이 11월 중순 중국인민지원군이 개입하여 전세가 뒤집혔다. 해산진까지 진격하던 연합군은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큰 피해를 보고 흥남부두에서 대규모 후퇴작전을 벌였다.

흥남철수작전은 1950년 12월 15-26일 미군 장비를 실은 수송선(Navy LST, Meredith Victory호 등)에 10만여 명(98,100명)의 북한 탈출민을 태워 거제도과 부산, 제주도 등지에 피난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다(Gilbert, 2000). 이들 피난민들은 대부분 지난 5년간 공산치하에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이었다. 군용선에 민간인을 태우도록 허락받은 알몬드 사령관의 통역장교 현봉학은 훗날 호국인물,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철수작전을 지휘한 미10군단 사령관 에드워드 알몬드(Edward Almond) 장군과 라루(Leonard Larue) 메러디스 빅토리호 선장도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되었다. 필자는 다섯 살의 나이에 눈날리는 흥남부두에서 LST를 타고 장승포로 피난했다. 어머니는 반동분자라는 죄명으로 평안

북도 용등탄광에 3년째 수감되어있는 아버지를 남겨두고 외할머니와 우리 5남매를 데리고 남한으로 가는 이 배를 필사적으로 탄 것이다, 배에 걸린 줄사다리를 타고 까마득히 내려다보이는 파도치는 바닷물을 내려다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그림 4-3)(이철호, 2015).



그림 4-3. 코리안 엑소더스로 불리는 1950년 12월의 흥남철수작전

Bill Gilbert의 Ship of Miracles(2000)에서 인용

국군은 1월 4일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후퇴했으나(1·4후퇴), 2년여에 걸친 전투 끝에 1953년 7월 22일 38°분계선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림 4-4는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15일 까지 진행된 북한군 남침도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남한군의 북진 상황도, 그리고 1953년 7월 22일 휴전협정에 의한 휴전선 및 북방한계선을 보여주고 있다(이중근, 2013).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정전협정을 반대하여 유엔군과 북한군만이 협정에 조인하였다. 전쟁의 피해는 엄청나서 남한인 200여만 명 사상, 북한인 332여만 명 사상, 미국인 4만여 명 전사, 중공군 18만여 명이 전사하였다(국가기록원, 2021)(표 4-2). 남북한 모두 도시와 농촌이 파괴되고, 국민은 기아선상에 헤매게 되었고 수십만의 고아가 발생했다. 전쟁 중에 북한의 공산치하를 탈출하여 남한으로 내려온 피난민이 2백만 명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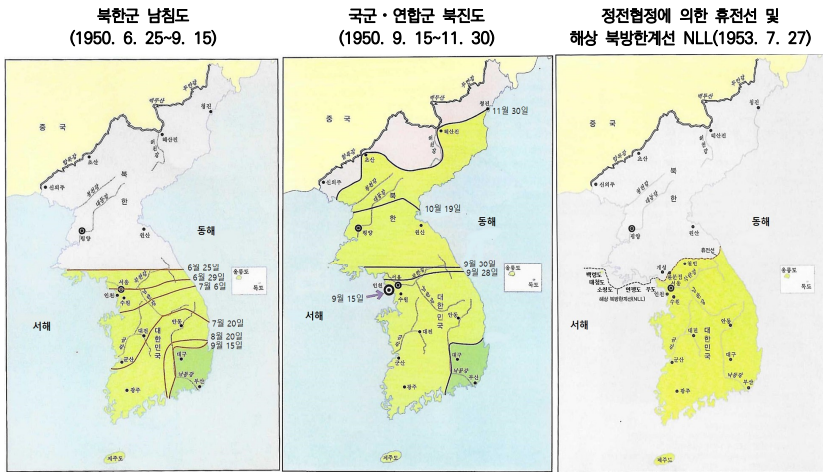


그림 4-4. 한국전쟁의 시작과 휴전협정까지의 상황도(이중근, 2013)

표 4-2. 한국전쟁의 피해규모

한국		북한	
군인		군인	
149,005명	전사	294,400명	전사
710,783명	부상	226,000명	부상
19,400명	실종	120,000명	실종 및 포로
8,800여 명	포로	민간인	
민간인		406,000명	사망
373,599명	사망	1,594,000명	부상
229,625명	부상	680,000명	행방불명
303,212명	행방불명	총계	
총계		700,000명	사망
522,604명	사망	1,820,000명	부상
940,408명	부상	800,000명	실종
435,468명	실종	총계 3,320,000명 사상	
총계 1,898,480명 사상			
미국		중국	
36,940명	전사	183,000명	전사
92,134명	부상	383,500명	부상
3,737명	실종	25,600명	실종 및 포로
4,439명	포로	총계	
총계	137,250명	592,000명	사상 및 실종
영국		베트남	
1,078명	전사	315명	전사
2,674명	부상	500명	부상
179명	실종	총계 815명	
997명	포로		
총계	4,908명		
총계 : 1,500,000명 이상		총계 : 1,190,000명~1,577,000명	

출처: <https://alegria0702.tistory.com/208>

1948년 1월 유엔임시위원회의 종군기자로 한국에 온 존 칼드웰(Jhon C. Caldwell)은 그의 저서 ‘한국 이야기(The Korea Story)’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난 시기의 국내외 사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 자신이 부모를 따라 중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으며, 춘천에서 근무할 때 그의 조수로 일한 플레처와 결혼했다. 플레처는 선교사(A.G. Fletcher)의 딸로 한국에서 나서 교육받은 미국인이다. 칼드웰은 1880년대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에 의해 시작된 한국 기독교가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 서울에만 290개소의 기독교 교회가 있었으며 평양에는 4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압록강에서 부산까지 선교사들이 지은 병원, 초중등학교, 대학, 교회, 성당 등이 산재해 있었다. 따라서 이 시대 한국인은 서양의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사상에 대해 눈을 뜨고 있었으며, 이것이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한다. 특히 4대에 걸쳐 한국에서 사역한 언더우드 가문의 헌신에 대해 그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박사와 의사인 부인(Lillias Horton)이 한국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1885년)는 조선은 ‘은둔의 나라’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보는 서양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때였다. 언더우드 부인은 이런 장벽을 극복하는데 성공적이었으며 왕가의 의사로 일했다. 그녀가 서울에서 아들(Horace Horton Underwood, 1890-1951)을 낳았는데 아마도 한국에서 출산한 최초의 백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들 언더우드는 아버지를 따라 위대한 교육자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설립한 조선기독교대학(Chosun Christian Church,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이었다. 그의 부인은 1949년 공산당 조직원에게 집 현관에서 암살되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그는 미국에서 휴양하고 있었는데, 6·25 동란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으나 미군에서 선교사의

한국행을 금지했으므로 미군 자원병으로 1950년 가을에 한국에 돌아왔다. 그러나 심적 충격과 과로로 1951년 2월에 사망하고 부산 선교사 묘지에 묻혔다. 그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모두 한국에 있었다. 맏아들 딕(Dick)은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자 미 육군에 자원입대하여 전투에 참가했다. 둘째아들 존(John)은 선교사였는데 민간 통역인으로 미군에 들어가 전투에 참여하면서 부산에서 난민구호에 진력했다. 셋째아들 호러스(Horace)는 미 해군장교로 일본으로 잠시 후퇴했다가 인천 상륙작전 때 크게 기여했다. 언더우드가는 평소에 해안선과 강을 따라 뱃놀이를 즐겼는데, 상륙작전에서 인천의 해류와 뻘, 그리고 한강의 위험한 해류를 아는 사람은 호러스 뿐이었다. 그는 또 경찰대원들과 한강을 거슬러 헤엄쳐 서울 상류에 있는 북한군 진지를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호러스와 딕은 1951-52년 개성과 판문점에서 열린 휴전협정 회의에 통역으로 참여해 한국인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고 협상을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의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다”(Caldwell and Frost, 1952).

2. 전쟁 중의 식량 수급

광복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이어진 전쟁은 한국사회를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었다. 2백만이 넘는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을 맞은 남한은 식량을 비롯해 모든 물자가 모자라는 절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1947년에는 제조업의 가동률이 20% 수준으로 떨어져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의 부족이 심각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유엔의 지원과 구호물자가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미군정은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 Appropriate) 원조 계획에 따라 1946년에 6백만 달러, 1947년에 9,300만 달러, 1948년 1억 1,300만 달러, 1949년 1억 4,400만 달러, 도합 3억 5,600만 달러의 원조 자금을 식량, 의류, 비료, 연료 공급에 사용하였다(Cho

SS, 1967). 한국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미군정의 지원프로그램은 미 국무부 산하 경제협력국(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으로 이관되었다. 트루만(Harry S. Truman) 대통령은 1949/50년 회계연도에 한국 원조자금 1억 5,000만 달러를 승인해 줄 것을 1949년 6월 미 국회에 요청하였는데 상원에서는 통과되었지만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당시 미국 경제에서는 한국 정부가 살아남지 못할 것 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요청안은 1950년 1월 미 국회에 재상정되어 상하원에서 모두 승인되었으며 1월 30일부터 ECA가 1억 1,000만 달러의 원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금으로 모자라는 식량과 더불어 비료와 전력을 확충하여 식량생산과 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되었다. 조순성은 만약 미국의 경제지원이 좀 더 일찍 결정되어 한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면 북한의 남침도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썼다(Cho SS, 1967).

필자는 1994년 미국 스미소니안연구소의 방문교수로 있으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국가문서보관소(The US National Archives)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경제와 식량사정에 관한 문서를 조사하였다. 다음은 미국 국가문서보관소의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2.1. 전쟁 전의 식량사정

1949년 5월 1일 실시된 인구조사에 의하면 남한의 총인구는 20,188,641명이며, 인구밀도는 1평방마일에 558명으로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미국 군정요원을 제외한 외국인은 21,885명으로 중국인이 가장 많고 주로 인천과 서울에서 거주하였다. 도시인구는 1935년의 11.60%에서 25.56%로 증가했는데 주로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과 일본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다(Franklin Ray Jr., May 9, 1950). 이러한 도시인구 증가현상은 주거문제, 공공서비스, 위생 공중보건

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농업인구 31%, 어업 0.44%, 광업 0.17%, 제조업 1.32%, 운수 0.37%, 공무원 2.06%, 가사 0.71%, 기타 1.48%이며, 60.52%가 무직인데 여기에는 어린이, 학생, 노인, 환자, 주부, 재소자, 실업자 등이 포함된다.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1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북한 월남인과 일본 이주민으로 인해 실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도시민과 실업자의 증가는 값싼 노동력으로 산업발전에 다소 기여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가 1948년 10월 9일 시행한 양곡매입법은 턱없이 낮은 수매가 때문에 농민과 지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Franklin Ray Jr., May 9, 1950). 범정부적인 홍보와 강제집행이 시도되었지만 결국 목표량의 45%인 385만 2,000석을 매입하는데 그쳤다. 1949년의 농업생산 통계에 의하면 식량 자급을 위하여 미국에서 4,700만 달러의 비료를 수입하였다. 보리, 나뭇, 밀, 귀리 등 하절기 곡물의 수확량은 770,857 M/T으로 1945년에 비해 약 25% 증가하였다. 이 해의 쌀 생산량은 240만 톤에 달했으며, 이것은 1941년 이래 최대수확을 거둔 1948년도 수확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을걷이인 호밀, 수수, 좁쌀, 콩의 수확은 양호하였다. 어류와 수산물 생산량은 299,964 M/T으로 전해인 1948년보다 5% 정도 증가했으며, 어류가 78%, 수산동물이 16%, 해조류 3%, 패류가 3% 였다. 해조류와 조개류의 생산은 전년도보다 각각 14%, 20% 증가했으나 어류 생산은 3% 증가에 그쳤다. 이것은 어선의 노후화와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대부분의 어민들은 영세하여 어선에 투자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 경제협력국(ECA)은 1951 회계연도에 어선 구입비용으로 2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Franklin Ray Jr., May 9, 1950).

한국은 국민의 3/4이 농촌인구인데 대부분 원시적인 농업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단히 가난하며 구매력이 거의 없다. 1949년 12월 31일 기

준 한국은행 예금액은 448억 원으로 1달러 환율을 약 1,800원으로 계산할 때 1인당 평균 예금액은 1.5달러에 불과하다(Franklin Ray Jr., May 9, 1950).

1950년 3월 11일 한국주재 미국 경제협력국(ECA) 식량경제부 클라렌스 엣킬슨(Clarence R. Eskildsen)이 작성한 -한국의 1950년도 식량정책-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한국 정부수립 이후 경제정책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것은 한국의 생산 유통 경제주체들이 자유기업,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직 확신하기에 이르는지는 하지만 한국정부의 고위인사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특히 식량공급 관리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48년 12월 10일 한국정부와 ECA가 체결한 지원협정에는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모든 비농업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적정 가격에 공급 받으며 가난한 사람들도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대량의 곡물을 수매하는 것은 바라지 않으며 곡물의 자유 시장거래가 더 효과적이며, 실제로 쌀과 다른 곡물들의 자유 경쟁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1949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50년도 식량계획은 대통령실이 선호하는 700만 석의 쌀을 수매하여 모든 비농업인에게 배급하거나 정부가 쌀을 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이었다. 반면 농림부는 430만 석을 수매해서 100만 석을 수출하고 약 100만 석을 미가 안정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350만 석을 농민으로부터 수매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12월에야 약 90%가 수매되었다. 그러나 식량배급과 시장 유통이 원활치 않아 쌀값은 급등하고 농림부 장관과 차관이 사임했다. 양곡관리법이 ‘50년 2월 15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쌀 수확량의 1/3까지 수매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매가는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남한에는 아직 경제복지나 기업 활동을 보장할 만한 방안이 수립되어있지 않다. 물가상승률은 1947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49년 12월 서울 도매가격은 290, 소매가격 257, 서울 임금은 374, 화폐발행고 370, 쌀 소매가

격은 198이었다. 쌀 한말(20리터) 가격은 86센트였으나 환율이 급등하여 다음해 1월 말에는 60센트에 상당했다”(Eskildsen, 1950).

엣킬슨의 보고서에는 1948년과 1949년의 쌀 생산량과 수매 상황을 비교한 추정치들이 수록되어 있다(표 4-3). 이들 자료는 통계적인 정확도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분단 직후 남한의 쌀 생산량은 250만-290만 톤 수준이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수매보다 자유 시장거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보다 1949년의 쌀 배급 수혜자는 줄고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Eskildsen, 1950).

표 4-3. 1948과 '49년 쌀 생산량과 수매상황(Eskildsen, 1950)

	1948년		1949년	
	원본(백만석)	M/T 환산	원본(백만석)	M/T 환산
쌀 생산량	18.0	288만 톤	16.0	256만 톤
전년이월(정부)	1.2	19.2만 톤	0.6	9.6만 톤
전년이월(비정부)	0.0	0.0	1.5	24만 톤
농가용	9.0	144만 톤	9.0	144만 톤
정부수매	4.0	64만 톤	3.3	52.8만 톤
자유시장거래	6.2	99.2만 톤	5.8	92.8만 톤
총인구수(백만명)	20.2		20.7	
농가인구(백만명)	12.5		12.5	
쌀 배급인구(백만명)	6.3		2.3	
비배급인구(백만명)	1.4		5.9	

(주) 쌀 1석= 160kg

1949년 11월 14일 한국정부는 전국의 정부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미군정의 경제협력국(ECA) 한국사무소에 보고하였다(Franklin Ray Jr., Feb. 18, 1950). 미국무부 경제협력국에 보고된 자료에서 발췌한 경기도를 비롯한 5개 도의 식량 재고 목록은 표 4-4와 같다.

쌀, 보리, 밀(밀가루), 귀리와 콩이 중요한 식재료임을 알 수 있다. 밀은 밀가루의 형태로 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탈지분유가 상당량 원조의 형태로 한국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옥수수는 이때까지만 하여도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표 4-4. 1949년 도별 정부창고의 식량재고량(Franklin Ray Jr., Feb. 18. 1950)

(단위: M/T)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쌀(정백미)	2,956	1,962	1,309	943	4,396
쌀(벼)	3,652	4,342	1,769	3,949	3,869
찹쌀	41	47	57	17	3
보리	1,287	2,776	762a	4,173	82,050
귀리	2,065	706	592	374	237
밀	938	106	446	189	1,601
밀가루	3,261	55	424	13	934
잡곡	155	146	602	183	307
콩	45	1,612포	884포	204	39
분유	19	619	19	2	-

(주) 잡곡: 기장, 옥수수, 기타. a:+겉보리 4,477M/T.

표 4-5는 한국 식량정책분과위원회와 미사절단 경제안정위원회(American Mission Economic Stabilization Committee)가 작성한 1950년도 정부수매 미국 350만 석(56만 톤)에 대한 사용 계획이다(Franklin Ray Jr., Feb. 11. 1950). 1인 1일 배급량은 대개 2홉(320g)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배급에 사용한 쌀은 1,745,000석(28만 톤)이며, 수출용으로 70만 석(11만 톤), 정부 비축용으로 1,075,000석(17만 톤)이 책정되었다. 값비싼 쌀을 수출하고 그 돈으로 값싼 조곡(보리, 밀)을 수입하여 모자라는 식량을 보충하려는 것이 당시 식량정책의 일환이었다. 1950년에 10만 톤의 쌀을 일본에 수출하고 밀과 보리를 수입하였다(Franklin Ray Jr., April 5. 1950).

표 4-5. 1950년도 정부수매 미곡 사용계획

	기본 공급량		필요량	
	1인 1일, 홑	수혜 인구수	석	비 고
1. 특수 고용인	2홑	114,000	85,000	경찰, 간수, 소방인, 우체부(365일)
그들의 가족	2	386,000	209,000	'49 11,12월, '50 3-10월 총9개월
2. 주요산업 고용인	2	155,000	133,000	광산, 주요산업 고용인과 가족
그들의 가족	2	402,000	296,000	(365일)
3. 재소자, 억류자	2	58,000	42,000	(365일)
4. 1-3의 보충량	2	327,000	211,000	사무직은 0, 재소자는 1홑
5. 공무원 가족	1개월 2말	257,000	153,000	'50년 1-3월 대통령 명령
6. 군용미	-	-	307,000	군인과 그 가족들
7. 극빈자	1.7홑	483,000	309,000	223,000석은 1.5홑씩 (365일)
수출용 쌀			700,000	
정부 비축미			1,075,000	시장 방출 70만석, 비상용 375,000석
합 계		2,172,000		3,500,000석

2.2. 전쟁 중의 물가동향과 식량난

표 4-6은 1949년부터 1951년까지의 부산지역 주요 식품 물가동향이다 (Franklin Ray Jr., Feb. 25. 1950). 전쟁 중의 물가상승은 엄청난 것이었다. 쌀값은 전쟁 전인 1950년 1월 20리터(1말은 10되, 18리터 인데 여기서 1말을 20리터로 표시한 것으로 사료됨) 즉 1말에 3,300원이던 것이 6월 15일에 19,000원으로 5.8배 상승 했다. 보리쌀(4.2배)보다 쌀값의 상승이 훨씬 높다. 그만큼 쌀이 귀해졌다는 것이다. 돼지고기, 달걀, 북어 등은 10배 넘게 가격이 상승했다. 1947년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식품 물가지수는 1950년 1월에 357, 전쟁이 시작되어 1년이 지난 1951

년 6월에는 2,226에 달했다. 다른 물건보다 식품 값의 상승률이 현저히 높았다.

표 4-6. 부산지역 주요 식품 물가동향(1949-1951) (Franklin Ray Jr., Feb. 25, 1950)

(단위: 원)

	1949년 평균	1950년 1월	1951년 6월 15일
쌀(정백미)(20리터)	2,132	3,300	19,000
보리쌀(20리터)	1,656	3,080	13,000
밀가루(1포, 22kg)	3,228	3,750	43,000
콩(20리터)	1,879	2,500	18,000
쇠고기(1근, 0.6kg)	406	450	-
돼지고기(1근, 0.6kg)	338	400	4,800
달걀(10개)	338	400	4,600
복어(1궤, 20마리)	624	1,300	14,000
배추(1관, 3.75kg)	355	780	2,000
무(1관, 3.75kg)	133	160	3,000
감자(1관, 3.75kg)	316	500	4,000
고춧가루(1되, 1.8리터)	796	700	24,000 ^a
참기름(1되, 1.8리터)	2,917	2,900	18,000
소금(1되, 1.8리터)	102	150	1,500 ^a
간장(1되, 1.8리터)	209	260	1,500
된장(1관, 3.75kg)	550	600	5,000
설탕(1근, 0.6kg)	445	600	5,000
약주(1되, 1.8리터)	207	260	1,700
소주(1되, 1.8리터)	355	450	4,700
소비물가지수 전체(1947=100)	-	326.5	2077.9
식품	-	357.7	2226.3
의류	-	245.3	1797.3
연료	-	313.1	2033.0
기타	-	239.6	1126.7

a: 2리터

전쟁 중의 한국인들의 생활은 궁핍 그 자체였다. 1달러 환율이 6,000원이었으며, 대통령의 월급이 25달러, 부통령이 20달러, 국무총리가 17달러를 받았다. 초중등학교 교사월급이 7달러, 은행원이 6.66달러, 미군부대 고용인 11.66달러, 보통 노동자들은 일당이 1-2달러 수준이었다(Department of State, USA, Aug. 16. 1951).

한편 1951년 10월 미국무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한국 사무직 월급과 노무직 임금은 위의 자료 보다 훨씬 높게 조사되고 있다(Carpenter, S.S., Oct. 2, 1951). 한국은행에서 1951년 7월 사무직과 노무직 가정 47 가정에 대한 수입·지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사무직(평균 가족수 4.68인)의 평균 월급은 321,457원이며 기타수입이 213,418원으로 조사되었다. 노무직(평균 가족수 4.63)의 월평균 임금은 303,171원이며 기타수입 128,53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수입에 대한 용도는 표 4-7과 같다(Carpenter, S.S., Oct. 2, 1951).

표 4-7. 1951년도 사무직과 노무직의 생활비 목록

	사무직(원)	노무직(원)
식품	182,822	156,445
주거비	22,395	8,814
광열비	17,126	20,512
의류비	59,653	31,360
공과세비	4,695	11,528
위생 의약비	22,992	15,872
교육비, 오락비	32,159	12,154
통신 여행비	9,696	2,633
연회비	2,425	659
잡비	13,247	20,718
기타	167,665	151,015
합계	534,875	431,701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 국무부에 보낸 1952년 3월 26일 서신에는 한국의 식량사정이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Strong G.B., March 26, 1952). 쌀값이 한 말에 7만 원으로 오르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다. 3월 8일 유성의 대한청년단에서 '쌀을 달라'는 피켓을 들고 대전까지 행진을 했는데 경찰이 주모자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신문에 내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까지 미국무부에 보고되었다. 1952년 9월 15일 서신에는 당해 연도 쌀 생산량에 대한 추정치가 유엔군사령부(UNC)에서는 1,500만 석인데 반해 한국정부는 900-1,000만 석으로 추정해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전해에도 UNC에서 1,300만 석으로 추정했는데 한국 농림부는 1,100만 석, 재정부는 900만 석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당시 재정부 장관 백두진에게 말했더니 그 차이는 수입쌀이라고 단언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첫째, 한국정부가 일제강점기부터 절약을 강요당해온 농민에게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지 않으려는 의도, 둘째, 한국 군인과 경찰들이 중간에서 쌀을 빼돌리고 있다는 점, 셋째, 정부가 수입한 곡물은 주로 군인, 경찰, 공무원과 일부 민간인에게 배급되는데 이것은 수혜자에게 특혜이며 또한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점, 그리고 넷째로 정부가 배급쌀의 가격을 한 말에 9만원(부산 자유시장 가격이 145,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할 때 인플레이를 부추긴다는 언론의 강한 저항에 대한 우려 등을 들고 있다(Strong G.B., March 26, 1952). 그러나 실제 속내는 한국정부는 가급적 생산량을 낮춰 미국의 원조를 더 많이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 국무부에 보고된 자료에는 식량부족으로 기아사태가 발생한 국내 신문기사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민중일보와 코리아타임스 1953년 1월 28일자에는 농림부가 작년의 가뭄으로 530만 명에 대한 긴급 식량구호가 요구된다고 하고, 10월까지 89만 톤의 곡물 수입이 필요하지만 유엔사는

현재까지 5만 톤 만 지원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금년 5월에는 적어도 1백만 명의 기아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앙일보와 다른 2개 신문도 서남해안의 섬에서 20만 명의 기아민이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요구된다는 기사를 썼다. 물론 이런 기사는 정부를 돕기 위해 썼겠지만, 이것은 또한 북한이 ‘남한이 망해가는 증거’라는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

1952년 11월 1일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953년도 한국정부의 곡물수입 필요량은 1,025,188 M/T으로 발표했는데, 국내 생산량 2,560,000 M/T을 합하면 1인당 연간 1.16석(185kg, 또는 1인당 1일 460g)이 공급되는 양이다. 이 양을 충족하기 위해 유엔군 한국민간구호처(CRIK: Civil Relief in Korea)가 328,570 M/T, 유엔 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이 79,200 M/T, 한국정부 해외교환 511,234 M/T, 민간무역 106,184 M/T으로 채운다는 계획이었다. 한국정부의 해외교환은 쌀을 팔아 보리나 밀을 수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1952년부터 1953년 4월 30일까지 실제 수입된 양곡은 표 4-8과 같다(Mellen S.L.W., July 7, 1953). 반년동안 수입된 곡물은 목표량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 4-8. 1952년 11월 1일 - 1953년 4월 30일 기간 중 수입된 곡물량(M/T)

	쌀	보리	밀	수수	밀가루	합계
한국정부 수입	66,018	38,926	15,700	-	-	138,583
CRIK 수입	53,418	55,575	27,374	19,554	-	155,881
UNKRA 수입	-	48,307	-	-	-	48,307
민간무역 수입	1,940	6,421	-	-	41,685	50,046
합계	121,376	149,229	43,074	19,554	41,685	393,817

1953년 3월 주한미대사관 직원이 남부지방(진주, 남원, 광주, 보성)을 1주일간 시찰한 결과 실제로 그 지역 농민들은 쌀이나 보리 배급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야말로 초근목피에 고령토(kaolin)를 먹고 있었다. 농부들은 지난해 가뭄으로 쌀 수확이 1/2 또는 2/3로 줄었다며, 보리가 수확되는 5월까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게릴라들이 출몰하는 지역은 게릴라들에게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식량을 뜯어간다고 하소연하였다. 남부지역 대부분이 영양실조와 폐결핵이 만연하고 있었다(Mellen S.L.W., April 7, 1953).

표 4-9는 1952년 11월부터 1955년 6월까지 식량수급 현황(쌀 대등치)을 요약한 도표이다. 각 년도의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쌀의 수확량을 의미하며, 6월 1일부터 10월 31까지는 보리, 밀 등 여름곡식의 수확량이다. 국내 쌀 생산량은 1952/53년의 175만 톤에서 1954/55년의 260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공급량도 같은 기간 407만 톤에서 46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소비량은 1인당 연간 1.16석(185kg)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인구수와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Mellen S.L.W., July 7, 1953).

표 4-9. 한국의 식량수급 현황(1952년-1955년) (M/T, 쌀 대등치)

기간(년.월.)	전년이월	생산량	수입량	총공급량	소비량 ^a	익년이월
1952.11.-1953.5.	50,000	1,749,300	687,167	2,486,477	2,013,375	473,102
1953.6.-1953.10.	473,102	812,200	300,400	1,585,702	1,438,125	147,577
1953.11.-1954.5.	147,577	2,284,400	182,000	2,603,976	2,087,515	516,461
1954.6.-1954.10.	516,461	812,200	304,000	1,632,661	1,491,082	141,579
1954.11.-1955.5.	141,579	2,600,000	182,000	2,923,579	2,170,000	753,579
1955.6.	753,579	900,000	26,000	1,679,579	310,000	1,369,579

a: 소비율= 1인당 연간 1.16석, 인구 1952년11월- 2,160만; 1954년11월- 2,300만명

질병과 기아에 내몰린 국민들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UN과 미국의 원조였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UN은 ‘민간 구호 원조(Civil Relief in Korea)’를 추진, 1954년까지 4억 5,000만 달러의 물자를 지원했다. 밀, 옥수수, 쌀, 소금, 메밀, 캐러멜 등의 식량과 헌 옷, 담요, 침대, 고무신 같은 의류, 위생상자,약품 같은 구호물품까지 다양한 원조 물자가 제공되었다. 전쟁 초기 피난민에게 지급된 하루 쌀 2홉과 현금 50원은 전쟁을 버티게 하는 힘이였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휴전을 앞둔 1953년 미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 재건과 공산화 저지를 위해 원조에 나섰다. 미 국방부의 대외활동본부(FOA)와 국무부의 국제협조처(ICA) 주관으로 1961년까지 17억 4,000만 달러의 자금이 한국에 들어왔다. 이 원조 자금은 한국과 미국 관리가 참여하는 합동경제위원회를 통해 집행되었다. 그러나 원조 방향에 대한 입장은 한국과 미국이 달랐다. 한국 정부는 전기·비료·시멘트 등의 기간산업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소비재 공급과 함께 경공업 위주의 지원을 원했다. 결국 공여국인 미국의 뜻에 따라 소비재 및 그 원료가 원조 물품의 72%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결과 식품공업은 섬유공업과 함께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1956년부터 한국에 ‘PL480 원조’(Public Law 480)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56년부터 1961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밀, 보리, 쌀, 원면, 돈육통조림, 잎담배 등을 제공 받았다. PL480 원조는 전후 고질적인 식량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식품 소재를 조달, 식품공업이 희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3. 광복 이후 제1공화국의 한국인 식량·영양 상태

광복과 전란을 겪은 1945년부터 1960년 기간은 사회경제적 격동 못지 않게 우리의 식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기간이다. 이 시대의 식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6·25전쟁이었다. 전쟁 중에 굶주린 한국인은 미국에서 원조물자로 들어온 분유의 무상배급으로 우유를 먹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한국민은 평상시라면 소화불량으로 먹지 않을 우유를 전쟁의 특수상황에서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고, 계속 먹다 보니 우유를 먹지 않던 민족이 우유를 먹는 민족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이후 한국인의 식사습관을 바꾸어 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군과 유엔군에서 유출된 각종 과자류와 통조림류는 기아선상에 있었던 한국인, 특히 어린이들에게 순식간에 받아들여졌다. 서양 과자류는 이때에 전국적으로 소개되어 그 후 공업화 생산이 성립될 수 있었으나, 반면 전통 한과류는 급속히 잊히게 되었다.

이기열 등(1998)은 전쟁기간 동안의 영양섭취상태 조사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지 전쟁 시에 굶주림에 직면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25%나 되었고, 농업 생산은 27% 감소되었으며 남한에서 집을 잃고 방황하는 전재민의 수가 20여만 명에 달했다는 자료에서 당시의 참혹함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광복 후 미국의 잉여 농산물 도입량을 조사하여 보면 밀과 밀가루의 도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밀가루 분식이 전국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는 1인당 GNP가 100달러 미만인 절대빈곤시대로 규정될 수 있는 시기이다(이철호 외, 1988; 이철호, 2021). 한국통계연감(1970)에 의하면 남한의 인구수는 1946년 1,936만 명에서 1955년 2,150만 명, 1959년

에는 2,361만 명으로 증가했다. 표 4-10에 보면 1954~1964년 사이에 GNP는 72~107달러 수준이었으며 앵겔계수는 농가에서 74~59% 수준, 도시근로자의 경우 41~56%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표 4-10. 한국전쟁 이후 10년의 국민총생산과 앵겔계수의 변화

년도	1인당 GNP	앵겔계수	
	(\$)	농가(%)	근로자(%)
1954	72	73.6	41.2
1955	67	72.1	45.5
1956	68	69.5	44.6
1957	77	69.9	43.0
1958	83	58.8	41.6
1959	84	53.9	39.2
1960	82	55.9	38.9
1961	85	58.6	41.3
1962	90	55.9	43.2
1963	104	60.3	45.2
1964	107	59.0	56.7

표 4-11은 기간 중 연도별 주요 식품의 1인 1일당 공급량을 추산한 것이다(이철호 외, 1988; 이철호, 2021).

남북 분단과 6·25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모든 식품의 절대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말까지도 설탕류·견과류·종실류·계란류·우유류·유지류의 생산 공급은 미미한 상태였으며 1960년 초에 들면서 비로소 이들 식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설탕·유지류·우유들이 전쟁을 통하여 유입되고 포변화됨으로써 한국인의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표 4-11. 광복 이후 20년의 연도별 주요 식품의 1인 1일당 공급량 변화

(단위: g)

년도	1946-48	1956	1962
곡류	334.9	381.1	477.6
쌀	247.9	295.3	331.4
밀가루	15.6	23.8	34.0
보리	51.0	48.5	104.3
기타	20.4	13.5	7.9
설탕류	-	-	4.7
서류	37.7	46.3	98.1
두류	23.2	25.5	16.3
견과류	-	-	0.2
종실류	-	-	0.2
채소류	85.2	92.9	99.0
과실류	7.0	12.0	15.1
육류	5.6	9.8	12.9
계란류	-	-	4.4
우유류	-	-	0.4
수산물	22.6	31.4	40.2
유지류	-	-	0.8

표 4-12는 이 기간 중의 식품 수급표에서 추산된 1인 1일당 영양공급량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조사 보고된 영양섭취량을 비교한 것이다(채예석, 1948; Lee K.Y. et al., 1962; 유정열, 채예석, 1962; 주진순, 1968). 식품 수급표에서 추산된 영양공급량은 총에너지 1,380~1,940kcal 수준, 단백질 41~53g 수준으로 대단히 낮은 반면 영양섭취 조사의 결과는 공급량의 거의 1.5~2.0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통계자료의 부정확, 조사범위의 비대표성에 기인한 점도 있겠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절대빈곤의 시대였으므로 행정통계에 오르지 않는 다양한

구황식품 재료들이 식용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이철호 외, 1988; 이철호, 권태완, 2003). 또한 이 시기의 영양섭취의 특징은 계절에 따른 영양섭취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다. 이기열과 이양자(1977)의 연구에 의하면 1950년대 및 1960년대에는 춘궁기에 뚜렷한 영양섭취량의 감소가 나타나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2. 광복 이후 20년의 식량공급량과 영양섭취량 조사결과의 비교

	영양공급량(1인 1일당)			영양섭취량(1인 1일당)			
	1946-48	1956	1962	1948 ^a 가을전국	1959 ^b 농 촌	1961 ^c 여름농촌	1966 ^d 여름가을농촌
조사대상수				(6054명)	(100~70명)	(340명)	(165~112명)
총에너지(kcal)	1,378	1,579	1,943	2,438	2,502	2,353	2,608
식물성(kcal)	1,345	1,529	1,863	-	-	-	-
단백질(g)	41.3	48.3	53.2	88.6	77.7	39.1	73.4
동물성(g)	4.6	6.8	7.5	7.4	-	9.3	4.0
지방(g)	8.9	11.0	13.1	18.2	14.7	16.4	8.6
Ca(mg)	143	164	299	330	360	497	258
Fe(mg)	15	17.6	10.8	42	16.2	19.6	23.2
비타민A(IU)	574	662	957	5,218	3,709	3,982	2,269
B ₁ (mg)	0.75	0.95	1.17	1.3	1.5	1.56	1.09
B ₂ (mg)	0.47	0.54	0.49	1.0	0.98	0.91	0.80
Niacin(mg)	9.6	10.9	18.2	-	19	23	-
C(mg)	36	40	49	78	121	133	87

a: 채예석(1948), b: Lee K.Y. et.al.(1962), c: 유정열, 채예석(1962), d: 주진순(1968)

1957년에 간행된 방신영의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제30판에 수록된 1주일간의 식단표 두 가지 예를 같은 저서에 있는 음식제조법의 분량에 근거하여 각 식단의 영양가 평가를 한 결과 제 1예의 경우 일일 평균 열량 공급량은 2,065kcal, 단백질 81.5g이며 총열량 중 탄수화물에서 73%, 단

백질에서 15.5%, 지방 11.5%의 열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 제 2예의 경우는 일일 평균 열량공급량은 2,084kcal, 단백질 98g이며 총열량 중 탄수화물에서 70%, 단백질 18%, 지방 12%의 열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표 4-13) (이철호, 류시생, 1988).

표 4-13. 방신영의 식단표에 대한 영양가 분석(1주일 평균 1일 공급량)

	제1예	제2예	한국인 영양권장량 (성인남자)
총열량(kcal)	2,066	2,085	2,500
탄수화물(%)	73	70	
단백질(%)	16	18	
지방(%)	12	12	
단백질(g)	81.5	98.2	75
동물성단백질(%)	17.73	33.3	
Ca(mg)	631	643	600
P(mg)	1,074	1,226	
Fe(mg)	27.7	28.2	10
Vit. A(Re)	909	703	750
Vit. B ₁ (mg)	1.54	1.27	1.3
Vit. B ₂ (mg)	1.74	1.64	1.5
Vit. C(mg)	150	93	55

1960년 보건사회부는 한국인 잠정 영양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962년에는 FAO 한국협회에서 최초로 공식 한국인 영양권장량이 마련되었다. 이 영양권장량에는 성인 남자(25세)의 일일 에너지 2,900kcal, 단백질 70g의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장량은 실제 공급될 수 있는 식량에 비하여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이철호, 2021).

이 시기에 유정렬 등(1962)에 의하여 수행된 국민영양 상태에 대한 생화

학적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검사자들이 혈액의 여러 성분이나 뇨중 비타민 B₁ 및 B₂의 배설양 등은 모두 정상치 범위 내에 있었으나 매우 낮은 수준에 위치하였다. 또 다른 임상적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A, B₂, 단백질 및 Ca 부족에서 오는 질환이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58년 초등학교 아동의 도시락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내 아동에 비해 서울근교의 지방학생들은 에너지가 50kcal 적어, 지역에 따른 영양소 섭취수준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마복자, 박일화, 1958). 조사아동의 16%가 에너지 부족이었고, 부식으로 식물성 식품만 가져온 아동은 43%였으며, 지방학생들은 빈곤으로 인해 45%가 결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학생 중 도시락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조사기간 내내 계속 밥과 고추장 혹은 무장아찌만을 가져왔다. 그 결과 조사대상 아동의 60% 이상이 단백질이 부족하였고 약 71%가 체중이 부족한 영양불량 상태였다.

1953년 당시 한국 성인의 평균 체위를 보면, 신장은 남자 166.46cm, 여자 154.82cm였고, 평균 체중은 남자 58.55kg, 여자 53.47kg으로 일본 보다는 크고 구미인 보다는 작았다(김인달, 1956). 국민 사망률은 광복 이후 인구 1,000명당 10명 수준으로 일본, 미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전쟁기간인 1950-55에는 1,000명당 20-26명 수준이었다. 영아사망률은 1945년 이후 1,000명당 70명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전쟁 중에는 100명 수준으로 높아지고 다시 1957년 54명으로 낮아져 일본의 40명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이시기의 평균수명은 남자 약 51세, 여자 약 53세로 일제 강점기보다 10세 정도 향상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사망원인은 폐렴과 결핵이었다(장미라, 1998).

4. 한국 식품산업의 태동

광복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국민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식품을 생산하는 일은 잠시도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공업화의 기틀을 마련해가던 식품 분야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최소한의 기반마저 상실하고 만다. 이는 국민들의 식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전쟁으로 농사가 중단되면서 양곡 생산량이 급락했고 식품제조시설이 파괴되면서 식품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식량 소재산업으로 중요한 제분공장은 광복 당시 7개 제분회사가 있었으나 한국전쟁 중에 대부분 파괴되었다. 1954년 4월 조선제분주식회사가 영등포 공장을 복구해 1,000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고 7월에는 대한제분이 일본제분 인천 공장을 인수, 양산체제를 갖추었다. 이로써 연간 3,000배럴 규모의 제분 생산량을 회복했으며 1956년에는 1만 배럴 규모까지 생산량을 확대하였다. 조선제분과 대한제분은 원조로 확보한 1만 톤의 밀을 반씩 수급하여 밀가루를 공급했다.

설탕은 일제강점기에 해주에서 생산되던 일본설탕공사가 이북으로 들어갔으므로 광복이후 남한에서는 수요가 급등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1953년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국내 최초의 제당 공장인 제일제당을 설립, 설탕 생산을 시작했다. 출하된 ‘백설탕’ 설탕은 만들면 팔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이를 본 많은 기업이 제당업에 진출, 1954년부터 창업 러시를 이루기 시작했다. 연간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업계에서는 대한제당협회를 설립해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과당경쟁은 이어졌고 업계 내에서의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당업계는 1958년 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의 3사 체제로 재편되었다.

제과 분야는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와 영일당이 원조 밀가루를 이용해 과자와 빵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전쟁 후에는 밀가루와 설탕 확보가 용이 해지면서 제과업체들이 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풍국제과를 인수한 동양제과가 1956년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영일당은 1958년 크라운제과로 회사명을 바꿔 다양한 과자류를 출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많은 영세 제과업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장류 수요의 충족을 위해 1945년 김방장유양조장(현 매일식품)이 순천에 설립되었고, 1946년에는 삼시장류양조장(현 샘표식품)과 산정장류양조장(현 몽고식품)이 장류 생산에 들어갔다. 이어 1948년에는 대창장유사(현 진미식품)가 출범하였다. 이들 회사는 일제가 남긴 시설로 출발했지만 자체 기술로 상표 등록과 공장 증설을 이루면서 사세를 확장해 나갔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표 4-14).

통조림 산업은 1892년 일본인이 전남 완도에 전북통조림 공장을 설립한 이래 1922년에는 19개소로 늘어 동해안과 남해에 다수의 통조림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45년 설립된 조일산업은 통조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동해안의 주 어종인 꽁치·고등어·골뱅이 등을 제품화 해 출시했으며 이후에는 과일 통조림으로 제품군을 확대하였다.

유제품 분야는 경성우유협동조합이 1945년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전환되어 우리나라 유가공업을 주도하였다. 서울우유는 1948년 전국에 우유 판매 특약점을 개설하고 ‘건강 우량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유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섰다.

표 4-14. 한국 식품산업의 태동

산업분야	대표적 기업 설립 년도	
장류산업	1945년	김방장유조합(현 매일식품)
	1946년	삼시장류양조장(현 샘표식품), 산정장류양조장(현 몽고식품)
	1948년	대창장유사(현 진미식품)
제과산업	1945년	해태제과, 영일당(현 크라운제과)
	1956년	동양제과가 풍국제과를 인수
통조림산업	1945년	조일산업
유가공산업	1945년	서울우유협동조합
제당산업	1953년	제일제당(창업주 이병철)
	1954년	삼양사, 대한제당
제분공업	1954년	조선제분주식회사 영등포공장 복구
	1954년	대한제분이 일본제분 인천 공장을 인수
음료공업	1948년	동방청량음료합명회사
	1956년	동양맥주
조미료공업	1956년	동아화성공업(현 대상) (창업주 임대홍)
인삼제품산업	1958년	고려인삼제품
빙과류산업	1959년	삼강산업(현 롯데푸드)

음료공업은 1948년 설립된 동방청량음료합명회사가 1950년 칠성사이다를 출시해 국산 사이다 시대를 열었다. 전쟁으로 잠시 가동을 멈췄던 동방청량은 1953년부터 생산을 재개했고 1954년 일본에서 반자동 혼합기를 도입해 ‘오렌지-쥬스’, ‘세분업’ 등의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이밖에도 풍국주정공업과 평화음료, 문화음료 등이 설립되어 ‘오렌지쥬스’, ‘밀크’, ‘칼피스’를 출시했고 1956년에는 동양맥주가 청량음료인 ‘OB시날코’를 개발하였다.

국내 최초의 인공조미료 ‘미원’은 대상의 창업주 임대홍 회장이 1956년 부산에 동아화성공업을 설립하면서 탄생했다. 맛의 원천이란 뜻을 담은

‘미원’의 출시로 일본 조미료 ‘아지노모토’가 국산으로 대체되었으며 주부들의 호응 속에 조미료 시장이 성숙하기 시작했다. 동아화성공업은 이후 미원식품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조미료와 전분당, 감미료 등의 제품을 출시하였다. 1958년 설립된 고려인삼제품(1988년 고제로 사명 변경)은 1959년 국내 최초로 인삼정·인삼주를 출시했으며 인삼제품과 즉석제품의 수출을 실현, 인삼 식품공업 분야를 개척했다. 이밖에도 1958년 롯데푸드의 전신인 삼강산업(일동산업으로 설립해 1963년 삼강산업으로 사명 변경)이 출범, ‘삼강하드’를 필두로 빙과류와 유지 제품을 출시하였다.

후전 후 1950년대 말까지 국내 식품공업을 제당, 제분 등의 소재공업을 중심으로 제과, 제빵, 음료 분야가 궤도에 올랐으며 조미료, 인삼, 빙과·유지 등 분야별 선구자들이 제품을 출시하는 태동기에 접어들었다. 주목할 것은 원조로 들어온 잉여농산물이 한국인의 입맛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쌀을 위주로 하던 식단이 밀과 고구마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특히 밀가루는 빵집과 중국집의 등장은 물론 1970년대에 붐을 일으킨 라면의 전성시대를 여는 등 새로운 가공식품의 시대를 만들어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참고문헌

- 강인희, 한국식생활사, 삼영사, p.249 (1978)
- 국가기록원, 6.25 한국전쟁 기본정보 및 주요 사건 정리 (2021)
- 김인달, 한국인 체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 자연과학, 3. 75-133 (1956)
- 마복자, 박일화, 초등학교 아동의 도시락 실태조사, 가정학보, 6. 1-5,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1958)

- 방신영, 우리나라 음식만드는 법, 장충도서 출판사 (1957)
- 유정열, 채예식, 국민영양조사(제2보), 국립화학연구소, 10, 82, (1962)
- 이기열, 이양자, 한국인의 균형식 권장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0(2), 59 (1977)
- 이중근, 6.25 전쟁 1129일, 우정문고 (2013)
- 이철호, 식량전쟁, 도서출판 식안연 (2012)
- 이철호, 광복 70년 인생 70년, 도서출판 식안연 (2015)
-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도서출판 식안연 (2021)
- 이철호,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인의 식량·영양 상태, 식품과학과산업 55(2), 218-236 (2022)
- 이철호, 권태완, 한국식품학입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이철호, 류시생, 한국전통식단의 영양가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3), 275-280 (1988)
- 이철호, 주용재, 안기옥, 류시생, 지난 일세기 동안의 한국인 식습관의 변화와 보건영양상태의 추이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3(4), 397-406 (1988)
- 장미라, 1945-1959년의 식생활 및 영양상태, 이기열, 이기완, 박영심, 박태선, 김은경, 장미라. 한국인의 식생활 100년 평가(I), 신광출판사, 서울, p.45 (1998)
- 주진순, 한국인의 영양현황, 한국영양학회지, 1(1), 1 (1968)
- 채예식, 경성을 중심으로 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 조사보고, 국립화학연구소 보고, 1(65) (1948)
- 한국식품산업협회, 국민과 함께 걸어온 식품산업 반세기, 한국식품산업협회 50년사 (2019)
- Caldwell, C. and Frost, L., *The Korea Story*, Henry Regnery Co., Chicago, p.152 (1952)
- Carpenter, S.S., Cost of living in Pusan, Department of State, USA., Oct. 2 (1951)
- Cho Soon-Sung,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 Department of State, USA, The Economic Squeeze on the Korean People, August 16. (1951)
- Eskildsen, C.R., Food policy during 1950, Republic of Korea, A Joint State -ECA Despatch, March 11. (1950)
- Gilbert, Bill, *Ship of Miracles*. Triumph Books, Chicago (2000)
- Franklin Ray Jr. J., Economic Stabilization Action on Food Program for 1950, A Joint State-ECA Despatch, Feb. 11. (1950)
- Franklin Ray Jr. J., Nation-wide Inventory of Warehouses, ECA Mission Korea, Feb. 18. (1950)
- Franklin Ray Jr. J., Monthly Economic Report, March 1950, ECA Mission Korea, April 5. (1950)
- Franklin Ray Jr. J., Summary of Basic Economic Information, ECA Mission Korea, May 9. (1950)
- Lee, K. Y., C.S. Song, J.M. Yang, M.H. Kim, C.T. Soh and J.C. Thomson, 1962, Dietary Survey of Korean farmers, *J. Home Economics*, 54(3)
- Mellen S.L.W., Food Shortage in Kyongsang Namdo, Cholla Pukdo and Cholla Namdo, AmEmbassy, Pusan, April 7. (1953)
- Mellen S.L.W., Food Supplies, AmEmbassy, Pusan, July 7. (1953)
- Strong G.B., Food Situation in Korea, Department of State, USA, March 26. (1952)

5·16 군사혁명과 경제개발과정의 식량사정

1. 5·16 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1960년 3·15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적 저항은 4·19 학생봉기로 발전하였고 이승만 정권은 12년의 장기집권에서 물러났다. 내각제 정부로 출범한 장면정부는 현실 대처 능력의 부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고, 학생들은 이념적으로 급진화 되면서 통일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1960년 11월 결성된 전국 대학조직인 민족통일연맹은 공산당이 참여하는 전 한국 보통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추진할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1961년 5월초 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했고 북한은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소장을 중심으로한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군부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으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 한다’는 혁명공약을 내걸고 정부 권력을 장악했다. 당시 윤보선 대통령은 별 저항 없이 혁명 세력을 용인했다.

5·16 군사정변에 의해 집권한 박정희(1917-1979)는 정권의 정당성 측면에서 취약했으며,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국 근대화의 가치를

내걸고 경제발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국가재건사업을 추진하여 1968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기공 및 개통, 서울 지하철 기공 및 개통, 농촌의 현대화 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 대규모 중화학 공업 건설 및 육성, 민동산의 기적의 산림녹화 사업, 쌀 자급자족 실현, 자주국방 및 군대 현대화 사업 등 국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말년에 3선 개헌 및 유신헌법 등의 장기 집권을 시도하여 여야 및 학생운동이 일어났으며,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하였다(표 5-1).

표 5-1. 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경제개발 과정

-
- 1960년 4·19 학생 봉기- 3·15 부정선거 항의, 이승만 정권 몰락, 장면 내각제 정부 출범
 - 1961년 5·16 혁명- 장면정부 몰락,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출범, 군사정권
 -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 헌법개정, 제3공화국 출범
 -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선거- 박정희 대통령 당선
 - 1964년 12월 7일 한·독 경제협력협정 체결- 1억 5,900만 마르크 차관. 광부·간호사 파독
 - 1965년 한국군 베트남전에 참전- 8년간 31만 2,853명 파병
 - 1965년 6월 22일 한·일 수교조약 체결- 청구권 보상금 8억 달러 수수
 -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통령선거- 박정희 대통령 당선
 - 1968년 4월 향토 예비군 창설
 - 1969년 새마을운동 시작- 1972년 1월 농협대학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과정 개시(140명)
 -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선거- 박정희 대통령 당선
 - 1972년 10월 17일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으로 유신헌법 돌입- 제3공화국 종료
 -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 제4공화국
 -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부장이던 김재규가 박정희 사살
-

1.1. 박정희의 경제개발 정책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1979년까지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개발 계획은 박정희 사후에도 계속되어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4차부터는 경제사회개발이라 수정되었고, 5차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1~1996)으로 명칭이 바뀌어 진행되었다(표 5-2).

표 5-2. 경제개발 5개년계획

명 칭	시작 년도	종료 년도	비 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2년	1966년	경공업 중심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7년	1971년	중공업 중심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2년	1976년	중화학 중심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7년	1981년	자력성장(목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82년	1986년	-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87년	1991년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92년	1996년	-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장면내각 당시 만들어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박정희는 1차산업 증산 및 1차산품 수출 증대에 따른 외화 조달, 공업화 노선 채택을 시도하였으나,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이 어려워져 같은 분단국가인 서독으로 눈을 돌렸다. 서독에 파견된 한국의 차관 교섭단은 1억 5천 만 마르크의 상업차관 도입에 합의했다. 이때 서독 측이 제의한 것이 한국인 광부 5천 명과 간호인력 2천 명을 서독에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서독 파견 한국 광부 임시 고용계획’이 탄생하였고, 1963년 12월 양국 간에 협정이 이루어졌다. 이 협정은 독일이 유럽권 밖의 국가에서 노동력을 들여오는 최초의 협정이었다. 또한 대한

민국정부 수립 이후 첫 노동력 해외수출이었다. 당시 취업이 어려웠던 한국의 젊은이들은 서독과전 광부 모집에 대거 몰려들었다. 경쟁률이 8대 1이나 되었고, 중학교졸업자 이상을 자격으로 했는데 대학교 졸업자가 20% 이상이었다. 2천 명을 뽑는 첫 간호사 모집에는 2만 명이 응모했다.

독일은 2차 대전 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민들이 3D업종을 기피하자 유고슬라비아, 터키,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광부를 데려와 고용하였으나 이들은 아주 나태하여 결국 광산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온 광부들이 투입되면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을 보고 독일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하였다. 한편 간호사들도 몹시 부족해 한국 간호사를 썼는데 처음에는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믿지 못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험한 일들을 시켰는데 그 성실함과 정성어린 간호에 독일 사람들이 감명 받기 시작했다. 특히 응급환자가 오면 온몸에 피를 흠뻑 적시면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피가 부족하면 자신의 피를 뽑아 수혈하는 한국 간호사들을 보며 ‘동양에서 천사들이 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독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것은 단군 이래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국민으로 외국에 초청되는 첫 번째 사례였다. 그러나 타고 갈 항공기가 없어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전세 내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가 군사 쿠데타를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태워갈 수 없다하여 무산되었다.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 최두선 사장을 특사로 보내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 서독정부에서 비행기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합의된 것이 홍콩까지 오는 루프트한자가 서울에 먼저 와서 대통령 일행을 1·2등석에 먼저 태우고 홍콩 가서 일반 승객을 탑승하게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1964년 12월 6일 쾰른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일행은 뤼브케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총리의 영접을 받고 정상회담을 한 후, 다음날 뤼브케 대통령과



〈제3공화국 대통령 박정희〉

함께 우리 광부들이 일하는 탄광지대 ‘루르’ 지방으로 갔다.

회의장에는 서독 각지에서 모인 간호사들과 대통령도 도착하기 직전까지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탄가루에 범벅이 된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강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새까만 얼굴을 본 대통령은 목이 메기 시작하더니 애국가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였고, 연설 중에 울어버렸다. 광부들과 간호사들과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부등켜안고 통곡의 바다를 이루었다. 독일 대통령도 울었고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마저 울었다. 떠나려는 대통령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던 광부들과 간호사들은 “대한민국 만세”, “대통령 각하 만세”를 외치며 이별을 고하였다.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계속 우는 대통령에게 뤼브케 대통령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 주기도 하였는데, 대통령을 붙들고 우는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에 전 유럽이 감동받았다. 박정희 대통령 방문 후 서독은 제3국의 보증이 없이도 한국에 차관을 공여하겠다는 내부결정을 하였지만 대외적으로는 국제관례대로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이 받는 월급을 1개월간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당초 한국이 요구했던 차관액보다 더 많은 3억 마르크를 공여하였다.

파독 광부·간호사의 총규모는 광부의 경우 1963년부터 1977년까지 7,936명, 간호요원의 경우 1960년부터 1976년까지 총 11,057명이었다. 광부들의 월급은 164달러로 당시 한국의 기준으로는 많은 편이었다. 광부들은 생활비를 아껴 쓰고 남는 돈을 고국에 송금했다. 파독 근로자들은 약 10년에 걸쳐 한국에 총 1억 164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1965년 한국의 연간 총 수출액이 1억 7,508만 달러였던 걸 감안하면 큰 금액이었다. 한국

의 경제개발은 이들이 이국땅에서 피땀 흘려 보낸 종자돈으로 이룩된 것이었다.

1960년대에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의 피땀 어린 송금으로 한국 경제가 견뎌내었다면, 1970년대에는 '8·3 사채동결 조치'가 한국의 산업화를 뿌리내리게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8월 3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소위 "사채동결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당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이 점차 궤도에 오르면서 국내기업의 숫자와 규모가 점차 늘어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수요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기관 내에 비축된 자금 자체가 미미했고, 지하금융인 사채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금 규모가 제도권 금융기관을 압도했다. 사채 금리가 연리 40~50%로 은행 금리보다 10~20% 정도 더 높았으므로 시중의 돈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채시장에 몰렸다, 사채동결조치로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신고된 사채는 40,677건, 3,456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통화량의 약 80%이자 국내 여신 잔액의 34% 수준으로 정부의 원래 예상보다 2배 정도 뛰어넘는 것이었다.

8·3 조치는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이 실행된 데에는 당시 열악한 금융사정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40~50%에 이르는 고리사채의 이자폭탄으로 파산 상황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사채시장을 흡수한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통제 하에 관치금융화하였고, 고사 직전에 있던 당시의 대기업들은 이때부터 반전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계열사를 늘려가며 재벌로 성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당시(1969년 10월)에 부실기업 판정을 받았던 제일제당, 제일모직, 한국비료, 금성사, 현대건설, 대한항공, 효성물산 등은 8·3 조치 이후 급성장하였다.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왕성한 투자를 실행

했고 이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기동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은 독재라며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했고, 사재업자들의 저항도 극심했다. 그들과 연결된 정치인, 조직폭력배도 같이 합세하여 한국 사회는 견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었다. 1972년 10월의 유신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17일 국회 해산 및 헌법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72년 12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91.5%의 지지로 제3공화국 헌법을 파기하고 유신시대가 시작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저술한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MIT 경제학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은 한국은 많은 대중들이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들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유재산, 불편부당한 법제,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새로운 기업의 진입 허용,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포용적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를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해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남한의 성공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수출과 혁신을 장려하고 공공재를 제공하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폄하하기 때문이며, 북한의 실패는 탄압과 통제를 위해 권력을 휘두른 착취적(extractive) 경제제도의 결과라고 말한다(Acemoglu and Robinson, 2012).

1.2. 1970년대의 경제성장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하의 70년대에도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갔다. 197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77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의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경제구조에

균형이 잡히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됐다. 1973년에 준공된 포항제철과 1978년에 준공된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이 시기 중화학공업의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1973년 1월 중화학공업정책 육성을 선언하면서 공업진흥청을 신설했다. 같은 해 3월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오산, 창원, 여수~광양, 군산~비인, 구미 등 5개 대단위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1973년 중반 기능공 양성정책을 수립하고, 1973년 10월~1974년 12월에는 이리 수출자유지역을 착공했다. 70년대에는 중동의 석유수출국가들이 석유가격을 인상하여 경제발전에 압박을 가하였으나 수출은 꾸준히 지속되어 1977년에 100억 달러, 1981년에 2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수출상품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그리고 공업생산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상회하게 되었다(표 5-3).

표 5-3. 한국 수출입 통계(1960~1980)

(단위: 천달러)

년도	수출	수입	수지
1960년	32,827	343,527	-310,700
1962년	54,813	421,782	-366,969
1964년	119,058	404,351	-285,293
1966년	250,334	716,441	-466,107
1968년	455,400	1,462,873	-1,007,473
1970년	835,185	1,983,973	-1,148,788
1972년	1,624,088	2,522,002	-897,914
1974년	4,460,370	6,851,848	-2,391,478
1976년	7,715,343	8,773,632	-1,058,289
1978년	12,710,642	14,971,930	-2,261,288
1980년	17,504,862	22,291,663	-4,786,801

자료: 무역통계

또한 이 시기에는 건설업체들이 중동으로 진출하여 외화를 버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전체적으로 60년대와 70년대의 수출신장률은 연평균 40% 정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9% 신장세를 기록하여 세계적으로도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민주주체성을 강조하여 국민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하면 된다’는 말로 대표되는 박대통령의 강력한 신념과 개발독재형의 지도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성취욕, 수천 년 간 선진문명을 꾸려온 문화적 잠재력이 되살아난 것 또한 원동력이었다.

제1차-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결실로 한국 경제는 급성장하는 기간이었으며 공업화 경제 구조로의 전환에 의한 농업 인구의 도시 이전이 급격히 일어난 기간이다. 표 5-4는 1965년부터 1980년까지의 GNP, 앵겔계수, 농업인구, 식량자급률 등 주요 농업경제 지표를 모은 것이다. 기간 중 일인당 GNP는 100달러 수준에서 1977년에 1천 달러를 넘었으며, 1980년에는 1,500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가계지출 중에서 식료품 지출에 사용된 비율을 나타내는 앵겔계수는 60년대 초반까지 50% 이상으로 높았으나 통일벼가 개발되어 농가 수입이 호전된 70년대 말에는 농가의 앵겔지수가 도시보다 낮은 36% 수준에 도달했다.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55% 수준에서 29% 수준으로 격감하여 산업화에 의한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보였으나 도시 노동자들의 생활 형편은 열악하였다. 식량자급률은 94% 수준에서 54%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 즉 초기 성장기에는 우리의 경제력이 모자라는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여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에 주로 의존하던 것이 경제 성장에 힘입어 무엇보다 먼저 부족 식량의 수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이철호 외, 1988; 이철호, 2021).

표 5-4. 경제개발과정(1965~1980년간)의 일인당
GNP, 엥겔계수, 농업인구 및 식량자급률 변화

년도	1인당 GNP(\$)	엥겔계수		총인구 중 농업인구(%)	식량자급률(%)
		농가(%)	근로자(%)		
1965	109	53.0	53.7	55.2	93.9
1966	130	50.2	49.5	54.0	94.7
1968	175	47.4	43.1	51.7	91.3
1970	252	48.2	40.6	45.0	80.5
1972	318	48.3	38.9	43.8	70.8
1974	540	48.3	43.4	38.8	70.3
1976	797	45.7	49.4	35.7	74.8
1977	1,008	42.8	47.6	33.8	64.3
1978	1,392	38.3	44.6	31.3	74.2
1980	1,589	36.8	42.1	28.9	54.3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에는 그들도 존재했다. 농어촌의 발전이 배제된 채 도시화와 공업화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 중심의 경제체제가 국산 곡물의 자급률을 낮춰 농업 분야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 농업 부문은 1960년대 전체적으로 3.8%의 성장에 그치면서 농공 간, 도농 간의 소득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공병진(農工並進) 정책을 수립하였다. 농업·어업 분야의 성장을 공업과 함께 실현해 국가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주곡 생산과 자급 위주의 농업 생산 형태를 바꾸는 것이었다. 농수산물의 저장, 처리, 가공을 통해 농어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농수산물은 대부분 특정 시기에 출하되는 ‘계절성’을 지니고 있어 대단위 저장 및 가공 시설이 구축되어야 했다. 그러나 식품공업이 성숙하지 않아 민간 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7년 12월 이를 전담할 농어촌개발공사(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의 전신)을 설립하였다. 농어촌개발공사는 농수산물 저장·처리·가공 분야에 기업성이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1968년 5월 22일 선일포도당을 시작으로 1년간 식품 가공 분야의 투자 회사 18개가 설립되었다. 18개 투자회사는 아래와 같다.

선일포도당공업(포도당), 양돈가공센터(돼지고기), 경북농산가공(양송이 가공), 경기농산가공(장류), 한국양식가공(수산물 양식), 영동축산개발(소고기), 한국농산가공(사과), 협성농산(양파), 대아농산(양파), 호남잠사산업(누에), 광산잠사산업(누에), 천원잠사산업(누에), 감굴냉장판매(감굴), 한국양골라실크(토끼털), 한국냉장주식회사(냉동·냉장시스템), 한국사료곡물(축산물 가공), 한국해자가공(알긴소다), 한국병유리(포장 용기)

농축산물을 비롯해 장류, 잠사, 과일, 채소, 냉동냉장, 용기 등 분야도 다양했다. 더불어 외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 및 합작을 통한 식품 공업 기반도 구축하였다. 1968년 5월 한국산토리(포도주, 일본 합작)를 시작으로 동신주식회사(돛자리, 일본 합작), 앞담배 건조 수출회사 코텍(미국 2개사 합작)을 설립해 포도주와 돛자리, 앞담배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1969년 2월 14일 뉴질랜드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한국낙농가공 주식회사를 설립,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정부의 식품 가공회사 설립은 국내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수출증대, 농어촌 고용 창출 등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원료 수급의 한계, 판로 개척의 어려움, 정부 투자 회사의 경직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의 취지대로 각 투자 회사를 정비한 후 민간 기업으로 이양하였다. 이 중 선일포도당은 삼양사가 인수하였으며 한국산

토리와 한국감귤냉장은 해태제과가, 한국낙농가공주식회사는 매일유업으로 민영화됨으로써 국내 식품가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2. 새마을운동과 식량의 자급자족 노력

2.1.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1970년 초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되어 박정희 정부 주도로 시행된 풀뿌리 지역사회개발운동이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 의식개혁 운동이다. 이 운동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1969년 새마을운동으로 명명되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1975년에는 도시와 공장으로도 확대되었다.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켰다. 1973년 1월 16일 대통령령 6458호로 내무부에 새마을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4개의 과를 두었으며 3월 7일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했다.

1972년 1월 31일 경기도 고양의 농협대학 부설 독농가연수원에 각 지역에서 선발한 140명이 입교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과정의 출발이었다. 2주간의 교육과정은 가나안농군학교(교장 김용기)와 안양농민교육원(원장 김일주)의 훈련 과정을 참고해 만들었다. 농협대 김준 교수가 초대 원장을 맡았다. 교육 받을 사람이 늘면서 그해 경기도 수원의 농민회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1973년 5월 31일 경기도 수원에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을 신설 건립하여 농촌 지도자 교육과 양성 등을 맡게 하였다. 1972년 1,490명, 1973년 4,354명으로 피교육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 매년 6천 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다. 박정희가 만든 ‘새마을노래’는 방송매체를 통해 아침, 저녁에

방영되었고 국민운동화된 새마을운동의 성공 사례는 일간신문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비슷한 것으로 ‘잘 살아 보세’라는 노래도 있다.

새마을운동은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 의식 회복에 기여하였다. 세계적으로는 농촌 개발의 모델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획기적인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은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한 ‘새천년마을계획’이라는 아프리카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추진할 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또한 아프리카의 유엔 산하기관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볼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현재 해외 74개국으로 새마을운동이 수출되었고,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겠다는 방안을 하는 해외지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 덴마크 농업연수생 파견

전후의 낙후된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1960년대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한 해외 유학생 파견 이외에도 민간차원에서 식량, 농업분야의 기술 습득을 위한 유학생 파견도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 졌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덴마크 농업연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한국전쟁 중 스칸디나비아 3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파견한 의료선 유틀란드아(Jutlandia)를 통해 덴마크와 한국 간의 친선 목적으로 한정협회(초대회장 윤보선)가 창설되었다. 이 협회를 통해 덴마크 농업연수생 파견사업이 10여 년간 진행되었다. 2대 회장이었던 천우사 전택보 회장(당시 덴마크 명예총영사)이 1959년 덴마크 농촌실습을 위해 농촌 청년 8명을 덴마크로 파견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파견된 연수생들은 국내 4년제 농과대학 출신으로 덴마크 말링(Malling)농업학교에서 1년간 최신 축산

및 영농기술을 배우고 나머지 6개월은 농업 현장에서 연수하는 과정이었다. 1959년부터 1962년까지 3차에 걸쳐 덴마크협회 주선으로 20명의 연수생을 파견하였다. 1964년부터는 덴마크 외무부 국제협력단(DANIDA)의 장학생으로 매년 12명의 연수생을 협회에서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1970년까지 7차에 걸쳐 85명이 연수를 받았으며, 이들이 귀국하여 우리나라 낙농발전과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덴마크 농업연수생 파견에 공로가 큰 전택보 회장은 1980년 영면하시고 류달영 서울농대 교수가 회장을 맡았다. 한국덴마크협회는 1976부터 「덴마크」지를 매년 발간하여 회원 간의 유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82년 덴마크 정부는 협회의 이러한 공로를 치하하여 류달영 회장, 이삼현 부회장, 김영환 고문에게 여왕의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필자는 1971년 DANIDA 7차 마지막기 연수생으로 연수를 마친 후 덴마크 왕립수의농대(The Royal Veterinary and Agricultural University of Denmark) 대학원에 진학하여 1975년 농학박사(식품저장학) 학위를 받고, 미국 MIT 공과대학에서 박사후(Post Dr.) 연구를 하게 되었다.

덴마크 농업연수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류태영 박사이다. 그는 1936년 전라북도 임실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렵게 고학하여 18세의 나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구두닦기, 신문배달, 행상 등을 하며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에 진학한다. 류달영 교수의 「새역사의 창조를 위하여」를 읽고 덴마크 유학을 결심하고, 덴마크 국왕인 프레데릭 9세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뜻을 밝혔는데, 놀랍게도 덴마크 외무부의 초청장을 받았고 1968년 그의 나이 33세에 덴마크 정부 지원으로 유학길에 오른다. 그는 덴마크에서 2년간 노르딕농과대학에서 복지국가와 국민운동에 관해 공부한 후, 이스라엘 정부 장학생으로 유대인의 개척정신과 농촌운동을 돌아보고 1971년 귀국하여 건국대학교 축산학과에서 교육담당자로 근무하게 된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

아 청와대 새마을운동 담당실에서 일하게 된다. 류태영 박사는 새마을운동 초창기 핵심인물로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연구하고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유신정권 때 다시 이스라엘 정부 장학생으로 유학하여 1973년 7월부터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에서 농촌사회학 전공으로 4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78년 건국대학교 교수로 귀국하여 학교 부설 새마을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 도산아카데미 연구원장,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 등 사회활동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정년 퇴임 후에는 사재와 후원금으로 농촌청소년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3. 통일벼의 개발과 쌀의 자급자족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 한다’는 혁명공약을 내걸었던 박정희는 쌀의 증산을 통한 식량자급이 시급한 문제였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걸쳐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던 밀 연구 계획의 책임자 노먼 볼로그(Norman Borlaug)는 교배육종(crossbreeding)방법으로 기존 품종보다 키가 작은 ‘난쟁이 밀(dwarf wheat)’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난쟁이 밀은 줄기가 짧고 뻗뻗하므로 더 많은 비료를 주어 더 크고 무거운 이삭이 달려도 수확할 때까지 주저앉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난쟁이 밀은 멕시코를 비롯하여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갔고 이들 나라의 밀 생산량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볼로그는 녹색혁명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난쟁이 밀의 뒤를 이어 1960년대 중반에는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IRRI)에서 “기적의 쌀”로 일컬어진

IR8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난쟁이 벼가 개발되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나라들에 새로운 품종을 보급했다.

박정희 정부는 세계적인 녹색혁명의 유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이를 이루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이 즐겨 먹는 쌀이 녹색혁명을 이끄는 나라들에서 재배하는 것과 다른 종류였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쌀알이 짧고 차진 “자포니카” 품종의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정도이며 대부분의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길고 찰기 없는 “인디카”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자포니카 쌀에 대한 연구는 이미 일본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빈곤선을 벗어나지 못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위해 인디카 쌀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녹색혁명을 이루려는 시도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 중 잘 알려진 것이 “희농 1호”의 실패 사례다. 이것은 원래 이집트에서 큰 성공을 거둔 “나다(Nahda)”라는 품종이었는데, 1965년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그 종자를 한국에 몰래 들여왔다 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이름의 “희” 자를 떼어 이름을 붙여 줄 정도로 이 품종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와 잘 맞지 않았던 탓에 결국 희농 1호는 농가에 보급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었으며 박정희는 이후로는 다른 품종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육종학자였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허문회 교수가 필리핀의 IRRI에 벼 육종을 연구하러 간 것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나다의 종자를 들여오기 직전인 1964년 여름이었다. 허문회는 미국 벼 육종의 최고 권위자였던 헨리 비첵(Henry M. Beachell)에게 벼 육종을 배우고자 IRRI로 찾아갔고, 곧 연구소 간부들의 신뢰를 얻어 2년 동안 IRRI의 품종 개량에 참여했다. IRRI에서 개발한 키 작은 다수확 인디카 품종을 한국에 도입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허문회는 인디카와 자포니카를 우선 교배한 뒤 그것을 다시 다른 인디카 품종과 교배하여 안정된 품종을 만드는 전략을 시도했다. 인디카와 자포니카를 교배해 얻은 종자는 마치 노새와 같이 씨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중 일부 불임이 아닌 종자를 다시 인디카와 교배하여 번식력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허문회는 포기하지 않고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교배 조합을 시험한 결과 전 세계의 벼 육종가들이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렇게 수백 가지의 교배 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줄기의 길이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벼의 유전 연구에 이정표를 세웠다. 허문회 박사는 키가 작은 인디카 1품종과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던 자포니카 2품종을 교잡하는 3원 교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66년 봄에는 IRRI의 유명 품종들과 비슷하게 키는 작고 이삭이 크지만 온대 기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이들로부터 만들어진 잡종 집단에서 키가 작고 수량성이 높은 계통을 계속 선발 교배하는 등 당시 벼 육종기반이 잘 갖춰진 농촌진흥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1971년 드디어 다수확품종인 통일벼를 개발하게 되었다(그림 5-1).



▲ 보릿고개에서 해방시켜준 '기적의 밥사' 통일벼

▲ 통일벼의 아버지, 고 허문회 박사

그림 5-1. 통일벼 개발의 주역 허문회 박사

희농 1호의 실패로 조바심을 내던 박정희 정부에게 허문회의 연구 결과는 매우 반가운 것이었다. 새로 농촌진흥청장에 취임한 김인환은 허문회가 개발한 품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을 지시했고, 그 결과 1970년 말에는 유망 개체들이 엄선되어 “통일”이라는 품종명을 받고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통일벼는 기존의 자포니카 품종들과 비교할 때 평균 30% 이상 높은 수확량을 올려 당국자들을 들뜨게 했다. 특히 박정희는 통일벼가 찰기가 없어 인기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무기명으로 이루어진 국무위원 시식회에서 일부러 자신의 이름을 적고 맛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둘러 보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통일벼는 1973년부터 재배 면적을 급속도로 늘려 나갔다.

1970년대 중반에는 통일벼는 물론 통일벼를 바탕으로 그 형질을 개량한 후계 품종들이 여럿 선을 보였다. “유신”, “조생통일”, “통일찰”, “밀양21호”, “밀양23호” 등이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 맞춰 개발되었다. 통일벼는 1972년부터 농가에 보급되어 재배되기 시작했다. 1976년 ‘통일벼’의 재배 면적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44%로 확대되면서 평년보다 21.8% 증가한 521.5만 톤의 쌀을 생산해 내면서 마침내 우리의 숙원이었던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게 되었다. 1977년 무렵이면 전국 논·밭의 대부분이 통일형 품종으로 채워지기에 이르렀다. 1977년에 정부는 “녹색혁명 성취”를 선언하고, 쌀의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초과하여 해외에 수출도 하게 되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그림 5-2).



그림 5-2. 통일벼 기념비와 쌀 자급을 기념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

그런데도 1970년대 후반 내내 통일형 품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궁극적인 원인은 역시 밥맛이었다. 온대 기후에 적응하도록 개량되기는 했지만 통일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디카에 가까운 벼였다. 찰기 없는 밥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었고, 그 결과 통일쌀은 시중에서 자포니카에 비해 한결 낮은 값에 팔리는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통일벼의 후계 품종들은 거듭된 품종개량을 통해 난알의 길어도 줄이고 찰기도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한번 형성된 소비자의 선입견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녹색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통일벼 개발의 업적은 50년이 지난 2009년에 실시한 국가연구개발 반세기 최고 연구성과 선정평가에서, 식량문제 해결과 동시에 국가 경제발전을 이룩한 핵심 원동력으로 인정받아 10대 성과 사례 중 당당히 1위로 선정된바 있다.

2.4. 한국 식량정책의 흐름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농업·농촌 70년」을 정리하면서 식량정책의 흐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즉, 1970년대 후반 주곡의 자급이 달성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식량정책의 흐름을 파악한 것이다. 주곡의 자급 달성 여부가 한국 식량정책의 중심축이라는 의미이다. 주곡의 자급 달성 이전의 정책은 주곡의 자급을 위한 증산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주곡의 자급이 달성된 이후에는 생산량보다 농가의 소득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1945년 광복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생산의 불안정, 기존의 재고 소진, 인구 급증, 일제 하 억눌렸던 소비수요의 폭발 등은 식량의 절대적 공급량 부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한편에선 소비 억제 정책, 다른 한편에서는 주곡의 절대적 생산량 증가를 위한 조치로 귀결되었다. 미곡수집령, 양곡관리법, 사환곡제도, 양곡교환제, 절미운동, 고미가정책, 양곡관리기금법 제정 등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고재모 등, 2017)(그림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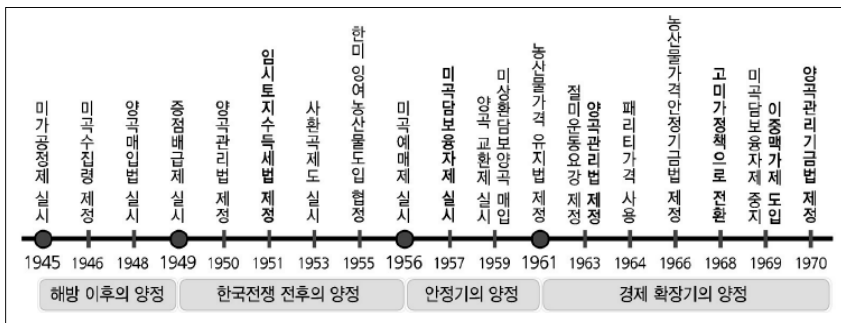


그림 5-3. 광복 이후 1970년까지 식량정책의 흐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p.294 재인용.

정부의 지속적인 쌀 소비 억제와 증산정책은 통일벼 계통의 다수확 품종이 보급되면서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쌀 생산량은 197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77년에는 574만 톤을 상회하였다. 1977년 이전까지 지속된 쌀 수입은 1977년에 이르러 중단되었고, 자급률 100%를 상회하였다. 필요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소비를 억제하고 생산을 장려하던 종래의 정책기조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 초반 이래적인 흉작으로 자급률이 떨어지고 대규모의 쌀 수입이 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쌀의 자급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급과잉은 필연적으로 재고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를 수반한다. 1992년의 통일벼 수매 중단을 시작으로 1993년 민간의 쌀 유통기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양정개혁이 추진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3. 경제개발과정의 식량·영양 상태

3.1. 경제개발 초기의 식량수급

1960년대는 경제개발 계획의 초창기로 인구의 급격한 성장과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빈곤과 식량부족 상태는 계속되었고, 정부는 식량난 해결을 위해 혼분식 장려운동을 적극 권장하였다. 식품 소비구조는 여전히 곡류에 편중되어 있었고, 혼식 장려정책에 의해 보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빵, 라면 등의 가공식품이 대량 생산되면서 밀가루와 설탕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산업화 초기에 나타난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1945년에 12.9%였던 도시인구가 1960년에는 36.8%, 1970년에는 50.2%, 1980년에는 69.7%로 급증하였다(박재길 외, 2010).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499만 명, 1970년 3,146만 명, 1980년에는 3,74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증가와 도시 노동자의 증가는 가공식품의 수요 증가를 가져왔으며, 다른 한편으로 빈곤과 주거환경의 열악, 위생관념의 부족, 영양결핍 등으로 인해 폐렴,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다. 식량이 부족해도 수입할 경제력이 부족해 보릿고개를 겪으며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에 의존해야 했던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했다.(이철호 외, 1988; 이철호, 2021).

표 5-5는 경제성장 초기(1962년-1971년)의 주곡 수급동향을 나타내고 있다(이기완, 1998). 쌀 생산량은 1962년의 346만 톤에서 1971년 394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연간 100만 톤 이상을 수입해야만 했다. 보리는 연간 200만 톤 수준 생산했으나 1970년대 이후 보리의 수요가 감소하여 더 이상 수입하지 않았다. 반면 밀은 분식의 장려와 빵, 과자, 라면의 소비 증가로 수요가 크게 늘어 1960년대 말부터 100만 톤 이상을 수입하였다.

표 5-5. 쌀 · 보리 · 밀의 수급동향(1962-1971)

(단위: 천 M/T)

미곡 연도	생 산			수 입		
	쌀	보리	밀	쌀	보리	밀
1962	3,463	1,378	268	-	47	398
1963	3,015	918	228	118	264	815
1964	3,758	1,515	309	-	226	607
1965	3,955	1,807	300	-	106	496
1966	3,501	2,018	315	32	-	458
1967	3,919	1,916	310	113	-	909
1968	3,603	2,084	345	216	106	1,027
1969	3,195	2,066	366	755	67	1,369
1970	4,090	1,974	357	541	-	1,254
1971	3,939	1,857	322	1,004	-	1,532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71

표 5-6은 같은 기간 기타 농산물의 생산량 변화이다(이기완, 1998). 농업기술의 발달과 종자개량으로 두류와 감자류, 채소류, 과일류가 모두 1.5배 내지 2배 이상의 수확량을 기록하였다. 전쟁 중에 경험한 서양의 유제품과 육가공 식품으로 인한 식습관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 1970년을 전후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우유류의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표 5-6. 기타 농산물 생산동향(1962-1971)

(단위: 천 M/T)

연도 품목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잡 곡	99	108	126	120	107	114	162	137	124	110
두 류	182	182	191	203	195	235	288	273	277	263
감 자 류	439	513	936	1,045	927	631	759	778	789	707
채 소 류	1,300	1,187	1,436	1,576	1,717	1,869	2,150	2,427	2,520	2,908
과 일 류	195	178	229	310	331	356	392	417	423	404
특용작물	11	7	12	14	22	32	33	45	42	57
쇠 고 기	17	21	32	27	29	32	36	33	37	39
돼지고기	38	55	63	56	96	72	62	76	83	81
닭 고 기	16	20	19	14	19	24	34	42	45	50
우 유 류	3	5	7	11	15	19	24	35	52	65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71

표 5-7은 1970년대의 곡류 종류별 생산량 추이이다(박영심, 1998). 쌀 생산량은 통일벼 재배로 증산이 시작된 1975년부터 크게 늘기 시작하여 1977년에는 600만 톤에 도달하게 된다. 이로써 쌀 자급의 국가적 염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보리와 밀, 감자 재배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잡곡과 콩의 수확량은 다소 증가하였다.

표 5-7. 1970년대의 곡류 종류별 생산량 추이

(단위: 천 M/T)

연도\곡류	미 곡	맥 류	잡 곡	두 류	서 류	계
1970	3,939.3	1,819.8	124.1	270.9	783.2	6,937.3
1971	3,997.6	2,714.5	109.5	257.7	707.2	6,786.6
1972	3,957.2	1,756.4	94.3	256.2	673.7	6,737.8
1973	4,444.9	1,548.5	104.3	279.4	612.4	6,755.2
1974	4,211.6	1,468.2	89.8	353.7	538.8	6,895.4
1975	4,669.1	1,806.2	92.1	349.3	737.6	7,654.3
1976	5,215.0	1,846.7	103.3	345.4	666.6	8,177.0
1977	6,005.6	862.0	117.2	378.5	595.2	7,958.5
1978	5,797.1	1,388.0	122.9	338.5	565.3	8,211.8
1979	5,564.8	1,555.5	164.8	310.3	501.0	8,095.4
'79/'70[%]	141.3	85.5	132.8	114.5	64.0	116.7

자료: 농림수산부 양정국, 양정자료, 1970-1979

표 5-8은 연도별 주요 식품의 1인 1일당 공급량이다(이철호 외, 1988; 이철호, 2021). 이 기간의 곡물 공급량은 1인당 1일 500g을 훨씬 상회하여 충분한 양이 공급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통일벼가 보급된 1974년 이후 쌀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보리의 공급은 다소 감소하였다. 서류는 초기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말기에는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이 뚜렷하다. 1976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식량 부족시대가 해소 되었으며 보릿고개라는 용어가 없어졌다. 설탕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계란류, 우유류, 수산물, 유지류 등의 공급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된 기간이다.

표 5-8. 경제개발과정 중(1968~1976)의 연도별 주요 식품의 1인 1일당 공급량

(단위: g)

년도	1968	1974	1976
곡류	526.5	543.7	530.4
쌀	322.7	341.4	330.6
밀가루	76.1	70.3	83.7
보리	117.1	100.5	107.5
기타	10.7	11.6	8.7
설탕류	12.0	15.8	99.3
서류	147.6	81.6	16.4
두류	17.6	19.0	26.4
견과류	0.2	0.3	0.5
종실류	0.2	0.9	3.8
채소류	146.3	178.6	186.4
과실류	24.4	35.6	35.9
육류	22.2	25.2	26.4
계란류	5.6	10.6	11.2
우유류	3.8	10.2	14.5
수산물	45.3	76.2	81.4
유지류	3.4	6.2	8.4

3.2. 국민영양조사의 시작

1969년부터 매년 정부 주도하에 한국인 영양 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표 5-9는 이 기간 중 식품수급표에서 추산한 1인 1일당 영양공급량과 한국인 영양 조사에서 수집된 섭취량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이철호 외, 1988; 이철호, 2021). 절대 빈곤기(1946-1962)에는 추정 공급량보다 조사된 섭취량이 훨씬 높았으나 경제성장기(1968-1976)에는 영양섭취량이 공급량보다 10~20%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이철호, 2022). 이러한

현상은 절대 빈곤기에는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황식품과 폐기식품을 버리지 않고 먹음으로 인해 영양공급량보다 실제 섭취량이 더 높게 나타나고, 충분한 식량이 공급될 때에는 공급량보다 섭취량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 식량의 낭비구조로 이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철호 외, 1988; 이철호, 2021).

표 5-9. 경제성장기(1967~1976)의 영양공급량과 영양섭취량 조사결과

	영양공급량(1인 1일당)			영양섭취량(1인 1일당)		
	1968	1974	1976	1969	1974	1976
총에너지(kcal)	2276	2370	2414	2105	2054	1926
식물성(kcal)	2165	2215	2220	-	-	1819
단백질(g)	62.1	69.4	73.5	65.6	68.0	68.4
동물성(g)	9.7	14.1	17.1	6.8	12.2	12.2
지방(g)	18.4	24.0	27.9	16.9	15.5	20.5
Ca(mg)	373	529	509	444	444	401
Fe(mg)	13.5	16.0	18.6	24.8	14.1	12.3
비타민A(IU)	1602	3561	2976	4076	5213	3689
B ₁ (mg)	1.52	1.41	1.56	1.76	1.3	1.2
B ₂ (mg)	0.65	0.79	0.89	1.28	0.9	0.8
Niacin(mg)	22.1	23.9	23.5	27.8	15.0	16.1
C(mg)	71	71	83	89.0	100.6	75.5

표 5-10은 1969년 보건사회부의 용역으로 한국영양학회가 실시한 국민 영양조사 결과에서 국민 1일 1인당 식품섭취량을 각 지역별로 조사한 내용이다(허금 외, 1970). 곡류 및 그 제품의 섭취량은 전국 1일 1인당 평균치가 559g으로 전체 식품 섭취량의 약 53%였으며, 특히 산촌지역이 가장 높았다. 곡류 다음으로는 채소류(김치 포함)의 섭취량이 가장 높았으나 어촌지역의 채소 섭취량은 타지역의 절반 이하였으며, 감자의 섭취량은

산촌지역이, 과일류의 섭취량은 도시지역이 가장 높았다.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은 도시·어촌·농촌·광촌·산촌의 순이며, 총 식품 섭취량에 대한 백분율은 도시 5.9%, 어촌 5.3%, 농촌 2.2%, 광촌 1.6%, 산촌 0.6%로 대체로 낮았다.

표 5-10. 1969년의 각 지역별 국민 1일 1인당 식품 섭취량

(단위: g)

식품	지역	도시	농촌	어촌	산촌	광촌	평균
식 물 성 식 품	곡류 및 그 제품	492.8	530.2	443.4	591.1	526.8	558.8
	두류 및 그 제품	31.2	19.4	21.4	13.6	13.9	24.9
	감자류	45.6	83.8	233.8	270.0	40.7	75.6
	채소류: 신선한 것	271.8	176.7	70.2	237.0	161.2	190.6
	가공한 것	69.6	90.8	111.4	25.4	73.9	80.4
	과일류	67.6	31.2	27.9	3.4	44.3	48.1
	해조류	1.6	0.8	0.9	0.3	1.7	0.8
	조미료·주류·음료수류	36.6	42.5	36.3	58.0	59.6	41.0
	유지류	2.9	1.5	1.9	1.9	7.3	3.5
	기타	2.3	0.5	1.8	0.5	-	1.2
	계	965.7	984.1	947.2	1,205.7	929.4	1,023.7
동 물 성 식 품	육류 및 그 제품	13.9	3.1	-	2.1	1.7	6.6
	난류	9.8	3.4	1.1	3.6	2.1	4.2
	어패류: 신선한 것	17.3	11.0	44.7	0.6	8.3	12.0
	가공한 것	14.4	5.0	7.6	0.3	3.2	6.1
	우유 및 유제품	5.5	0.3	-	1.1	-	2.4
	유지류	0.6	0.2	-	-	-	0.3
	계	61.5	23.0	53.4	7.7	15.3	31.7
총 계		1,027.2	1,007.1	1,006.6	1,213.4	944.7	1,055.4
식물성 식품 섭취비율 [%]		94.0	97.7	94.7	99.4	98.4	97.0
동물성 식품 섭취비율 [%]		6.0	2.3	5.3	0.6	1.6	3.0

자료: 허금 등, 한국영양학회지 3(1): 2-17, 1970

1969년 국민영양 조사에 의한 지역별 국민 1일 1인당 평균 영양소 섭취량은 표 5-11과 같다(허금 외, 1970). 국민 1일 1인당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2,105kcal였으며, 지역별로는 농촌·산촌·광촌·도시·어촌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섭취량은 65.6g이며, 농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어촌·도시·광촌·산촌의 순이었으나, 총단백질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의 비는 어촌 24.9%, 도시 17.4%, 농촌 6.8%, 광촌 3.2%, 산촌 2.3%의 순으로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표 5-11. 1969년 각 지역별 국민 1일 1인당 평균 영양소 섭취량

영양소 \ 지역	도시	농촌	어촌	산촌	광촌	평균
에너지[kcal]	1,1946.0	2,218.0	1,886.0	2,111.0	2,050.0	2,105.0
당 질[g]	378.9	451.3	370.8	438.3	408.3	422.5
단백질[g]	62.8	67.8	63.0	61.6	62.0	65.6
지 질[g]	19.5	15.7	16.7	12.4	18.8	16.9
칼슘[mg]	437.0	457.0	631.0	425.0	405.0	444.0
철 분[mg]	20.3	26.2	16.8	24.5	21.4	24.8
비타민A[IU]	3,859.0	4,306.0	3,784.0	4,073.0	3,433.0	4,076.0
비타민B ₁ [mg]	1.72	1.69	1.55	1.53	1.82	1.76
비타민B ₂ [mg]	1.83	1.25	1.13	1.21	1.18	1.28
나이아신[mg]	20.9	23.8	23.7	28.7	29.7	27.8
비타민C[mg]	97.0	102.0	86.0	98.0	92.0	89.0
동물성 단백질[%]	17.4	6.8	24.9	2.3	3.2	10.4

자료: 허금 등, 한국영양학회지 3(1):2-17, 1970

1960년대 이전에는 전쟁과 절대빈곤으로 인해 영양학적 연구가 부진하였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자들에 의해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영양실태 조사가 실시되었다. 표 5-12는 1960년대에 발표된 각종 영양실태 조사결과를 비교한 것이다(이기완, 1998).

표 5-12. 1960년대에 발표된 각종 영양실태 조사결과와의 비교

조사자	발표연도 (조사 연도)	조사대상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질 [g]	당질 [g]	칼슘 [mg]	철분 [mg]	비타민 A [IU]	비타민 B ₁ [mg]	비타민 B ₂ [mg]	나이 아신 [mg]	비타민 C [mg]
이기열 등 ^{a)}	1962 (1960)	농민 (고양군)											
		봄	2,083	54.0	10.0	-	216	10.6	2,826	0.8	0.4	12.6	54
		여름	2,709	109.0	20.0	-	543	20.1	3,967	2.6	1.1	22.4	128
		가을	3,016	111.0	18.0	-	615	31.4	2,652	1.6	1.0	22.0	133
		겨울	2,536	75.0	14.0	-	232	13.7	1,916	1.0	0.5	15.9	93
		사계절 평균	2,586	87.0	15.5	-	401	19.0	2,840	1.4	0.73	18.2	102
유정렬 등 ^{b)}	1962 (1961)	농민 (고양군)	2,353	69.1	16.4	482	496	19.0	3,981	2.0	1.0	27.7	156
유정렬 등 ^{c)}	1962 (1961)	농민 (이천군)	2,389	77.4	13.5	490	478	22.4	2,431	1.7	0.7	31.1	80
오형석 등 ^{d)}	1963	운동선수	2,514	97.0	36.0	-	406	12.0	6,422	1.0	1.1	17.0	106
강한월 등 ^{e)}	1967	여대 기숙사생	2,273	82.0	21.3	-	489	18.0	2,885	1.6	1.4	17.5	103
이기열 등 ^{f)}	1971 (1968)	산촌(안흥)	2,114	61.0	13.2	433	413	20.2	2,484	1.4	1.0	18.1	84
		어촌 (구룡포)	2,311	57.0	7.7	502	350	12.3	1,945	1.3	0.8	22.1	55
		농촌(개성)	2,185	67.0	14.7	455	436	16.9	2,355	1.4	0.9	26.2	62
		도시(서울)	2,278	67.0	12.5	474	418	9.4	2,391	1.0	0.9	19.7	64
유덕자 등 ^{h)}	1969	승려: 남	2,066	63.5	23.9	437	544	24.5	7,578	1.4	1.0	27.0	91
		여	1,839	53.8	12.0	416	384	23.5	6,416	1.3	0.8	26.0	84
보건사 회부 ⁱ⁾	(1969)	국민영양 조사 (성인)	2,665	83.0	21.4	535	562	31.4	5,159	2.2	1.6	35.2	113
RDA ^{j)}	1967	남	3,000	80	-	-	600	10	2,000 (6,000)	1.5	1.8	2.0	70
		여	2,200	70	-	-	600	13	2,000 (6,000)	1.3	1.3	1.5	60

자료: a) Lee KY, et al. J Home Economics 54:205, 1962

b) 유정렬 등. 국립화학연구소 보고 10:65, 1962

c) 유정렬 등. 국립화학연구소 보고 10:82, 1962

d) 오형석 등. 중앙의학 5:1, 193.

e) 강한월 등. 효성논문집 22-28, 1967

f) 이기열 등. 한국 초등학교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영양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7-1968

g) 이기열 등. 한국영양학회지 4(4):57, 1971

h) 유덕자 등. 한국영양학회지 2(4):183-186, 1969

i) 보건사회부. '69 국민영양 조사결과 보고서.

j) FAO 한국협회. 한국인의 영양권장량 제1차 개정. 1967

우리 국민의 곡류섭취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1960년대까지는 백미 편중의 주식형태는 여전하였으며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은 총섭취량의 1.2-1.8%에 불과하였다. 총에너지에 대한 당질:단백질:지질의 구성비는 82:12:16으로 양질의 단백질과 지질의 섭취가 부족하고 비타민 A, 비타민 B₂, 및 칼슘의 섭취량이 부족했다. 1962년에 발표된 이기열 등(Lee KY, 1962)의 계절별 영양조사에서는 농촌의 식생활이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식품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춘궁기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1970년대 국민영양조사에 의한 전국 성인 1일 1인당 평균영양소 섭취량은 표 5-13과 같다(박영심, 1998). 에너지 섭취량은 1970년 2,150kcal에서 차츰 줄어들어 1979년에는 2,098kcal로 약 2.5% 감소하였다. 곡류에너지의 비율은 1970년대 전반기에는 총에너지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979년에는 77.4%로 감소하였다. 단백질 섭취량은 1970년의 64.6g에서 1979년에는 69.6g으로 7.7% 증가하였고,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은 14.7%에서 31.9%로 10년간 2배 정도 증가하였다. 1979년도의 총에너지에 대한 당질:단백질:지질의 구성비는 76.1:12.5:11.4로 당질의 구성비가 1960년대의 82%에서 76%로 크게 낮아졌다.

충분한 영양공급이 국가적 우선 과제였던 1960년대의 요구에 맞추어 1967년에는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1차 개정안이 발표되어 성인 남자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을 3,000kcal, 단백질 80g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나 1975년 제2차 개정안에서는 에너지는 1962년도 권장량보다 다소 낮은 2,700kcal로 조정하였다.

1960년대에도 그 이전시대와 마찬가지로 폐렴과 결핵이 각각 제 1,2 순위로 나타나 국민생활의 궁핍함이 영양상태와 건강지표에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부 계층의 영양소 과잉 섭취

및 상대적인 불균형과 관계가 있는 성인병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70년부터 사망원인의 제1순위에 순환기계 질환이 대두되었고, 심장 질환 및 악성 신생물이 주요 사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이기열 외, 1998).

표 5-13. 1970년대의 영양소 섭취량과 권장량에 대한 비율(전국 성인, 1인 1일)

영양소 \ 연도	1971	1973	1975	1977	1979
에너지[kcal]	2,072	2,059	1,992	2,134	2,098
단백질[g]	67.0	64.4	63.6	71.0	69.6
지 질[g]	13.1	19.2	19.0	28.0	26.2
당 질[g]	422	401	399	397	395
칼슘[mg]	404	382	407	487	699
철 분[mg]	13.1	11.0	12.4	14.0	12.4
비타민A[IU]	962	891	1,362	1,428	1,324
비타민B ₁ [mg]	1.22	1.09	1.21	1.4	1.31
비타민B ₂ [mg]	0.78	0.78	0.77	0.9	0.93
나이아신[mg]	14.7	16.0	15.3	19.0	21.3
비타민C[mg]	83.7	67.7	78.9	91.0	98.2
동물성 단백질[%]	11.6	17.7	20.6	24.4	31.9
곡류 에너지[%]	84.0	82.4	82.5	77.7	77.4

4. 경제개발 초기 성장기의 식품산업

4.1. 1960년대 기아해방을 위한 식품산업

1960년대 초 식품기업들은 해방과 전쟁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고 기업으로서의 생명력을 끈질기게 이어갔다. 공업화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식품산업도 종래의 소규모 수공업 형태에서 공장규모로 공업화 초기단계로 발전했다. 특히 설탕, 포도당, 전분, 밀가루, 라면 등 단맛과 포만감을 주는

탄수화물 가공품의 공업화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장류, 글루타민산 소다 등 기본 조미료 산업과 분유, 껌, 사이다, 콜라 등 기호식품 산업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 중(1965~1970)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한 채범석과 신영무(1972)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조미료 2.4배, 가공식품 3.8배, 과자 청량 음료가 6배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육·어패류, 분식류, 가공식품류, 커피, 마가린 등의 서구식 식품의 소비 증가가 크게 일어나 서양식 생활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제당과 제분공업은 전후 국가경제 부흥과 국민의 기아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밀가루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중요 식량이었고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폭넓게 쓰였다. 설탕 역시 생필품으로 국민들에게 애용 받기 시작했고 제과, 제빵 등 식품공업에 필수적인 재료였다. 그러나 정부가 제한하고 있던 설탕, 밀가루, 시멘트의 고시 가격을 해제하면서 업체들이 해외 역수출과 매점매석, 고가 판매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한 소위 ‘삼분파동’이 일어났다(1963년). 밀가루, 설탕, 시멘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설탕은 5배, 밀가루는 2배, 시멘트는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다’는 말이 시중에 나돌았다. 정부는 이들 3가지 분말 제품 제조기업들에 대한 세무 사찰을 실시해 17개 기업에 추징 세액 3,880만 원, 벌과금 390만 원을 부과하였다. 삼분파동은 식품 소재가 국민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었고 독과점의 폐해, 그리고 공정거래에 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해방과 함께 자생적으로 공업 기반을 구축한 장류기업은 전국적으로 공장이 형성되며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난립한 업체들 중에는 가내수공업 형태로 장류를 생산하여 품질에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1962년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장류공업도 법적 감독을 받게 되자 장류업계는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자체적인 자율 규제를 통해

141개가 넘던 업체 수를 114개로 정리하였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삼분파동의 여파로 밀가루값이 급등했던 1963년 9월,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시판되었다. 삼양식품공업의 전중윤 사장이 일본 라면 업계를 시찰한 뒤 제품화에 성공한 것이다. 당시 10월에 출시되었던 국내 최초의 라면은 ‘치킨라면’이었다. 삼양식품공업이 국내 최초로 라면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쌀과 보리 등 곡물에만 익숙하던 국민들은 라면의 면을 섬유나 실로 오인할 정도로 생소해했다. 또한 면에 배어 있는 기름의 산패 때문에 외면받기도 하였다. 1965년 롯데라면(농심의 전신)이 출시되면서 라면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통조림 산업은 월남전을 통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된다. 정부는 1966년 9월, 파병 한국군의 전투식량 보급을 위해 대한종합식품을 설립하였다. 미군의 C-레이션(Field Ration, Type C) 대신 쌀과 김치를 원하는 한국군에게 한국식 전투식량을 보급하기 위한 회사였다. 대한종합식품은 장병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던 김치 통조림을 만들어 현지에 보급했다. 그러나 베트남에 보낸 김치 통조림 캔은 녹이 쓴 채로 도착했다. 김치에서 나오는 산 성분이 원인이었다. 현재 기술로는 에폭시를 통해 산 부식을 막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병들은 조국에서 보내준 음식을 버릴 수 없다며 녹물이 스민 김치를 그대로 먹었다. 대한종합식품은 훗날 펭귄종합식품으로 발전, 콩치, 복숭아 통조림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농수산물 통조림 식품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차 경제개발계획이 종료된 1966년 말 우리나라 식품공업의 분야별 비중은 주류업종(39.6%)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제분(18.7%), 제당(8.8%), 조미료(6.6%), 통조림(5.4%), 청량음료(1.6%), 육가공 식품 및 낙농제품(1.1%) 순이었다. 가공식품 분야의 성장은 1960년대 후반에 시작

되었다. 제과, 청량음료를 중심으로 신규 기업의 창업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롯데제과가 1967년 설립되어 제과시장을 확대하였으며, 1968년 탄생한 삼립식품과 기린은 제빵 분야를 개척하였다. 음료부문에는 한미식품(현 롯데칠성음료)과 한양식품이 두각을 나타냈다. 한미식품공업은 1960년대 후반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를 출시했고 한양식품은 코카콜라를 생산하여 음료시장을 양분했다. 1966년 설립된 동방유량은 대두유를 비롯한 다양한 유지를 생산해 식품공업의 다양화에 기여하였다. 1969년에는 오투기의 전신인 풍림상사가 설립되었다. 풍림상사는 1969년 ‘분말카레’를 출시해 즉석 식품 시장을 개척했다. 카레의 성공으로 풍림상사는 1972년 상호를 오투기식품공업으로 변경하였다. 삼양라면과 롯데라면이 일으킨 라면 시장도 196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는 한국 식품공업의 발아기라고 볼 수 있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주식을 대체하는 라면·빵 등과 각종 기호식품이 국민들에게 선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광복 후 자체 기반을 형성한 국내 식품기업들이 신제품을 통해 한국 식품공업을 선도하며 공업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을 배경으로 식용유·통조림·맥주·낙농제품 등 다양한 식품이 탄생했으며 정부 투자와 외자 도입을 통해 냉장·냉동업 같은 자본집약적 기반이 구축되는 등 한국 식품공업의 기반이 폭넓게 성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식품공업은 고용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0년 약 28만 명 수준이던 식품공업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1971년에는 72만 5,000여 명까지 확장되었다. 이는 식품공업이 고도성장기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실제 1960년대 초 8.5%에 달했던 실업률은 1960년 말에는 4.5%로 감소하였다.

4.2. 1970년대 기호식품의 발전

1970년대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구현하며 경제성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연평균 9.5%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가며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국민소득 1,000달러 시대에 걸맞게 식품공업 역시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던 식품’에서 ‘맛과 영양을 즐기는 식품’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쌀의 자급화와 분식 증대로 식품공업의 개화기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인스턴트 라면과 제과, 제빵 등 기호식품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고 유제품과 가공육 제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기 시작했다. 특히, 라면은 간식을 넘어 대체 주식으로 사랑받으면서 크게 성장했다. 1960년대 말 11% 수준이었던 라면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970년대 중반에는 14.5%까지 급등했다. 스낵 분야에서도 ‘새우깡’, ‘콘칩’, ‘카라멜 콘’, ‘쥬리퐁’ 등이 출시되면서 시장이 확대되었다. 비스킷, 초콜릿에 비해 낮은 칼로리라는 점이 인식되면서 어린이는 물론 여성과 어른들도 즐겨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청량음료와 유가공품 시장 역시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말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합작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콜라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 이르러 연평균 30% 이상 급성장하였다. 1960년대 말까지 1인당 연간 0.3~0.5kg에 불과하던 우유 소비량은 1975년에는 4.5kg까지 증가하였다. 정부는 우유 소비 권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였다. 국민의 영양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식품업계는 이를 위해 우유에 다른 맛을 첨가한 가공우유 개발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1974년 바나나 우유가 출시되었고 맛있는 우유 시대를 열어, 우유의 소비 증진에 기여하였다.

아이스크림은 1970년대 이후 해외 선진 설비가 도입되면서 고급화 시대

를 열었다. 해태제과가 덴마크의 호이에(HOYER)사 설비를 도입해 국내 최초로 유지방 아이스크림 제품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우유, 삼강, 대일양해(빙그레의 전신) 등이 경쟁적으로 고급 아이스크림을 출시했다. 해태제과는 미국의 비어트리와 기술 제휴를 맺었고 삼강은 일본의 유키지루사(雪印乳業), 대일양행은 미국의 퍼모스트와 기술 제휴를 맺음으로써 아이스크림 시장은 치열한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1970년대 후반에도 롯데제과, 서주우유, 도투락우유, 삼람산업 등이 아이스크림 시장에 계속 뛰어들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개입, 1977년 아이스크림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분유 수입량이 과다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고급 아이스크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요구 충족을 위해 식품공업협회가 정부에 건의, 1980년 아이스크림 특소세는 폐지되었다.

정식품은 두유(豆乳) 시장을 개척했다. 창업주 정재원 회장은 의사 출신으로 소아 사망 원인을 연구하던 중 미국 유학을 통해 유당불내증(Lactose Intolerance)을 발견하게 된다. 우유나 모유의 유당 분해 효소가 부족해 소아의 영양결핍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귀국한 정재원 회장은 어릴적 먹었던 콩국에서 착안, 콩을 이용한 두유를 개발했고 이를 산모들에게 권장했다. 효과를 본 산모들이 병원으로 몰리자 정재원 회장은 1973년 정식품을 설립하고 베지밀(Vegetable+Milk)을 공식 출시했다. 이후 두유는 우유 시장의 새로운 제품군으로 자리매김하였고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식품회사를 통해 신제품이 출시되었다.

동서식품은 1970년 인스턴트커피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 미국 제넬럴 푸즈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맥심(커피)과 맥스웰 하우스를 출시, 미군 부대에서 유출되던 커피를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했다.

표 5-14. 국민 1인당 연간 가공식품 공급량 및 구성비(1966-1979)

(단위: g(%))

종류 \ 연도	1966	1969	1972	1976	1979
육류 가공품	9(0.4)	57(0.7)	45(0.1)	217(0.1)	324(0.1)
우유 및 유제품					
우유	420(19.1)	1,030(13.2)	2,500(19.3)	5,550(20.6)	10,020(20.1)
유제품	107(4.9)	192(2.5)	690(5.3)	2,509(9.3)	4,629(9.3)
유지 가공품	-	-	335(2.6)	741(2.7)	1,015(2.0)
빵·면류	985(44.8)	3,490(44.7)	3,824(29.5)	9,720(36.0)	12,833(25.8)
과자류	152(6.9)	1,789(22.9)	2,413(18.6)	3,004(11.1)	4,021(8.1)
음료수류	526(23.9)	1,255(16.1)	3,610(27.8)	5,259(19.5)	16,934(34.0)
계	2,199(100.0)	7,813(100.0)	12,971(100.0)	27,000(100.0)	49,776(100.0)

자료: 경제기획원,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1966-1979

표 5-14는 1966년부터 1979년까지 국민 1인당 연간 가공식품 공급량 및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이기열 외, 1998). 괄호 속의 숫자는 당해 연도 전체 공급량 중의 구성비(%)이다. 1960년대의 가공식품은 일상식이 아닌 특별식의 개념으로, 그 소비가 미미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연간 공급량이 2kg을 넘었다. 1966년-1970년의 가공식품 총 공급량은 연평균 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1970년에는 1인당 10kg에 달했으며, 1979년에는 50kg으로 증가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가공품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공급량이 1979년에 324g으로 기록했다. 우유를 먹지 않던 한국인이 전쟁 중의 기아선상에서 우유를 먹도록 강요되었고, 전후 유가공산업이 시작되어 1970년에는 연간 1인당 1.4리터가 공급되었으며 1979년에는 10리터로 증가하여 본격적으로 우유를 먹는 민족이 된 것이다. 이것은 주로 우유가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널리 알려진 것에 기인한다. 마아가린, 버터 등 유지가공품 산업은 1970년대 초에 시작되어 빠르게 성장하여 1979년에는 1인당 1kg이 공급되었다. 빵

과 면류는 주식을 대신할 수 있는 가공품으로 전체 가공식품의 40% 내외를 차지하였으나 1970년대 말에는 유제품과 음료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빵·면류의 비중이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자류는 1970년을 정점으로 그 비중이 낮아져 1979년에는 8.1%를 차지했다. 음료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979년에는 전체 가공식품의 34%를 차지했다.

1969년부터 1979년까지의 경제성장 기간 중 육류가공품의 공급량은 5.7배, 우유는 9.7배, 유제품은 24배, 빵·면류는 3.7배, 과자류 2.2배, 음료수류 13.5배 증가했다(이철호, 2021).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서양식 음식으로 빠르게 길들이는 효과를 내었다. 이것은 또한 이 시대의 영양학자들이 서양 음식의 영양가가 한식보다 월등히 좋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한국인의 식습관이 서구식으로 빠르게 변화된 원인이기도 하였다.

5.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구축

광복과 전쟁을 겪으면서 기아와 빈곤퇴치에 골몰하던 한국정부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식품산업의 발전으로 식품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1962년 1월 20일 ‘식품위생법’이 독자법률로 제정 공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식품안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식품위생법이 탄생한 것이다. 이어 1962년 6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서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217종의 첨가물을 국가가 지정하였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그러나 최초로 공포된 ‘식품위생법’은 최종 완제품의 청결과 위생에만 중점을 두었다. 생산과 유통 과정의 위생에 대한 감시 기능이 없었던 것이

다. 이는 향후 많은 불량식품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관행에 따라 식품의 종류별로 감독 부처를 분산시킴으로써 강력한 통제를 어렵게 했다. 주류는 국세청, 곡류 및 청과물은 농림부, 통조림은 수산청, 육류 및 유제품은 농림부와 내무부 산하 지자체가 맡는 식이었다. 보건사회부는 보건국 위생과에 가공식품의 위생관리 업무를 맡겼지만 자체 사법권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실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식품위생감시원조차 유해 첨가물과 인체 유해도를 정확히 알지 못할 정도였다. 이런 이유로 일제 강점기의 관행인 각종 색소와 감미료가 식품제조 전반에 활용되었으며 결국 1960년대 후반 ‘롱갈리트(Rongalite) 파동’ 등 불량식품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1966년 10월 검찰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7개 제과업체 관계자들을 전격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들이 먹는 사탕에 롱갈리트(Rongalite)가 포함되어 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롱갈리트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명시된 216종의 식품 첨가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롱갈리트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첨가물이며 유해 한도량인 0.3%에 훨씬 못 미치는 0.006%만이 검출되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언론은 연일 롱갈리트의 유해성에만 집중했다. 더불어 다른 불량식품 기사들을 확대 재생산하며 여론을 움직였다. 식품 공포 시대가 조장되는 분위기였다.

보건사회부는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롱갈리트가 오직 환원 작용을 하는 촉매이므로 식품에 잔류되지 않고, 설사 남아있어도 포르말린을 검사하는 리미니(Rimini) 반응의 최저 검출 한도인 30ppm 이하이므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더불어 대체할 수 있는 환원표백제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롱갈리트를 합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과자류의 표백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성분이므로 공

식 첨가물질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였다. 보사부와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사건은 정치권으로 확산되었다. 1966년 11월 국회는 불량유독의약식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들어갔다. 식품기업과 위생 전문가, 소비자의 견해가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국회는 롱갈리트가 과자 제조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제조업체 엄벌만을 중시하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11월 29일, 7개 제조업체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보건사회부도 롱갈리트의 합법화 정책을 철회하였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롱갈리트 사태로 한국 사회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첨가물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지 않았던 식품기업, 이윤을 위해 유해 성분을 사용하던 영세업자들, 위생 관념이 부족했던 국민 수준, 불량식품 단속의 한계를 보여준 보건 당국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촉구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를 거세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또한 ‘식품위생법’의 개선을 포함한 보건 당국의 강력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각이 확산되었다. 보건사회부는 11월 26일 롱갈리트 파동의 후속 조치로 유해색소 9종과 인공감미료 둘신 등 11종의 첨가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품첨가물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식품위생법’ 제정 4년 만에 일어난 첫 변화였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식품위생행정을 전담할 조직 신설을 추진하였다. 1967년 2월 11일 대통령령 2910호에 따라 보사부 내에 식품위생과가 발족 되었으며 산하에 식품화학과와 식품위생계가 탄생했다. ‘식품위생법’ 제정 당시 실현되지 못했던 식품위생 전담 부서가 발족한 것이다.

이후 검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보사부의 식품위생행정이 강화되면서 식

품위생사범은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다. 1967년 고추장, 과자류, 의약품 등에 유해색소를 사용한 사건과 1968년 간장 제조업자가 비소와 염산이 들어간 풀 찌꺼기를 사용한 사건, 막걸리에 카바이드(Calcium Carbide)를 섞고 소주에 과다한 메틸알코올을 넣은 사건, 콩나물 발육 촉진을 위해 유기수은(PMA)이 들어간 농약을 사용한 사건이 연이어 적발되었다. 1969년에도 통조림의 대장균 검출, 우유에 물을 타서 부풀린 사건, 분유에 불량 제품(밀가루·사료용 분유·미군부대 폐품 우유)을 혼합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이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정부의 강정책으로 이어졌다. 1969년 8월 1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한 것이다. 불량식품을 사회의 3대 악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사안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강력한 식품안전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엄벌주의에 입각한 방식은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었다. 보건사회부는 △식품행정의 보건사회부 일원화, △식품위생 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식품위생관리 전담기구 설치, △정부예산 1억 증액 요청 등 근본적인 혁신을 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1970년 말 국회에 부결되고 만다. 불량식품을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식품제조업자의 문제로만 보던 정권의 인식 때문이었다. 또한, 신규 예산 투자 없이 식품위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방식이기도 했다.

결국 식품공업의 주체인 식품기업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조시설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공급, 식품공업의 경쟁력을 구축하겠다는 자발적 의지였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 식품공업 도약에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으며 한국식품공업협회의 탄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5.1. 자율적 식품안전관리- 한국식품공업협회의 설립

1960년대 말 우리나라 식품 관련 업소는 8만 8,000여 개에 달했다. 음식점이 6만 6,000여 개로 가장 많았다. 식품공업의 기반인 식품제조기업은 1만 3,000여 개 정도였으나 그중 1만 2,000여 개가 직원 5인 미만의 영세 기업이었다.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데다 ‘식품위생법’의 홍보와 단속이 미비해 영업에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세업체의 난입은 저가·저질의 식품 유통 현상을 불러왔다. 이들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불량식품 사고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었다. 해방 후 전쟁을 극복하며 경쟁력을 키워왔던 식품제조기업에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왔다. 보사부 역시 처벌 중심의 정책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식품업계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식품공업계를 이끌고 있던 대기업들은 연대를 통해 식품안전 체계 확립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9년 8월 1일, 삼양식품공업을 비롯한 10개 식품기업의 책임자들이 모여 한국식품생산자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일부 비양심 업체들의 잘못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량식품의 근절과 국내 식품공업의 발전을 위해 협회의 창립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무엇보다 열악한 제조 환경에서 양산되는 부정·불량식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식품공업의 발전이 요원하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다. 보사부 역시 자율 규제를 통해 식품공업의 발전을 주도할 협회의 탄생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국식품생산자협의회는 이렇듯 식품 안전을 위한 식품업계의 자발적 혁신 의지와 보건사회부의 후원이 결합해 탄생하였다. 협의회 정관에 적시된 창립목적은 △식품의 연구개발과 이의 원활한 공급으로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촉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며, △불량식품을 근절시켜 사회 정화에 기여하며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식품업계의 자율

적 정확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봉사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극대화하는 것 등이다. 역사적인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회원사는 총 10개로 삼양식품공업, 해태제과공업, 삼립식품공업, 샘표장유양조장, 칠성음료공업, 미원, 미풍, 서울식품공업, 서울사이다, 대한제당협회였다(표 5-15). 이로써 한국식품생산자협의회는 식품안전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자율 규제, 식품공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노력, 식품공업계의 교류 활성화라는 명분을 확보했으며 우리나라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최초의 공적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였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표 5-15. 한국식품공업협회 탄생의 주역들

|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1961년 삼양제유주식회사로 창립, 식용 기름 생산을 시작하였다. 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전중윤 대표가 1963년 일본 묘조(明星)식품에서 라면 제조 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출시하였다. 이후 사명을 삼양식품공업으로 바꾸고 라면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식품회사로 발전하였다. 전중윤 1대 회장은 식품 수출의 공헌도를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금탑·은탑·동탑산업훈장을 모두 수훈한 경영자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 해태제과공업주식회사

해태제과공업은 광복과 함께 박병규, 민후식, 신덕발 등이 일본 나가오카제과의 생산시설을 인수하고 해태제과합명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창립되었다. 1959년 해태산업(주)로 사명을 변경한 뒤 비스킷 생산에 주력하였으며 1960년 해태제과공업(주)로 사명을 전환하였다. 1961년에 영등포구 양평동에 3,500평 규모의 공장을 준공했으며 추가로 검 공장을 준공하였다. 1998년 해태그룹의 부도 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 크라운제과에 인수되었다.

|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

1945년 삼미당으로 출범한 삼립식품공업은 삼립산업제과(주)로 사명을 바꾸고 빵과 비스킷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였다. 1968년 주한미군에 빵을 납품하면서 사세를 확장, 사명을 삼립식품공업(주)로 변경하였다. 1972년 설립된 형제기업 한국인터내셔널(사니)와 경쟁하며 제빵 분야를 선도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SPC그룹으로 편입되었다.

▶ **샘표장유양조장**

1946년 일본인이 운영하던 총무로의 '삼시장유양조장'을 인수해 간장 생산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브랜드 개념이 없던 1954년 3월 '샘표'라는 상표를 국내 최초로 내걸었고 1956년 샘표장유양조장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창립 초기부터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을 생산했으며 국내 최초 장류 전문 연구실을 설립하는 등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류업계를 선도, 샘표식품으로 발전하였다.

▶ **칠성음료공업주식회사**

1950년 5월 평양의 금강사이다 공장장 출신인 박운석과 최금덕, 장계량 등 7명의 동업으로 순수 국산 청량음료를 제조하겠다는 뜻을 모아 동방청량음료를 설립하였다. 첫 브랜드로 칠성사이다를 출시한 동방청량음료는 이후 한미식품공업, 칠성음료공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74년 11월 롯데제과에 인수되었다.

▶ **미원주식회사**

미원주식회사는 1956년 동아화성공업으로 출범한 뒤 국산 조미료 1호인 미원을 출시, 조미료 시장을 선점하였고 이후 사명도 미원식품으로 변경하였다. 1964년 전분과 전분당 생산을 시작했으며 1965년 미왕산업을 인수해 서울미원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하다 1997년 대상(주)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 **미풍판매주식회사**

미풍판매주식회사는 제일제당의 조미료 사업 부문 판매사로 설립되었다. 1963년 조미료 사업 진출을 선언한 제일제당은 원형산업을 인수하고 미풍 조미료를 출시하였다. 미풍은 이후 미원과 함께 조미료 시장을 선도하며 발전해 나갔다.

▶ **서울식품공업주식회사**

1955년 서울식품공업사로 설립되어 마가린을 생산하였으며 1969년 법인전환과 함께 서울식품공업(주)로 사명을 변경했다. 1973년 마요네즈를 출시했으며 1985년에는 제빵 공장을 준공하였다. 이후 유지와 베이커리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 **대한제당협회**

대한제당협회는 제당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5년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제일제당, 삼양사, 동양제당 3사를 회원으로 출범했으나 이루 과 당경쟁 체제를 거친 후 3사 체제(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를 확립,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식품생산자협의회는 사회공익에 우선하는 가치관과 우수 제조설비를 확보한 대기업 중심으로 협회 회원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제조업은 연매출 10억 원 이상, 첨가물 제조기업은 연매출 3억 원 이상의 기업에게만 회원사 자격이 주어졌다. 더불어 최소 1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했다. 그러나 자체 연구 분석 시설을 갖춘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해 예산은 회원사의 입회금, 월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한국식품생산자협의회 초대회장은 삼양식품공업(주)의 전중운 대표이사가 선출되었고 부회장에는 해태제과공업(주)의 민후식 대표이사, 삼립식품공업(주)의 허창성 대표이사, 감사에는 대한제당협회 박성만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1969년 11월 7일 한국식품생산자협회는 한국식품공업협회로 회명을 공식 전환하였다. 협회는 1969년 말 정관을 개정해 협회 가입 조건을 조정, 5개 기업의 협회 가입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1970년 협회 회원사는 15개사를 기록했다. 한국식품공업협회(현 한국식품산업협회)의 탄생은 식품 분야가 의학, 약학과 함께 국가보건 제도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업계를 대표하는 자율 규제 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갔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빠르게 확산시켜 나갔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참고문헌

- 고재모, 김태곤, 이철호,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도서출판 식안연 (2017)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정사」 (2013)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7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찬 (2015)
- 박영심, 1970년대의 식생활 및 영양실태, 이기열 등, 한국인의 식생활 100년 평가(I), 신광출판사, 97-126 (1998)
- 박재길, 김대중, 고용석, 김은란, 박근형,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정부 정책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10)
- 이기완, 1960년대의 식생활 및 영양실태, 이기열 등, 한국인의 식생활 100년 평가(I), 신광출판사, 71-96 (1998)
- 이기열, 이기완, 박영심, 박태선, 김은경, 장미라, 한국인의 식생활 100년 평가 (I), 신광출판사, 서울, p.45 (1998)
- 이철호,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중의 식량사정, 식품과학과 산업, 55(3), 308-325 (2022)
-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도서출판 식안연 (2021)
- 이철호, 주용재, 안기옥, 류시생, 지난 일세기 동안의 한국인 식습관의 변화와 보건영양상태의 추이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3(4), 397-406 (1988)
- 채범석, 신영무, 「우리나라 식품소비 변화에 관한 고찰」, 1960~1970년을 중심으로, 《한국영양학회지》, 5(4), 161 (1972)
- 한국식품산업협회, 국민과 함께 걸어온 식품산업 반세기, 한국식품산업협회 50년사 (2019)
- 허금, 유정렬, 이기열, 성낙응, 채범석, 차철환, 국민영양조사보고(1969년도), 한국영양학회지, 3(1) 2-17 (1970)
- Acemoglu D. and Robinson J.A., *Why Nations Fail*,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최완규 역, 시공사 (2012)
- Lee, K. Y., C.S. Song, J.M. Yang, M.H. Kim, C.T. Soh and J.C. Thomson, Dietary Survey of Korean farmers, *J. Home Economics*, 54(3), (1962)

무역자유화과정의 한국경제와 식량안보

1. 1980년대 한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

1980년대는 한국사회에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고 세계적으로는 무역자유화를 향한 선진국들의 경제 체제 개편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된 기간이다. 197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박정희의 피살로 유신체제가 무너졌을 때 국민은 민주주의가 회복되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권력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두환 육군소장을 중심으로한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유혈 충돌을 동반한 12·12 하극상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10·26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자 국무총리로 있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군부 실권하의 대통령으로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 신군부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체포했다. 이러한 신군부의 정권 장악 기도에 대항하여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신군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했지만 광주에서의 유혈사태는 전두환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전두환정부와 그 이후 성립된 노태우정부도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혈탄압

이라는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1995년 광주 특별법 제정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죄로 구속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다(표 6-1).

표 6-1. 1980년대 한국 국내 정치 상황

-
-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 1979년 10월 26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
 - 전두환 소장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권력 장악, 비상계엄
 -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유혈 무력진압, 김대중 체포
 -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 1980년 9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간선제 대통령 선거
 -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취임, 1981년 3월 3일-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제5공화국
 - 6·10 민주항쟁,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대통령 직선제 개헌
 -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 88서울올림픽 개최
 -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 1993년 2월 25일- 전두환, 노태우 구속 수감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1995년 1월 1일- 한국은 창립멤버로 회원가입
-

신군부 주도로 성립된 제5공화국 정부 하에서 국민은 경제발전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박정희 정부가 이룩한 경제성장의 덕택으로 중산층이 늘어났고 이들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두환 정부는 대통령 7년제 단임제를 내세워 정통성의 부재를 만회하려 했지만 국민적 저항은 높아만 갔다. 1984년 두 야당 지도자인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화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 강도를 높였다.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생 야당인 신한민주당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압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 등장함으로써 전두환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12대 총선 이후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7년 4월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대통령 간선제를 선언한다. 4·13 호헌조치는 전국적인 국민 저항을 불러와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당시 여당의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6·29선언을 발표했다. 6·29선언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고 김대중을 사면 복권하는 것이었다. 이 선언은 지배세력과 저항세력의 대타협의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사에서 이정표를 이루는 사건이었다. 6·29선언에 기초하여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두 야당후보인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이후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차례로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5·16정변 이후 문민 지도자로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완성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비로써 안정적인 발전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이남택 외, 2005).

1980년 출범한 제5공화국은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를 적극 도입하였다. 유신체제에서 정부 주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석유 비축과 금융 긴축 정책을 적극 펼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한편 ‘수도권 정비법’, ‘공정거래법’을 제정해 경제의 균형발전과 독과점 방지 등의 혁신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국가 개입보다 시장의 원리를 중시한 정책 효과는 서서히 나타났다. 석유 파동의 후유증을 극복한 1980년대 중반부터 3저 호황(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국면이 전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저유가와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출이 급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12% 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 한국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기를 누렸다. 국민 소득 증대로 중산층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컬러TV 방송과 프로스포츠 도입 등 정부의 소비 증진

정책도 경기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은 소비 증진과 민간 경제 성장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스포츠, 관광, 컨벤션 산업 등 올림픽 관련 산업이 성숙하면서 국민들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부의 상징이었던 자동차가 생필품으로 자리 잡아 ‘마이카’ 시대가 열렸고 올림픽 중계를 발판으로 가구당 TV 보급률도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도 서울의 도심 환경과 주거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분단과 개발도상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올림픽 개최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했으며 일체감을 바탕으로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의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원화가치의 하락, 국제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3저 호황을 통해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한국경제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흥공업국 수준으로 도약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투자했던 국가들의 경제 개방 압력에 직면해야만 했다. 정부는 물가의 안정과 함께 시장 개방의 충격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갔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양극화와 경제불균형 타파를 위해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초기 혼란은 있었지만 금융실명제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지하 경제를 척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1.1. GDP 1만 달러, 수출액 천억 달러 달성

이런 가운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같은 해 우리나라는 GDP 1만 달러를 돌파, 세계 11위의 국내총생산액을 달성했으며 1996년에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정회원이 되었다. 이런 성과를 견인한 것은 수출이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사상 최초로 무역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1964년 1억 달러를 돌파한 지 31년 만이었다. 자동차, 선박, 화학제품, 전기·전자, 기계류 등의 중화학공업 제품이 수출의 선봉장이었다. 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CDMA 휴대폰도 주력 수출품으로 떠올랐다. 이 때부터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표 6-2).

표 6-2. 한국 수출입 통계(1981~1995)

(단위: 천달러)

년도	수출	수입	수지
1981년	21,253,757	26,131,421	-4,877,664
1983년	24,445,054	26,192,221	-1,747,167
1985년	30,283,122	31,135,655	-852,533
1987년	47,280,927	41,019,812	6,261,115
1989년	62,377,174	61,464,772	912,402
1991년	71,870,122	81,524,858	-9,654,736
1993년	82,235,866	83,800,142	-1,564,276
1995년	125,057,988	135,118,933	-10,060,945

이 결과 셀러리맨의 월급이 최초로 백만 원을 돌파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부동산 가격도 급등했지만 생활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크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성장한 중산층이 더욱 두터워졌으며 이들 계층은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히 유지되었다. 이렇듯 1990년대 우리 경제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였다.

표 6-3은 1980년대와 '90년대의 1인당 GNP, 엔겔계수, 농업인구 비율, 식량자급률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80년에 1,589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

득이 10년 만에 5,883달러로 늘었으며, 1995년에는 1만 달러를 넘어섰다. 1995년 농업인구는 10.9%로 줄었으며 곡물자급률은 28.4%로 내려앉았다 (이철호 외, 1988; Lee C.H., 1999).

표 6-3. 한국 일인당 GNP, 엔겔계수, 농업인구 비율, 식량자급률의 변화(1965-1995)

년도	일인당 GNP	농업인구(%)	식량(곡물)자급률(%)
1965	109	55.2	93.9
1970	252	45.0	80.5
1975	590	38.2	76.3
1980	1,589	28.9	54.3
1985	2,047	21.1	48.4
1990	5,883	15.5	39.8
1991	6,757	14.0	35.7
1992	7,007	13.1	33.5
1993	7,484	12.3	30.8
1994	8,467	11.6	30.4
1995	10,037	10.9	28.4

이렇듯 1980-90년대는 대한민국이 신흥 경제강국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기였다. 국민들의 식생활 역시 곡물 위주에서 육류, 수산물, 유제품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이를 토대로 가공식품의 대량화와 다양화 시대가 열렸다. 1970년대 말까지 기반을 구축했던 한국 식품공업의 본격적인 성장기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레저생활과 여행 트렌드로 외식산업이 태동하면서 식품산업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한국식품산업 협회, 2019).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는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내재된 채 나타난 현상이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루었지만 비수출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수요 감소와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품공업 역시 수출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내수 중심이었다. 이런 가운데 시장 개방이 확대되자 외국 가공식품과의 경쟁까지 감내해야 했다. 특히,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식품공업의 경쟁력에 위협 요인으로 다가왔다. ‘모든 품목에 예외 없는 관세화’가 추진되면서 한국적 특수성을 갖고 있던 식품공업에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국 식품공업은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으로 조달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자 원료가 완제품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산업이었다. 원료에 대한 높은 관세율은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둔화시켰고 시장 개방으로 국내에 상륙한 다양한 수입식품들 때문에 국내시장에서마저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 있던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식품공업에 미친 충격은 컸다. 정부가 농수축산물의 완전 개방을 막기 위해 식품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대폭 낮추고 원료에 대한 관세는 소폭만 낮췄기 때문이다.

이 결과 식품공업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1년 전체 제조업 내에서 8.3%를 차지하던 가공식품 생산액은 1995년에는 7.2%로 줄어들었고 부가가치 수준도 1991년 8%에서 1995년 6.8%까지 하락하였다. 대표적인 제품이 커피였다. 1988년까지 45톤에 불과했던 커피 완제품 수입은 1990년 917톤을 넘겼고 1992년에는 1,490톤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량은 1990년 1,100여 톤이던 것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고환율 탓에 수익은 오히려 악화되고 말았다. 제과, 제빵, 육가공품 등 원료 수입 비중이 큰 가공식품이 대부분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다.

다양한 외국 가공식품의 국내 진출은 식품업체들의 설비 및 신제품 투자 비용을 증가시켰다. 기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신제품을 개발해야 했기 때문이다. 무역상사 등이 식품 수입에 뛰어들면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수입 제품이 급증했고 일부 품목은 다국적 식품기업이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도 했다.

2. WTO 자유무역체제가 개발도상국에 미친 영향

2.1. 세계 경제 질서의 변천 과정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질서는 미국의 주도로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유럽전선과 아시아 태평양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발전과 국제교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매진했다. 2차대전 말기인 1944년에 이미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었다. 1945년 미국은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언’을 발표하고 국제무역기구(ITO)의 창설을 주장했다.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 일명 아바나헌장이 채택되어 국제무역에 관한 제반사항과 각국의 정책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정해 놓고 실시기관으로서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지나치게 이상적인 내용을 담아 당초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마저 비준을 거부당하고 말았다(이철호, 2012).

다른 한편,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이 제안한 관세인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23개국 대표가 모여 다각적인 관세교섭을 벌인 결과 모든 참가국에 평등하고 무차별로 적용될 ‘관세양허표’가 만들어 졌는데, 여기에 국제무역기구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참가함으로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만들

어 졌다. 가트는 이렇게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잠정적인 협정으로 만든 것이나 국제무역기구헌장의 결렬로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수입제한의 완화, 차별대우의 폐지등 사실상 국제무역기구가 수행하려고 했던 2차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질서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트는 IMF와 함께 전후 미국 주도의 세계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수출경쟁이 격심해 지고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유럽공동시장(EC) 등 지역별 경제블록화,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 등으로 미국의 절대적 우위에 기초한 국제 경제질서가 붕괴되고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이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 등으로 다극화 되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 미국은 농업공항, 제조업 쇠퇴, 서비스산업 팽창이라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를 맞아 무역구조를 새롭게 개편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를 무기로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하려고 가트를 통해 세계 무역구조의 개편을 시도한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UR)’이다.

2.2. 우루과이 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가트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시작된다. UR협상 이전에 가트는 7차례에 걸친 대규모 국제 무역협상을 했다. 50년대 말까지 4차례의 협상을 했는데 모두 관세협상으로 수입상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을 없애 나가자는 논의였다. 1960년부터 2년 동안은 당시 미국무장관이었던 딜런의 이름을 따서 ‘딜런 라운드’ 협상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은 국가별 및 상품별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세계무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 방법으로는 관세인하 실현 폭이 너무 적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1964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관세 일괄 인하방식’이 제창되어 이후 3년간 ‘케네디 라운드’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교섭 참가국은 일률적으로 평균 35%의 관세를 인하할 것에 합의했다. 한국은 1967년 가트회원국이 되었다.

1973년 일본 동경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도쿄 라운드’는 종래의 관세 일괄 인하방식을 바꾸어 여러나라 사이의 관세율 격차를 조정하는 조화방식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들 7차례 국제협상은 주로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방안에 관한 것이었는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업무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나 책의 무단복사를 금지하는 지적재산권보호의 필요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UR협상이 1994년 4월에 협상이 타결되어 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기 까지 8년여에 걸친 지리한 줄다리기를 하게 된 것은 농산물에 대한 무역 개방에 대하여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과 EU의 싸움이었으나 140여 회원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가와 저개발국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피해 당사자로 버려지게 된 것이다. 어떤 면에서 8년에 걸친 협상기간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준비기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영국과 독일 등 전통적으로 곡물을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강력한 국가지원으로 필요한 곡물을 자급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75년도에 각각 64%, 80%에 불과하던 영국과 독일의 곡물자급률이 85년도에는 114%와 95%로, 90년에는 116%와 114%로 급격히 높아져 먹고 남을 정도의 곡물을 생산하게 된다. 일본은 이 기간 동안 식량자급률을 더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 1980년도까지 급격히 하락하던 곡물자급률이 1990년대 이후 30%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1999년에 제정된 식료

농업농촌기본법에서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을 45%까지 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농산물 무역 개방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대로 WTO 무역자유화 체제를 맞게 된다(이철호, 2012).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다. 한국은 6·25 동란이후 극도의 빈곤국으로 전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으나 식량을 사올 돈이 없었으므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에 의존하여 살았다. 미국에서 보낸 밀가루와 탈지분유를 받아 멸건 우유죽을 끓여 연명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우유를 먹지 않았던 민족이므로 우유에 들어있는 당질인 락토오스를 분해할 능력이 없어 우유죽을 먹으면 처음에는 모두 설사를 하였다. 그러나 전쟁중에 달리 먹을 것이 없었으므로 매일 희멸건 우유죽을 줄을 서서 받아먹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몸속에서 유당분해효소가 만들어져 더 이상 설사를 하지 않게 된다. 우유를 먹지 못하던 민족이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우유를 먹는 민족으로 바뀐 것이다.

한국은 1970년대 초까지 식량부족으로 힘든 보릿고개를 넘었으나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식량을 처음 수입하게 된다. 그 이후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으로 모자라는 식량을 수입할 뿐 아니라 고기와 우유의 소비가 급증하여 사료곡물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 81%였던 곡물자급률이 75년도에는 76%, 80년도에는 54%, UR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90년도에는 40%, WTO가 출범한 95년도에는 28%로 정신없이 내려갔다(표 6-3)(Lee C.H., 1999).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이와 같이 급격하게 하락한 원인은 80년대에 일어난 동물성 식품의 급격한 소비 증가가 주원인이었으나 UR협상으로 인한 농산물의 무차별 수입 개방도 크게 작용하였다. 비교우위 경제이론에 근거를 둔 산업화 수출 정책은 농업분야의 희생으로 이루어 졌다. UR협상기간동안 선진국들은 앞으로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식량증산에 힘썼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국가적인 노력인 들

인 반면 한국은 아무런 준비 없이 WTO체제를 맞게 된다.

2.3. WTO 전후의 한국 식량 교역량 변화

한국은 UR협상 기간 동안 식품과 농산물에서 1,420종의 무역자유화 대상품목 중 1,117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을 허용했다. 이들 품목은 교역량이 극히 미미한 것들로 한국의 농산물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들이었다. 그러나 1995년 WTO 출범 이후부터 진행된 농산물의 수입 개방은 한국의 농업 인프라와 식량안보에 눈에 띄게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95년에 개방된 166품목 중에는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사과, 포도주스, 치즈, 고추, 마늘, 참깨, 쌀, 잣 등 한국의 주요 식량자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해에는 포도, 사과주스, 버터, 농축우유, 피넛버터 등 15품목이, 97년도에는 돼지고기, 닭고기, 꿀, 오렌지, 감귤, 오렌지주스 등 사실상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식품이 개방되었다.

표 6-4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전과 이후의 한국 식품수입액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Lee C.H., 1999). WTO 출범 이전에 비해 출범 이후 2년 동안 곡류, 두류, 서류의 수입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곡류 수입액은 2년 동안 71.1%, 두류는 30.0%, 서류는 277% 증가했다. 수입액의 급격한 증가는 수입량의 증가 원인도 있지만 식량작물의 가격 상승도 큰 역할을 했다. 유채류, 과실류, 채소류의 수입은 국내 작황에 크게 영향을 받으나 대체적으로 수입액이 2년간 15-30% 증가하였다. 사료로 사용되는 대두박의 수입액은 같은 기간 109.1% 증가했다. 쇠고기 수입액은 16.2%, 돼지고기 73.4%, 우유류 147.6%, 치즈 수입액은 487.2% 증가 하여, 육류와 유제품의 수입액 증가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Lee C.H., 1999).

표 6-4.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이전과 이후의 한국 식품 수입액 변화

(단위: 백만달러)

식품군	1994	1995	1996	95/94(%)	96/94(%)
곡류	1,513.3	1,898.5	2,597.2	25.5	71.6
옥수수	696.8	1,267.6	1,576.0	81.9	126.2
밀	783.5	467.2	725.0	-40.4	-7.5
쌀	-	-	50.6	-	-
두류	385.8	423.9	501.6	9.9	30.0
콩	351.6	401.9	473.4	14.3	34.6
팥	18.2	8.3	10.3	-54.4	-43.5
서류	38.3	58.4	144.4	52.5	277.0
타피오카	14.6	27.6	98.6	89.0	575.3
감자	23.1	29.7	45.5	28.6	97.0
유채류	96.7	84.2	110.8	-13.0	14.6
참깨	61.3	44.0	66.9	-28.3	9.1
땅콩	12.7	10.3	17.2	-18.9	35.4
과실류	250.1	315.4	323.2	26.1	29.2
오렌지	78.5	101.4	89.6	29.2	14.1
바나나	49.3	49.5	56.4	0.4	14.4
파인애플	22.3	24.0	24.4	7.6	9.4
포도	5.7	20.6	23.6	261.4	314.0
채소류	152.3	140.2	175.9	-8.0	15.5
고추	0.6	12.9	19.8	2050.0	3200.0
마늘	30.5	10.6	8.8	-65.3	-71.1
양파	26.4	6.0	21.6	-77.3	-18.2
채유박	293.8	429.0	614.4	46.0	109.1
대두박	139.0	209.8	294.0	50.9	111.5

식품군	1994	1995	1996	95/94(%)	96/94(%)
동물성 식품	932.4	1,224.4	1,240	31.3	33.0
쇠고기	433.1	543.0	503.3	25.4	16.2
돼지고기	92.4	133.0	160.2	43.9	73.4
분유	433.1	59.8	79.0	87.5	147.6
치즈	92.4	33.9	50.5	294.2	487.2
기타식품					
커피	171.3	240.4	183.5	40.3	7.3
카카오	80.2	84.4	105.1	5.2	31.0
담배	245.2	376.5	424.0	53.5	72.9

표 6-5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전후의 한국 농수산 1차 산물 수입액과 수출액 변화이다. 총수입액은 1994년의 81억 달러에서 1996년 120억 달러로 48% 증가했으나 총수출액은 같은 기간 30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증가폭이 미미하다.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 주요 수입품목인 반면 수산물은 주요 수출품목이다. 1995년의 국가전체 무역수지를 보면 약 1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중 70%가 농업 1차 산물 무역에서 발생했다(Lee C.H., 1999).

표 6-5.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전후의 한국 농수산 1차 산물 수입액과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US\$)

생산물	수입액			수출액		
	1994	1995	1996	1994	1995	1996
농업	4,493.3	5,674.6	6,911.7	835.7	1,086.6	1,164.1
축산업	932.4	1,224.4	1,240.3	116.1	155.6	260.0
임산업	2,562.8	2,778.1	2,788.0	511.1	504.6	405.2
수산업	727.2	843.3	1,080.5	1,585.8	1,721.8	1,635.1
총계	8,175.7	10,520.4	12,020.5	3,048.7	3,468.6	3,464.4

한국은 쌀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농산물의 개방을 허용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았다. 쌀시장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빚을 걸어 놓은 것이다. 그것이 최소시장접근방식(MMA)이다. WTO가 시작되는 1995년에 국내 쌀 소비량의 1%만을 수입하고 이어 매년 0.25%씩 추가하여 2004년까지 수입량을 4%로 확대한다는 조건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당시 그 정도야 감수해야지 하고 조인하였으나 2014년에는 소비량의 8%의 쌀을 의무 수입해야 했다. 즉 국내에서 생산한 쌀이 남아도는데도 연간 40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것이다. 40만 톤이면 10톤짜리 추력 4만대에 해당하는 양이다. 더 이상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2.4. WTO와 개발도상국들의 이해관계

1999년 1월 일본 동경에서 아시아생산성본부(APO)가 주최한 국제 워크숍이 열렸다. 회의장 앞에는 ‘무역자유화 이후의 아시아 각국의 식량안보’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30여개국에서 각 나라의 농업부 국장급 인사를 대표로하는 참석자들과 몇몇 교수와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100여명이 모인 자리였다. 이곳에서 각국 대표들이 WTO 이후에 일어난 자기나라의 식량문제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필자는 한국을 대표하여 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아시아에는 3가지 유형의 나라들로 구분되었다.

일본, 한국, 대만은 선진국 또는 신흥 산업국으로 높은 경제력으로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수입하여 먹을 수 있는 나라이나 농산물 교역 자유화로 자국의 농업 인프라가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는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비교우위 경제이론에 밀려 점차 쇠퇴하여 식량자급률이 낮고, WTO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농업에 대한 보호장

벽이 무너지면서 농업 대국들의 값싼 농작물이 마구 쏟아져 들어와 국내 농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성토했고 있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식량 종속국이되어 몇몇 식량대국에 목줄을 매이는 비참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여 농민의 생활이 보장되고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금 등 농산물 교역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명목의 지원체제가 잘 되어 있으므로 WTO의 규정을 피해 국가가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나, 이들 신흥 국가들은 WTO의 규제에 묶여 농업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 조건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농산물 이외의 공산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해서 성공적으로 경제성장하는 나라들이므로 이러한 농업분야의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무역자유화 세계 경제 질서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은 국가경제를 위해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전쟁의 냉혹한 전선에 알몸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한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국가들은 WTO가 별로 싫지 않은 기색이다. 이들 국가들은 식량자급률이 비교적 높고 일부는 쌀을 2모작 혹은 3모작까지 하여 수출하고 있으므로 무역자유화로 쌀의 수출이 늘어났다고 반기고 있다. 이들은 세계 무역 활성화를 위해 보호장벽을 없애야 하고 일본과 한국이 쌀시장을 하루속히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 등 아시아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들은 식량도 부족하고 사할 돈도 없어 국제기구와 자선단체를 통해 식량 원조를 받고 있다. 그런데 WTO 체제에서는 국제교역을 왜곡할 수 있는 무상원조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나라들의 무역전쟁에 끼어서 굶주리도록 버려진 애처러운 신세가 된 것이다.

이 회의는 애초에 아시아 국가들의 식량안보상황을 듣고 어떤 공동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국제사회에 권고할 계획이었으나 각 나라들의 입장이 너무나 상이하게 들어난 관계로 현황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다(이철호, 2012).

2.5. WTO 이후의 한국 식량 농업 정책의 변화

1980년대 초반 이례적인 흉작으로 자급률이 떨어지고 대규모의 쌀 수입이 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쌀의 자급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급과잉은 필연적으로 재고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를 수반한다. 1992년의 통일벼 수매 중단을 시작으로 1993년 민간의 쌀 유통기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양정개혁이 추진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WTO가 성립할 즈음 예상을 초월하는 농지 전용이 일어났고, 기상여건이 불안정해 지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으며, 시장개방에 대한 불안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96년 쌀 생산 종합대책이 강구되었다. 이 대책은 다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생산기반 확충, 생산성 향상, 영농규모 확대, 수매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증산정책이었다(고재모 등, 2017). 1990년대 후반에는 다시 생산과잉 현상이 나타났다. 아울러 UR 협상에서 합의된 시장가격 직접지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WTO 허용보조로 분류된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도가 검토되었고, 2001년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시행되었다(그림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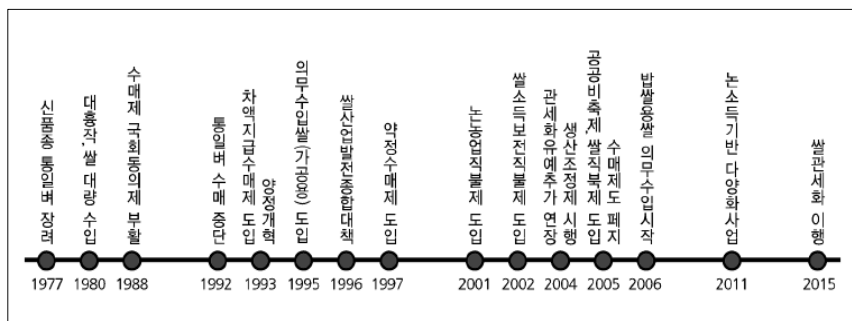


그림 6-1. 1970년대 후반 주곡 자급달성 이후 식량정책의 흐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p.299 재인용.

1995년 WTO의 성립 당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예외 없는 관세화였으나 한국, 일본 등의 끈질긴 요구로 쌀은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다. 관세화 유예는 10년의 기간 동안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이지 영원한 관세화 유예가 아니었다. 1995년부터 시작된 관세화 유예는 10년 후인 2004년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관세화로 전환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다시 관세화 유예 10년의 연장 조치를 신청하고 인정받았다.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즉, MMA 물량 수입량은 2005년 225,575톤에서 매년 균등하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408,700톤까지 증가하기로 약속했다(표 6-6). 이 수입량은 기준 연도(1988~90) 쌀 소비량의 4.40%에서 7.97%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의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4년의 MMA 물량은 소비량의 12%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박동규 등, 2008).

표 6-6. 연도별 쌀 MMA 도입물량

(단위: 천톤)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수입량	51	64	77	90	103	103	128	154	180	205
(밥쌀용)	-	-	-	-	-	-	-	-	-	-
(비율%)	-	-	-	-	-	-	-	-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수입량	225.6	245.9	266.3	286.6	307.0	327.3	347.7	368.0	388.4	408.7
(밥쌀용)	22.6	34.4	47.9	63.1	79.8	98.2	104.3	110.4	116.5	122.6
(비율%)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자료: 이철호 외,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2014)

관세화 유예는 언젠가 관세화를 전제로 유예가 인정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WTO 농업협정문 제4조 2항에서 규정한 관세화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개념이다. 2004년 관세화 유예가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2014년 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쌀 관세화 유예를 계기로 양정 대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1948년 이후 시행되고 있던 추곡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를 혁신하는 것이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추곡 수매제도는 한국 양정의 근간이었으며 수매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독특한 제도였다. 쌀의 가격뿐만 아니라 비축기능까지 포괄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제도의 폐기는 미시적으로 쌀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식량 비축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한편으로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 직불제를 도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쌀 가격은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시장가격이 수급구조를 조정하는 일반 상품화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고재모 등, 2017).

3. 한국의 산업화와 식량수급 패턴의 변화

한국의 1980년대는 신군부의 독재정치 연장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정치적 혼란과 항쟁의 연속이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중화학공업의 성장과 새마을운동을 통한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이 정착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한 기간이었다. 표 6-3에 보인바와 같이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1965년의 109달러에서 1980년에는 1,589달러, 1990년에는 5,883달러, WTO가 창설된 1995년에는 1만 달러를 넘어 중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 이전은 전국민의 55%에 달하던 농업인구를 1995년에는 10% 수준으로 감소하여 급속한 도시화 현상을 나타내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주택, 공장, 도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농경지의 감소를 초래했으며 곡물생산을 위한 경작지의 전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 6-7)(Lee C.H., 1999). 곡물류 경지면적은 1970년의 295만 헥타르에서 1980년에는 198만 헥타르, 1990년에는 135만 헥타르로 1/2 이하로 감소하였다. 반면 채소류 경지면적은 1970년의 25만 헥타르에서 40만 헥타르로 1.58배 증가했다. 특히 비닐하우스에 의한 채소류 생산이 크게 늘어 같은 기간 20배 이상 증가했다. 과실류를 생산하는 과수원의 면적도 같은 기간 2.9배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국민의 식습관이 육류 소비와 아울러 과채류 소비가 급등하는 고급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곡물류 생산 면적이 반 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통일벼 계통의 다수확 신품종의 보급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표 6-7. 한국의 작물별 경지면적과 생산량 변화(1970-1995)

(단위: 1,000ha, 1,000 M/T)

년도	곡물류		채소류		하우스 채소		과실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2,950	6,524	258	2,653	4	140	60	423
1980	1,982	5,324	377	7,676	18	412	99	833
1985	1,669	6,990	366	7,763	29	680	109	1,464
1990	1,346	5,476	317	8,677	40	1,017	133	1,766
1995	1,346	5,476	408	10,586	82	2,423	174	2,300
'95/'70	0.45	0.84	1.58	3.99	20.5	17.3	2.90	5.44

우리나라의 연도별 1인당 식품 공급량 변화를 보면 곡물류는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특히 쌀은 1970년의 130kg에서 1995년에는 110kg으로 감소하였다(표 6-8). 반면 밀은 면류와 빵 제조용 밀가루의 소비증가로 같은 기간 25kg에서 34kg으로 1.35배 증가했다. 보리와 감자 고구마 등 서류의 공급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설탕류는 1970년의 6.2kg에서 1995년 17.8kg으로 거의 3배 증가 했다. 채소류와 과실류의 공급량 증가 추세가 뚜렷하여 채소류는 같은 기간 2.5배, 과실류는 4배 증가했다. 특히 육류는 1970년의 8.3kg에서 1995년에는 31.5kg으로 3.8배 증가했으며, 계란류는 2.6배, 우유류는 21배 증가했다. 어패류 2.3배, 김, 미역 등 해조류도 같은 기간 4.5배 증가했다. 식용유, 마아가린 등 유지류 공급량도 같은 기간 9.4배 증가 했다(Lee C.H., 1999).

표 6-8. 한국의 연도별 1인당 식품 공급량 변화(1970-1995)

(단위: kg)

식품군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95/70
곡류	194.9	193.0	185.0	185.4	175.4	171.4	0.88
쌀	130.4	119.8	132.9	128.0	124.6	110.0	0.84
밀	25.1	30.1	29.4	32.0	29.7	33.9	1.35
보리	36.8	39.7	14.1	8.4	2.4	1.9	00.05
기타	2.6	3.4	8.7	16.6	22.5	25.6	9.85
서류	56.0	35.0	21.5	11.8	11.0	12.3	0.22
설탕류	6.2	5.2	10.3	11.7	15.3	17.8	2.87
두류	7.4	8.3	9.7	10.7	10.3	10.8	1.46
너트류	0.1	0.2	0.4	0.8	0.5	1.0	10.00
종실류	0.1	1.3	0.4	0.5	0.7	2.0	20.00
채소류	59.9	62.5	120.6	98.6	132.6	140.7 (1994)	2.5
과실류	10.0	14.0	16.2	26.6	29.0	40.9	4.09
육류	8.3	9.3	13.9	16.5	23.6	31.5	3.80
계란류	3.2	4.0	5.9	6.2	7.9	8.5	2.66
우유류	1.8	4.4	10.8	23.1	31.8	37.6	20.89
어패류	14.7	24.6	22.5	30.7	30.5	34.4	2.34
해조류	2.6	5.3	4.5	6.5	5.7	11.6	4.46
유지류	1.5	2.7	5.0	9.2	14.3	14.1	9.40

1980년부터 '95년까지 일어난 육류와 우유류 등 동물성식품의 소비증가는 쇠고기의 수입과 동물사료의 폭발적인 수입 증가를 유발했다. 사료용 곡물인 밀과 옥수수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표 6-9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곡물자급률은 1970년의 78.2%에서 1995년에는 30.1%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밀과 옥수수의 수입에 기인한다. 식용 밀가루 제조와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밀의 자급률은 1995년 0.3%로 감소하였으며 수입량은 277만 톤이었다. 식용 전분 및 물엿 제조와 사료용으로

표 6-9. 한국의 연도별 식품군별 자급률 변화(1970-1995)

(단위: %)

식품군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95 수입량 (1,000M/T)
곡물류	78.2	74.1	5.3.	49.2	43.8	30.1	12,779.0
쌀	93.1	100.5	95.1	103.4	108.3	91.1	-
보리	106.3	100.8	57.6	63.5	96.1	67.0	172.0
밀	15.4	5.5	4.8	0.3	0.1	0.3	2,777.0
옥수수	36.1('65)	5.7	5.9	4.1	1.9	1.1	8,879.0
서류	100.0	100.0	100.0	109.0	100.0	98.8	9.7
두류	87.5	85.2	40.1	24.8	24.5	11.7	1,485.7
콩	86.1	83.3	35.1	22.5	20.1	9.9	1,435.0
유채류	96.4	101.0	77.8	105.5	86.3	44.7	55.4
채소류	100.2	100.6	100.2	98.0	98.9	99.2	165.0
과실류	100.2	101.4	98.6	93.6	102.5	93.0	183.5
육류	100.0	100.6	97.4	99.6	92.9	89.2	188.2
쇠고기	98.0	100.0	93.0	97.5	53.6	51.4	148.2
돼지고기	100.0	108.8	97.5	100.0	100.3	96.6	34.4
가금육	100.0	100.0	100.0	100.0	100.0	98.1	5.8
계란류	99.2	100.0	100.0	100.0	100.0	99.9	-
우유류	-	-	109.7	100.6	92.8	93.3	203.5
어패류	115.1	136.0	132.7	129.6	121.7	100.6	921.9
해조류	108.9	168.0	177.1	158.5	172.8	123.0	16.1
유지류	-	-	19.0	15.5	8.0	4.8	611.9

사용되는 옥수수의 자급률은 1995년 1.1%로 수입량은 888만 톤에 달했다. 1995년도 밀과 옥수수의 수입량은 1,165만 톤으로 당해 연도 쌀을 비롯한 전체 곡물 생산량 548만 톤의 2.13배를 기록했다. 콩의 자급률은 1970년 86%에서 1995년 9.9%로 하락하였으며 연간 144만 톤을 수입하였다. 서류, 채소류, 과실류는 대부분 자급하였으며, 동물성 식품 중에서 쇠고기를 제외

한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류, 우유류는 대체로 자급하였다. 쇠고기의 수입은 크게 늘어 1995년에는 자급률이 51%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어패류와 해조류 등 수산물은 유일하게 수출되는 식량자원이었으며, 팜유 등 유지류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표 6-9)(Lee C.H., 1999).

4. 경제성장과 한국인의 영양 및 건강상태

1980년대는 산업화 고도 경제성장으로 한국인의 식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기간이다. 앞에서 보인바와 같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으면서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으며,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세계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전 세계의 음식이 한국에 소개되었으며 식생활의 서구화가 가속되었다. 인구의 도시화와 고령화가 두드러졌으며, 단독가구의 증가, 여성 취업률의 증가 등으로 즉석 간편식품(fast food) 섭취가 늘었으며 외식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4.1. 경제성장과 식량 섭취량의 변화

표 6-10은 1980년~'95년 기간 중 한국인의 식품군별 섭취량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이기열 외, 1998). 곡류, 두류, 김자 등 전통적인 주식류의 소비가 감소한 반면 과일류와 동물성식품 특히 육류와 유제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10. 1980~1990년대 식품군별 섭취량의 연차적 추이(전국, 1인 1일)

(단위: g)

식품군 연도		1980	1982	1986	1990	1992	1995
식물성 식품	곡류 및 그 제품	495	458	389	344	333.7	308.9
	두류 및 그 제품	46.9	46.6	74.2	58.1	36.5	34.7
	감자 및 전분류	35.8	22.6	39.9	43.1	22.4	21.2
	채소류: 신선한 것	166	145	143	142	301.5	286.2
	가공한 것	135	121	135	139		
	과일류	41.3	42.1	75.3	68.8	123.9	146.1
	해조류	1.5	3.0	4.27	6.0	6.7	6.6
	조미료·주류·음료수류	36.6	21.8	21.3	34.7	37.8	47.6
	유지류	4.4	4.4	5.26	5.6	5.8	7.5
	기타	0	0	0	9.4	1.1	11.9
계		963	865	887	851	882.5	871.1
동물성 식품	육류 및 그 제품	13.6	17.6	38.8	47.3	58.1	67.0
	난류	8.3	8.3	20.7	19.5	19.0	21.8
	어패류: 신선한 것	57.3	53.8	51.8	51.9	85.4	75.1
	가공한 것	8.4	22.8	27.3	26.7		
	우유 및 유제품	9.9	14.0	42.5	52.2	51.6	65.6
	유지류	0.1	0.1	0.13	0.40	0.2	0.1
	기타	0	0	0	0	0.2	-
	계	98	117	181	198	214.5	230.0
총 계		1,061	982	1,068	1,049	1,097.0	1,101.0
식물성 식품 섭취비율 [%]		90.8	88.1	83.0	81.1	80.4	79.1
동물성 식품 섭취비율 [%]		9.2	11.9	17.0	18.9	19.6	20.9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영양조사결과보고서, 각년도

곡류와 육류의 품목별 소비량 변화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표 6-11과 같다(박태선, 1998). 표 6-10의 통계치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표 6-10은 국민영양조사(National Food Consumption Survey) 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값이고, 표 6-11은 식품수급표(National Food Balance Sheet)에 근거한 것이므로 표 6-11의 공급량에 근거한 통계치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곡류 중에서 보리의 소비량은 1980년대에 63g에서 11g으로 현격하게 감소하였으나 밀의 소비량은 다소 증가하였다. 육류 중에는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13g에서 27g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닭고기는 5.4g에서 9.4g으로 1.7배 증가했다.

표 6-11. 1980년대 곡류 및 육류의 각 품목별 소비량 및 구성비(전국, 1인 1일)

(단위: g(%))

품목 기간	곡 류					육 류				
	쌀	보리	밀	기타	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	계
'76~'80 평균	356.3 (68.1)	63.3 (12.1)	85.7 (16.4)	17.6 (3.4)	522.9 (100.0)	7.1 (21.8)	13.1 (40.2)	5.4 (16.6)	7.0 (21.4)	32.6 (100.0)
'81~'85 평균	355.1 (69.5)	28.8 (5.6)	87.1 (17.0)	40.0 (7.9)	511.0 (100.0)	7.4 (18.7)	19.5 (49.4)	7.6 (19.2)	5.0 (12.7)	39.5 (100.0)
'86~'90 평균	345.4 (68.9)	11.9 (2.4)	88.0 (17.6)	55.7 (11.1)	501.0 (100.0)	9.9 (17.6)	27.2 (48.5)	9.4 (16.8)	9.6 (17.1)	56.1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국민영양조사 결과보고서에 근거한 1980-90년대 한국인 영양소별 섭취량의 변화를 보면 표 6-12와 같다. 이 기간 한국인의 섭취열량은 2,051kcal(1980년)에서 1,839kcal(1995년)로 11% 낮아 졌으나 단백질 섭취량과 지방질 섭취량은 각각 9%, 76%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물성식품의 섭취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총에너지에 대한 3대 영양소의 공급 구성비는 1981년 당질: 단백질: 지질이 73.9: 12.1: 14.0에서 1985년에는 69.7: 12.9: 17.4로, 1990년에는 69.2: 16.9: 13.9, 1995년에는 64.2: 15.9: 18.9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무기질이나 비타민 중에서 칼슘과 비타민A가 권장량과 비교하여 각각 80%, 70%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 졌다(이기열 외, 1998).

표 6-12. 1980~1990년대 영양소별 섭취량의 연차적 추이(전국, 1인 1일)

영양소 \ 연도	1980	1982	1986	1989	1992	1995
에너지[kcal]	2,052	1,991	1,930	1,871	1,875	1,839
당 질[g]	396	381	343	323	313	295
단백질[g]	67.2	67.4	74.2	75.3	74.2	73.3
지 질[g]	21.8	21.1	28.1	27.9	34.5	38.5
칼슘[mg]	598	466	593	498	538	531
철 분[mg]	13.5	13.3	17.0	22.2	22.9	21.9
비타민A[IU]	1,688	1,676	2,226	1,657	535.0	443.0
비타민B ₁ [mg]	1.13	1.00	1.24	1.15	1.22	1.16
비타민B ₂ [mg]	1.08	0.86	1.19	1.18	1.22	1.20
나이아신[mg]	19.1	20.7	27.2	19.5	17.4	16.7
비타민C[mg]	87.9	76.0	84.3	65.8	102.5	98.3
동물성 단백질 비[%]*	28.7	32.6	41.2	39.5	46.6	47.3
곡류 에너지 비[%]**	77.4	77.9	69.5	66.5	66.2	61.2

* 동물성 단백질 비 [%] = (동물성 단백질/총단백질) × 100

** 곡류 에너지 비 [%] = (곡류 에너지/총에너지) × 100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영양조사결과보고서, 각년도

4.2. 식량낭비구조의 가시화

표 6-13은 1980년도와 1986년도의 식품 수급표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과 국민영양조사 보고서의 영양섭취량을 비교한 것이다(이철호 외, 1988).

표 6-13. 1980년대의 영양공급량과 영양섭취량 조사결과의 비교

	영양공급량(1인 1일당)		영양섭취량(1인 1일당)	
	1980	1986	1980	1986
총에너지(kcal)	2485	2786	2052	1930
식물성(kcal)	2257	2446	-	-
단백질(g)	73.6	89.4	67.2	74.2
동물성(g)	20.1	30.4	-	-
지방(g)	36.6	53.9	21.8	28.1
Ca(mg)	511	466	598	593
Fe(mg)	12.6	27.2	13.5	17.0
비타민A(IU)	3037	3550	1688	2226
B ₁ (mg)	1.92	1.29	1.13	1.24
BS(mg)	1.03	1.75	1.08	1.19
Niacin(mg)	23.4	19.3	19.1	27.2
C(mg)	125	112	87.9	84.3

1970년대에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양공급량이 실제 조사된 섭취량보다 대체로 높으며 특히 에너지의 경우 20~30%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식량의 과잉 공급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풍요에 의한 낭비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식량이 풍족해 지면서 식량의 낭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6-2를 보면 식량이 부족했던 1970년 이전에는 국민영양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실제 섭취량이 식량수급표에 나타난 1인당 식량에너지 공급량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식량이 부족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식량을 주변에서 많이 조달해 먹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 이후부터 이것이 역전되어 공급량보다 섭취량이 적게 나타난다. 즉 식량수입이 원활해져 식량 부족이 해소되면서 식량의 낭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공급량과 섭취량의 차이는 점점 커져 2000년대에 들어오면 1인당 1일 공급열량은 3,000kcal 수준인

데 섭취열량은 2,000kcal 밖에 안 된다. 즉 공급된 식량의 1/3이 버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이철호 등, 2014; 채희정 등, 2016).

결국 한국인의 식사행태는 비경제적이고 고비용의 동물성 식품을 과다 섭취하고 많은 양의 음식물을 버리는 낭비적 구조로 변화해 감으로서 식량 사정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의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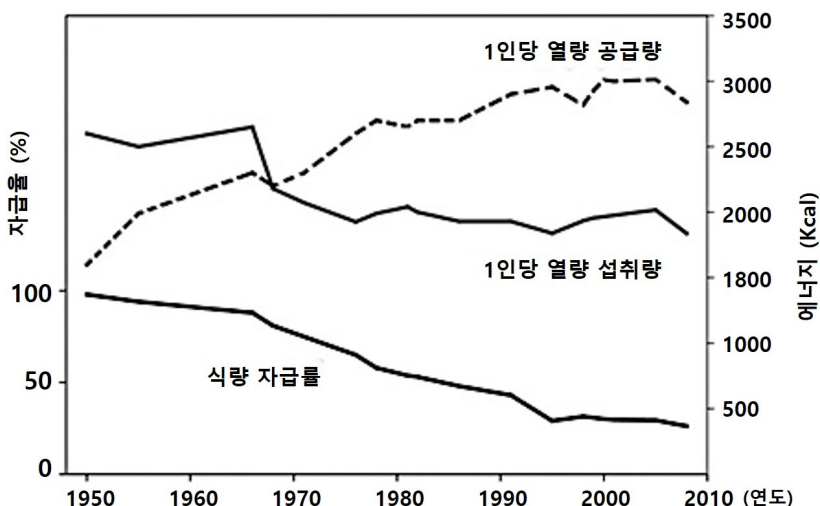


그림 6-2. 1인당 1일 공급열량과 실제 섭취열량의 연차별 변화와 식량자급률 변화

4.3. 식량의 과잉섭취와 성인병의 증가

이와 같은 동물성 식품의 소비 증대, 식품공급의 과잉 및 낭비경향은 국민보건에서 새로운 문제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표 6-14에 있는 바와 같이 1980년부터 86년까지 7년 동안 총 의료 보험 치료 건수는 1.8배 증가한데 반하여 당뇨병 진료 건수 5.3배, 고혈압 환자 진료 건수는 2.6배로 각각 증가하여 성인병의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식량의 부족보다는 과잉섭취에 의한 각종 질병과

보건상의 문제점들이 영양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이철호 외, 1988).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5년에 발표된 제4차 개정 한국인 영양권장량에는 성인 1일 에너지 섭취량 2,500kcal로 다시 하향 조정 하였으며 단백질은 75g으로 낮추어 책정되었다. 그러나 광복과 전쟁 이후의 극심한 식량 부족의 과정에서 동물성 식품과 서구식 식사습관을 선진적인 것이고 우수한 것으로 모방하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영양의 과잉섭취에 의한 보건상의 위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6-14. 의료보험 성인병 진료건수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총진료건수 (천명)	6,795 (100)	7,595 (111.8)	9,069 (133.5)	9,843 (144.8)	11,133 (163.8)	12,315 (181.2)	12,538 (184.5)
암 (백명)	25.3 (100)	27.1 (107.3)	33.1 (130.9)	35.7 (141.0)	40.7 (161.0)	54.0 (213.4)	74.6 (227.5)
당뇨병 (백명)	14.0 (100)	15.5 (110.8)	24.6 (176.1)	33.3 (238.2)	43.6 (311.8)	5.8 (406.2)	74.6 (532.8)
고혈압 (백명)	65.5 (100)	71.5 (109.1)	99.1 (151.1)	107.9 (164.2)	128.1 (195.2)	153.7 (234.4)	169.9 (259.0)
심장병 (백명)	16.13 (100)	19.5 (121.1)	24.4 (157.7)	31.3 (194.0)	37.5 (232.5)	48.4 (300.3)	53.9 (334.4)
뇌혈관질환 (백명)	7.2 (100)	7.6 (106.0)	8.5 (118.0)	10.1 (141.5)	13.0 (181.9)	16.4 (228.3)	19.5 (271.7)
간경화 (백명)	29.9 (100)	27.80 (92.8)	38.2 (127.5)	42.5 (141.9)	49.0 (163.8)	56.1 (187.6)	65.9 (220.3)

(주) 괄호속은 1980년을 100으로 한 증감율(%)

자료: 한국의료보험관리공단(1987)

표 6-15는 1994년도에 조사된 10대 사인별 사망률과 1990년대 식이섭취와 관련된 주요 질환의 사망률 추정치를 정리한 것이다(김은경, 1998). 모든 암을 합산한 전체 암 사망자수는 사망원인 중 1위를 나타내지만 각각의 암을 분리하여 통계를 내면 뇌혈관질환이 1위, 심장병 2위, 교통사고 3위, 위암이 4위이다.

표 6-15. 1994년 10대 사인별 사망률 및
1990년대 식이섭취와 관련된 주요 질환의 사망률 추정

(인구 10만 명당)

순위	1994년 사인	사망률	1990년대 사인	사망률
	총사망	538.8	식이섭취와 관련된 주요 질환의 사망률	
1	뇌혈관 질환 ¹⁾	85.8	암(전체 암)	112.7
2	심장병 ¹⁾²⁾	44.5	뇌혈관계질환	84.4
3	교통사고 ³⁾	35.8	위암	28.8
4	위암 ¹⁾⁴⁾	29.3	고혈압성 질환	25.8
5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 ³⁾	27.0	당뇨병	17.0
6	고혈압성 질환 ¹⁾	26.2	허혈성 심질환	12.6
7	간암 ³⁾	23.4	대장암	5.6
8	폐암	19.1	유방암	3.8
9	당뇨병	17.2	식도암	3.1
10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12.7		

주: 1) 식이 섭취가 영향을 미치는 질병

2) 심장병에는 허혈성 심질환, 폐순환 질환, 기타 심질환을 포함시킴.

3) 알코올 과다 섭취가 영향을 미치는 질병

4) 다빈도 암에 대해서 암을 암부위별로 나누어 사망순위를 정함.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1994

1980년-90년대의 경제성장은 국민의 식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대부분의 국민이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게 되었으며 일부 영양과잉의 문제를 야기하긴 했지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80년의 남자 62.7세, 여자 69.1세에서 1989년에는 남자 66.9세, 여자 74.7세로 증가했으며, 1995년에는 남자 69.5세, 여자 77.4세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17세 소년의 평균신장을 보면 1978년 167.6cm에서 1989년 169.9cm로 증가하였고, 평균체중도 57.9kg에서 61.0kg으로 약 3kg 증가하였다(박태선, 1998).

5. 한국 식품산업의 선진화 도약

5.1. 단백질식품의 증가와 레토르트 식품 탄생

1980년대 가장 두각을 나타낸 식품 분야는 육가공 및 유가공 식품이었다. 육가공업은 1980년대 초부터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1975년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kg 미만이었지만 1987년에는 3.6kg까지 증가했고 돼지고기 역시 같은 기간 동안 8.9kg으로 2.7배, 닭고기도 3.2kg으로 2배 이상의 소비량 증대를 기록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표 6-16은 1980년대 1인당 연간 가공식품 공급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육류 및 유가공품 공급량이 3-4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유지가공품, 빵·면류, 과자류, 음료수류도 1.5배에서 2배 증가하였다(박태선, 1998).

표 6-16. 1980년대 1인당 연간 가공식품 공급량 변화 추이

(단위: g)

연도	육류 가공품	우유 및 유제품		유지 가공품	빵·면류	과자류	음료수류	계
		우유	유제품					
1980	385	11,000	6,196	1,182	10,841	4,950	14,417	48,971
1981	1,060	14,400	8,087	990	13,580	4,469	20,110	62,692
1982	834	15,070	7,392	1,431	11,505	6,173	16,283	58,688
1983	907	18,250	7,612	1,887	12,996	5,811	17,142	64,605
1984	1,007	20,540	8,636	1,403	11,499	5,551	19,747	68,383
1985	1,065	23,290	9,310	1,744	13,112	4,721	20,996	74,238
1986	912	27,810	10,122	1,171	15,910	5,755	24,705	86,385
1987	1,086	33,900	11,753	1,732	15,417	5,621	23,804	93,313
1988	1,503	31,010	13,447	1,517	15,329	6,630	21,622	91,058
1989	1,170	36,900	11,929	1,699	18,238	7,022	19,776	96,734
1990	1,603	33,150	15,102	1,454	19,240	8,007	25,144	103,700
'90/'80(%)	416	301	244	123	177	162	174	212

자료: 경제기획원. 관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이러한 트렌드를 예측한 ㈜롯데햄과 제일제당은 1980년, 최신 설비를 도입해 육가공 제품의 대량생산시대를 열었다. 두 업체는 무균·무진포장기 등 선진 제조설비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위생적인 냉장 유통을 위해 냉장 쇼케이스를 무상으로 보급, 콜드 체인(Cold-chain) 구축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동원, 오양, 삼호, 한성 등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육가공 제품시장에 진출하였다. 비엔나·후랑크소시지, 본레스햄, 베이컨 등의 햄류는 1980년대부터 일반화되었다. 이렇듯 1980년대는 서구식 육가공 제품의 대중화가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진주햄, 한국냉장 등의 기업이 1970년대 일부 제품을 생산했지만 주로 호텔 등 고급 시장 중심으로 유통되었다.

육가공업은 대기업의 참여로 대형화,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이 결과 국내 육가공 생산업체 수는 1987년 152개까지 증가했고 1989년에는 198개사로 늘어났다. 햄, 소시지, 베이컨으로 대표되는 육가공 제품 생산기업은 131개 정도였으나 건조저장육, 양념육, 분쇄가공품, 갈기가공품, 포장육 등 다양한 육가공 생산기업들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햄 종류의 하나인 ‘스팸’도 1987년 제일제당에 의해 국내 생산이 시작되었다. ‘스팸’은 1937년 미국 식품제조업체 호멜(Hormel)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우리나라에는 6·25에 참전한 미군에 의해 알려졌다. 부대찌개의 재료로도 활용되었던 ‘스팸’은 향수를 자극하는 식품으로 사랑 받았고 1980년대 후반 국내 생산이 시작되면서 고급 반찬, 명절 선물세트로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서구식 식생활의 유행은 고급제품인 유제품과 우유 가공식품의 소비도 촉진하였다. 1980년대 우유 생산업체들은 집유량과 생산시설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늘려나갔다. 선발업체인 서울우유를 비롯해 한국낙농가공으로 출발한 매일유업, 분유로 기반을 쌓은 남양유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해태유업과 빙그레도 유제품 시장에 진출했다. 1987년에는 파스퇴르 유업이 후발주자로 등장, 대대적인 광고마케팅으로 시장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결과 유제품 시장 규모는 1987년 1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유제품 업체들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특수를 통해 치즈, 버터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한국야쿠르트는 ‘야쿠르트’ 열풍을 일으켰다. 1971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야쿠르트’는 탈지분유에 설탕물을 타서 발효시킨 음료수로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긴 했지만 우유를 발효시킨 요구르트와는 다른 제품이었다. 그러나 상큼한 맛을 바탕으로 판매량이 커지더니 1983년에는 일일 300만

병의 판매 실적을 실현하였다. 이 같은 성공은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던 판매원 중심의 영업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이어 빙그레가 떠먹는 요구르트(호상발효유)인 ‘요플레’를 1983년 국내 최초로 출시하였다. 프랑스 소디아알(Sodiaal)과 상표 계약을 맺고 출시한 ‘요플레’는 시큼한 맛과 비싼 가격으로 초기에 고전했지만 1988년 올림픽 때 입국한 외국인들에 의해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남양유업 등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이 확대되었다. 정식품이 개척한 두유시장도 1982년 250억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 동아식품, 매일유업, 삼육두유 등이 두유 생산에 진출, 소비자들에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1981년 출시된 오투기의 ‘3분 카레’는 레토르트(Retort) 식품 시대를 예고했다. 레토르트 식품은 조리한 식품을 플라스틱제 봉지에 밀봉한 뒤 고압가열 살균 솔인 레토르트(Retort)에 넣어 가열, 멸균해 급속 냉각한 보존식품을 말한다. 오투기는 1970년대 이미 인스턴트 카레 제품을 출시한 바 있었는데 일본의 후지모리사로부터 레토르트 파우치를 수입해 ‘3분 카레’를 비롯한 레토르트 제품군을 출시하였다. 이어 1983년 삼아알미늄(주)과 농어촌개발공사가 공동으로 파우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레토르트 식품의 종류가 확대되었다. 레토르트 식품은 86아시안게임 당시 진행요원들의 중식으로 결정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삼계탕이나 설렁탕, 육개장, 부대찌개 등 한식 요리 제품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5.2. 서구식 가공식품과 프랜차이즈 산업 등장

1980년대는 식품업계의 연구개발과 신제품 개발 경쟁으로 새로운 가공식품이 많이 탄생했다. 1982년 동원산업이 출시한 참치 캔은 콩치, 과일류에 국한되었던 통조림 제품의 고급화 시대를 열었다. 1970년대까지 동원산

업은 원양에서 포획한 참치 원어(原漁)를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를 획득하였다(김재철, 2016). 그러나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참치 판로가 축소되자 김재철 회장은 대체식품으로 참치 통조림의 개발에 나섰다. 당시 참치 통조림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만 소비되는 고급 영양식이었다. 동원산업은 한국 소비자들의 식생활 변화를 예측해 참치를 가공식품으로 개발했으며 1982년 고영양 통조림 식품을 국내에 최초로 출시하였다. 동원산업은 참치 캔을 선진국형 고급식품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제품명 역시 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감안해 ‘동원참치 살코기 캔’으로 변경,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참치는 반찬뿐 아니라 김밥이나 김치찌개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면서 국민식품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동원산업은 이후 고추장, 마요네즈, 카레를 가미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 부동의 1위 업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1988년 사조산업이 시장에 진출해 2강 구도를 형성했으며 1990년대에는 오투기가 제품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연간 3,000억 원 규모로 시장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 돌풍을 일으킨 또 다른 식품은 치킨이었다. 1980년대 초부터 ‘페리카나’, ‘멕시칸’, ‘치갯집’ 같은 토종 브랜드가 지방을 중심으로 탄생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이들 업체는 우리나라 양계업의 발전과 함께 외식업으로서 기반을 닦출 수 있었다. 양계업은 한국전쟁 이후 외국 원조를 통해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상업용 외국종계 도입을 계기로 품종 개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도심에 전기구이 통닭집이 등장했고 198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형 치킨 체인점이 등장하며 대량소비를 이끌었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에 기업 양계 시대에 진입, 대규모 사육과 시설 자동화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1980년대 초에 등장한 치킨 체인점들은 한국형 양념통닭의 맛을 창출한 데다 배달문화를 도입해 치킨집의 부흥을 이끌었다. 1982년 출범한 프로

야구 역시 치킨 열풍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야구장에서 즐기는 치킨과 맥주가 새로운 음식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대형 맥주 회사들은 때맞춰 도심에 대형 맥주 펍(Pub)을 오픈, 치킨과 맥주의 조합을 삼겹살과 소주에 버금가는 음식문화로 발전시켰다.

이 시기 국내 대기업들은 외식산업 모델인 프랜차이즈(Franchise)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1979년 롯데리아가 서울 소공동에 1호점을 낸 데 이어 1984년에는 두산그룹이 KFC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하였다. 1985년 피자헛에 이어 1988년에는 맥도날드까지 상륙하면서 패스트푸드와 한국형 치킨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이 상호 경쟁하며 프랜차이즈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표 6-17은 197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외식산업체 수와 판매액 및 식료품비 중 외식비 구성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외식업체수는 1968년의 8만 3,000여 점에서 1990년 29만여 점으로 증가했으며, 총 매출액은 566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 가계지출에서 외식구성비는 1990년 도시가계에서 20.7%, 농촌가계에서 18.8%를 기록했다(박태선, 1998).

표 6-17. 외식산업체 수와 판매액 및 식료품비 중 외식비 구성의 변화

연도	외식업체		외식 구성비(%)	
	업체수(개)	판매액(억원)	도시가계	농촌가계
1968	83,262	566	1.83	3.01
1979	134,851	16,764	3.68	3.57
1982	207,080	26,160	5.98	6.26
1986	259,451	46,442	8.92	10.97
1990	298,196	106,676	20.70	13.8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경제기획원. 도·소매업 센서스 보고서.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은 국내 가공식품의 고급화를 이끌었다. 선수촌에 공급되는 가공식품의 품질을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관광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제품이 선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88서울올림픽 때 선보인 용기라면은 라면시장의 확대와 함께 수출 효자품목으로 부상했으며 ‘요플레’를 비롯한 유가공제품, 레토르트 식품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식문화 창조에 기여하였다.

한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은 식당을 비롯한 국내 요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일조했다. 정부가 1983년부터 전국의 요식업소 7만 5,000여 개의 화장실과 주방의 시설 개선작업을 진행해 1984년에 완료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세식 화장실과 오픈형 주방을 갖춘 현대적 식당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복잡한 한식 메뉴 개선을 위한 주문식단제가 도입되었고 보신탕 업소가 사라지면서 대체 보양식인 삼계탕이 도심 식당의 주메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5.3. 무한경쟁 시대의 식품공업

3저 호황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어가던 한국경제는 1986년 이후 발생한 노사문제, 공장 인력난, 수출 둔화 등의 악재를 맞으며 성장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식품업계 역시 이중고에 시달렸다. 경기침체와 수출 둔화 속에 외국산 가공식품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으며 일부 제품군은 시장의 포화로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1970년대 식품업계를 이끌었던 제과와 제빵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전문 분야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에 적극 진출했다. 삼립식품이 아이스크림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두유 제조업체였던 정식품도 주스 시장에 진출했다. 전문 분야의 파괴와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대가 식품업계의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1) 장류공업

1970년 이후 부침(浮沈)을 거듭하던 장류공업은 서구식 식생활의 빠른 보급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1985년 8월 20일 발생한 ‘간장 파동’은 업계를 더욱 위축시켰다. 합법적으로 제조해오던 산분해간장의 문제점을 언론에서 제기하면서 장류의 출고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장류업계는 위기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삼고자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야만 했다.

(2) 인스턴트커피 시장

동서식품과 미주산업이 주도하던 인스턴트커피 시장도 시장 경쟁이 격화되었다. 고려식품에 이어 1982년 UCC(87년 해태식품에 합병), 1985년 시스코(87년 조치원식품 인수), 1987년 태양실업 등이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원두커피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양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채 폐업하였다. 미주산업 역시 1989년 미원에 흡수되어 미원음료로 유지되다 1997년 대상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렇듯 동서식품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와 미주산업의 도전 국면이었던 커피 시장은 1989년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 네슬레(Nestle)가 두산과 합작으로 한국 네슬레를 출범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동서식품은 제품 차별화 전략과 함께 음료시장에 진출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위기를 돌파해 나갔다.

(3) 청량음료시장

청량음료 시장은 코카콜라가 국내의 다양한 보틀(Bottle) 업체와 제휴하면서 시장을 수성해 나갔다. 이런 가운데 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이온음료가 시장에 소개되었으며 1988년 보리음료, 1989년 유성탄산음료가 출

시되면서 음료 제품군은 더욱 다양화되었다. 특히 이온음료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며 1989년 말 시장 규모가 200억 원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과실 음료시장은 1970년대 중반까지 천연과일을 통째로 갈아 만드는 과육 형태의 넥타(군용제품)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국내 음료 제조사들이 외국의 제조 기술과 상표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고급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 해태와 썬키스트, 1983년 롯데칠성과 델몬트가 제후함으로써 품질이 급격히 향상되었고 생산량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는 종이용기를 이용한 천연 과즙음료와 과즙음료가 출시되었다.

(4) 조미료시장

조미료시장은 미원과 제일제당이 시장을 양분하며 시장을 지켜나갔다. 두 회사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인도네시아와 중국, 베트남에 제조설비를 수출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로 역량을 확대해 나갔다. 국내 시장에서는 1975년 제일제당의 ‘다시다’가 출시되면서 종합조미료 경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종합조미료는 동식물원료와 향신료와 글루타민산나트륨, 식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조미료이다. 1982년 대상이 ‘맛나’를 상품화한 데 이어 1987년 쇠고기 함량을 높인 ‘감치미’를 출시해 ‘다시다’와 치열한 경쟁을 이어 나갔다.

(5) 라면시장

라면은 1970년대 말 전체 소비량이 감소하며 정체기를 맞았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했다. 업계는 컵라면, 사발면 등 즉석용기 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맛의 고급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해 소비량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1989년 발생한 ‘우지파동’ 여파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수입 및 대체 식품의 증가로 1990년 초부터 다시 침체기에 들어갔다. 라면

업체는 위기 돌파를 위해 맛 외에 즐거움, 영양, 위생, 패션, 기능, 경제성을 겸비한 첨단 신제품을 적극 출시하였고 이를 위해 많은 투자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1994년부터 다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6) 식용유지산업

식용유지 분야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 국민들은 참깨나 들깨, 고추나 미강유(현미를 도정할 때 나오는 쌀겨 속기름)등 식물성 원료를 유지로 사용하였다. 소고기, 계란 같은 동물성 추출 기름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966년 6월 동방유량주식회사가 ‘해표’라는 식용유를 출시, 대두가공산업을 개척하였다. 콩을 이용한 저렴한 식용유가 출시되면서 식용유 시장은 해표가 독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시장이 성숙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1979년 제일제당, 1980년 삼양유지사료가 대두유 생산에 뛰어들면서 해표의 독주를 막고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경쟁구도가 형성된 것은 그만큼 대두유 수요가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식품산업이 다양화되면서 튀김유, 샐러드유, 조미유지의 사용량이 증가한 탓이었다. 유지산업은 3사 체제에서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식용유지의 완제품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부터는 수입량이 급증, 국내 자급률이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7) 냉동식품산업

냉동식품 분야 역시 1980년대부터 공업적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소재 냉동)에 국한되었던 냉동식품은 1980년대에 들어 조리 냉동식품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78년 부산제과가 최초로 냉동만두를 출시했고 이후 천일식품에서 공장 제조 냉동만두

를 생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1982년 도투락이 ‘도투락 만두’를 출시, 재래시장과 소매유통점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투락은 유통체인이 없어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해태제과에 판매를 위탁해야만 했다. ‘도투락 만두’가 슈퍼마켓의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보관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냉동식품은 이후에도 유통 채널의 냉동고 부족과 가정 내 전자렌인지 보급률이 낮아 성장하지 못하다가 1987년 해태에서 ‘고향만두’를 출시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제일냉동과 동일냉동이 시장에 진출했으며 1990년에는 미원과 진주햄도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만두 외에도 돈까스, 햄버거 등이 출시되면서 냉동식품 시장은 급격히 성장해 나갔다. 1986년 200억 원을 기록한 냉동식품 시장은 1987년에는 350억 원, 1989년에는 900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30% 이상 성장해 나갔다.

(8) 건강식품산업

식품산업이 다양화되고 고영양 식품이 증가하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식품위생법 상 영양식품으로 분류되던 건강식품은 1980년 영양 등 식품제조업으로 재분류되었다. 정부는 영양 등 식품제조업의 정의를 ‘식품에 영양 성분을 첨가하거나 제거하여 유아용, 병약자용, 임부용, 기타 특수용도 등에 제공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건강식품의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는 1988년 건강식품군을 일반영양강화식품군과 특수영양식품으로 세분화하였다.

1980년대 초반 건강식품류는 효소류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현미효소, 맛나효소, 울무효소 등이었다. 이후 1983년 씨그린효소, 청명효소, 맥미두효소, 알파효소 등이 출시되었고 1985년에는 쌀배아효소, 현미차 등의 곡류 가공품이 등장했다. 이어 1986년에는 스쿠알렌, 만유, 맥주효모, 1987

년에는 소맥배아유, 알로에, 케일효소, 달맞이꽃종자유 등이 새롭게 출시되었다. 1989년 식품위생법에 건강보조식품제조업이 신설되면서 알로에, 스쿠알렌, 효소, 효모 등 21개 품목군이 새로 규정되었고 1991년에는 자라 가공식품, 1995년 키토산, 프로폴리스, 베타카로틴이 등재되어 건강식품은 최대 25개 품목군으로 확대되었다.

(9) 식품포장산업

1980년대 중반 발생한 ‘독극물 투입 협박 사건’은 국내 식품 포장법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알루미늄을 이용한 포장법 등 다양한 식품 용기의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식품 포장 기술은 식품의 저장과 이동을 위해 식품의 출현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벚짚을 이용한 쌀가마와 천 보자기, 도자기, 대나무, 종이 등 전통적인 식품 포장재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공업적인 식품 포장은 병조림과 통조림이 등장하면서 나타났고 1920년대 미국에서 급속동결기술이 발명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플라스틱필름, 용기, 카톤 케이스(Carton Case), 알루미늄 박 등이 식품 포장재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식품 포장은 일제강점기 냉동선어 유통과정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산업적으로는 1969년 급속동결기술이 보급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플라스틱 필름이나 캔, 병 형태로 유지되던 우리나라의 식품 포장은 1980년대 중반을 계기로 다양화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이후 진공 포장 등 첨단 포장 기술로 발전하게 된다.

대량생산체제와 시장 개방, 업체 간 치열한 경쟁 등 격동의 시기를 보낸 식품공업은 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진입했다. 1987년 1조 원을 돌파한 유제품을 비롯해 전통적 강자인 제과·제빵 분야도 1987년 8,8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청량음료 4,000억 원, 라면류 3,3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함으로써 성장세를 이어갔다. 새롭게 도약하기 시작한 식용유와 육가공 시장도 각각 1,600억 원과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기호식품인 아이스크림과 커피도 2,200억 원과 1,300억 원대의 매출을 돌파함으로써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실현하였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5.4. 식품위생 사건 백서

1980년·90년대에 일어난 한국 식품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은 식품의 위생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의 확산이었다. 초기단계에는 앞에서 언급한 통가리트 사건과 같은 식품첨가물이나 제조 유통과정 중의 비위생적인 처리 또는 부정·불량 식품의 발생이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식품산업이 다양화, 대규모화되면서 식품위생 사건은 국민이 자주 먹는 주요 식품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검찰 등 사정기관의 고발로 이어져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일부 부정·불량 식품, 예를 들어 고춧가루에 톱밥과 적색 색소를 혼합하거나, 식품 독극물 혼입 협박사건(1984), 소금물에 검정색소를 탄 간장사건(1985) 등은 범인을 색출하고 무겁게 징벌하여 끝낼 수 있었지만, 많은 식품위생 사건들이 그 유해성이나 피해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한때 해프닝으로 요란스럽게 떠들다가 소비자에게 불안감만 남기고 사라졌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 ‘식품위생사건백서’가 출판되었다(이철호, 맹영선, 1997). 이 책은 주요 식품위생 사건의 발생 경위, 위해성 평가, 수습과정, 법적 책임 유무, 후속조치 등 사건 전말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하고 식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저술된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룬 주요 식품위생 사건은 아래와 같다.

- 콩나물 농약오염사건(1994-'96): 기간 중 전국의 신문, 방송에 동시에 보도된 13건의 관련 사고에 대한 평가. 콩나물 제조업자의 전과자 양산, 농약 사용 유무가 문제가 아니며, 종자소독제와 생장조절제(인돌비)의 사용 허용과 잔류허용량에 대한 확실한 관리 지침이 필요.
- 수입농산물의 농약오염사건: 수입 자몽의 알라파동(1898.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소시모) 고발, 수입밀 농약오염사건(1992. 국회 국정감사), 라면스프 농약오염사건(1994. 국회 국정감사). 이들 모두 분석기술의 미비로 오염 사실이 확인 되지 않았으며 농약 잔류허용치에 대한 보강 조치로 끝남.
- 우지파동(1989. 검찰): 공업용 수입 우지 사용 문제제기. 슈퍼 진열장에서 관련 라면제품 폐기. 그러나 정제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므로 문제 없음이 밝혀짐. 관련 라면회사 치명적 타격, 1997년 대법원에서 관련회사 무죄판결. 검찰의 잘못된 고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없음.
- 화학간장사건(1985. MBC카메라 고발), MCPD사건(1996. 경실련): 산 분해간장에 대한 유해성 제기. 화공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보도. 국내 생산 간장에 대한 불신감 고조, 일본제품 상륙, 공청회를 통한 유해성분 생성기전과 저감화 방법 소개. MCPD 허용량 설정.
- 화학조미료 논란(1985. 소시모; 1993. (주)럭키): 196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사용해온 MSG에 대한 소시모의 불매운동으로 생산기업 위축, 외국으로 공장이전, (주)럭키가 MSG무첨가 제품선전으로 물의를 일으킴. 보건사회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럭키에 시정명령, 소비자단체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내 식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사례.
- 사카린의 안전성 논란(1990. 보건사회부):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사용해온 대체감미료에 대한 발암성 논쟁이 새로운 감미료 아스파탐이 개발되면서 재점화. 보건사회부가 사카린의 사용 허가 범위를 대폭 축소. 여론에 밀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결정으로 후일 다시 허용 확대.
- 소주 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사건(1994. 호주 보건부): 호주에서 사용허가가 나지 않은 스테비오사이드를 함유한 한국산 소주의 전량 수거 폐기. 스테비오사이드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감미료임. 수출 대상국의 식품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

- 해초무침의 유해색소사건(1996. 검찰): 타르색소는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천연식품으로 판매되는 해초에서 검출됨으로써 사법 처리된 사례.
- 고름우유사건(1995. MBC TV뉴스): “유방암에 걸린 젖소에서 고름 섞인 우유가 나온다”는 선정적인 뉴스로 인한 파문. 이 뉴스를 보고 파스퇴르 유업이 “파스퇴르에서는 고름우유를 팔지 않습니다”라고 광고. 후발주자인 파스퇴르유업은 우유의 살균방식으로도 논쟁을 일으켜 우유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 매출 15% 감소. 유가공협회 파스퇴르유업을 제재.
- 우유의 항생물질 오염사건(1992. 보건사회부): 일부 유제품에서 항생물질 양성반응 검출. 보건사회부와 농림수산부의 견해차로 소비자 혼란 야기. 우유의 항균물질 잔류허용기준 마련.
- 통조림 납 오염사건(1995. 소시모): 산도가 높은 과일 주스, 음료 통조림 캔의 재질과 접합부위에 납 성분 과다 검출. 식품에 납이 오염될 수 있는 용기, 포장재와 통조림 캔의 납땜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
- 톨루엔 오염사건(1994. 일본): 일본에 수출된 한국 과자에서 톨루엔이 검출되어 전량 회수 명령. 영세업체의 노후된 포장지 인쇄기에서 오염. 1995년에는 라면에서도 톨루엔 검출. 포장기술을 혁신하게 된 계기.
- 식품포장재 랩의 유해공방(1989. 한국부인회):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PVC(염화비닐수지) 랩 시장에 PE(폴리에틸렌) 랩이 등장하면서 PVC랩에 대한 안전성 문제 제기. 랩에서 용출되는 가소제나 산화방지제 잔류물질의 유독성 논쟁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 자극. 포장재의 표시기준과 규격기준의 강화.

이상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식품산업이 발전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졌으며 농약 오염, 첨가물 사용, 새로운 식품소재의 안전성, 포장재의 안전성까지 다양한 소비자 요구가 분출되었다. 1990년

대에는 1960-70년대의 부정·불량식품 사례는 크게 줄어들고 정상적인 식품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혼입이나 신소재의 유해성에 관한 문제들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80-90년대의 한국 식품의 안전성과 기술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선진화 발전을 이끈 동력이 되었다.

참고문헌

- 고재모, 김태곤, 이철호,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도서출판 식안연 (2017)
- 김은경, 1990년대의 식생활 및 영양실태, 이기열 등, 한국인의 식생활 100년 평가(I), 신광출판사, 159-190 (1998)
- 김재철, 김재철 평전, 21세기북스 (2016)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정사」 (2013)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7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찬 (2015)
- 박동규, 김태훈 외, 「쌀 관세화 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 박태선, 1980년대의 식생활 및 영양실태, 이기열 등, 한국인의 식생활 100년 평가(I), 신광출판사, 127-158 (1998)
- 이기열, 이기완, 박영심, 박태선, 김은경, 장미라, 한국인의 식생활 100년 평가 (I), 신광출판사, 서울, p.45 (1998)
- 이남택 외 10인, 사실로 본 한국 근현대사, 장병 정신교육 발전 연구 위원회 (2005)
- 이철호, 식량전쟁, 도서출판 식안연 (2012)
- 이철호, 맹영선, 식품위생사건백서,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 이철호, 주용재, 안기옥, 류시생, 지난 일세기 동안의 한국인 식습관의 변화와 보건의양상태의 추이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3(4), 397-406 (1988)
-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이숙중, 이꽃임,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도서출판

식안연 (2014)

채희정, 이숙중, 이철호, 식량낭비줄이기, 도서출판 식안연 (2016)

한국식품산업협회, 국민과 함께 걸어온 식품산업 반세기, 한국식품산업협회
50년사 (2019)

Lee C.H.,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food security situation in Korea,
Food Science and Industry, 32(2), 70-79 (1999)

세계화시대의 식품 이슈와 안전 관리

1. 세계화시대의 국내외 정세변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된다. 소련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중·동부 유럽을 차례차례 공산화시켜 소위 ‘철의 장막’이라 불리우는 동구 공산권을 형성한다. 이러한 소련과 공산주의의 위협에 직면하여 미국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결성하고, 경제적으로는 서유럽 국가들의 재건 지원을 위한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시행하게 된다. 동·서의 냉전구도는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냉전체제가 더욱 공고히 형성된다. 냉전체제는 이후 지속되다가 공산권의 내재적 모순과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 촉발된 공산권의 붕괴 와중에서 미·소의 합의에 따른 몰타체제(Malta system)의 성립으로 소멸된다. 탈냉전체제의 서막은 1989년 11월 9일 발생한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가시화 된다. 이어서 동구 공산권의 자유화와 민주화가 공산주의의 모국 소련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러시아 공산당의 해산과 고르바초프의 사임으로 귀결되었으며 소비에트연방은 사실상 해체되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1991년 12월 24일 소련은

붕괴되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3국은 독립국가공동체라는 느슨한 국가 연방 형태로 존재하다가 이마저 와해된다. 소련의 붕괴는 생존과 발전의 몸부림이 오히려 체제붕괴로 전개된 역설적 현상이었다(이남택, 2005). 이러한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1991년 9월 18일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상호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통일과 공존의 가능성을 표방하게 된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작은 공산주의 체제 몰락과 무역자유화를 통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성립으로 세계적인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가시화 되었다. 정치 세계화와 경제 세계화에 힘입어 문화 세계화로 확장되었다. 정보통신기술로 무장한 4차 산업혁명의 위력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하나로 묶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초연결성과 초지능화의 특성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2018).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화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제2장에서 언급한 구한말 한국을 방문하고 ‘전환기의 한국(Korea in Transition)’을 저술한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의 예측이 현실화된 것이다(Gale, 1909)(표 7-1).

표 7-1. 세계화시대의 국내외 정세 변화

-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9월 18일- 상호간 체제 인정, 평화통일과 공존의 초석
 - 러시아 공산당의 해산과 소비에트연방의 붕괴, 1991년 12월 24일- 발트 3국 독립
 - 세계무역기구(WTO) 창립, 1995년 1월 1일- 76개국, 중국 2001년 가입, 현 164개국
 - 외환위기.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관리체제(1997.12.3.-2001.8.23.)
 -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취임, 1998년 2월 25일- IMF 극복,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 2003년 2월 25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2004년 칠레)
 -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취임, 2008년 2월 25일- 광우병 대란(2008년 5월)
 -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8월- 세계 곡물대란(2007), 미국 리만브라더스 파산(2008.8)
-

1.1. 한강의 기적-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

한국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투자했던 국가들의 경제 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물가의 안정과 함께 시장 개방의 충격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갔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양극화와 경제불균형 타파를 위해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초기 혼란은 있었지만 금융실명제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지하경제를 척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런 가운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은 1980년대의 '3저 호황'에 탄력을 받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199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한 한국 경제는 2010년 수출액 4,663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7위 수출대국이 되었으며, 무역규모도 세계 9위에 도달했다(표 7-2).

표 7-2. 한국 수출입 통계(1996~2010)

(단위: 천달러)

년도	수출	수입	수지
1996년	129,715,137	150,339,100	-20,623,963
1998년	132,313,143	93,281,754	39,031,389
2000년	172,267,510	160,481,018	11,786,492
2002년	162,470,528	152,126,153	10,344,375
2004년	253,844,672	224,462,687	29,381,985
2006년	325,464,848	309,382,632	16,082,216
2008년	422,007,328	435,274,737	-13,267,409
2010년	466,383,762	425,212,160	41,171,602

한국의 국내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은 1995년 5,313억 달러에서 2010년 1조 14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은 5,292억 달러에서 1조 160억 달러로 증가했다(김낙년, 2012).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표 7-3과 같이 2010년에 2만 달러를 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은 세계가 놀라는 유례없는 일로써, 그림 7-1의 필리핀과 비교한 한국의 GNI 변화 그래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재호, 2016). 같은 기간 농가인구는 전체인구의 10.8%에서 6.2%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20; 농림축산식품부, 2019). 곡물자급률은 29.1%에서 27.6%로 감소했다(표 7-3).

표 7-3. 한국의 인구 통계와 1인당 GDP 변화

연 도	인구(천명)	1인당 GNI(\$)	농가인구(%)	곡물자급률(%)
1995	45,093	11,735	10.8	29.1
1996	45,525	12,518	-	26.4
1998	46,287	7,607	-	31.4
2000	47,008	11,292	8.6	29.7
2002	47,622	12,100	7.5	30.4
2004	48,039	15,082	7.1	26.9
2006	48,372	19,691	6.8	27.7
2008	48,949	19,161	6.5	27.8
2010	49,410	20,562	6.2	27.6

자료: 김낙년(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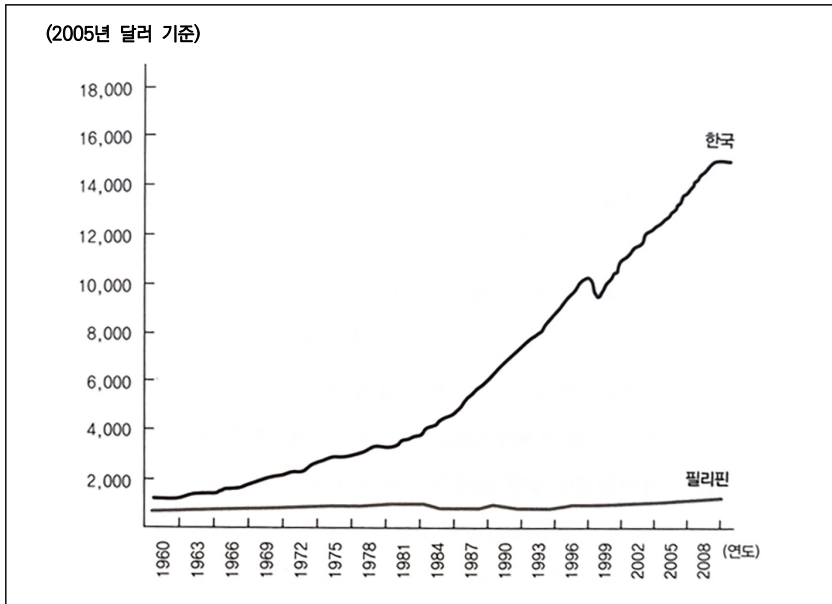


그림 7-1. 한국과 필리핀의 1인당 GDP 변화 추이 비교(1960-2008)

자료: 김재호(2016)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는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내재된 채 나타난 현상이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루었지만 비수출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수요 감소와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시장을 자유화한 동아시아와 남미는 외환위기를 겪고 경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의 심화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한국은 WTO 출범으로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었으며, 자본시장 자유화로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편입되어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외국 자본에 팔려나가고 대량 해고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회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광우병대란과 세계 곡물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엄청난 파고의 국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경제는 체질을 강화했으며 K-POP, K-Diet 등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

2. IMF 구제금융 중에 일어난 종자전쟁

한국인의 속담에 ‘농부는 굶어죽어도 종자꾸러미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농부에게 종자야 말로 내일의 희망이고 죽을 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들의 치열한 삶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데 농민의 생명과 같은 종자의 소유권이 IMF 구제금융 기간(1997.12.-2001.8.)에 외국기업에 팔려나간 것이다.

김영삼정부 말기에 터진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구제금융에 들어간 한국경제는 3년 8개월 만에 김대중정부에 들어서 겨우 IMF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고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났으며, 국민은 장롱에 넣어둔 금붙이를 들고 나와 IMF 빚을 갚는데 보탬다. IMF 구제금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생색을 내며 축제분위기를 만들었으나 차분히 따져보면 이 기간 동안 엄청난 국부를 잃었음을 알게 된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 넘겨 4조원을 눈뜨고 탈취 당한 것을 비롯해 많은 토종 알짜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팔려나갔다. 그 중에서 가장 뼈아픈 손실이 우리 토종 종자산업이 소리 소문 없이 외국의 종자회사에 매각된 것이다. 한국의 종자산업을 대표했던 흥농종묘, 서울종묘, 중앙종묘, 청원종묘를 좋은 값을 받고 팔아넘긴 회사 소유주들의 단견과 이기적인 행동에도 아쉬움이 있으나, 더 큰 질책은 IMF 당시 한국의 농정을 책임 맡았던 사람들의 무지와 무책임에 있다.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인의 생명줄이요 자존심인 토종 종자산업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4개의 토종 종자기업들이 외국의 대기업에 인수 합병되면서 국내 채소 종자의 70% 이상이 외국기업에 의해 공급되게 되었다. 종자주권을 상실한 것이다. 종자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한국의 재래 원종과

유전자원들이 외국기업의 소유가 된 것이다. 종자는 농업 비용의 약 1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이다. 이 종자가 외국의 손에 있으면 가격 조작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품종을 얻기도 어려워진다. 우리가 외국을 상대로 종자전쟁을 치를 무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셈이다. 대부분의 토종 종자를 역수입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제주산 감귤, 완도산 김, 익산산 블루베리 등 모두 한국 땅에서 한국 농부들이 재배한 농산물이지만 2012년부터 국내 농가들은 이런 작물을 생산해 판매할 때마다 외국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99%가 일본 종자인 감귤을 재배하는 제주의 농가는 묘목 수대로 일본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2012년부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이 전 작물로 확대돼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로열티 부담에서 제외됐던 딸기, 감귤, 나무딸기,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등) 등 6개 품목도 로열티를 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외국산 종자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로열티 적용 대상이 되는 감귤, 해조류 등 6개 품목의 경우 일본산 종자에 대한 의존도가 최대 99%에 달한다(이철호, 2012).

우리나라는 그간 국내산 종자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딸기의 경우 2005년만 해도 국내산 종자 사용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61%대로까지 높아져 성공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몇몇 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작물은 여전히 국산화율이 초라한 수준이다. 채소나 화훼류는 그나마 육종 기간이 짧아 교배 개량 등이 용이하지만, 묘목류나 과수류는 한 번 심어 열매를 얻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므로 신품종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 우리나라는 포도(98%), 표고버섯(60%), 장미(82%), 카네이션(99.8%) 등 인기 작물의 종자를 상당 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귤에 대한 로열티 적용을 앞두

고 일본 종자업계 관계자들이 제주 지역을 돌며 나뭇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 농가의 외국 로열티 지급액은 2001년 5억 5천만 원에서 2005년에는 183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218억 8천만 원에 달했다. 2012년 유포브 전면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국내 농가의 종자 로열티 부담은 7,9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총 8,149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종자 역량을 강화하고 2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추진 여건은 만만치 않다. 10년간 투입되는 8,149억 원이라는 예산은 세계 종자업계 1위 다국적 기업인 미국 몬산토사(社)의 1년치 연구비보다도 적은 돈이다. 세계 종자 시장의 70%는 10대 글로벌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이철호, 2012). 우리나라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장성 있는 종자 육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등 5대 작물에 대해서 정부보급 종자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이들 종자는 수출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면 배추, 무, 고추 등 주요 채소는 토종 종자회사를 인수 합병한 외국기업에 의해 대부분 공급되고 있다. 또한 시금치, 당근, 양파, 토마토, 딸기 등의 채소 종자는 80% 이상이 일본산이었다. 하지만 국경 없는 종자전쟁시대에 무엇이 국산이고 수입산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종자는 한국종자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수입종이나 토종이나를 가르는 기준은 육종가가 국내에 있느냐 없느냐다. 외국의 육종가가 만들어낸 품종은 한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지 2년간 수입 적응성 실험을 해야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통과하면 수입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종자라도 한국

의 육종가가 만들어냈다면 토종으로 분류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여 농촌진흥청은 배추, 고추, 마늘 수박은 100%, 무는 95%, 양파, 토마토는 80% 이상 국산품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안이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상이다.

2010년 현재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는 300억 달러(약 30조원) 정도이다. 세계 종자시장에서 10대 다국적기업의 점유율은 1996년 14%에서 2007년 67%로 높아졌다. 다국적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의 듀폰은 강풍에도 꺾이지 않아 단위면적당 산출량이 두 배에 이르는 옥수수 종자를 개발 중이다. 종자전쟁에서 뒤지면 다국적기업의 씨앗을 비싸게 사오거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다행이 동부한농종묘와 농우바이오 종묘회사가 인수합병을 거부하고 살아남았다. 농우바이오에도 인수제의가 들어와 인수금액 1,000억 원을 제안 받았으나 거절했다. 농우바이오 고희선 회장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자는 미래에 물려줄 유산이니 못 버티면 차라리 국가에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그 외에도 팔려나간 종자회사의 몇몇 연구자들이 종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퇴사하여 개인 연구소에서 새로운 종자개발에 심혈을 쏟았다. 팔려나간 회사의 종자를 대체할 새로운 한국 종자 개발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이다. 나라가 외국의 침입을 받아 경각에 이를 때 국가의 녹을 받아먹는 관군들은 모두 도망가 자취를 감추고 민초들이 일어나 나라를 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그랬다. 이것은 비단 국방만의 일이 아니다. 오늘의 한국을 먹여 살리고 유지하는 것도 민간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IMF 이후 ‘한국인의 식탁이 외국 종자에 점령됐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다. 국내 채소종자의 반 이상이 신젠타, 몬산토 등 한국의 토종 종묘회사를 인수한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남은 토종기업들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는 개인 육종가들이 서서히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거의 전량 일본 종자에 의존하던 딸기모는 국내 연구진의 노력으로 국산화율이 2010년 60%를 넘어섰다. 표고버섯, 당근도 각각 40%, 30%의 국산화를 이루었다(이철호, 2012).

한국의 채소 종자시장 규모는 약 1,500억 원이다. 토종 기업으로 살아남은 농우바이오가 2010년 국내매출 318억원을 달성하여 시장 점유율 23%로 종자부문에서 1위 고지를 탈환했다. 인수 합병되면서 흥농종묘를 떠나 시드텍 코리아를 설립한 이왕영 사장은 연구용 비닐하우스 3,000평에서 직원 6명을 데리고 밀레니움 킹 꿀수박, 신희 꿀수박, 백두대간 여름 무, 남한강 주키니호박, 한여름 김장고추, 청풍명월 김장고추 등 다양한 종자를 생산하고 있다. 2010년 매출액 8억 4,000만원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5% 탈환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3.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의 식량수급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세계 각국은 WTO에 상관없이 개별 국가끼리 무역협상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주요 무역 국가들은 빠르게 FTA(Free Trade Agreement)를 늘려갔으며 200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량의 50% 이상이 FTA체결국 간의 역내무역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IMF 사태가 터졌을 때 구제금융 대출 조건으로 “낙후산업

구조조정, 조속한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개방”이 제시되어 한국은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급진전하게 되었다. 자유무역을 통해 국내 산업이 경쟁구조에 들어가면 경쟁력이 없는 쪽은 자연 도태되기 때문에 정부가 선불리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아도 되었다.

한국정부는 여러 나라들을 놓고 시험적으로 FTA를 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일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를 시범국가로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전에 FTA 경험이 많았던 칠레와 공부삼아 첫 FTA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1999년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2004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칠레와 FTA를 가결하여 발효하게 된다.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FTA에 뛰어들면서 빠르게 FTA를 늘려 나갔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1년 1월 현재 21개국(연합)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 인준을 받아 발효되었다(표 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또한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과는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3.1. 중화학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산물의 수입개방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무역자유화의 물결에 밀려 우리나라는 세계 대부분의 주요 무역 국가 및 경제공동체와 자유무역협상(FTA)을 체결하였으며 농산물의 수입 개방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표 7-4에서 볼 수 있듯이 FTA 체결국들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과실류, 커피, 팜유 등 주로 식품류이다. 따라서 소고기 자급률은 1990년 53.6%에서 2018년에는 36.3%로 낮아졌으며, 돼지고기는 같은 기간 100%에서 71.6%로 떨어졌다. 과실류는 같은 기간 100%에서 75.4%로, 종실류는 86.3%에서 37.4%를 급감하였다.

표 7-4.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과 주요 교역 농축산물

국가	2021년 교역규모(백만 달러)				주요 교역 농축산물
	전체		농축산물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칠레 (2004.4.1.)	4,859	1,573	729	26	수입: 돼지고기, 포도, 포도주, 체리, 크랜베리 수출: 커피조제품, 기타음료, 라면, 기타 과일
싱가포르 (2006.3.2.)	10,692	14,175	165	178	수입: 초콜릿, 기타 코코아제품, 코코아분말, 마가린 수출: 쌀, 라면, 자당, 맥주, 커피조제품, 김치
EFTA (2006.9.1.)	6,310	71,737	213	25	수입: 커피, 초콜릿, 커피조제품, 물, 치즈 수출: 라면, 기타 베이커리제품, 기타 음료
ASEAN (2007.6.1.)	67,701	108,850	5,738	1,770	수입: 팜유, 바나나, 기타 과일, 닭고기 수출: 라면, 껌, 물, 닭고기, 쌀
인도 (2010.1.1.)	8,055	15,604	597	106	수입: 참깨, 당밀, 잎담배, 커피, 대두, 옥수수 수출: 채소 종자, 라면, 커피조제품, 기타 음료
EU (2011.7.1.)	65,915	63,607	5,755	388	수입: 돼지고기, 포도주, 치즈, 밀, 맥주, 초콜릿 수출: 라면, 기타 음료, 물, 새송이버섯, 김치
페루 (2011.8.1.)	3,450	794	196	8	수입: 커피, 포도, 망고, 브라질넛, 바나나, 아보카도 수출: 라면, 채소 종자, 효소, 기타 음료, 기타 과일
미국 (2012.3.15.)	73,212	95,909	10,317	1,262	수입: 쇠고기, 옥수수, 돼지고기, 밀, 대두 수출: 껌, 라면, 기타 음료, 기타 베이커리제품, 배
터키 (2013.5.1.)	1,235	7,025	118	51	수입: 기타 과일, 캔디, 잎담배, 헤이즐넛, 초코렛 수출: 잎담배, 커피조제품, 채소 종자, 쌀
호주 (2014.12.12.)	32,914	9,745	3,142	169	수입: 쇠고기, 사탕수수당, 밀, 면앙고기, 보리 수출: 라면, 커피조제품, 기타 베이커리제품, 곡류조제품
캐나다 (2015.1.1.)	6,364	6,715	1,243	128	수입: 돼지고기, 밀, 쇠고기, 보리, 대두, 커피, 귀리 수출: 라면, 커피조제품, 아이스크림, 기타 베이커리제품
뉴질랜드 (2015.12.20.)	1,541	1,921	1,120	46	수입: 키위, 치즈, 쇠고기, 녹용, 버터 수출: 라면, 곡류조제품, 커피조제품, 김치, 새송이버섯
중국 (2015.12.20.)	138,621	162,920	5,195	1,340	수입: 기타 채소, 쌀, 김치, 고추, 당면 수출: 라면, 자당, 조제분유, 기타 음료, 홍삼
베트남 (2015.12.20.)	23,966	56,729	1,320	576	수입: 기타 과일, 캐슈넛, 쌀, 커피, 타피오카, 후추 고추 수출: 닭고기, 기타 음료, 껌, 과당, 조제분유, 라면
콜롬비아 (2016.7.15.)	704	898	190	6	수입: 커피, 바나나, 커피조제품, 카네이션, 기타 절화 수출: 우황, 기타 음료, 기타 과일, 고추장, 선인장, 라면
중미 5개국	1,109	2,230	202	23	수입: 사탕수수당, 커피, 바나나, 알로에액즙 수출: 껌, 기타 음료, 라면, 단일과실조제품
영국 (2021.1.1.)	5,808	5,961	313	68	수입: 위스키, 커피, 돼지고기, 초코렛, 치즈 수출: 라면, 김치, 기타 파스타, 기타 음료, 고추장

주 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FTA가 발효된 국가들을 제시했으며, 국가의 ()는 각 FTA 발효 날짜를 의미함. 한-중미(5개국) FTA의 경우 부분 발효되었음(니카라과·온두라스(2019.10.1.), 코스타리카(2019.11.1.), 엘살바도르(2020.1.1.), 파나마(2021.3.1.)).

2) 농축산물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2,925개 코드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존경제연구원, 2021

쇠고기의 경우,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0년 20만 톤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26만 800톤을 기록, 이후엔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3년 25만 7,100톤이던 수입량은 2015년 29만 톤, 2016년에는 36만 2,800톤, 2018년에는 41만 6,000톤으로 증가했다(박현진 등, 2019)(그림 7-2). 2018년 쇠고기 자급률은 36.4%로 15년 만에 가장 낮았다. 광우병 파동 직후인 2004년 이후 줄곧 40% 이상을 지켜왔던 쇠고기 자급률이 2016년에 38.9%로 하락한 후 2018년 다시 하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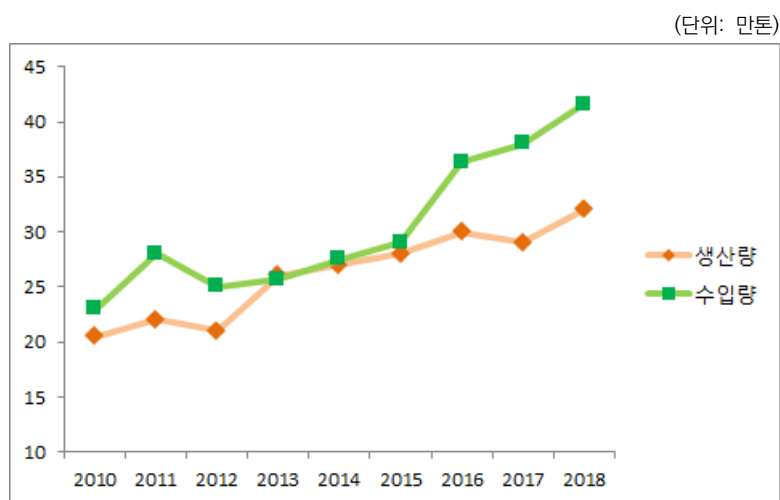


그림 7-2. 국내 소고기 생산 및 수입량 변화 추이(박현진 등, 2019)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 자급률이 1990년의 100%에서 2018년 71.6%로 떨어졌다. 한·미 FTA 등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가 수 감소는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에 따르면 2018년 돼지고기 수입 규모는 검역기준으로 냉동 43만 9,680톤, 냉장 2만 3,841톤을 합쳐

모두 46만 3,521톤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산이 냉동과 냉장을 합쳐 18만 4,637톤이 수입되어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칠레산과 캐나다산은 각각 2만 5,967톤, 2만 2,480톤이 수입됐다. 네덜란드산 2만 4,702톤, 오스트리아 산 1만 4,003톤, 덴마크산 1만 1,039톤, 벨기에산 1만 6톤, 프랑스산 7,940톤, 헝가리산 3,056톤이 각각 수입됐다. 특히 독일산과 스페인산 등은 15만 9,691톤이나 수입됐다. 주목할 부분은 돼지고기 자급률이 66.9%를 나타내면서 70%대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으로 10년 만에 자급률이 20% 포인트가 하락하였다. 2009년 원유자급률이 69.5%였던 것이 2018년 49.3%로 급감하였다. 이와 같은 원유자급률의 감소는 유제품과 우유 소비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닌 수입 유제품의 소비대체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년간 원유생산량은 2009년 211만 톤에서 2018년 204만 톤으로 7만 톤 가량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국내 유제품 소비량은 11만 2,000톤 증가해 원유자급률 하락의 원인이 수입유제품의 공세에 있음을 증명했다. 문제는 2026년이 되면 EU(유럽연합) 등 낙농선진국과의 유제품 관세철폐가 예정되어 있어 수입유제품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현진 등, 2019).

3.2.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된 경위

쌀시장 관세화 유예를 20년간 고집하던 우리 정부가 2015년 관세화 전면 개방을 선언 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될 때 한국은 쌀 시장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농산물의 개방을 허용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았다. 조삼모사의 술수로 언젠가는 피할 수 없이 쌀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틈을 걸어 놓은 것이다. 그것이 최소시장접근방식(MMA)이다.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WTO가 시작되는

1995년에 국내 쌀 소비량의 1%만을 수입하고 이어 매년 0.25%씩 추가하여 2004년까지 수입량을 4%로 확대한다는 조건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당시 그 정도야 감수해야지 하고 조인하였으나, 2004년 DDA 농업협상에서 다시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하였다. 결국 20년 동안 의무수입량이 눈덩이처럼 불어 국내 소비량의 8%로 올라갔고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것이다(표 6-6 참조). 국산 쌀이 남아도는데 매년 40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고 지금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양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선진국들이 쳐놓은 그물에 갇혀 백기를 든 것이다.

2004년 이후 10년 동안은 공급측면에서 생산성 향상, 수요측면에서 소비량의 감소와 MMA 물량의 지속적 증가로 수급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나타난 시기였다. 주곡 자급의 불안은 곧 전체 민생의 불안과 연결된다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쉽사리 생산량 감축정책을 실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증가하는 재고량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쌀 이외 다른 작물로의 전환, 소비 진작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등 다양한 수급조정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수급 불균형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결국 정부는 2011년부터 한시적이지만 벼 재배면적을 감축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2011년부터 3년간 벼 재배면적을 연간 4만 ha씩 감축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ha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식량의 수급 여건에 따라 쌀 증산정책 완화가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쌀 재배면적 축소정책이 실시된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WTO 출범 이후 20년 동안 계속된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종식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로 전환하였다(고재모 등, 2017).

한국 정부는 2014년 9월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쌀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논란만 거듭했을 뿐 쌀 시장 개방을 대비한 준비나 전략 개발에 소홀했다. 2015년부터 쿼터제 수입분(2014년 수준에서 15년간 동결, 그 이후 조금씩 완화하여 관세화 50년차에 쿼터제로) 외에도 513%의 관세를 적용하여 관세화로 개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의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5년간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관세 513%를 유지했다. 개정 양허표에 따르면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 8,700톤은 5% 관세율로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WTO는 2021년 1월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그러나 관세율 이외에도 의무수입량의 30%를 밥쌀용으로 사용하고 해외원조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수입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수입쌀 용도제한 규정들을 완화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들이 남아있다(이철호 등, 2015).

일본은 WTO출범 이후 4년 만에 더 이상 의무수입량을 늘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00년부터 쌀의 관세화 수입을 단행했다. WTO규약을 철저히 연구하여 무려 1,244%의 관세율을 받아내었다. 또한 관세화 이전에 쌀의 품질에 관한 연구를 대대적으로 수행하여 일본쌀이 일본인에게 가장 맞는 최고의 쌀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교육 홍보함으로써 쌀 시장 개방을 준비했다. 일본총합식품연구소를 비롯한 농림성 산하 연구소들이 벼의 육종에서부터 재배, 수확, 도정, 유통 전 과정에서 최고의 밥맛을 지닐 수 있는 쌀 생산 유통 시스템을 개발하여 표준화 했다. 식량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식미평가방법에 의해 일본곡물검정협회가 매년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식미평가를 실시하고 순위를 발표하여 쌀의 품질 등급과 가격

형성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은 WTO 출범 이후 5년 만에 쌀 시장을 개방하고 그들의 쌀 농업을 지켜낼 수 있었다.

3.3. 식량자급률 하락과 식량안보 위기

FTA는 양자간 협정으로 서로 상대방 국가의 비교우위 상품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수입하고 자국의 상품을 좋은 조건으로 수출하는 시스템이다. 한-칠레 FTA협정을 예로 들면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전자·전기, 가전제품 등 중화학 기계 공산품을 수출하고, 칠레의 과일, 포도주 등 농산품을 주로 수입한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패턴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 결과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가 항상 문제가 된다. 현재까지 체결한 FTA협정들에서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쌀을 제외한 대신 대부분의 농산물을 상대방 국가의 요구대로 수입해야 하는 핸디캡을 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밀, 콩, 옥수수 등 곡물과 과실류, 육류, 우유류 등 식량 수입이 무제한 들어 올 수 있는 구조이며, 식량자급률 하락으로 식량안보를 취약하게 하는 구조가 된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일본보다도 곡물자급률이 낮다. 그 외에도 유지류 자급률(1.2%)이 극히 낮고, 우유류(49.8%)와 어패류(51.2%)의 자급률도 일본보다 낮다(이철호 등, 2021). 표 7-5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식품군별 자급률을 비교한 것이다(김상호, 2019).

표 7-5. 세계 주요국의 식품군별 식량자급률 비교

(단위: %)

국 명	연 도	곡 류	서 류	두 류	채소류	과실류	육 류	계란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한 국	2017	24.0	94.2	12.7	86.6	74.1	72.9	98.5	50.8	72.5	1.5
일 본	2013	24.5	75.2	5.2	86.7	43.5	52.3	100.5	76.5	53.7	64.9
미 국	2013	126.5	101.5	162.2	95.6	75.6	115.4	106.5	103.8	70.2	94.5
영 국	2013	87.7	76.1	75.8	41.4	4.9	69.3	88.2	82.0	54.7	54.0
캐나다	2013	203.6	163.6	273.9	58.0	18.5	135.2	95.4	93.8	96.1	196.5
덴마크	2013	116.9	125.0	97.1	48.4	9.4	309.1	82.8	213.9	279.6	75.9
프랑스	2013	193.0	140.4	91.2	84.1	59.8	97.8	101.2	135.9	30.5	85.3
독 일	2013	116.7	138.1	45.2	43.9	27.4	114.2	71.9	130.8	24.4	87.9
이탈리아	2013	68.3	46.0	68.6	160.6	113.2	79.3	90.5	69.3	19.4	29.4
스페인	2013	75.3	62.6	75.8	218.5	174.4	125.4	109.9	71.4	60.5	111.6
스웨덴	2013	112.2	81.1	58.8	41.1	4.1	62.9	96.3	86.8	51.6	44.2
스위스	2013	45.0	77.6	40.2	47.4	40.9	80.1	55.1	101.9	1.9	50.0

그림 7-3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곡물자급률이 가장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철호 등,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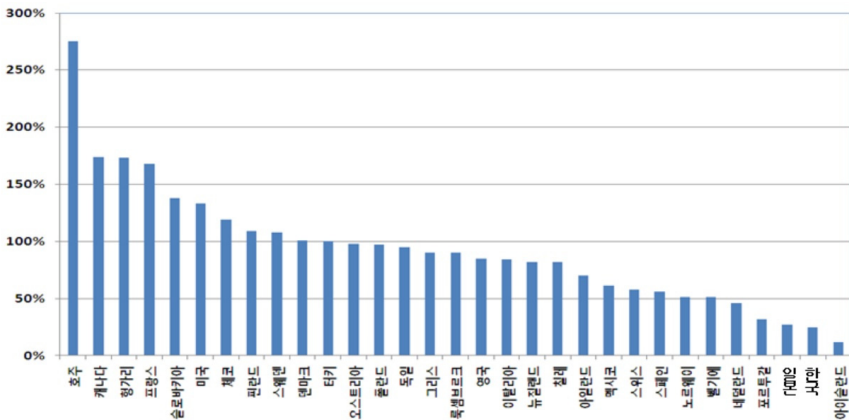


그림 7-3. OECD 국가별 곡물자급률

자료: FAOSTAT, FAO

이와 같은 식량자급률의 감소와 농업 분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자원 빈곤국이다.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특징은 민감한 품목(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과감한 개방을 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기부문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 주로 지역 거점이 되는 FTA를 먼저 시도한 후 유럽연합이나 ASEAN, 캐나다,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하였다. 한국의 공산품 품목 개방비율은 99.9%에 달하며, 농산물 품목 개방비율도 대체로 98%를 넘는다. FTA협정을 확대하여 자유무역 시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선도국이 되었으나 농업부문의 위축과 식량 해외의존도의 심화로 인한 식량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4. 곡물 해외유통망 확보를 위한 노력

곡물자급률이 20%대로 내려가면서 곡물의 해외유통망을 확보하여 유사시에도 곡물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선물거래로 이루어지는 세계 곡물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해외 곡물산지에 우리 소유의 곡물 엘리베이터나 저장운송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1980년대 말 필자는 일본 동경에서 열린 호주밀수출공사(AWB) 리셉션에 초대되어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본 곡물중간거래상들이 ‘한국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고객’이라며 나를 반겼다. ‘한국에도 큰 회사들이 많은데 어째서 곡물을 일본회사를 통해 수입하는가?’고 물었더니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고 말했다. 불행하게도 그건 사실이다. 1970년대부터 우리는 시카고 곡물 거래소에 정부나 대기업의 직원들을 파견하였으나 그때 파견 나가는 분들에게 하는 인사가 ‘한 2-3년 잘 구경하고 오십시오’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그곳에 파견되면 대개 정년 할 때까지 그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밤을 새워 그 시장을 조사하고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의 차이, 시스템의 차이가 3-40년 후 우리가 일본 에이전트를 통해 곡물을 사오게 만든 것이다.

4.1. aT Grain Company(AGC) 설립

2010년 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는 「국제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장기적인 식량 공급불안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곡물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통상환경의 신뢰도가 높고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국에 곡물회사를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남미, 동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여 글로벌 곡물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이었다. 이러한 방안이 검토되던 2009년은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부각되어 식량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대표적으로 FAO 식량가격지수 중 곡물가격지수는 2000년 85.8에서 2005년 101.3까지 점차 상승하다가 2007년 163.4, 2008년 232.1까지 급상승하였다. 이후 2011년에서 2013년에 다시 한 번 세계 곡물가격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2010년 2월에 곡물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내·외 진출여건을 검토하는 등 국제곡물사업 기초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내용은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국제 곡물사업 현황으로 실제 미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일본

등을 방문하여 국가별 생산 및 물류동향을 조사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7-4는 국제 곡물 흐름도이다(성명환 등,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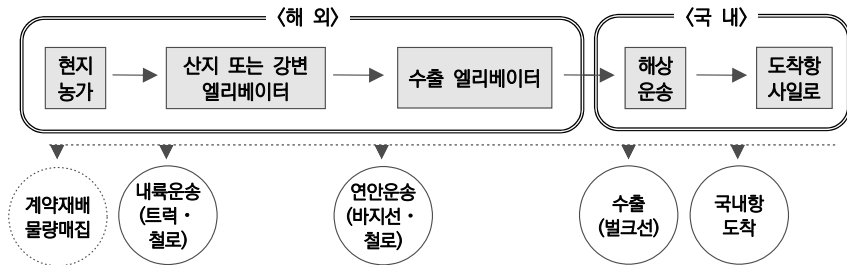


그림 7-4. 국제 곡물 흐름도

국내에서는 곡물 트레이딩 업체, 실수요업체 등을 면접 조사하여 국내 여건 및 수요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미국 시카고에 현지 법인 설립 준비단을 파견하고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계획에는 곡물 구매, 운송, 판매 등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 4월에 미국 현지에 민·관 합작법인 aT Grain Company(AGC)를 설립하였다. aT Grain Company는 aT가 55%, 3개의 민간기업(삼성물산, 한진, STX)이 각각 15%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각 참여사는 역할을 나누어 삼성물산은 마케팅, 한진은 물류, STX는 해상운송을 담당하기로 하고 곡물 유통시설 인수를 추진하였다.

aT Grain Company는 설립 직후부터 미국 현지의 투자 전문 자문사를 선정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산지 엘리베이터 인수를 추진하였다. 컨설팅 계약은 인수 기준에 부합하는 잠재 인수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aT Grain Company가 승인한 대상기업을 접촉하며, 목표 기업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인수가치 산정하는 등 거래에 관한 전반적 검토와 자문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aT Grain Company는 현지 자문사와 공조를 통해 미국의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등록된 8,796개 엘리베이터(주정부 등록 5,674개, 연방정부 등록 3,122개) 중 1차로 2011년 11월에 걸프 지역에 있는 55개 기업을 목표 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수의사 타진 및 투자협의를 시작하였다. 투자 대상 후보를 선정할 때의 기준은 해당 곡물 기업의 지리적 입지, 해당 지역에서의 생산 곡물의 품질 수준 및 지속 공급 가능성, 바지 또는 철도를 이용한 물류의 효율성, 곡물 확보 경쟁이 심한 에탄올 시설 밀집 여부, non-GMO(비유전자변형작물) 프로그램 운영 및 구분관리 프로그램(IP Program, Identity Preservation Program) 구비 여부, 기존 시설의 증설 등 투자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이후 2012년 4월경부터는 PNW(Pacific Northwest) 지역의 14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인수의사를 타진하였다. 2차 인수대상은 PNW 지역의 물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서부 옥수수 재배지역(West Corn Belt)에서 철도 물류가 가능한 셔틀 터미널을 보유한 기업들 중에서 추가 선정하였다. aT Grain Company는 산지 엘리베이터 인수를 위해 1~2차에 걸쳐 총 70개 기업(1차 걸프 지역 55개, 2차 PNW 지역 14개, 기타 직접개발 1개)을 대상으로 M&A 의사를 타진한 결과 의사가 없거나, 포기 또는 중단, 진행 보류된 곳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개 업체로 협상대상을 압축하였다. 그러나 산지 엘리베이터는 수출 엘리베이터와의 유기적 운영이 중요하므로 양측 투자를 연계하기 위해 산지 엘리베이터 인수 추진을 수출 엘리베이터 투자 이후로 잠정 보류하였다.

4.2. LDC 수출 엘리베이터 투자 추진

aT Grain Company는 설립 직후부터 합작법인을 통해 수출 엘리베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내 주요 곡물기업들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수출 엘리베이터를 보유한 곡물 메이저사인 ADM(Archer Daniels Midland), 번기(Bunge), LDC(Louis Dreyfus Company), 젠노(Zen-Noh), CHS, 가빌론(Gavilon) 등 6개 회사의 CEO 등 핵심 임원급과 미팅을 하는 등 투자 물건 발굴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인수협상을 위한 주요 회의만 39회를 하였으나 유일하게 LDC만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업체별로 협력이 어려운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ADM의 경우 Non GM 곡물을 공급할 수는 있으나 수출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공급시스템 구축에는 협력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Bunge는 협력할 여지는 있으나 이미 STX와 미국 서부의 EGT 엘리베이터에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참여사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제안하기는 어려웠다. Cargill은 한국지사를 통해 이미 독자적으로 한국에 곡물을 공급 하고 있었으며 가빌론은 aT Grain Company와 협력하여 2011년부터 한국의 사료용 옥수수과 밀 공급입찰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가격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CHS는 한국 컨소시엄의 독자적인 한국과 아시아 시장 판로 확보에 부정적이었으며, 2011년 9월부터는 독자적으로 한국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일본계 젠노는 기존 협력사인 CJ와의 수출 시장 경합에 대한 우려로 협력에 난색을 표하였다. 종합해보면, 곡물 메이저들은 한국의 해외 곡물시장 진출에 대해 경쟁상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하여 부정적이었으며, 기존과 같이 자신들의 회사가 한국으로 공급되는 곡물에 대한 가격과 물량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다만 입찰참여를 대행시키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국 에이전트를 이용하거나, 직접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었

다(성명환 등, 2018).

LDC 본사 및 두 개 엘리베이터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LDC는 그해 6월에 걸프(Gulf) 지역에 위치한 수출 엘리베이터를 1기 인수하고 증설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PNW 지역에도 카길과 공동으로 운영 중이던 수출 엘리베이터 1기를 2011년 말부터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LDC에서는 이러한 증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보완 이후 증가가 예상되는 곡물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해줄 수 있는 사업 파트너의 역할을 한국 측에 제안했던 것이다. 다만, 사업 파트너의 역할은 동등한 수준의 공동운영 또는 파트너십은 어려우며, 한국 측이 최대로 보유 가능한 지분은 전체의 20%로 LDC가 모든 부문을 운영 및 집행하고 한국은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투자 제안의 취지였다. 이러한 투자계약 시 한국은 향후 20년간 두 개 엘리베이터의 20%의 지분을 취득하며 매년 지분만큼의 배당을 받는 대신 LDC에 사업운영 비용으로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고, 향후 10년 동안 해당 수출 엘리베이터 2기로부터 매년 정해진 물량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LDC에서는 LDC가 모든 것을 운영 및 집행하고 한국 컨소시엄에 부분적으로 참여기회를 주는 것이며 다만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나 구매자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 측은 국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LDC에서는 한국 컨소시엄에 LOI(Letter of Intent, 투자의향서)를 요청하였다. 진행방식은 LDC가 투자물건을 시장에 내놓으면 투자에 관심이 있는 매수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형식으로서, 한국 컨소시엄 측에서 인수 가격 및 자금조달 방법 등을 제안하도록 한 것이다. 단, 최고가격 제안업체를 선정할 의무는 없으며, 필요시 제3자와도 거래 진행이 가능토록 한

구조였다. 그러나 이러한 LOI 제출에 대해 한국 측은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투자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없어 확정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LOI를 제출했으며 이후 LDC에서 11월에 투자금액으로 1억 1,500만 달러를 최종 제시하였다.

적정한 투자협상의 절차 및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협의 및 출장을 거쳐 기본 투자협상 구조를 정한 한국 컨소시엄은 LDC에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실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12년 2월 aT Grain Company 이사회에서는 LDC 엘리베이터에 대한 실사 추진 및 자문사 선정 건을 의결하였다. 실사를 위한 팀은 aT, 삼성물산과 함께 국내 M&A 전문기업(삼일회계법인)과 미국 현지 곡물사업 전문 컨설팅 기업(HighQuest)을 보강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LDC와 한국 측의 입장 차가 있어 주요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총 투자비, 의무구매수량(Take or Pay) 조건, 엘리베이션 사용수수료(rate), 오리지네이션 수수료(원료조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우선 배당금의 다섯 가지 사안이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한국 실사단 측이 실사를 거쳐 전문 자문사와 검토한 결과, 실제 가능한 취급물량과 엘리베이터가 수취 가능한 수익 등을 감안해 본다면 총 투자금액은 5,800만 달러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LDC가 제시한 1억 1,500만 달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서 1억 1,500만 달러라는 수치는 엘리베이터의 현금흐름 이외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추가된 가격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LDC는 당시 비테라(Viettera), 가빌론(Gavilon) 등의 곡물기업 인수사례 및 인수금액을 감안한다면 본 건의 투자비는 더 높아야 하며, 한국 측이 제시한 5,800만 달러의 투자금액은 수용할 수 없다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성명환 등, 2018).

4.3. EGT 수출 엘리베이터 지분 매입 추진

LDC 수출 엘리베이터에 대한 투자가 무산된 이후 aT는 새로운 사업구도 및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013년까지의 추진상황을 정리해보면 aT Grain Company는 설립 이후 투자안전 개발을 계속해왔으나 수출 엘리베이터는 과도한 요구조건으로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산지투자 협력 대상으로 3개사가 발굴되었으나 수출 연계성 확보를 위해 추진을 보류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당시 활황세인 곡물시장 여건상 성과도출을 위한 조급한 투자를 할 경우 부실 및 과다 투자가 우려되어 더 큰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메이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곡물업계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해소할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기업이 보유한 수출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여 곡물사업 진입시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해외 곡물 메이저와 직접 협상시에는 메이저의 과도한 프리미엄 요구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한국 기업이 투자하여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고정 수요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추진한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곡물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곡물사업 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과 협작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실수요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내에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국제 곡물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계 중규모 곡물기업을 육성한다는 방향을 수립하였다.

aT Grain Company는 민간 주주사별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곡물사업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인 STX와 1:1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STX는 aT Grain Company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사로서 당시 이미 미국 서북 태평양(PNW) 지역에 위치한 최신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의 지분 20%

를 보유하고 있었다. STX가 투자한 곡물 엘리베이터 EGT(Export Grain Terminal)는 미국 서안인 PNW 지역에 위치하여 곡물 수출의 관문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데 적합한 시설이었다. EGT는 미국 4대 곡물 메이저 중 하나인 번기와 일본 종합상사인 이토추, 한국 선박회사인 STX가 공동 투자하였으며, 총 투자 규모가 2억 9천만 달러로 이중 STX가 5,7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12년에 완공된 최신 곡물시설이었다. aT와 STX의 합작사업 구조는 STX 측에서 보유한 EGT 지분과 서울사료 지분, 곡물사업부 조직을 현물출자하고 aT에서는 곡물사업 정부 출자금을 현금출자 하여 국내에 곡물전문기업을 설립하는 체계로 설계하였다. 출자된 자산을 바탕으로 곡물전문기업을 신설한 후 신설된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려는 계획이었다.

aT는 2012년 5월 이후 STX와 EGT 지분을 활용한 국내 곡물전문기업 설립추진에 대한 사업협력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에는 곡물전문기업 신규 설립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 태스크포스(사업 준비 조직)를 구성하였다. 사업계획 수립, 가치평가 등 사전작업을 바탕으로 aT와 STX 간 투자구조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정한 결과, 2013년 4월에는 aT, STX, STX팬오션 3자 간의 합의가 도출되어 EGT 지분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당시 STX와 STX팬오션이 독립된 주체로 MOU 체결에 참여한 경위는 STX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채권자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다. 유동성 위기로 인해 STX팬오션은 STX 모기업과 독립되어 개별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채권단에 제시해야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와 같은 직접 현물출자는 어려워졌으며 STX와 aT가 설립할 신규법인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 공개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기업 내·외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aT, STX, STX팬오션 간에 3자간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 4월에는 3자간 EGT 지분매매 MOU 체결까지 이를 수 있었다. 이렇게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aT와 STX는 두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체가 EGT 지분을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EGT의 주주사들인 번기와 이토추에게 통지하고 주주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aT와 STX는 기존 주주사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했으나 번기와 이토추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결정사실을 aT와 STX에 통보하였다. 번기가 행사한 우선매수권은 EGT 최초 설립 당시 참여 당사자인 번기, 이토추, STX가 계약서상 정한 권리로서 주주사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나머지 주주사는 제3자가 제시한 동일한 조건에 매도 대상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주주가 주주변동에 대한 통제권 및 심사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존 주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이러한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라 STX팬오션의 EGT 지분은 한국 곡물전문기업에 승계되지 못하고 번기와 이토추에 인수되게 되었다(성명환 등, 2018).

aT에서는 2009년 준비시기부터 2014년까지 약 6년간 곡물사업을 추진했지만 목표로 했던 곡물유통망을 인수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곡물사업은 대규모 자본투자가 수반되고 높은 사업 위험이 존재하며, 곡물 메이저의 독점시장 진입에 대한 과도한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등 초기 진입장벽이 존재하였다.

둘째, aT Grain Company의 경우, 곡물사업 초기 국내 안정적인 판로를 위한 고정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았고 자금력이 부족하여 메이저 기업과의 협상력이 부족하였다.

셋째, 곡물 사업은 성과도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aT Grain Company는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려 했다. 곡물 메이저는 설립된 지 대부분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며 일본 제노의 경우 사업 안정화까지 약 30여년이 걸렸다. 카길은 1865년, ADM은 1902년, 번기는 1818년, LDC는 1851년으로 대부분 19세기에 시작한 기업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 현재의 기업을 이루었다. 한국은 국제 곡물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곡물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곡물사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였다.

4.4. 전문가가 부재한 식량 농업 정책

전문가를 키우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우리 농정은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식량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 때문에 국가 운영을 맡은 사람들이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한자리에서 1년 남짓 머무르게 되므로 맡은 일에 대한 전문성이나 책임감은 고사하고 다음에 어떤 자리에 갈 것인지에만 신경 쓰게 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8년 동안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농림부 국장이 일곱 번 바뀌었고 담당 서기관과 사무관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 없었다. 그로인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고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본격화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태풍에 노출되었다. 일본은 WTO 5년 만에 쌀시장을 개방 하고 의무수입량을 최소화 하는데 성공했으나, 우리는 20년을 끌다가 국내 쌀이 남아도는데도 연간 40만 톤(국내생산량의 10%)의 쌀을 매년 수입해야 하는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오래전부터 테크노크라트(전문직공무원)를 중시해온 나라들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자긍심과 책임행정이 가능하다.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국정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며 대외협상에 능통한 고수들이 된다. 그들이 국가 식량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세계 곡물시장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일본은 곡물자급률이 우리와 비슷한 30% 수준이나 식량자주률은 100%를 넘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일본 민간기업들이 선물거래에 참여하고 중간거래상이 되어 우리나라에까지 곡물을 팔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은 해외농장 개발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자국의 식량수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은 수조 원을 들여 세계적인 곡물유통회사들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해외농장 개발은 외교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적극적이다. 주변국들이 이처럼 식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식량을 사올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식량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5. 2008년 광우병 대란

2008년 5월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에 1만 여명이 모여 주변의 도로를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집회에는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한 카페 회원 수백명이 참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시민들이 속속 몰려들어 주최 측이 준비한 1만개의 초가 금방 동이 났다. 퇴근길 시민들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은 중고생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은 주로 20~30대 젊은층이었지만 교복을 입은 중고생들도 적지 않았고 중장년층도 눈에 띄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광우병 소를 몰아내라’, ‘이명박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

를 외치며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주최측이 나눠준 촛불을 들고 청계천 주변 인도와 차도에 앉아 “미친 소 먹고, 미치기 싫어”, “굴욕적인 대미 외교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현장에는 ‘한국인 감염률 95%, 에이즈보다 무서운 광우병 감염 경로’라는 제목의 A4용지 크기 전단지가 뿌려졌다. 이 전단지는 화장품·떡볶이·오뎅국물·과자·팥빙수까지 광우병 위험 제품이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당초 이 집회에 300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가 참가자가 늘어나자 급히 37개 중대 3,3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주변 질서를 통제했다. 오후 10시쯤 집회는 평화적으로 끝나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위집회는 다음날 주말인 3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7천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촛불문화제에 앞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촛불집회가 시작되기 3~4시간 전부터 일찌감치 청계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참석자들은 이날 자유 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학생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 외에 일반 시민들이나 휴일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렇게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논란은 같은 해 8월 중순까지 석달 넘게 대한민국을 미친소들처럼 들끓게 했다(이철호, 2012).

5.1. 광우병대란의 발단

문제의 발단은 2008년 4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19일 캠프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날에 한미 쇠고기 협상이 전격 타결된 데에서 비롯된다. 4월 11일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동물성 사료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에 협상은 타결됐고, 합의 내용은 당초 우리측 입장을 대폭 양보한 결과가 된 것이다. 그림 7-5는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되기까지의 상황을 도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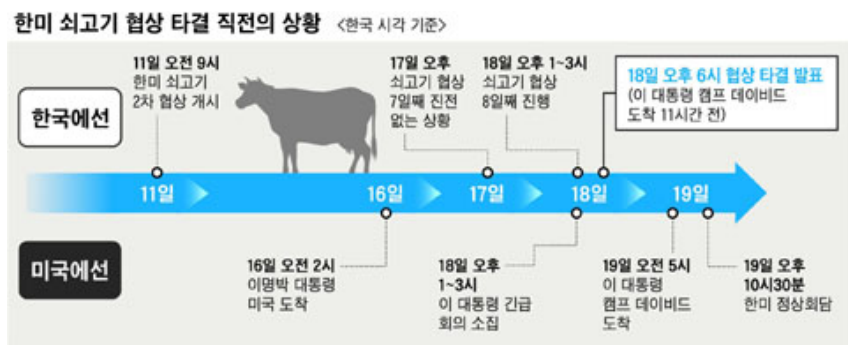


그림 7-5.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직전의 상황

이 사실이 보도되자 인터넷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아예 폐쇄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이 대통령의 미니홈피에는 29일 하루만 10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폭주해 방명록에 수 만개의 욕설과 항의성 글을 남겼다”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미니홈피를 관리

하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이 29일 밤 10시쯤 방명록과 일촌평 등 글을 남길 수 있는 기능들을 폐쇄했다”고 했다.

‘안티 이명박’ 네티즌들은 각 포털사이트에 동영상, UCC, 패러디물, 블로그뉴스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맹렬히 공격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 청원방이 개설된지 3주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서명이 12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자존심 따위 갖다 버리신 대통령님 이런 대통령은 우리는 계속 인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29일 밤에 방영된 MBC 문화방송의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다. PD수첩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미국 동물보호단체가 보여준 주저앉은 다우너 소를 도축하는 장면과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의심되는 22세의 여성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OIE) 등을 심층 취재해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의 대통령 탄핵 서명은 30일에 20만 명을 넘었으며, 1일 오후에는 33만 6천명, 2일 새벽에는 47만 명을 넘어섰다. 일부 언론은 ‘쇠고기 수입 반대, 사이버 민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인터넷에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는 미국 내 쇠고기와 다르다’, ‘티본스테이크에 30개월 이상 등뼈 들어갈 수 있다’,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 걸린다’, ‘한국인의 유전자는 광우병에 약하다’, ‘소의 신체 일부로 만든 과자, 화장품, 기저귀도 위험하다’, ‘치매환자중 상당수가 드러나지 않은 광우병 환자다’ 등등 자극적인 괴담이 인터넷을 메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카페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촛불문화제 ‘미친 소, 너나 처 먹어라!!’ 제하의 집회가 5월 2일 저녁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열린다고 올려진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각종 ‘미국산 쇠고기 괴담’의 확산을 막기 위해 5월 2일

오후에 관계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긴급히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질병관리본부장,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괴담의 진실여부를 따졌다. 정부는 이 기자회견의 이름을 당초 ‘끝장 토론’이라고 붙였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이 자리에서 모두 풀어주겠다는 의미였다. 기자회견은 언론과 정부간 치열한 공방전 분위기로 진행됐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서둘러 개방한 배경 등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정부측 참석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태는 점차 정치적인 목적으로 번져나가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한편 국회에서는 5월 7일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제2차관, 농업통상정책관, 축산정책단장, 동물방역팀장, 식품산업본부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과 검역검사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청문회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 조치를 공포한 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푼 것에 대한 문제점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 추궁했다. 한국의 검역주권을 상실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 이후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 불가론에서 조건부 재협상론으로 물러섰다. 대통령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4월 18일 한·미 양측이 사인한 합의문을 거스르는 내용이다. 합의문 4조와 5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를 낮추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철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하는 의무만 지고 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 시각)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을 재협상하거나 합의문을 고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5.2. 미친소들의 광란

국회 청문회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욱 확대되어 촛불문화제가 9일 오후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문화제 참가자수는 경찰 추산 1만 5,000여 명(주최측 추산 3만 여명)으로 지난 2일 1만 여명이 모인 이후 최대 규모였다. 이날 문화제는 참여연대와 화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미친소닷컴’, ‘2MB탄핵연대’ 등 인터넷 모임 1500여 개가 연합한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가 주최했다. 정치색을 띄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촛불문화제 형식을 취했지만 ‘미선이 효순이 추모’, ‘이명박 탄핵’ 등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와 피켓이 보이기도 했다. 서울 지역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 1만 여명은 광화문 4거리와 청계광장,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를 채웠다.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나눠 준 촛불과 ‘쇠고기 협상 백지화’를 의미하는 흰색 천을 손목에 감았다. 이 밖에도 부산 서면,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대전역 광장, 대구백화점 앞, 광주 전남대 앞, 경기도 수원역 광장, 전북대 앞, 충남 천안 갤러리아백화점 앞, 강원도 원주 중앙로 농협 등 전국 각지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이렇게 시작된 한미 쇠고기협상 반대 시위는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어 4개월간 최대 100만 명이 시위하는 대란으로 전국을

마비시켰다(이철호, 2012)(그림 7-6). 급기야 이명박정부를 옹호하는 보수 세력과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좌파세력의 좌우갈등으로 번지면서 목적을 상실한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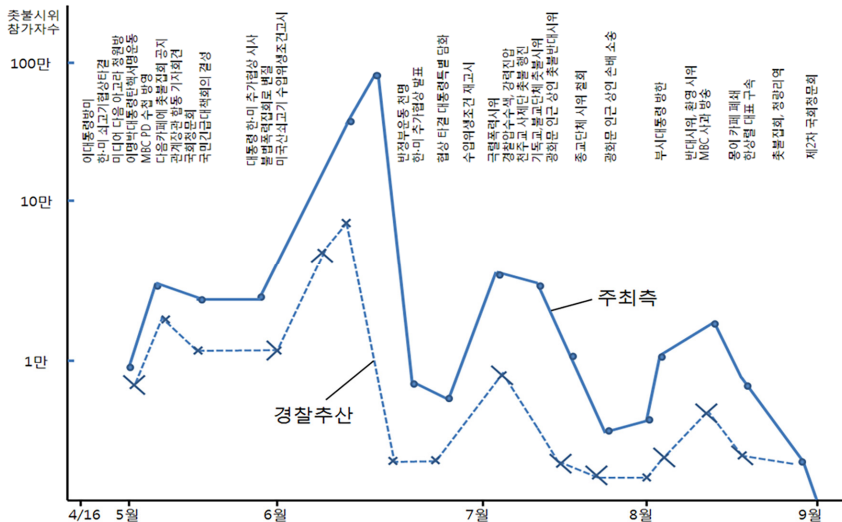


그림 7-6.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반대 촛불시위 일지(이철호, 2012)

광우병 대란은 세계적인 광우병 발생과 인체 감염사태가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한국에서 정권이 무너질뻔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서울 도심에서 연일 벌어지는 촛불 시위를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미 워싱턴 포스트(WP)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한국 각지에서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쇠고기 문제로 시작된 시위가 점점 변질, 좌파 성향의 단체와 노조가 보수주의적인 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장으로 변했다”고 보도했다. 중동 뉴스 전문 위성채널 알-자지라는 ‘한국의

분노'(Fury in S. Korea)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출범 4개월째인 이명박 정부의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발표했는데도 한국 국민은 오늘 100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은 6·10 항쟁 21주년을 맞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치러진 촛불집회를 상세히 보도하고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는 국제면 톱기사에서 한국에서 쇠고기 위기가 고조돼 내각이 총사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언론은 6·10 항쟁 21주년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 벌어진 촛불시위를 크게 보도하면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상파울루에서 발행되는 유력 일간지 가운데 하나인 폴라 데 상파울루는 국제면 1개 면을 거의 전부 할애해 태평로를 가득 메운 촛불행렬 사진과 함께 “수십만명의 촛불시위대가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주요 외신들은 서울 거리를 메운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시위가 혼란 한국 기준에서도 이례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넘어 아시아 4위 경제를 우려하는 진단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뉴스분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 결정이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서 촛불시위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반미감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도심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머리를 조아릴 필요는 없다는 한국 내 민족주의적 정서의 표출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돈 오버도퍼(Oberdorfer) 소장은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시위는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보수정권에 대한 진보그룹의 정치적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7월 4일 방한한 국제엠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41. 여) 조사관은 입국 첫날 경험한 집회에 대한 소감을 “위대한 민중의 힘(Great People Power)이다. 굉장히 평화롭고 잘 조직돼 있다. 동아시아 담당관으로 어디에서도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촛불집회는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내각 총사퇴에까지 이르는 대란을 겪게 되어 이후 5년간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동력 감퇴와 자신감 상실을 가져왔다. 현대사회에서 식량의 문제, 식품안전의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품안전의 문제를 과학에서 벗어난 억측과 선동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핵폭탄과 같은 파괴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이었다(이철호, 2012).

6.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과학화

WTO 체제에서 국가간 보호무역 장벽이 무너지고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식품교역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는 관세 이외의 수입통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은 수입식품으로부터 자국의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분쟁에서 상대국보다 우위의 식품안전 평가기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식품안전체계를 과학적 기초에 근거한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1997년 1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식품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식품안전구상(Food Safety Initiative)을 발표하였으며, 1998년 8월 미국 학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식품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해야하는 당위성과 시행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클린턴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식품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0년 1월 식품안전 전략계획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서는 (1) 견실한 과학적 위해평가에 근거한 식품위해평가체계의 구축(Risk Assessment Goal), (2) 생산지에서 식탁까지 효과적인 식품위해 관리체계 구축(Risk Management Goal) 및 (3)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을 공개하고 그 통제방법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식품위해 홍보체계의 구축(Risk Communication Goal)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과학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식품에 의한 국민 보건의 위해와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인구의 28%가 매년 식품에 의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로인한 치료비가 연 30억 달러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유럽도 이와 비슷하여 영국의 경우 매년 5명 중 1명꼴로 식원병에 걸리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2명 이상이 식중독에 걸리면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5명 이상을 의무사항으로 하므로 우리의 식원병 발생 통계는 외국의 예와 비교할 때 빙산의 일각을 나타내는 데이터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로 주목하는 항목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미국인들은 식중독과 같은 미생물 오염에 의한 위해를 가장 우려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농약오염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고, 한국인은 식품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비위생적인 취급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철호, 2006). 이러한 소비자 인식의 차이는 각 지역의 식품위생 안전사고의 발생빈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6.1. 식품위생 사건백서 I, II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주로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모방 생산하였으므로 술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무지와 기술부족에 따른 식품위생사건이 빈발하였다. 또한 가난한 사회구조 속에서 영세 상인들의 부정불량식품 생산·유통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식품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소비자 보호 단체들의 고발사건이 늘어났다(이철호, 맹영선, 1997). 또한 신기술, 신물질에 대한 산업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표 7-6은 ‘식품위생사건백서’(1편)에서 다룬 1996년 이전에 발생한 식품위생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이철호, 맹영선, 1997), 표 7-7은 2006년에 발표한 ‘식품위생사건백서II’에 수록된 주요 식품위생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 비교한 것이다(이철호, 2006).

표 7-6. 우리나라 주요 식품위생사건의 원인과 결과(-1996)

사건명	고발자	사건유형	피해자	후속조치/결과
롱가리트사건 (1966)	검찰	식품법규의 모순	식품업 관계자 구속	식품법 개정
화학간장사건 (1985)	TV 고발	제조업자의 무지 비전문가 고발	간장제조업체 국산식품 불신감	외제식품 대거상륙
화학조미료논쟁 (1985)	소비자단체	비전문가 고발	국내 관련기업의 경제적 손실 및 국제경쟁력 약화	정부의 안전성 재확인, 부정적 광고 금지
포장랩유해논쟁 (1988, 89)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경쟁사간 무고	소비자 불신감 포장재업체 전체	법정공방, 가소제등 첨가제사용 규제
우지파동(1989)	검찰	비전문가 고발	소비자 대혼란 관련식품업체	9년여 법정공방, 식품 회사 승소, 관련기업 부도
수입자몽 알라 파동(1989)	소비자단체	관련법규의 미비	수입식품 불신감 한미 통상마찰	농약잔류량 기준 설정
수입밀 농약오염 (1992)	국회의원	검역행정 및 분석기술 미비	소비자 불안감 국제 통상마찰	의혹 밀 사료용 전환 원산지품질검사 자료인정제도 확대
콩나물 농약오염 (1990-)	검찰 위생당국	업자의 의도적 행위, 관련법규의 불합리	업자 구속 소비자 불신	잔류허용치 논란 농림부로 관리 이관
톨루엔오염사건 (1994)	일본후생성 TV고발	업체의 부주의	국산식품 대외 신뢰도 하락	분석법 개발 공정관리 개선
고름우유사건 (1995)	TV고발	업체간 상호비방	소비자 불안감 우유소비 급감	상호비방광고 중지, 우유 잔류 항생물질 허용 기준치 설정
산분해간장 MCPD(1996)	시민단체	비전문가 고발	소비자 불안감 관련 식품업체	기준규격 제정 신기술 공정개발

표 7-7. 우리나라 주요 식품위생사건의 원인과 결과(1996-2005)

사건명	고발자	사건유형	피해자	후속조치/결과
대장균 O-157 오염사건(1997)	검역당국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미국산 외식업체 쇠고기수입업체	미국의 신선육 방사선조사 허용
통조림포르말린 (1998)	검찰	비전문가 오판 업자구속	통조림제조업자	무죄, 업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
내분비장애물질 유해논란(1998)	해외보도	유해 환경오염 및 식품경고	불임부부 차세대 영향	환경오염방지대책 오염식품 경고
유전자변형두부 사건(1999)	소비자 보호원	표시제도 위반 분석방법 논란	두부제조업체	손해배상 맞고소
미니컵젤리질식 사건(2001)	소비자	제품 형태의 내재적 위험	어린이, 장애인	제조판매금지초치
비아그라 식품 사건(2001)	식약청	악덕업자의 부정행위	불특정 국민다수	유사물질 분석 기술 개발
전지분유 식중 독균 검출사건 (2001)	축산물 검사소	관련법 미비 제품 폐기	유가공업체	정량적미생물위해평가의 필요성 대두
생식제품 식중 독균 검출사건 (2002)	소비자단체	식품법의 미비	생식제조업체	미생물위해분석 생식의 규격기준 제정
아크릴아마이드 파동(2002)	스웨덴 식품청	튀김 중 자연발생 위해수준 논란	외식업체 스낵제조업체	통상수준은 무해 저감기술 개발
조류독감 파동 (2003)	방역당국	과잉보도	닭, 오리고기 전문점	무해 홍보 축산농가위생강화
광우병 쇠고기 파동(2003)	미국 농무부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국내쇠고기전문점 쇠고기 수입업체	금수조치 광우병 경계령
아질산염 논란 (2004)	환경단체	비전문가 고발	유가공업체	학계 및 업계 해명
수출라면 방사선조사논란 (2005)	영국 식품청	표시위반에 의한 수입금지, 회수명령	라면·스낵 제조업체	분석기술 점검 표시기준 점검

초기단계(-1996)우리나라 부정불량식품 사건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제조업자의 고의적인 행위 보다는 무지에 의한 실수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실수는 비전문가들의 잘못된 표현으로 필요 이상으로 문제가 과장 보도되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대개 수년간 이어지는 지리한 법정 공방에서 업체가 승소한다 하여도 아무도 업체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우지파동(1989년), 산분해간장사건(1985년), 고름유유사건(1995년) 등 엄청난 사회적 물의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났으나 시비의 진위가 명쾌히 밝혀지지 않은채 업체에 상처만 남기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잊혀 지기 일쑤였다(이철호, 맹영선, 1997).

1996년-2005년까지 발생한 식품위생사건들은 그 이전의 사건들과 양상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이철호, 2006). 종전의 제조업자의 무지나 실수로 야기된 농약이나 유해물질의 오염에 의한 사건은 별로 없다. 따라서 소비자단체들의 고발이나 제조업자들 사이의 분쟁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방사선조사기술이나 유전자변형 기술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의 이용과 산물에 관한 안전성 논란, 구미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광우병이나 튀김식품의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또는 내분비장애물질에 대한 우려 등 세계적인 이슈가 그대로 우리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공권력의 전문성 결여와 일부 시민단체의 비과학적인 위해 주장, 언론의 선정적인 과장 보도 등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2008년 광우병 대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6.2.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와 전문성 제고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 정부는 1996년 4월 보건복지부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신설하였다. 국립보건원의 약품부, 위생부, 생약부, 방사선표준부의 업무가 안전본부로 이관되고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이 안전본부로 흡수되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행정·정책부분이 2부(기획평가부, 안전성관리부) 6과, 연구분야 5실(식품안전평가실, 식품첨가물안전평가실, 생약생물학적제제안전평가실, 의료기기안전평가실) 22과, 그리고 독성연구실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검역소의 검사소를 흡수한 서울, 부산, 인천과 대전, 광주, 대구에 6개 지방청을 신설하여 현장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1998년 2월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명실상부한 행정력을 갖춘 독립 외청으로 식품관리행정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편 축산식품의 경우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 생육과 원유의 생산단계인 도축장과 집유장이 축산농가의 영농지도와 가축전염병의 관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농림부로 이관되었으며 일부 축산식품의 위생관리도 농림부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에 관여하는 부처가 무려 9개 기관이나 되어 관리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며 부처간의 책임전가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표 7-8)(이철호, 2006).

표 7-8.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부처별 분산 및 관련법령(2005년)

	대상식품	소관부서	관련법령	주요업무
1	축산물 및 가공품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 위생관리 및 품질향상 - 축산물의 기준규격 - 수거검사, 지도단속
2	농산물(재배단계)	농림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 생산단계의 오염물질기준설정, 원산지 표시 등
3	수산물(채취단계)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사법	- 수산물 위생관리 및 품질향상 - 검사표준설정
4	먹는 물	환경부	먹는 물관리법	- 먹는 물의 수질 및 위생관리
5	주류	국세청	주세법	- 주류의 규격설정 - 주류업체의 지도단속
6	소금(재제·가공 소금 제외)	산업자원부	염관리법	- 기준설정 및 품질검사 등
7	상기 이외의 모든 식품(유통단계 농 수산물 등)	보건복지부 (식약청)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관련법령의 제·개정 - 수거검사, 지도단속, 사후관리
8	학교급식	교육인적 자원부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관련 제반업무
9	종합	시·도 및 시·군·구	상기법령	- 식품 등의 영업허가 및 지도단속 - 제반법령에 의한 집행업무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에서 ‘점진적으로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식품안전관리업무의 일원화 여론에 대한 정책반영이 거론되었으나 광우병 대란을 겪으면서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식약청을 농림부에 흡수하려던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사실상 조직 존속을 결정했다.

2009년 8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은 미국한림원(US National Academy)과 공동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라는 제목의 국제 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는데,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식품의 안전성 평가기술에 전반에 대하여 발표하고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또한 과학적 위해 평가방법으로 도출된 정보를 어떻게 정책수립과 규제설정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하였다(이철호 등, 2009). 2013년 3월 박근혜정부는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여 총리소속으로 위상을 높이고 농림부가 가지고 있던 축산식품의 위생관리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를 단행했다.

7. 성숙기에 들어선 한국의 식품산업

1990년대 초 까지도 한국의 식품공업은 수출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내수 중심이었다. 이런 가운데 시장 개방이 확대되자 외국 가공식품과의 경쟁까지 감내해야 했다. 특히,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식품공업의 경쟁력에 위협 요인으로 다가왔다. ‘모든 품목에 예외 없는 관세화’가 추진되면서 한국적 특수성을 갖고 있던 식품공업에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한국 식품공업은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으로 조달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자 원료가 완제품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산업이었다. 원료에 대한 높은 관세율은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둔화시켰고 시장 개방으로 국내에 상륙한 다양한 수입식품들 때문에 국내시장에서마저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 있던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식품공업에 미친 충격은 컸다. 정부가 농수축산물의 완전 개방을 막기 위해 식품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대폭 낮추고 원료에 대한 관세는 소폭만 낮췄기 때문이다.

이 결과 식품공업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1년 전체 제조업 내에서 8.3%를 차지하던 가공식품 생산액은 1995년에는 7.2%로 줄어들었고 부가가치 수준도 1991년 8%에서 1995년 6.8%까지 하락하였다. 대표적인 제품이 커피였다. 1988년까지 45톤에 불과했던 커피 완제품 수입은 1990년 917톤을 넘겼고 1992년에는 1,490톤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량은 1990년 1,100여 톤이던 것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고환을 탓에 수익은 오히려 악화되고 말았다. 제과, 제빵, 육가공품 등 원료 수입 비중이 큰 가공식품이 대부분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다.

다양한 외국 가공식품의 국내 진출은 식품업체들의 설비 및 신제품 투자 비용을 증가시켰다. 기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신제품을 개발해야 했기 때문이다. 무역상사 등이 식품 수입에 뛰어들면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수입 제품이 급증했고 일부 품목은 다국적 식품기업이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도 했다.

7.1. 가공식품 분야별 발전상황

(1) 제과부문

한국 식품공업을 선도해온 제과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고급제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고급 과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수입 초콜릿 등 외국산 제품의 국내 점유율도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랑받아 온 초코파이(오리온), 새우깡(농심) 등은 최고 제품으로의 명성을 굳건히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과 3사는 기술개발을 통해 복합소재 등 고급 식품을 출시했고 브랜드 네임과 패키지 디자인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주력 품목이었던 판 초콜릿 대신 자유시간 같은 초코바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덴티Q 같은 기능성 껌도

새롭게 탄생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제과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제과 부문은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2) 청량음료 부문

청량음료 역시 콜라와 사이다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제품이 소비되기 시작했다. 특히 사이다 시장은 1988년 보리음료(맥콜), 1989년 유성탄산음료(암바사, 밀키스)의 시판으로 이미 위기를 맞은 바 있었다. 그러나 보리음료가 유통과 마케팅에서 고전하면서 다시 점유율을 회복했고 1990년 초 무색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다는 다시 연간 10% 이상 성장률을 보였다. 콜라 역시 보리음료, 유성탄산음료의 출시로 부침을 겪었다. 이런 고전은 1990년대 초반 건강 지향적 음료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며 지속되었다. 과실음료를 중심으로 한 후레바(Flavo, 향음료)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이다. 1994년에는 후레바 음료의 성장이 지체되는 가운데 데미소다 같은 저탄산과즙음료가 출시되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1994년부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중심으로 콜라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1995년에는 전체 탄산음료 시장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성장에는 소비 촉진을 위한 캔, 펠트병 등 다양한 용기와 포장 제품이 출시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레저문화가 발달하면서 일회용 제품 소비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었다.

1990년대 청량음료 업계의 특징 중 하나는 절대강자가 없이 다양한 제조사가 시장에 진출한 것이었다. 칠성사이다의 아성에 축배사이다, 스프라이트, 킨 사이다, 천연사이다 등이 도전했고 콜라 역시 코카콜라와 펍시콜라의 아성에 범양식품의 815콜라, 해태의 콤비콜라가 등장했다. 이어 한화의 아메리카콜라, US콜라 등 수입콜라도 선보였다.

이런 가운데 1996년 11월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이 출범, 기존 4개 보틀러를 영입하면서 전국적인 단일 유통망을 갖게 되었다. 외환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음료업계는 여기에 마땅한 대응을 못하였다. 한국코카콜라(주)와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는 이후 1999년까지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단행해 국내 최대의 외국 투자사가 되었으며 외국 회사로는 가장 큰 성장세를 이어갔다.

(3) 우유 및 유제품 부문

1980년대 말까지 매년 15~20%의 고성장을 기록했던 우유 소비량은 1989년 채식주의 건강론의 등장과 우유 값 인상이 맞물리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후에도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그러나 학교와 군을 통한 우유 급식 물량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평균 소비량을 유지해 나갔다. 이런 가운데 유제품 시장을 선도한 품목은 요구르트와 치즈였다. 특히, 요플레가 개척한 호상 요구르트 시장의 성장이 폭발적이었다. 1987년 15억 원대였던 호상 요구르트 시장은 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히 성장, 1990년에는 850억 원대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는 발효유를 고급화한 드링크 요구르트 출시로 이어졌고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1993년 1,500억 원대의 거대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선두주자였던 한국야쿠르트가 40% 이상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갔다.

1987년 해태유업이 출시한 슬라이스 치즈는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치즈 시장을 확대하였고 매년 10~40% 이상 성장해 나갔다. 이는 1990년대 급증한 피자와 햄버거 전문점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연유와 버터 제품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서울우유와 해태유업을 중심으로 커져가던 유제품 시장은 1995년 유제품 분야의 전면 개방으로 외국산 제품과 치열한 경쟁체제에 접어들었다.

(4) 식육 · 냉동식품

롯데햄과 제일제당이 개척한 육가공 시장은 1990년대 들어 수산물 제조 업체인 동원, 오양, 삼호, 한성 등이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가열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강력히 추진된 축산 장려 정책으로 수입육 도입이 감소하면서 원가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수입 자유화 조치로 돈육통조림, 소시지, 베이컨 등이 차례로 개방되었다. 원료 조달의 어려움과 수입 제품의 증가로 육가공 시장은 1992년 말을 기점으로 침체에 접어들게 되었고 공장 가동률도 6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업계는 김밥용 햄과 어린이 소시지 등의 신제품 개발에 들어갔고 이어 1990년대 초에는 건강식인 로우로우햄, 소프트 후랑크 등을 출시했다. 그러나 시장 전체가 위축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입 소고기의 관세율 하락과 외환 위기에 따른 사료비 증가가 겹치면서 육가공품의 국내 자급률은 더욱 감소하였다.

이처럼 육가공 시장이 정체되면서 제일제당, 롯데햄, 동원산업 등은 어육 및 수산물 분야의 냉동식품 생산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는 냉동 · 냉장 시설 규모의 확장과 수산물의 가공 · 동결 처리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농수축산물 전반으로 냉동식품의 종류가 확대되었다. 소비자들 역시 섭취가 편리한 냉동가공식품을 애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0년대 말 냉동식품 시장은 약 3,000억 원대로 성장하였으며 업체수도 800여 개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일제당, 롯데햄, 동원산업, 해태제과, 대상, 진주햄 등 6개사가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2,145억 원을 차지함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를 형성하였다.

(5) 조미식품

조미식품은 식초, 소스, 케첩 등 맛을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뜻한다. 다만 동식물에서 추출한 단일 성분 또는 단일 성분을 원료로 만든 양념, 조미료 같은 식품첨가물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공전」에서는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 및 실고추, 향신료 가공품, 드레싱, 복합조미식품, 향미유 등의 제품을 조미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스류는 다양한 서양식 소스와 불고기양념 같은 전통 제품도 포함하고 있다. 조미식품 중 가장 큰 시장은 토마토케첩과 마요네즈로 1980년대부터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였다. 특히 토마토케첩은 매년 20% 이상 소비량이 증가해 1990년대 후반에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55kg으로 증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마요네즈 역시 고칼로리 식품의 증가로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업계 선두주자인 오투기는 케첩과 마요네즈의 품질 향상에 주력해 1995년 이후부터는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일본과 러시아 시장을 개척한 오투기의 성과로 1995년 케첩과 마요네즈 수출은 처음으로 수입량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타 소스류는 여전히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서구식 드레싱을 비롯한 다양한 소스류가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국내 기업들은 1990년대 후반 간장, 참기름, 마늘, 참깨 등을 사용한 한국형 드레싱을 출시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 나갔다.

(6)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의 본격적인 생산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지만 식품산업에 편입된 시기는 199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2년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 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영양

등 식품제조업'으로 규정되던 명칭이 '건강보조식품'으로 전환되었고 「식품공전」에도 22개 건강보조식품이 공식 등재되었다. 이어 1995년에는 키토산 등 3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5개 품목으로 확장되었다. 건강보조식품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품목, 매출 규모, 생산업체 수 모두 급격히 성장해 나갔다. 1990년대 초 72개 업체 405개 품목이 1999년에는 223개 업체 2,000여 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시장 규모도 2,000억 원대에서 1조 원대로 급성장했는데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20~40%의 고성장을 이룬 결과였다.

건강보조식품의 형태는 크게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화하는 품목, 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공하는 품목,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최종 가공하는 제품 등으로 구분되었다. 알로에, 정제어유, 효소를 제외하면 전량 원료를 수입에 의존했는데 주요 수입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이었다. 유통은 직접 판매가 70%의 비율을 기록, 방문판매원이나 다단계 판매원을 통한 판매가 주류를 이루었다.

(7) 먹는 샘물의 등장과 생수산업 성장

1990년대 탄생한 가공식품 중 가장 신선한 분야는 먹는 샘물이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생수의 판매를 불허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 때문이었다(이철호, 2006). 그러나 먹는 샘물의 역사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가 1912년 충북 청주 초정리에 물 공장을 건설하고 일본군을 위한 천연사이다와 탄산수를 생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방 후, 생수의 생산·판매는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외국인을 위한 생수 판매는 한시적으로 허용되기도 하였다. 1976년 주한 미군 및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출시된 다이아몬드 정수가 있었고 88서울올림픽 기간 중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생수 판

매가 일시적으로 허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림픽 폐막 후 정부는 다시 생수 판매를 금지하였다.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생수 제조업자들은 생수 판매 허용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결국 1994년 생수 판매 금지 조치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침해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95년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생수 판매가 합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14개 업체에만 판매를 허용하였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 하락을 우려, 생수의 대중광고도 금지하였다. 감독관청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환경부였다. 이는 1991년 낙동강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 사건에 따른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출범했지만 먹는 샘물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물 위생에 대한 국민 경각심 증가, 웰빙(Well-Being)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수돗물 대신 생수를 먹기 시작했고 시장은 탄산음료나 카페인 음료 수요를 대체할 정도로 커져갔다. 진로종합식품, 풀무원, 제일제당 등이 선점한 생수시장은 1995년 1,50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했는데 선발 업체들은 약 50%의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 우위를 형성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대형 식품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되었다.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하여 해태음료, 두산, 한국야쿠르트 등이 생수 판매에 뛰어들었고 주류기업도 앞다투어 진출하였다. 여기에 예비양을 비롯한 외국 생수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하면서 생수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특이한 것은 1995년 3월 25일 출범한 제주개발공사가 제조한 삼다수의 돌풍이었다. 삼다수는 화산암반이 필터 역할을 하는 화산암반수로, 1998년 3월 출시 후 6개월 만에 생수 카테고리 매출 1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제주개발공사는 1998년부터는 농심과 판권 계약을 맺고 유통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였다. 생수시장은 이후에도 웰빙 트렌드 확산,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년 10% 안팎의 가파른 성장을 보이며 음료시장의 블루 오션으로 성장해 나갔다.

(8) 커피 및 다류(茶類)

동서식품은 고급 인스턴트 커피인 맥심을 출시, 시장 1위 자리를 수성해 나갔다. 1989년 합작 형태로 한국에 진출한 네슬레(Nestle)는 자본 증자를 거듭해 독자적 경영권을 행사했고 진출 4년 만에 인스턴트 커피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런 가운데 미원과 롯데가 원두커피 제품을 출시하면서 커피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에 시중에 원두커피 전문점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원두커피를 메뉴로 추가한 것이다. 더불어 액상 커피인 캔커피가 출시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되었다. 액상커피는 1986년 동서식품이 맥스웰캔커피를 출시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커피 추출액에 당류를 혼합해 맛과 청량감이 높아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캔커피 시장은 코카콜라 네슬레와 롯데칠성, 동서식품이 3강을 형성한 가운데 미원과 해태음료, 일화 등도 제품을 출시해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이후 1990년 후반에는 휴대용 커피음료(RTD) 제품이 출시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RTD 제품은 컵 용기에 냉장커피를 담은 제품으로 캔커피보다 신선하고 다양한 맛을 구현해 인기를 끌었다. 스타벅스가 동서식품과 제휴해 냉장커피를 출시한 것을 계기로 많은 커피 전문점이 음료업체와 제휴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커피 외의 국산 차(茶)는 커피 문화의 확산으로 1980년대까지는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었다. 「식품공전」상 다류에 속하는 차는 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류), 추출차(쌍화차, 생강차, 칩차류), 분말차(울무차, 코코아차, 계피류차), 과실차(유자차, 모과차류) 등으로 구분된다. 녹차, 홍차, 쌍화차가 등장한 것은 1960년대였지만 1970년대 도입된 커피의 영향으로 상업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후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정부의 국산차 육성 노력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2년 국내 다류 제조업체는 총 193개까지 증가했고 이후에도 연간 10~15개사가 새로이 참여하였다. 울무차, 유자차, 쌍화차, 칩차, 생강차 등 국산 차 5종이 1994년 9월까지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보호되어 영세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4년 이후에는 대기업들이 진출, 고급 제품을 생산해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7.2. 전통 식품의 제품화

1990년대는 가공식품 분야의 성장 둔화와 서구적 식문화에 대응하는 전통 제품 출시 움직임도 일어났다. 식품기업들은 새로운 먹거리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비락식혜를 들 수 있다. 비락식혜는 1993년 비락에서 출시되어 팔도(1997년 한국야쿠르트 인수 후 팔도로 분사)로 넘어갔으나 현재까지도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인기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명절에나 먹던 음료였던 식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식음료 역사에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1996년에는 제일제당의 햅반이 출시되면서 국민들의 주식인 밥이 가공식품으로 탄생하였다. 제일제당은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성공한 즉석밥 시장을 주목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 제조 공정을 구축했다. 출시 초기에는 밥을 사 먹는다는 데 따른 거부감이 상당했다. 그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경쟁 상품들이

출시, 거대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2012).

1998년에는 ‘한국 전통식품 산업화 연구회’(창립회장 이철호)가 결성되어 중소 식품기업의 산업화 역량을 돕기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가 만들어졌다.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자 260여 명이 회원으로 참가해 한과, 떡, 전통 음료, 김치, 장류 등 13개 분야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세미나, 단기강좌, 현장방문 등 전통식품 산업화에 활기를 불어넣는 노력을 하였다(Lee C.H., 2010).



그림 7-7. 한국전통식품산업화연구회 현장방문(2000년 12월)

7.3. 식품 유통사업과 대형마트의 성장

유통은 생산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포괄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작게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판매현장을 뜻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로 보면 식품산업에서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1990년대까지 제품이 소비자와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식품 유통산업은 대량생산체제의 정착과 함께 수송, 저장, 판매를 총괄하는 체계로 발전했고 그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식품 유통은 재래시장과 소매 점포가 지배하는 구조였으나 1990년대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새로운 채널로 재편되기 시작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백화점은 1960년대 후반부터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다. 신세계백화점의 직영화를 계기로 미도파, 롯데쇼핑 등이 백화점 직영사업에 뛰어들었고 이어 현대, 뉴코아, 시티, 건영 등 대기업이 백화점업에 진출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면 백화점 규모가 대형화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부터는 백화점 상품권이 등장하면서 지방까지 백화점이 설립되었고 이들 대기업이 대형마트 분야까지 진출하였다. 1996년 예정된 국내 유통시장 완전 개방을 앞둔 전초전이었다.

이런 가운데 1993년 신세계백화점이 E마트를 개점하면서 대형마트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대형마트의 탄생은 백화점과 소매점포로 양분화 되어 있던 유통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으며 1996년 1월 1일 상륙한 마크로와 까르푸 등 글로벌 유통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졌다. 속속 문을 연 외국 유통업체들은 국내시장을 잠식하면서 수입 농산물을 빠르게 유통시켰고 회원제와 창고형 매장, 카테고리 킬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품 유통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1995년 총 매출액 8,000억 원을 기록한 대형마트업계는 1996년 1조 5,000억 원, 1997년에는 3조 원까지 매출을 끌어올렸다. 이러한 성장은 저가 제품을 통한 공격적 영업에 기반을 둔 것으로 외환위기에 더 큰 힘을 발휘하였다. 시장 개방을 걱정했던 유통업계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규모를 더욱 키웠으며 글로벌 유통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다. 실제 외국계 유통기업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형마트의 돌풍은 유통과정을 줄이고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린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재래시장 등 영세 소매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더불어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지배력 강화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예속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는 생산 위축으로 연결, 식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 고재모, 김태곤, 이철호,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도서출판 식안연 (2017)
- 김낙년,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김상효, 홍연아, 식품수급표 2018,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재호,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 생각의 힘 (2016)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019)
- 박동규, 승준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 KREI 농정포커스 제 7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박현진, 김덕호, 권오란, 감현옥, 박태균, 이철호,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도서출판 식안연 (2019)
- 성명환, 오정규, 김민수, 임호상, 이철호, 세계 곡물시장과 한국의 식량안보, 도서출판 식안연 (2018)
- 이철호, 식품위생사건백서II,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 이철호, 식량전쟁, 도서출판 식안연 (2012)
- 이철호, 맹영선, 식품위생사건백서,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 이철호, 이효민, 박용호, 박경진, 김형진, 권중호, Doyle M., Buchanan, R., Yaktin, A., Brackets, R., Miller S., 식품의 안전성 평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출판부 (2009)

- 이철호, 이숙중, 김미령, 쌀의 혁명, 식량안보시리즈 제4권, 도서출판 식안연 (2015)
- 이철호, 위남량, 최지현, 임정빈, 안병일, 요셉의 지혜, 한반도 식량비축계획, 도서출판 식안연 (2019)
- 이철호, 최지현, 박성진, 이남택, 송성완, 박태균, 국가비상시 식량안보계획, 도서출판 식안연 (2021)
- 통계청,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변화, 보도자료 (202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제9권 제4호 (2021)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식품산업 한식세계화에 날개 달다, 도서출판 식안연 (2012)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4차 산업혁명과 식량산업, 도서출판 식안연 (2018)
- 한국식품산업협회, 국민과 함께 걸어온 식품산업 반세기, 한국식품산업협회 50년사 (2019)
- Gale, J.S., *Korea in Transition*, Laymen's Missionary Movement, New York, p.9 (1909)
- Lee, Cherl-Ho, *Food Research Archives of Cherl-Ho Lee*, Korea University, Hanrimwon, Seoul (2010)

분단 65년의 남북한 식량사정 변화

1. 북한정권의 성립과 3대 세습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해 군정통치를 했다. 1945년 10월 한반도 북부에서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세워지고,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실제 경작민에게 배분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의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그 뒤 47년 2월 최고 의결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최고 집행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고,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이 창군된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 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사회주의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한은 노동자·농민의 세상을 만든다는 구호아래 토지개혁을 통해 전국의 국토를 국유화하고 개인 재산을 몰수하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학살하거나 형무소에 수감하는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와 사업가들이 대거 남한으로 월남하였으며, 6·25동란 중을 포함하여 2백만 명 이상이 남한으로 피난했다.

필자는 세 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 함흥에서 평안북도 용등탄광으로 아버지를 면회 갔다. 아버지는 연희전문 상학과를 졸업하고 함흥상업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를 했으나 공산당이 들어와 운영하던 정미소와 흥원군 일대의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자 반공산당 지하조직에 가담한 죄로 7년형을 받았다. 복역 3년 만에 6·25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압록강 근처까지 퇴각할 때 형무소의 정치범들은 모두 사살했다는 풍문을 들은 것이 전부이다. 1·4후퇴 때 수십만의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 운집해 미군 수송선에 필사적으로 올라 남한으로 피난한 사실은 당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이철호, 2015).

건국 이래 38도선 부근에 걸쳐 국지전이 빈번하였다. 특히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관할 하에 있던 옹진반도, 개성, 의정부, 춘천 그리고 강릉 등의 접경지역을 주 공격 목표로 삼았다. 김일성은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V. Stalin, 1878-1953)에게 남침을 수차례 건의하여 미군이 철수한 시점에서 스탈린의 남침 승인을 받아내고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남한에 대대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전쟁 초기 기습으로 인해 패전을 거듭한 대한민국 국군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고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했으며 북한군은 낙동강 부근까지 진출했다(그림 4-3 참조). 이후 국제연합군 파병과 더글라스 맥아더의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측이 반격을 시작해 9월 27일에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일에는 38도선까지 점령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임무를 완수한 국제연합군은 철수할 것을 검토했으나, 이승만의 주도로 응징론이 대두되면서, 국제연합군은 새로운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10월 26일에는 압록강 부근까지 진출하지만 중공군의 개입과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은 멸망의 위기를 모면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한국 전쟁은 약 20만 명의 전쟁미망인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를 만들었으며 1천여 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었다(제4장, 표 4-2 참조). 그리고 한반도 내에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인해 양측 간의 적대감이 극도로 팽배하게 되어 한반도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북한의 정치구조는 초기에 남로당 계열, 갑산파 계열, 소련파 계열, 연안파 계열 등으로 이루어진 연립내각 체제였다. 한국 전쟁 이후 김일성은 당시 정적들이었던 박헌영, 리승엽 등 남로당 간부들을 대거 숙청했다. 김일성의 기반은 한국 전쟁 이후 계속 확대되었다. 1956년 8월에는 최창익 등 연안파 세력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던 김일성을 끌어내리려던 시도(8월 종파사건)를 했지만, 무산되면서 주동세력인 소련파와 연안파는 숙청되었다. 이어서 김일성은 갑산파계열 내에 온건세력들을 숙청함으로써, 김일성 유일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 유일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무수히 학살하거나 집단수용소에 가둬 강제노역을 시켰다.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정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77년 개정되어 국가의 공식이념을 주체사상으로 확립하였다.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권력을 국가원수인 주석에게 몰아준 것이었다. 즉 내각수상을 주석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주석에 직속된 중앙인민위원회에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다. 수령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그리고 지고의 인격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이므로, 수령의 교시는 무조건 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헌법의 요지다. 이후 김일성의 사상은 주체사상으로 명명되었으며,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유일체제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변모해 갔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북한은 이미 1992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군사 관련 기능 및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통합하여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무난히 권력을 승계하도록 조치했다. 헌법 개정을 한 번 더 하면서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김정일의 유일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었다. 2000년 6월 13일 김정일은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대중과 만나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노선에 대해 남한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을 가져왔다.

그 이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이 2000년 8월 현대그룹(회장 정주영, 1915-2001)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정주영 회장은 1998년 소떼 1001마리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고, 2006년 7월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으며 10월 13일 핵 실험을 실시했다. 핵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만장일치로 대북제재위원회(1718호) 설립이 결의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10·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한다(표 8-1).

표 8-1. 북한의 정권 성립과 3대 세습과정

-
-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
 -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성립.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의 토지개혁 시행
 - 1947년 2월 북조선인민회의(국회)와 북조선인민위원회(행정부) 창설
 -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김일성 수상, 박헌영, 홍명희 등 부수상
 -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기습 남침,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협정 체결
 -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정 헌법 공포.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
 -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심장마비로 사망. 아들 김정일의 유헌통치 시작
 - 2000년 6월 13일 김정일과 남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 2006년 7월 미사일 시험발사, 10월 13일 핵 실험 실시
 -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발표
 -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그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이 승계
 -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리히터 규모 4.9의 핵실험 강행
 -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조치, 남측 종사자 추방
 -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6차 핵실험.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 대북 제재 시작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관계는 냉랭해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2008년 5월 대한민국 국적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가 관광 도중 총살되었고, 결국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에는 이른바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고,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채택되었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연이어 11월에는 휴전협정 이후 최초의 영토 도발인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여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표 8-2).

표 8-2. 북한의 미사일 · 핵 개발 과정과 유엔 안보리 제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실험	1993년 · 2006년 · 2009년 · 2013년 · 2014년 2017년(8월 29일) · 2019년
핵 실험	2006년(1차) · 2009년(2차) · 2013년(3차) · 2016년 1월(4차) 2016년 9월(5차) · 2017년(6차)
관련 주제	연표 · 원자력 발전 · 제네바 합의 · 6자 회담 · 조일평양선언 대북 제재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 2017년 한반도 위기 유엔 대북 해상 제재
시설	풍계리 핵 실험장 · 영변 원자력 연구소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UN 안보리 결의안	제825호 · 제1695호 · 제1718호 · 제1874호 · 제1928호 · 제1985호 제2087호 · 제2094호 · 제2270호 · 제2321호 · 제2371호 · 제2375호 제2397호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후계 자리는 그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에게 승계되었다. 2012년 7월 18일 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인 김정은에게 기존 대장 계급에서 2단계 높은 원수 칭호를 부여할 것을 결정했다. 원수 칭호는 이미 사망한 김일성 · 김정일에게만 부여된 대원수의 바로 아래 계급이다. 2012년 12월 12일에 북한은 은하 3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했으며, 2013년 2월 12일에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리히터 규모 4.9(미국 지질조사국은 리히터 규모 5.1)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남북불가침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발표하고, 각종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한 채 대기상태에 있다고 위협했다. 김정은은 정권 내 제 2인자였던 고모부 장성택을 2013년 12월 3일에 숙청하고, 이어 12월 12일 사형을 선고하고 처형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실험 및 로켓 발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남측 종사자들을 전부 추방하였다. 북한은 2017

년 9월 3일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에 감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를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대북 제재와 함께 포용정책을 병행하면서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아이스하키팀 등에서 단일팀과 예술단 공연 등을 하였다.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과 정상회담을 하여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폭파 및 폐쇄하였다. 2018년 6월 12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회담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간 김정은은 핵무기 미사일 실험을 더욱 가속화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저술한 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은 북한을 착취적 정치제도(extractive political institution)를 만들어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사회 전체를 희생시켜가며 치부하거나 권력 강화를 위해(예를 들어 핵무기 개발) 착취적 경제제도를 운용하는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Acemoglu and Robinson, 2012). 그들은 북한을 공산당이 완전히 정치를 독점하여 소수 엘리트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민을 배푼게 하는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의 가난한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2. 북한 경제상황의 변화와 식량사정

2.1. 초기 전성시대(1945-1972)

한반도 북부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막대한 중화학 공업 투자가 이루어졌었다. 1918년 일본제철이 검이포 제철소를 건설하였고, 1930년대에는 일본질소비료에 의해 당시 아시아 최대의 화학비료 공장이었던 흥남비료공장이 세워진다. 또한 압록강에 수풍발전소를 비롯해 여러 수력 발전소를 건립해서 만주국과 한반도에 전력을 공급했다. 패전 후 일본은 이들 시설을 그대로 남겨 놓은 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일본이 남겨놓은 재화와 설비를 그들의 전리품으로 규정하고 소련으로 공출해 갔다. 1947년 미국의 앨버트 웨드마이어 육군 중장이 대통령 특사로 방문했을 때 북한에서 월남한 조선민주당 사람들이 전달한 ‘북조선 실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말까지 소련이 북한으로부터 빼앗아간 물품은 7억~8억 달러에 이르며, 거기에는 쌀 250만 섬, 소 15만 마리, 돼지 5만 마리 외에 북한주민들의 은행예금까지도 포함돼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3대, 원산 석유회사 및 청진 제철공장과 제련소의 모든 기계, 함흥 화학회사의 6만 kW짜리 변압기도 소련이 가져갔다고 적고 있다. 그래도 일제의 중공업 기반을 그대로 접수한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었고, 남북간의 교역이 끊어지게 되자 남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소련군정이 다른 것은 몰라도 물가통제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남한은 물론이고 중국, 대만, 일본보다도 빠르게 경제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은 이러한 경제적 배경을 내세워 1946년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의 토지개혁과 주요산업의 국유화를 밀어붙여 이를 실현하였다.

한편 남한은 농업이나 경공업 분야로만 발달되어 별다른 중공업지대나

발전소조차 변변찮아서 북한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쓰는 형편이었다. 때문에 1948년 북한이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 단전을 강행하여 남한에는 그대로 전력난이 발생했다.

또한 북한은 일본으로 귀국하려는 일본인들 중 기술자들을 1948년까지 억류해 그들의 노하우들을 강제로 전수받았고, 이와 동시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군수공장에서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과 같은 기초 병기와 탄약들을 생산해 남침 준비를 하였다.

북한이 가졌던 우월한 중공업적 기반은 한국전쟁 당시에 무참히 파괴되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화학 콤플렉스였던 흥남 지역은 미군의 포화로 거의 초토화되었으며, 황해도 송림 지역에 있던 겐이포 제철소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권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후 산업기반을 빠른 속도로 재건했으며, 특히 흥남질소비료공장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재건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많은 인재들이 소련이나 동유럽에 유학을 하면서 선진 기술과 문물을 배워오기도 하였다. 당시 북한의 산업화 정책은 초기 스탈린의 산업화 정책과 유사한 선중화학공업 노선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국방비를 줄이면서까지 돈을 들여 제철소, 조선소, 화학 공장 위주의 산업 발전을 이룩했다.

이 시기에 북한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농업의 집단화와 영세한 규모의 개인 수공업과 상공업의 국유화를 추진하여 1958년 무렵 이를 완성하였다. 농업 집산화는 일반적으로 많은 저항이 잇따르기 마련이지만 북한은 농업 집산화에 따른 저항이 별로 없었는데 우익지주층들이 전쟁 중에 대규모로 월남하여 저항동력이 사라져버렸고, 무엇보다 전쟁 중에 인적자원의 손실이 많아 개인농 단위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 것이다.

1950년대 후반 중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자, 북한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양쪽과 적절히 거리를 두며 양쪽 모두로부터 이득을 챙기는 외교 정책을 구사한다. 즉, 선진 기술과 산업을 갖춘 소련으로부터는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고, 공업이 아직 발전하지 않은 중국으로부터는 원자재나 식료품을 들여왔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광풍이 부는 와중에도 북한은 우회적으로 이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며 66년에는 사상적인 독립을 꾀하고, 69년 중국-소련 국경분쟁 때도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중립을 택하면서 양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만 챙기는 정책을 택했다. 또한 60년대부터는 기초과학 분야와 최신 산업기술들을 단순히 전수받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술로 체화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때까지 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았고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그림 8-1).

1970년대는 북한 스스로도 황금기라 칭한다. 1960년대 닦아 놓은 경공업 기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1970년대 초반부터는 농업 기계화를 추진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식량 수요를 충족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며, 어획량도 상당히 많아서 명태를 무상 배급할 정도였다. 1974년에는 세금을 없애는 선전성 법령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광물 등을 수출하고 받아온 고급 외제 상품들이 제한적으로나마 풍족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1973년에 남한보다 1년 일찍 평양 지하철을 개통시켰고, 1974년에는 일본과 필리핀의 뒤를 이어 컬러텔레비전 방송을 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던 남쪽 인사들은 ‘평양이 서울보다 좀 발전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평양에는 호텔에 비데라는 물건이 있더라’는 전설적인 발언도 이 시기 전후라고 알려져 있다.

(1990년 달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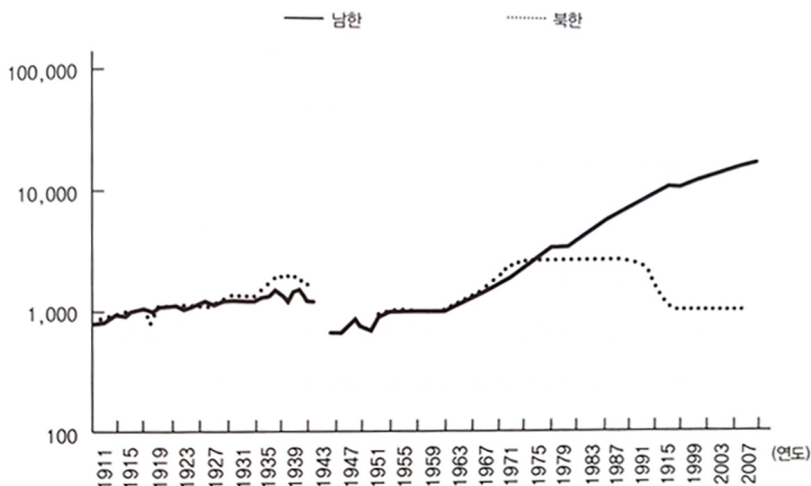


그림 8-1. 남북한의 1인당 GDP 추이(1911~2010)

자료: 김낙년 편, 한국의 장기 통계: 국민계정 1911~2010.(2012)

1972년 북한의 국가주석이 최용건에서 김일성으로 교체되고 김일성의 일인 독재 체제가 확립되면서 민간 경제와 당·군 경제가 분리되기 시작한다. 즉, 북한 경제 내에 군수산업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경제와 군수산업이 별도로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 분리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70년대의 경제 성장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둔화의 조짐이 지표상으로는 나타났을지라도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못하였다. 표 8-3은 1960년부터 1974년까지 북한의 재정지출 구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이남택, 2005). 국방비 지출 규모가 196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재정지출의 30%를 상회하고 있다. 1972년 이후부터는 비율이 15% 수준으로 감소하나 이러한 국방비의 과다지출은 198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몰락을 가져온 원인중의 하나가 된다.

표 8-3. 북한 재정지출의 구성과 추이

(단위: 북한돈 억원, %)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국방비		관리비	
	지출금액	비율	지출금액	비율	지출금액	비율	지출금액	비율
1960	13.6	69.2	4.8	24.5	0.6	3.1	0.6	3.2
1961	17.1	73.0	5.0	21.4	0.6	2.5	0.7	3.1
1962	19.8	72.5	6.2	22.6	0.7	2.6	0.6	2.3
1963	22.4	74.0	6.5	21.5	0.6	1.9	0.8	2.6
1964	23.8	69.5	7.0	20.6	2.0	5.8	1.4	4.1
1965	23.6	68.0	6.8	19.7	2.8	8.0	1.5	4.3
1966	24.4	68.4	6.1	17.3	3.6	10.0	1.5	4.3
1967	19.7	49.9	6.9	17.5	12.0	30.4	0.9	2.2
1968	23.5	48.9	8.3	17.0	15.6	32.4	0.9	1.8
1969	24.0	47.5	9.9	19.7	15.7	31.0	0.9	1.8
1970	28.2	47.0	11.9	19.9	18.8	31.3	1.1	1.8
1971	27.8	44.2	14.4	22.9	19.6	31.1	1.1	1.8
1972	41.0	55.5	18.8	25.4	12.6	17.0	1.6	2.1
1973	47.6	57.2	21.0	25.3	12.8	15.4	1.7	2.1
1974	55.1	57.0	24.0	24.8	15.6	16.1	2.0	2.1

출처: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 시기에 실제로 지상락원이 왔다거나 실제로 공산주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했었다 한다. 음식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버리는 수준이었으며 교육, 의료, 의식주 등 거의 모든 부분을 국가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았다고 한다. 평양 북판에서 놀새족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젊은 세대들은 그때 흥청망청 돈을 써서 지금 이렇게 못 산다고 불만을 터트린다고 한다.

음식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한정적인 이야기로, 주로 명태에 관한 이야기다. 당에서 매해 생산량을 책정하고, 해가 바뀌면 또 반드시 그보다 많은 양을 목표로 성장 지표를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외부에 과시하려고 하므로 초과생산을 하게 된다. 당시는 명태가 매년 풍어였고 러시아에선 명태 소비가 별로 없어서 러시아 해역에서도 조업할 수 있었다, 많이 잡아 오라고 하니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엄청난 양이 쌓이게 되었다. 그러나 저장설비도 부족했거니와, 국가가 계획적으로 자급자족을 하는 게 목표였던 당시에는 ‘남는 걸 저장 한다’라는 것은 국가와 당이 필요 생산량을 잘못 책정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고 많이 잡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게 그렇게 많이 잡으면 목표 초과달성이 되고, 이런 것이 곧 김일성의 은혜로 풍어가 왔네, 주민들의 충성으로 힘들어보이던 목표도 초과달성이 가능했네 하며 당의 선전에 활용되므로 초과 생산된 양을 목표량으로 잡고 그걸 또 강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과잉 생산된 명태를 나눠주다 보니 명태를 샅으로 퍼서 줬다고 한다, 북조선엔 명태와 처녀가 넘쳐난다 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나눠줘도 창고에 쌓이는 양이 더 많아 썩어버리는 일도 있어 창고 단위로 썩은 걸 분류하고 남은 걸 강제할당해서 분배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명태를 주는 대로 받아가야 다른 배급품을 주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 다만 이 덕분에, 당시에는 명태 등으로 젓갈을 담아 판매하는 반찬가게가 생겨났다고 한다.

2.2. 소련 공산권의 붕괴와 북한 경제의 고난(1980-2000)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군 경제의 분리는 더욱 가속화되어 민간 경제의 비율이 축소되었다. 북한이 투입할 수 있는 상당수의 자원이 당·군 경제에 투입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인 독재

체제의 강화로 사회적 분위기 또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경직되기 시작했다. 현대화되는 한국군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이 병력을 100만 대군으로 늘리고 재래식 무기 보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것도 북한 경제에 있어서 잠재성장력을 대거 소모한 요인이 되었다. 이 시기는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소련도 계획경제의 한계에 따라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면서 사회주의권이 전반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석유파동과 이자율 급증에 따른 외채 문제는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부채질하였고, 이와 함께 북한의 대외 교역이 둔화되면서 경제적 대외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천명하면서 국가 전체예산 중 50%를 군수산업으로 전용하기 시작하면서 민간경제를 어렵게 했다. 이는 김일성이 소련의 원조를 기본 전제로 해서 예산의 비율을 이렇게 조정한 것인데, 앞서 말한 경제의 불황이나,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의 영향으로 소련이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만 전념한 나머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진 결과 북한 경제는 급격히 퇴락했다.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에 대규모 정책 실패와 군비의 과도한 확장 등이 겹쳐진 결과 북한의 경제적 황금기는 종식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북한의 경제 관료들은 축적된 외화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원료나 상품을 구입해왔기 때문에 배급제가 정상 유지되었고, 일단 그 동안 쌓아 올렸던 것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중국의 3배에 달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심 권력층은 이미 80년대 중반에 북한 경제의 파탄을 예견하고 있었다.

1989년에 폴란드 첫 자유총선에서 독립자치노동조합 ‘연대’가 압승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침체기에 빠진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그에 따른 동구권 공산국가들의 붕괴로 인해 북한제품을 수출할 창구가 사라졌고, 중국마저 덩샤오핑의

주도로 개혁개방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재의 수출입이 막혔다. 북한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소련으로부터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우호 가격’에 수입하였는데, 1990년 한·소수교와 1991년 소련해체로 석유수입이 일순간에 끊어진 것이다.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석유 회사들은 국제 시세에 따른 현금 결제를 요구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북한은 언제나 자력갱생과 민족자립을 외쳤지만, 실상은 동서냉전과 공산권의 분열을 이용해 제2세계에서 뜯어낸 원조로 경제를 유지했던 것이고, 이 구도가 무너지자 곧바로 북한 경제도 따라 무너지고 말았다.

1992년~1993년경까지는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료부족으로 정전이 발생하고 열차가 지연되는 등 경제난이 체감되기 시작했고, 라선 경제특구 프로젝트도 같은 시기 내부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난에 대북 투자를 주도할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별 성과가 없었다. 이 상태로 1993년 12월 8일에 북한 당국은 제3차 7개년계획이 실패했다고 공식 인정했고, 1994~1996년까지 완충기를 설정하며 농업-경공업-무역 3대 제일주의를 선포하여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다가올 위기를 깨기엔 역부족이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과 동시에 나라 전체가 마비되면서 ‘계획경제’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1995년 2월경부터 쌀값이 오르기 시작해 1kg에 50원하던 것이 3개월 후에는 230원까지 치솟았다. 1994년 12월 말부터 지방에서 대량 아사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평양에서 불과 100여 km 떨어진 곳에서 여름부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고 가을쯤부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몇 달 뒤 굶주림은 평양까지 순식간에 삼켰다.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외부에선 1995~1998년으로 보지만, 실은 1994년부터 시작됐다. 아사자 수는 300만 명이라 알려졌지만 100만 명 미만이라는

주장도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 주변 지역에서도 굶어죽는 사람들의 시체를 제대로 치울 인력조차 부족하여 밭에 채이는 시체를 그냥 두고 걸어 다녔다고 한다. 인구 17만의 김책시에서 하루에 무려 200명이 죽어나갔을 정도였다.

김일성 사망 이후 집권한 김정일이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집권자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이 보통인데 김정일은 식량을 자신이 직접 통제하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계층이나 자신의 정권을 보위할 군 위주로 배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의 권력은 공고해졌으나 수많은 아사자와 인명 피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는 1970년대 초부터 감지되기 시작한다. 사무직 성인 배급량 1일 700g(연 256kg)으로 20년간 유지되던 북한의 식량배급기준이 1973년 ‘전시 비축미’ 명목으로 13% 감량되어 1일 608g(연 222kg)으로 줄었고, 1987년에는 ‘애국미’ 명목으로 다시 10% 공제되어 1일 547g(연 200kg)으로 삭감되었다. 1992년에는 다시 군인을 제외한 전 주민들의 식량 배급 10%를 공제하여 1일 492g(연 179kg)으로 줄었다.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1995년 3월에는 350g 가량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1997년 이후에는 128g까지 감소하였다. 그 이후에는 이 양도 배급할 수 없어 아예 배급이 중단되고 북한의 식량배급제는 사실상 붕괴되고 만다(표 8-4)(이석, 2004a, 2004b).

표 8-4. 북한의 식량배급 기준 변화

기간	배급기준	사무직 성인 배급량
1955-72	정상 배급 최고 1일 900g(중노동자)에서 1,000g (영유아)까지	700g / 일 256 kg / 년
1973	'전시 비축미' 명목으로 30일치 배급량에서 4일분을 공제(평균 13% 감량)	608g / 일 222 kg / 년
1987	'애국미' 명목으로 10% 공제	547g / 일 200 kg / 년
1992	군인 등을 제외한 주민들의 경우 10% 공제	492g / 일 179 kg / 년
1995	배급 기준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실제 배급량은	350g / 일
1997	규정된 기준을 언제나 하회	128g / 일

출처: 내외통신사(편), “북한실상 종합 자료집”(1995), p.241: 오경찬,
“북한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다.”(서울: 대왕사, 1997), p.145

내부적으로는 그나마 생산된 양곡을 배분하고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멈춰 선 것이 가장 큰 타격이었다. 실제로 1995년 북한의 최대 곡창인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평년보다 좋은 작황을 보여서 쌀 수확이 매우 많았는데, 이 쌀을 타 지역으로 보내고 타 지역에서 다른 물자를 들여올 교통수단이 마비되어 몇 달 동안 말 그대로 쌀만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다. 해주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쌀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쌀을 갖고 있음에도 수많은 영양실조자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다음 해인 1996년에도 남포항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곡물이 산더미 처럼 쌓여 있었지만 북한 수송망의 핵심인 철도가 연료 부족, 전력 부족으로 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내륙으로 운송할 수 없었다. 결국 이 곡물들은 대부분 항구 하역장에서 그대로 썩어버렸다. 당시 북한에는 연료나 곡물을 수입할 수 있는 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1997년에 이르러서는 군수 산업이나 당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제 조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 단위는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90년-1998년 북한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4.1%에 달했으며, 공장 가동률은 20%에 불과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만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거의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는 북한을 권력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일부러 굶기는 나라로 분류하였다. 2008년 북한 전역에 파견된 UN조사단의 인구통계학적 조사에 의하면 이 시기 아사자는 30~40만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고난의 행군 등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인적 자원 손실은 300만에 이를 수 있다.

가구단위의 식량소비실태 파악에 의한 북한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북한 농업동향, KREI, 2004)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은 영양실조 어린이 7만 명, 임신부 또는 수유부 98만 명, 5세 이하의 어린이 230만 명 등 335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에도 고아원 어린이 3,400명, 취학 어린이 430만 명, 노인 260만 명,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 665,000명, 결핵환자 10만 명 등 766만 8,400명도 취약 계층에 속한다(표 8-5). 2003년 FAO와 WFP가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평가한 바에 의하면 공공 배급 제도에 의존하는 가구의 70%가 활동에 필요한 열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철호 등, 2012).

1998년 9월과 10월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북한 어린이 영양실태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바 있다. 그 당시 6개월에서 7세에 이르는 북한 어린이의 2/3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16%는 위험한 영양실조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고된바있다. 또한 1~2세 사이의 고아원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은 심각한 영양실조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8-5. 북한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1998)

심각한 영양실조 그룹		
영양실조 어린이	70,000명	
임신부 또는 수유부	980,000명	
5세 이하의 어린이	2,300,000명	합계 3,350,000명
영양부족 취약계층		
고아원 어린이	3,400명	
취학 어린이	4,300,000명	
노인	2,600,000명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	665,000명	
결핵환자	100,000명	합계 7,668,400명

자료: 북한농업동향, KREI, 2004

북한당국은 1995년 초 한국과 일본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했으며 UN 등 국제기구를 상대로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호소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2000년대에 들어와 다소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적정 곡물 수요량(1인당 1일 700g)의 65% 수준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절대 빈곤 속에 있다.

2002년 10월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북한 전역의 12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6,000가구의 7세 미만 어린이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양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4년 동안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표 8-6)(FAO/WFP, 2003).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크게 감소하였다. 조사대상 6,000명의 어린이 중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에 비해 몸무게가 현저히 가벼운 저체중(underweight) 어린이는 21%, 키에 비해 몸무게가 현저히 가벼운 급성영양실조(wasting) 어린이는 9%, 같은 또래에 비해 키가 현저히 작은 만성영양실조(stunting) 어린이는 42%였다. 1998년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유럽연합이 7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

3,984명을 대상으로 영양상태를 조사한 결과는 각각의 비율이 61%, 16%, 62%로 4년 동안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어린이의 비율은 2.7%로 1998년의 16%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나이에 비해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가벼운 어린이의 비율이 20% 이상이나 되어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는 아직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이철호 등, 2012).

표 8-6.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 비교(1998-2002)

	1998(3,984명)	2002(6,000가구)
저체중(underweight) 어린이	61%	21%
급성영양실조(wasting) 어린이	16%	9%
만성영양실조(stunting) 어린이	62%	42%

자료: UNICEF, WFP, 북한당국 공동 조사보고서, 2002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어머니들의 영양 상태는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었다. 1/3에 가까운 어머니들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크게 편차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가벼운 어린이의 비율이 남포와 평양의 경우 15%에 불과하지만 함경남북도와 량강도는 25% 이상이다.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어린이의 비율이 남포시의 경우 25% 이지만 함경남도는 48%에 이른다. 조사대상 10개 지역 중에서 2개 도시(남포, 평양)는 이 비율이 30%보다 낮지만 나머지는 40% 이상에 달한다. 키에 비해 몸무게가 가벼운 어린이의 비율이 남포와 평양의 경우 4%에 지나지 않으나 함경남도는 12%에 달한다. 대체로 도시지역보다 산간지역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이철호 등, 2012). 실제로 2015년 북한은 군 입대 시 신체조건 중 키 항목을 폐지하였다.

2.3. 고난의 행군 이후의 북한 경제(2000-2019)

2000년 북한 당국은 조선로동당 창건 55주년을 기념하며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 실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2002년에 7.1 조치 도입으로 장마당을 경제의 주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의 가격자유화 조치도 취해졌으며, 이후로도 2005년 배급제의 정상화를 선언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배급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시장의 도입으로 돈을 번 계층이 대거 등장하고 상당수 관료들도 부유해졌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북한의 경제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여 GDP의 30% 가량을 군사 부문에 몰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군사 부문에 대한 투자는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돈을 버리는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부정부패가 횡행한 결과 전력누수가 심해 군이 차지하는 비중만 기형적으로 커져 사회적 생산성과 안정성을 저해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미국의 대북 압박이 심해지고 경제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는데 1:100의 리디노미네이션, 옛 화폐에 대한 정해진 양(1인당 10만 북한 원)만큼의 교환, 그리고 옛 화폐 액수만큼의 공식 급여의 유지를 골간으로 하는 화폐개혁이었다. 이것은 정해진 액수 외의 현금을 전액 무효화하여 지하경제인 장마당 경제를 일소 시키고 그 자금을 국가가 갈취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화폐개혁이었다. 다른 재화의 생산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화폐 공급량만 폭증함에 따라 극심한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의 달러화(化)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실패한 화폐교환

을 기점으로, 북한 정권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상실하게 된 것은 물론 민심 이반도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당과 수령중심 단일체제에 일부 균열이 생기자 주민들이 중국과 남한 같은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 했다. 1990년부터 9년간 남한으로 탈북한 주민들은 488명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탈북자수가 더욱 급증했다(그림 8-2).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식량난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국내 입국자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입국경로도 다양화되고 가족을 동반한 집단 탈북 경향도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연간 입국인원이 1,000명을 넘었고, 2006년 2,000명을 넘는 후에는 매년 2천명 이상의 인원이 입국하여 2011년 12월 말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만 3,000여명에 달했다.金正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탈북자수는 현격히 줄어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29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탈북자 수는 남자 2,189명, 여자 8,228명으로 도합 10,41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이한 현상은 탈북 여성의 수가 남자보다 4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 특히 여성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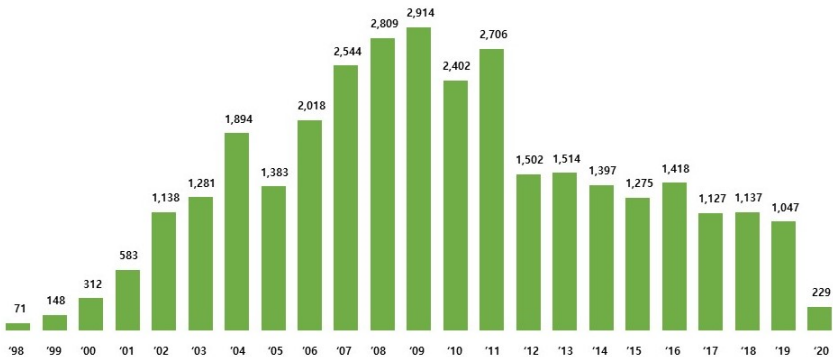


그림 8-2.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자료: 통일부; 이철호 등, 2012

2011년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면, 김정은은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김정일 시기 내각총리로 개혁개방을 추진했다가 군부의 반발로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박봉주가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는 2013년부터 3년째 내각총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정일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대남도발로 국제 사회의 지원이 완전히 끊겼음에도 2002년 7.1 개선조치로 장마당을 인정하고 일선 기업소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시장경제화를 진행하다가 불과 3년 뒤에 개혁과 경제관료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다시 통제로 선회하는 등 죽기 직전까지 계속 갈팡질팡한 데 비해, 그 아들 김정은은 사실상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하고 장마당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도권 아래로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일반인은 물론 간부들까지도 외화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했었는데 김정은은 외화 사용 제한 조치를 거의 해제했다. 더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 및 수산물과 노동력을 싼 값에 해외에 넘겨서라도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곡물이나 경공업품을 들여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큰 자연 재해도 없어서 북한 내 식량 사정도 김정일 때보다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히, 홍남비료공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비료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 시기 농업 기반이 워낙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되어 아직 자급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김정일 시대보다는 식량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에는 묵은 쌀이 아닌 햅쌀이 풀릴 정도로 작황이 좋았다. 그러나 2015년 북한은 라선시의 자연재해로 인해 세계식량계획(WFP)에 의하면 식량수확고가 대략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심각한 경제

난과 기아로 인해 자연환경도 파괴되어 홍수나 가뭄 등에 극히 취약한 상태이므로 일시적인 풍작을 결코 희망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김정일 시기의 개발 투자는 평양 및 수도권에 국한되었으나,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평양권뿐만 아니라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개발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발표된 지방 13개 경제개발구 지정과 2015년 원산공항 현대화 재개장이며, 특히 원산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지정, 원산공항 현대화, 송도원지구 정비 등 김정은과 김여정의 출생지라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자율경영관리조치를 도입하여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김정일 시대에 완전히 멈춰섰던 지방의 공장들도 다시 가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공장에서 출고하는 상품의 단가를 국정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에 출고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급료공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한편, 김정은 시기에 들어 외화를 갖고 있다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외화상점을 평양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만들고 있다. 이러한 외화 상점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평양에 있는 해당화관으로, 거의 호텔 아케이드 수준을 보인다. 평양 이외에 지방 도청 소재지나 국경 무역도시에도 이런 고급 외화상점을 계속 개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외화 상점의 개설은 그동안 북한 내 부유층이 숨겨두고 있던 외화를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외화가 시장에 돌아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유층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는 그 외화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주도로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다. 김정은은 그동안 중하위권 대학으로 인식되던 평양건설건재대학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 대학의 명예 총장까지 하면서 대대적인 건설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정은의 지시로 평양에는 40~60층

짜리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여명거리 신도시나 위성과학자지구 같은 신도시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건설 경기 부양은 지방에도 파급되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를 암묵적으로 허용하여 부동산 시장까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16년 연초에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논의 중 광명성 4호를 발사하는 도발로 인해 매우 강력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실행되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북한이 -4%의 성장률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오히려 근래 들어 가장 높은 3.9%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억압되었던 시장을 그나마 자유롭게 풀어준 효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돈주들이 나타나면서 100억 원대 자산을 가진 돈주만 100명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 경제 중심은 북한 경제의 시장화로 개인수공업의 생산규모가 국가의 생산규모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조동진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월 평균소득의 격차는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의 약 18배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하위 20%의 9배 정도였다. 따라서 북한의 빈부격차가 대한민국보다 2배 심하다는 평가이다.

2016년에는 북한이 동·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서 판매대금 7천 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정보당국은 “판매대금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동·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수는 실제 조업권을 부여받은 어선보다 더 많고, 마구잡이, 싹쓸이식 조업으로 동·서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2018년 7월 한국개발원(KDI)의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유니세프 보고서의 추정에 따라 영양실조를 분석하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의 평균적인 영양실조의 비중과 비교할 때 2000년대 중반

부터 이들과 비슷해지고, 그 뒤로도 영양실조는 개선되어 2010년대 후반의 북한의 상황은 이들보다 낫다고도 한다. 다만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경제 개선 조치에 성공한 농장이나 기업소, 지방에서는 식량이 남아돌고, 실패한 곳에서는 식량이 부족해 오히려 배급시절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추정이 있다.

1988년 7월 7일 남한의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남북교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이래 2006년에는 연간 왕래인원이 1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1년까지의 남북 인적 왕래 내역을 보면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금강산·개성 관광객 제외)은 98만 731명,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7,881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남북 교역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교역이 시작된 198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개성공단 조성 및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2005년에는 최초로 연간 교역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17억 9천 7백만 달러, 2010년에는 19억 1천 2백만 달러, 그리고 2015년에는 27억 1천 4백만 달러에 달했다. 남북 간 교역이 시작된 이후 2011년까지 누적 교역실적은 약 163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ICBM 발사시험으로 고강도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남북 경험은 크게 위축되었다(그림 8-3).

2019년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무역 총액은 28억 4,300만 달러로, 한국(1조 1,400억 6,200만 달러)의 401분의 1에 그쳤다. 이는 2003년(23억 9,100만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다. 또,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143만원으로, 한국(3,679만원)의 2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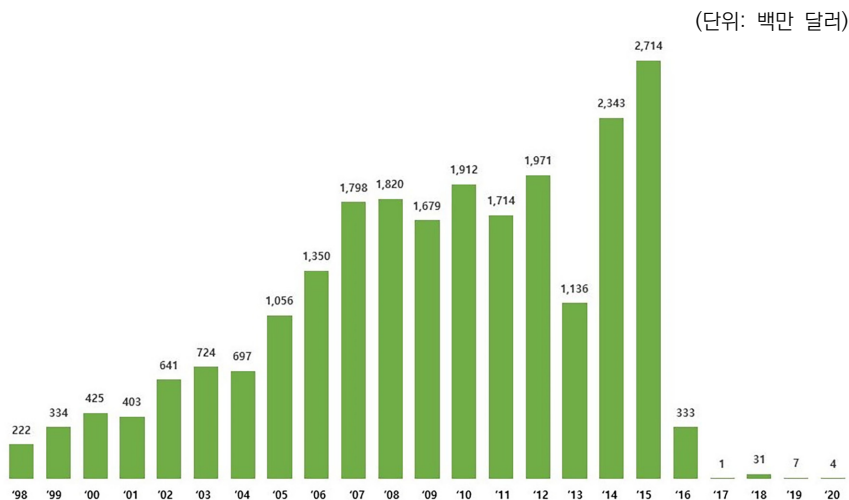


그림 8-3. 남북 교역액 현황(1994-2020)

자료: 통일부, 이철호 등, 2012

3. 남북한의 식량 및 영양 상태 비교

남한과 북한의 식량사정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남한은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공개된 경제체제인데 반해 북한은 통제된 계획경제체제이므로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자료가 제한적이며 신뢰도가 부족하다. 북한의 식량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있으나 서로 상이하며 각각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3.1. 남한의 식량 및 영양상태의 변화

남한은 전쟁 중의 기아상황에서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분유와 밀가루는 기아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 재료였다. 우유를 먹지 않던 한국 민족이 전쟁의 특수상황에서 우유를 먹도록 강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따라 1970년대 후반부터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우유의 소비 증대가 급격히 일어나게 되었으며 동물성 식품과 설탕을 선호하는 서구식 식사 습관으로 급선회 되었고 식량 자급도는 급격히 하락하게 된 것이다.

그림 8-4는 조선 말기의 문헌에서 밝혀진 전통 식단이 추구한 영양소 구성(총 에너지 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성비 77 : 15 : 8)과 비교하여 한국인의 영양소 구성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940~1960년대의 전쟁 중에는 영양공급의 구성비가 82 : 12 : 6으로 까지 악화된다. 이것이 1970년 후반 즉 후기 성장기에 와서야 비로소 조선 말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식사목표 수준인 75 : 12 : 13으로 회복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구성비는 유지류의 섭취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조선말기의 이상적인 영양소 구성과 큰 차이를 내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1985년의 공급 에너지 구성비를 보면 69 : 13 : 18로 우리의 전통 식단의 구성비에서 크게 변모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질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우유와 육류의 급격한 소비증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축산물 공급을 위한 사료곡물의 수입으로 식량자급률은 1970 년대의 80% 수준에서 80년대 후반에는 50% 수준으로 급락하는 원인이 된다(이철호 등,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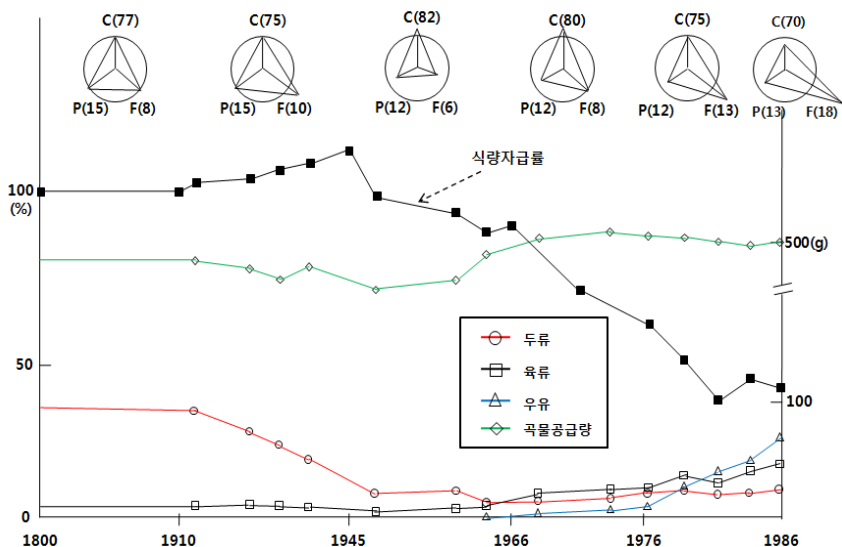


그림 8-4. 지난 1세기 동안의 한국인 1인 1일당 식량공급량,
에너지 공급 구성비 및 식량자급률의 변화

이와 같은 식사 형태의 변화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되는 대사성 질환의 발병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이철호, 2021).

동물성 식품의 소비 증가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되어 1995년에는 230g, 2005년도에는 279g으로 계속 증가하였다(그림 8-5). 한국인의 평균 식품섭취량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1980년도에 하루에 1인당 약 1kg의 음식을 섭취하였는데 2005년에는 1.3kg을 먹어 평균 섭취량이 25년간 3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식사량의 증가와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는 비만인구수의 증가와 성인병의 증가 등 국민 건강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2010)들어 식품 총섭취량과 동물성식품 소비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섭취가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이철호 등,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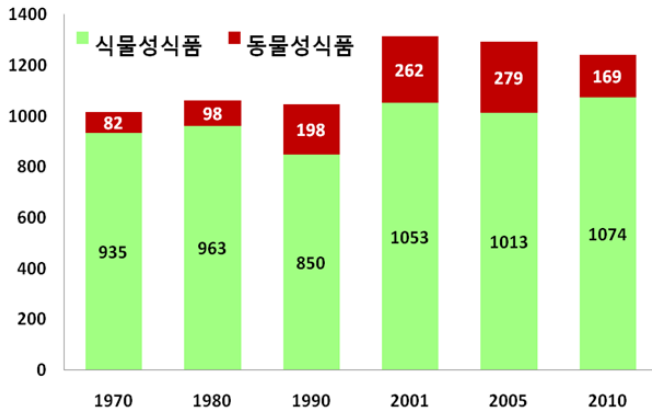


그림 8-5. 한국인의 식품섭취량과 동,식물성 식품 구성비 변화

1980년대 초 까지 남한 국민 한사람이 1년간 소비하는 쌀은 130kg이었으나 2010년에는 74kg으로 거의 1/2 수준으로 줄었다(표 8-7). 반면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은 6·25 전쟁 중에 미국의 원조로 밀가루를 먹기 시작했고 70년대부터 생산된 라면의 등장으로 제2의 주식이 되어 1인당

표 8-7. 남한의 식량 작물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단위: kg)

	1970	1980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10
곡류	219.4	195.2	167.0	160.5	153.3	144.0	138.0	133.4	135.5	134.4	132.5	125.4
(쌀)	136.4	132.4	119.6	106.5	93.6	87.0	83.2	82.0	80.7	78.8	76.9	74.0
(밀)	26.1	29.4	29.8	33.9	35.9	34.6	32.7	34.1	31.8	33.3	33.7	31.4
(보리쌀)	37.3	13.9	1.6	1.5	1.6	1.5	1.0	1.1	1.1	1.2	1.1	1.2
(옥수수)	1.1	3.1	2.7	3.3	5.9	5.7	6.2	5.6	4.9	4.6	4.6	4.0
콩	5.3	8.0	8.3	9.0	8.5	8.4	8.0	8.6	9.0	8.9	8.9	7.6
서류	10.2	6.3	3.3	3.0	4.3	3.4	3.2	3.1	4.2	3.5	3.3	3.4
기타	3.0	2.1	1.7	3.3	3.5	3.4	3.7	4.0	3.8	4.1	4.0	3.8

자료: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2011), 양정자료(2019)

연간 30kg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70년대까지 쌀 다음으로 중요했던 보리 쌀의 소비는 '80년대에 급격히 감소하여 지금은 거의 먹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많이 먹는 곡물은 콩인데 연간 일인당 8kg 수준 소비하고 있다.

남한의 비만인구는 1995년 남자 18.8%, 여자 22.2%로 전체 비만 인구는 20.5%였다. 그 후 비만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 인구의 31.3%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34.8%로 증가했다(이철호, 2019)(그림 8-6). 여성보다 남성의 비만율이 현저히 높아 2016년의 경우 여성 비만율이 26.4%인 것에 반해 남성 비만율이 42.4%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 체중조절을 열심히 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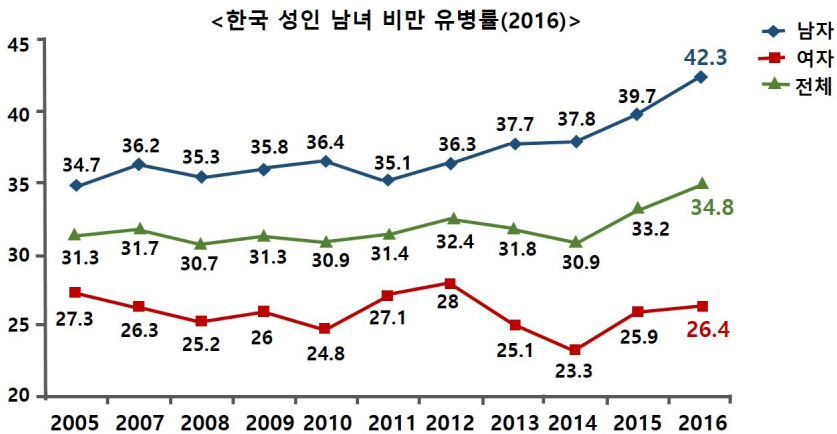


그림 8-6. 남한의 비만율 변화

출처: 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한국인의 사망원인의 변화 추세를 보면 1989년에서 2007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27% 증가하였는데 유방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2배, 대장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3.3배나 많아 졌다(표 8-8)(건강보험통계연보, 2009). 유방암과 대장암이 과다한 육류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표 8-8. 한국인 사망원인의 변화 양상(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1989	1998	2006	2009	1989대비 2009년 변화률(%)
순환기계통 질병	161.5	123.7	111.8	109.3	-32.3
암	105.0	110.8	134.0	140.5	33.8
위암	31.7	23.9	22.0	20.4	-35.6
간암	23.6	20.0	22.4	22.6	-4.2
유방암	1.6	2.1	3.3	3.8	137.5
대장암	3.9	7.0	12.8	14.3	266.7
당뇨병	9.4	21.1	23.7	19.6	108.5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 2009

잘 알려진 사실인데 한국인의 통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당뇨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품에너지의 과다섭취와 운동량 부족과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이 식량의 과다섭취 특히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는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떨어뜨려 식량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의 악화를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이철호 등, 2012).

3.2. 북한의 식량 및 영양상태 변화

농촌진흥청 추정 자료를 이용하여 1965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곡물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8-7과 같다(권태진, 2022). 2000년까지 옥수수 생산량이 쌀 생산량을 앞질렀으나 2000년을 고비로 쌀 생산량이 옥수수 생산량을 앞질러 2021년에는 쌀이 옥수수의 1.4배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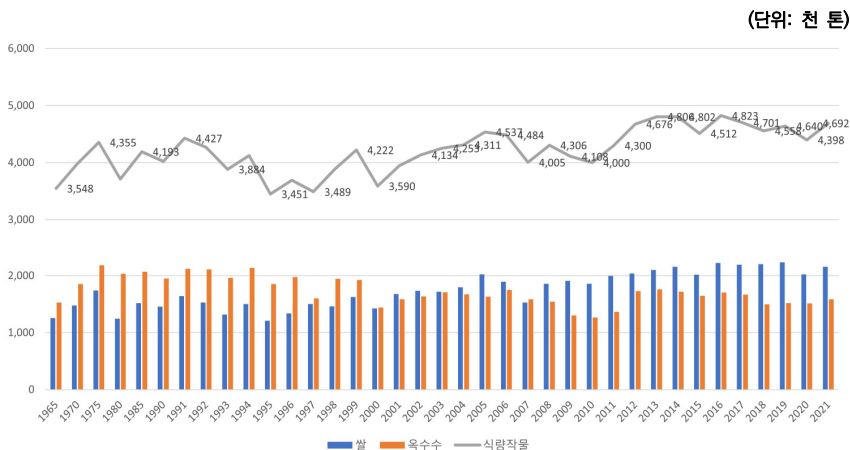


그림 8-7.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이

자료: 권태진(2022)

세계식량계획(WFP)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곡물 총 소요량은 2010년 인구 2,430만 명을 기준으로 식용 405만 톤, 사료용 30만 톤, 종자용 17만 톤, 가공용 12만 톤 기타 57만 톤으로 약 522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표 8-9) (FAO Statistical Yearbook).

표 8-9. 2010년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수요량 추정

(단위: 정곡 천톤)

용도		WFP 기준	비고
인구(만명)		2,430	연도 중간 인구
용도별	식용	4,058	기타는 수확 후 손실 등
	사료용	300	
	종자용	170	
	가공용	122	
	기타	570	
	합계	5,220	

또한 WFP/FAO/UNICEP의 특별보고서(2011)에 따르면 총인구 2,442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소비열량을 세계식량계획(WFP)이 최소열량 1,640kcal(2,130의 75% 및 곡류외의 식품 열량 추가)를 기준으로 식량의 총 소요량을 533만 톤으로 추정하고 국내생산 공급량 425만 톤에 비하여 과부족량이 약 106만 톤에 이르러 약 20%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표 8-10). 이러한 식량부족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2대 주곡작물인 쌀은 약 28만 톤, 옥수수 약 100만 톤, 대두 3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인 상업용 수입량을 약 20만 톤으로 감안 할 때 절대 부족량은 8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철호 등, 2012).

표 8-10.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2010/11)

(단위: 천톤)

	총 계	쌀	옥수수	맥류	기타곡물	감자	대두
총공급량	4,252	1,577	1,683	180	19	414	154
- 생산량	4,252	1,577	1,683	180	19	414	154
총소비량	5,338	1,858	2,680	180	19	414	186
- 식량용	4,250	1,466	2,253	141	15	230	147
- 사료용	150	0	75	0	0	55	20
- 종자량	219	56	23	21	3	113	5
- 손실량	541	237	252	18	2	113	15
재고구축	177	100	77	0	0	0	0
과부족	1,086	281	997	0	0	0	32
- 수입	200	66	110	12	-	-	12
절대부족	886						
-원조예상	44						

주: 추정근거

- ① 북한의 수확후 손실: 옥수수 15%, 곡류 10%, 감자 4%, ② 2010 추정 인구 2,442만(2008, 2,405만, 인구증가율 0.6%), ③ 1인당 식량소비량: 174kg(곡류 168kg, 콩 6kg), 이러한 소비량은 1인당 하루 열량 1640 kcal에 해당되며 기타 육류, 어류, 채소 과일 소비량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④ 종자소비량 22만톤: 벼 8.5만톤(57만 ha x 150kg/ha) 옥수수 2.2만톤(50만 ha x 45kg/ha), ⑤ 사료소요량: 15만 톤(2008년 18만톤), ⑥ 도정율: 65%(CFSAM 2010)

자료: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2011.3.24.), WFP/FAO/UNICEP

표 8-11은 1993/94 양곡연도부터 2005/06년 양곡연도 동안의 북한의 식량수급현황의 추이를 근거로 WFP가 권장하는 1인당 하루 섭취열량 2,130kcal를 기준으로 식량수급의 과부족량을 추적한 결과이다. 인구는

표 8-11. 북한의 식량 수급현황 및 과부족 추이(WFP 권장 2,130kcal 소비기준)

연도	인구 (천명)	소비량 (천톤)	생산량 (천톤)	과부족 (천톤)	도입량(천톤)		총공급 (천톤)	절대부족 (천톤)
					수입량	남한 지원량		
93/94	21,353	6,162	3,884	2,278	1,093	—	4,977	1,185
94/95	21,543	6,217	4,125	2,092	490	—	4,615	1,602
95/96	21,684	6,258	3,451	2,807	962	150	4,563	1,695
96/97	21,810	6,294	3,690	2,604	1,050	—	4,740	1,554
97/98	21,942	6,332	3,489	2,852	1,630	—	5,119	1,213
98/99	22,082	6,373	3,896	2,477	1,112	—	4,998	1,375
99/00	22,175	6,400	4,222	2,178	1,070	—	5,292	1,108
00/01	22,253	6,422	3,590	2,832	1,225	500	5,315	1,107
01/02	22,369	6,456	3,946	2,510	1,400	—	5,346	1,110
02/03	22,522	6,500	4,134	2,366	1,005	400	5,539	961
03/04	22,709	6,554	4,253	2,301	809	400	5,462	1,092
04/05	22,936	6,619	4,311	2,308	697	300	5,308	1,311
05/06	23,165	6,685	4,540	2,145	450	500	5,490	1,195

주: 과부족량=소비량 - 생산량; 총공급=생산량 + 도입량; 절대부족량=소비량-총공급량

① 인구는차년도인구(통계청, 남북한사회상비교, 2005)

② 품목: 쌀, 옥수수, 맥류, 두류, 잡곡, 서류(곡물환산)

③ 농촌진흥청 추정치 기준

④ 수입량: KOTRA 발표자료

⑤ 최소소요량: 1인 1일 최소식용배급량(500g)+기타소요량(150g)

⑥ 권장소비량: 2,130kcal/인/일 기준(608g/인/일: 222kg)+기타 식용의30%(182g)

자료: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2011.3.24.),
WFP/FAO/UNICEP

남한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로서 차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량을 추적 하였다. WFP가 기준 권장 열량인 2,130kcal를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연간 식량 소비량 222kg 소비할 경우 1993/94양곡연도에는 총 수요량이 616만 톤에서 2005/06년 양곡연도에는 668만 톤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을 농촌진흥청에서 추정한 북한의 식량 생산 추정치와 비교했을 때 과부족량은 209만 톤에서 285만 톤으로 연평균 약 244만 톤 씩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북한의 연평균 생산추정량 396만 3천 톤의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부족의 대응책으로 매년 상업수입과 해외 원조량에 크게 의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생산량과 도입량을 합한 총 공급량과 비교했을 경우 절대 부족량은 연평균 약 127만 톤으로 나타났다(이철호 등, 2012; Lee Cherl-Ho et. al., 2015).

북한의 곡물 수입량 통계자료를 보면 2005/06년의 13만 톤에서 2009/10년에는 28만 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간 중 평균치는 연 20만 톤의 곡물을 수입했으며 매년 6천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세계 곡물파동이 있었던 2007/08년 이후에는 곡물 수입액이 급격히 상승하여 2009/10년에는 1억 1,758만 불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었다(표 8-12).

표 8-12. 북한의 상업적 곡물 수입(2005-11년, 10월 · 11월)

양곡연도	평균가격(달러/톤)	수입량(톤)	수입액(달러)
2005/06	207	130,000	26,904,418
2006/07	207	170,000	35,182,700
2007/08	303	203,508	61,581,280
2008/09	355	175,937	62,440,925
2009/10	417	281,963	117,589,640
2010/11*	455	40,357	18,348,110
평 균		192,282	60,739,793

주: 2011년 1월까지의 수입

자료: 북한 정부와 조사단의 추산, WFP/FAO/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11.3.24)"

북한에서 수입한 식량은 주로 옥수수과 밀가루이다. 2008년-2010년 3년간 수입한 옥수수의 양은 연 89만 톤으로 추산되며, 밀가루는 연 5만 3천 톤으로 집계되었다. 쌀의 수입량은 2008년의 2만 톤에서 '10년에는 8만 3천 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전체 식량수입량은 2008년의 15만 톤에서 2010년에는 31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에 대한 양자간 식량원조 기록에 의하면 2005/06년에는 43만 톤, 2006/07년 42만 톤, 2007/2008년에는 13만 톤, 2008/09년에는 3만 톤으로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다(표 8-13)(이철호 등, 2012).

표 8-13. 북한에 대한 양자 간 식량 원조(2006-2010년)

양곡연도	지원국	품목	지원량(톤)
2005/06	대한민국	쌀	403,500
	인도	쌀	2,000
	중국	대두	33,695
총량			439,195
2006/07	대한민국	쌀	400,000
	중국	대두	23,610
총량			423,610
2007/08	대한민국	쌀	115,650
	중국	대두	17,450
총량			133,100
2008/09	미얀마	쌀	8,500
	캐나다	대두	200
	중국	대두	22,336
총량			31,036
2009/10	중국	쌀	690
	미얀마	쌀	1,500
	베트남	쌀	3,000
	캐나다	대두	260
	중국	대두	21,082
	중국	밀가루	100
	러시아	밀가루	9,982

자료: WFP/FAO/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11.3.24)"

한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많은 나라 가운데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의 지원이 함께 추진되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 1995년부터 2006까지 정부는 10억 6,60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민간 차원에서는 5억 8,2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총액 16억 4,8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권태진, 2022).

한국 정부 지원의 대부분은 식량과 비료 지원에 집중되었다. 식량은 무상 지원, 차관, 국제기관 경유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비료는 무상으로 지원되었다. 민간 차원에서는 식량을 비롯하여 비료,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을 무상 지원하였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개발 협력에 집중하였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한국은 쌀 265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제기구를 통해 옥수수 등 54만 톤을 우회 지원하였다(그림 8-8). 이외 한국은 비료 255만 5천 톤을 북한에 무상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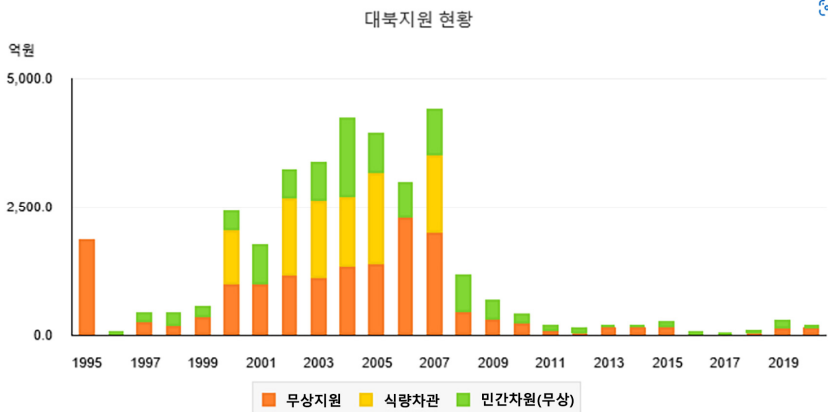


그림 8-8. 한국의 대북지원 형태별 연차 추이

자료: 권태진(2022)

3.3. 남북한 보건 영양 상태 비교

FAO 통계자료(Statistical Yearbook, FAO, 1980-2010)를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2010년에 이르는 남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을 비교하여 보면 북한은 남한의 2/3 수준인 2,200-2,300kcal 수준이다. 북한의 식품수급표

는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다른 통계들이 과장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을 확률이 많고 에너지 공급량이므로 실제 에너지 섭취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998년 식품수급표에 의하면 북한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8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2-4년 2,038 kcal, 1994-6년, 2,326 kcal로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8-9)(이철호 등,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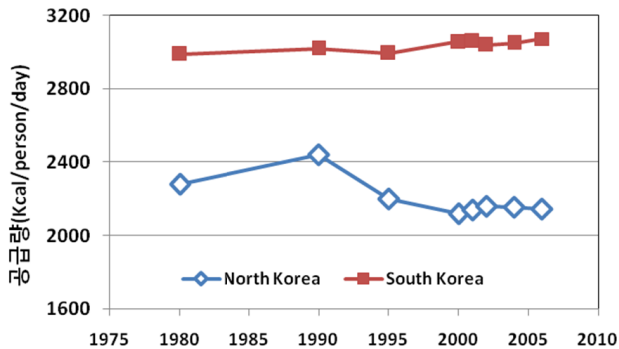


그림 8-9. 남북한 1인 1일당 식품에너지 공급량 변화

1998년 발표된 FAO/WFP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의하면 식량배급량 1일 406g에 근거하여 북한의 식품에너지 공급량을 1,578kcal로 추정하였다. 귀순자 면담자료, 귀순자 체위 비교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은 북한 주민의 1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600kcal 수준이다(Lim Gill-Chin and Chang Nam-Soo, 2003). 북한의 식품단백질 공급량은 199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1인 1일당 60g 수준에 있으며, 지방 공급량은 40g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림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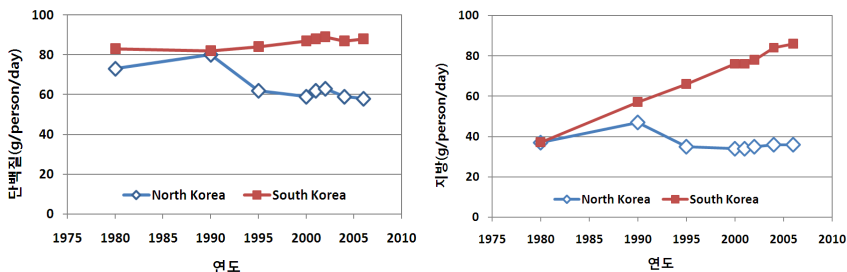


그림 8-10. 남북한 1인 1일당 단백질 및 지방 공급량 변화

신장은 영양, 보건 등의 시대적 환경 변화가 반영되는 요인으로 삶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 신장은 늘어난다. 특히, 남북한은 전 세계에서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1930년대에 조사된 한국인의 평균 체위를 보면 북부 지역(함북, 함남, 평북) 주민의 신장이 166cm로 남부지역(전라, 경상, 충청) 주민의 162.5cm보다 현저히 컸다(경성제대, 1983). 그러나 2005년 북한주민의 평균 신장(남 165.6cm, 여 154.9cm)는 남한의 경우(남 172.5cm, 여 159.1cm)보다 현저히 작았다. 1930년 이래 북한의 평균 신장 변화는 매우 미미하여 오히려 작아져 왜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8-14)(질병관리본부, 2005).

표 8-14. 남북한 주민의 평균신장 변화와 전망

구 분	1930년대(과거)	2005년 기준	
지 역 성 별	북부(함북, 함남, 평북) 166	남한	북한
	중부(평남, 경기, 황해, 강원) 163.37	남자 172.5	남자 165.6
	남부(전라, 경상, 충청) 162.51	여자 159.1	여자 154.9
출 처	○ 경성제대 『조선인의 생체계측, 1528명 조사』 1938	○ 질병관리본부 『탈북자조사』 2005 ○ 보건사회부 『국민건강영양조사비교』 20-39세 기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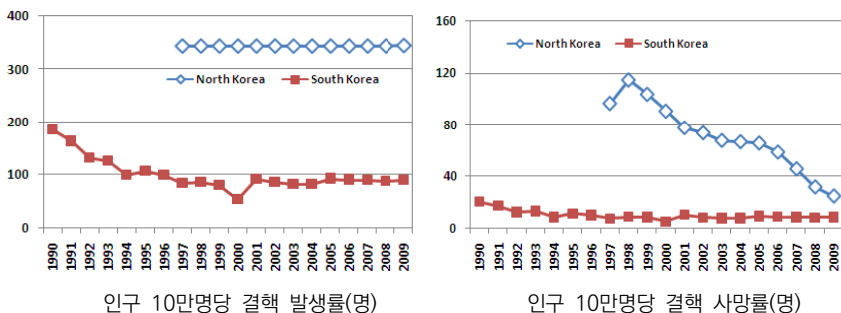


그림 8-11. 남북한의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현황

북한의 결핵 발생률은 1997년 인구 10만 명당 344명이었으며,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남한의 결핵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90명) 보다 3.8배에 해당한다. 북한의 결핵 사망률은 1998년 인구 10만 명당 115명에서 2009년 2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남한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그림 8-11)(이철호 등, 2012).

4. 한국인 식량 및 영양 최적화 모델

한반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수천년간 살아온 한국인들이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북한으로 나뉘어 70년 이상 전혀 왕래 없이 생활하면서 각각 특수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남한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2018년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으로 발전하였고, 북한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난으로 기초 대사량에도 못 미치는 식량배급으로 국제사회의 긴급 구호식량에 의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한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식량사정의 차이는 영양인류학(Nutritional anthropology)적 관점에서 흥미있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 국민들은 1일 평균 1.3kg의 식량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중 20%인 270g이 육류, 우유류, 어류, 계란류 등 동물성 식품이다. 식품에너지 섭취량은 2,000kcal 수준이나 그 구성비를 보면 탄수화물 65%, 단백질 15%, 지방 20% 수준으로 동물성 식품에 의한 지방의 섭취가 크게 늘었다. 과식과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 인구수의 증가(33%), 특히 어린이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대사증후군 성인병이 크게 만연되어 있다.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수입하면서 전체 식량에너지 자급률은 35% 미만으로 떨어졌고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2019년 기준). 그러면서도 식량의 30%를 쓰레기로 버리는 무절제한 낭비구조에 빠져들고 있다.

한편 북한 주민은 1일 500g 정도의 식량배급(주로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육류나 우유류 같은 동물성 식품의 섭취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인당 평균 섭취에너지는 1일 1,600kcal로 추정되며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한 폐결핵 등 영양 결핍과 관련된 질병이 만연하고 있으며 주민의 평균체위가 남한 국민에 비해 훨씬 낮아져 왜소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표 8-15는 한반도 분단 65년의 결과가 보여주는 양 진영의 영양인류학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8-15. 한반도 분단 65년의 영양인류학적 평가

	남 한	북 한
인구수(2012년)	5,000만명	2,442만명
(1945년 분단당시)*	1,600만명	900만명
인구증가율(2012/1945)	312%	271%
인구밀도(명/km ²)	497.1	197.4
농가인구(1,000명)	2,962(2011년)	8,573(2008년)
농가인구 비율(%)	6.0%(2011년)	36.8(2008년)
1인 1일 평균 식품섭취량(g)	1,300	500(+)
에너지 섭취량(kcal)	2,000	1,600
에너지 구성비(탄수화물:단백질:지방)	65:15:20	80:12:8
곡물자급률(%)	26	63
평균신장(cm, 남자/여자)	173/159	166/155
체중변화(%)	성인비만을 33	어린이 만성영양실조 42
결핵 발생률/사망률(명, 인구 10만 명당)	90/8	344/25
1인당 GDP(US\$)(2011년)	23,679	506
정치체제	개방형 자유민주주의	폐쇄형 공산사회주의

자료: 이철호 외,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2012), 통계청, *국가기록원

남북한이 각각 겪고 있는 과잉과 결핍의 문제를 분석 평가하여 이로부터 한국인을 위한 합리적인 식량 영양 최적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1980년도를 기점으로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0년도 곡물 자급률 73%에서 '90년 43%, 2000년 29%, 2018년에는 23%로 급감하였다. 쌀 소비량은 1980년 1인당 연간 132kg이던 것이 1990년 120kg, 2000년 94kg, 2010년 74kg, 2018년에는 61kg으로 감소하였다. 동물성 식품 섭취량도 1980년 1인당 1일 98g에서 1985년 183g으로 5년 사이에 2배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대사증후군 환자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북한의 영양결핍 못지않게 남한의 과잉섭취에서 오는 부작용 또한 고쳐져야 할 과제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부족과 과잉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영양보고서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량 연차 추이에 의하면 1981년도의 에너지 섭취량은 2,040kcal이며, 단백질 섭취량 69.9g, 지방 20.3g, 탄수화물 394.2g으로, 열량구성비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13.7%, 8.9%, 77.3%로 우리의 전통식단이 추구했던 영양목표에 근접하고 있다. 1986년의 에너지 섭취량은 1,930kcal로 열량구성비는 단백질 15.4%, 지방 13.2%, 탄수화물 71.4%이다. 지방에너지 구성비가 '81년의 8.9%에서 '86년에는 13.2%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대한 영양소별 섭취비율을 보면 1970년대에 비하여 '81년도에 영양섭취 상태가 뚜렷이 호전되어 칼슘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가 권장량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의 최적 식사섭취 기준은 1980년도의 섭취량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기준에 의하면 남한 국민의 쌀 소비량은 현재의 2배로 늘여야 하며, 동물성식품 소비량은 현재의 1/2로 줄이고 식품섭취량도 1일 1인당 1kg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철호 외, 2021; Lee Cherl-Ho, 2022).

참고문헌

- 권태진,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협력의 현재와 미래,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도서출판 식안연, p.301-370 (2022)
- 김낙년 편, 한국의 장기 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019)
- 이남택 외 10인, 사실로 본 한국 근현대사, 장병 전신교육 발전 연구위원회, 황금알 (2005)
- 이석, 1980년대 북한의 식량생산, 배급, 무역 및 소비: 식량위기의 기원. 현대

- 북한연구 제7권 1호 (2004a)
-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 (2004b)
- 이철호, 광복 70년 인생 70년, 도서출판 식안연 (2015)
- 이철호, 비만과의 전쟁, 도서출판 식안연 (2019)
-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도서출판 식안연 (2021)
- 이철호, 주용재, 안기옥, 류시생, 지난 일세기 동안의 한국인 식습관의 변화와 보건영양상태의 추이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3(4), 397-406 (1988)
- 이철호, 문헌팔, 최양도, 김용택, 유명애, 손홍식,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림연구보고서 5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09)
-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김세권, 박태균, 권익부,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도서출판 식안연, 서울 (2012)
- 질병관리본부, 탈북자조사 (2005)
- 통일부, 통일문제 이해(수정, 보완), 통일부 통일교육원 기본교재 (20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004)
- 한국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통계연보 (1987)
- Acemoglu, Daron and Robinson, James A., *Why Nations Fail*, 최완규 역,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시공사 (2012)
- FAO, Statistical Yearbook, 1980-2010
-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6-2003 (2003)
- Lee, Cherl-Ho, *Korean Food and Foodways*, Springer (2022)
- Lee, Cherl-Ho, Moon Huhn-Pal, Kim Yong-Taek, Kim Se-Kwon, Park-Tae-Kyun, Kwon Ik-Boo,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Sikanyeon, Seoul (2015)
- Lim, Gill-Chin and Chang Nam-Soo, *Food problems in North Korea*, Current situation and possible solutions, ORUEM Publishing House (2003)
- WFP/FAO/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2011.3.24.) (2011)

신(新) 냉전 시대의 식량위기와 한국의 대응

1. 초강대국에 대한 도전과 응전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세계 역사는 세계화, 자유무역,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자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는데 몰입했던 기간이었다. 비교우위 경제이론으로 세계 각 나라를 분업화하려는 서방 자본주의의 의도가 현실화되었고, WTO 무역자유화 세계에서 부의 편중 현상이 극에 달했다.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되었고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위기에 빠진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에 입각한 자유방임원칙을 신봉했던 미국의 자만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투자은행체제의 관리부실과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통화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동산 거품과 과도한 성장위주 정책이 은행들의 줄도산과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다. 금융회사들은 망했지만 관계자들은 폐부자가 되어 투기자본의 소유주가 되고, 99%의 국민은 일생을 금융 빚을 갚는데 바치는 소위 ‘자본주의 신노예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는 우려와 ‘자본주의4.0’이라는 재포장으로 견뎌보려는 마지막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부문화를 늘려서 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것으로 ‘공생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로 병들은 지구촌을 살리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 틀은 여전히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기존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의 대부분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커피와 카카오와 설탕을 생산하는데 동원되고 실상 그들의 식량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식량속국으로 허덕이게 되었다(이철호, 2012).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민주 통제국가들의 입지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혹자는 신냉전을 이전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자율과 다양성의 문명사회(또는 포용적 정치제도)와 통제와 경직성의 반문명사회(착취적 정치제도)의 체제경쟁으로 변화된 세계 구도로 규정하기도 한다.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던 시기가 이어졌다. 소련이 무너진 뒤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정권이 IMF의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여 러시아의 경제는 파탄 나고, 그 뒤를 이어 당시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식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완전히 몰락할 줄 알았던 러시아가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는 동안 고유가를 등에 업고 경제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소련 붕괴 직후 경제 파탄과 IMF에 대한 악몽이 러시아의 반서방 감정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푸틴 정권이 고유가를 바탕으로 러시아 경제를 복구하자,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푸틴의 인기와 지지도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8년 대침체 이후 전 세계 경제가 악화되자 러시아 경제도 이러한 악영향을 받으면서 푸틴의 인기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푸틴과 통합 러시아가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이미지가 악화된 푸틴이 다시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로마이단으로 우크라이나가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2014년 크림 위기와 돈바

스 전쟁을 일으키면서 서방 진영과 러시아의 관계는 크게 악화된다.

중국에서는 태자당의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에 이어서 국가주석이 된 이후 제3의 시황제 또는 제2의 마오쩌둥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공산당 일당 독재를 넘어서 시진핑 본인의 일인 독재 체계를 구축했고 중국의 경제 성장과 권위주의적 신 질서를 이용해서 서방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권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촉발된 대침제 여파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러시아를 집중 견제하는 동안 오히려 중국의 성장을 방치하였고, 오바마 정부의 소극적인 대 중동 외교정책을 러시아와 중국이 파고들면서, 시리아 내전 등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시기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들어갔으며, 중국의 홍콩 민주화 운동 강경 진압과 홍콩 보안법 제정, 신장 재교육 캠프와 2021년 신장 목화 논란 등 끝 모를 중국의 인권탄압이 드러났다. 2019년 12월 중국 우환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이 2020년 초반부터 세계 대유행으로 변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인해 세계 경제는 대혼란에 빠졌으며, 노동력 수급차질과 물류대란 등으로 농식품 생산차질과 경기침체로 세계 경제가 하향 국면으로 빠르게 내려앉았다. 이를 계기로 양 진영 국가들 사이의 상호간 적대감은 과거 미소 냉전 시대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신냉전의 시작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 경제위기에서 미국의 무력한 모습이 보이면서 1991년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로 시작된 탈냉전이 막을 내렸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통상적으로 탈냉전의 종식은 2008 베이징 올림픽과 남오세티야 전쟁, 그리고 대침체가 있었던 2008년 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2018년 설로 나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난

2022년이 결정적인 한계선이 된다. 세계의 곡창지대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곡물 흐름을 교란하여 세계적인 곡물 위기를 일으켰고 신냉전 시대의 위기감을 크게 증폭시켰다(표 9-1).

표 9-1. 신 냉전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국내 정세 변화

-
- 남오세티야전쟁, 2008.8.8. - 8.12. 러시아의 조지아(구르지아) 침공
 - 박근혜 대통령 취임, 2013.2.2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 유로마이단 혁명, 2013.11.22. 우크라이나 친서방 과도정부 수립
 - 해바라기운동, 2014.3.18. - 4.10. 대만에서 일어난 반중시위, 국민당의 실각.
 - 홍콩 민주화운동(우산혁명), 2014.9.28. - 12.15. 일국양제의 파기 항의
 -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논란, 2016. 중국의 한한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2016.12.9. 징역 25년, 벌금 300억. 2021년 12월 사면복권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17.5.10. 소득주도성장, 대북유화정책, 남북정상, 북미정상 회담
 - 미·중 무역전쟁, 2018.7. - 미국과 중국의 보복관세 전쟁
 - 코로나 19 팬데믹, 2019.12. - 중국 우환에서 발생, 2020년 3월 WTO 팬데믹 선언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2.2.24. - 세계 식량위기
 -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22.5.10. 상식과 공정,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었다. 광우병대란으로 동력을 잃은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정권을 넘겼으나 세월호 사고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촛불시위를 등에 업은 진보진영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나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실패로 진보진영의 재집권에 실패한다. 부동산 가격폭등, 탈원전 정책에 의한 국부손실, 운동권 인사들의 어설픈 국정운영 등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붕괴가 일어났다. 다행히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이 한국경제를 지탱하여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어갔다(표 9-2). 2021년 수출액은 6,444억 달러에 무역수지는 293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GNI 3만 5,000달러를 넘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들 중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6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했다.

표 9-2. 한국 수출입 통계(2011~2021)

(단위: 천달러)

년도	수출	수입	수지
2011년	555,213,656	524,413,090	30,800,566
2013년	559,632,434	515,585,515	44,046,919
2015년	526,756,503	436,498,973	90,257,530
2017년	573,694,421	478,478,296	95,216,125
2019년	542,232,610	503,342,947	38,889,663
2021년	644,400,368	615,093,447	29,306,921

2. 21세기 세계 식량위기의 엄습

2.1. 2007/2008년 세계 곡물파동

한국에서 광우병 쇠고기로 정권이 뒤집어질 것 같은 난리가 나는 동안 세계의 곡물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한국인들이 수입 쇠고기를 놓고 배부른 투정을 하는 동안 세계 각처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빵을 달라며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세계 30여개국에서 식량부족으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이티에서는 식량값이 폭등하자 일주일째 시위가 이어져 6명이 사망하고 자크 에두아르 알렉시

스 총리가 사임했다. 파키스탄의 제1도시 카라치에서는 3개월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세배가 뛰어 돈이 있어도 빵을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생필품 가게 앞은 빵을 사려는 사람들로 매일 난투극이 벌어졌다. 식량수출국이었던 파키스탄은 WTO 이후 인구의 반이 식량부족으로 시달리는 실정이며 식량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주식인 옥수수의 품귀로 일명 ‘포르피아 폭동’이 일어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콩 부족으로 식품회사들이 공장 가동을 중지하자 노동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이철호 2012).

2006/07 옥수수 국제가격이 전년의 톤당 100불 수준에서 170불로 급등했고 2008년에는 280불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소맥도 2007년의 톤당 200불 수준에서 2008년에는 440불로 2배 이상 뛰었다. 대두 가격은 2007년의 톤당 280불에서 2008년 560불로 2배로 뛰었다. 그림 9-1은 1961년부터 2012년 사이의 국제 곡물가격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이철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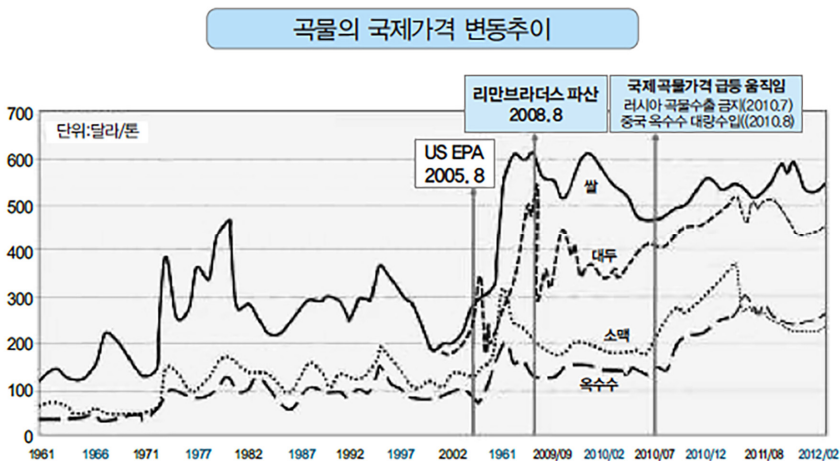


그림 9-1. 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추이(1961- 2012)

(1) 바이오연료와 식량의 경쟁

옥수수값이 오르면 농민들은 대두밭을 줄여 옥수수를 더 심게 되니 콩값이 연쇄적으로 쏠린다. 이와 같은 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유가격이 바렐당 100불을 넘으면 옥수수를 발효시켜 얻은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 석유의 국제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2006년부터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도에 바이오에탄올 생산으로 1,800만 톤의 옥수수가 사용되었으나 2005년에는 4,000만 톤, 2008년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1/3에 해당하는 1억 톤의 옥수수가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바이오연료의 생산 증가는 석유가격의 폭등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으나 이와 더불어 기후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저탄소 노력을 빌미로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바이오에탄올 생산 산업에 투입한 결과이다.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헨리포드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석유 가격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 휘발유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사탕수수가 풍부한 브라질에서는 1930년대부터 바이오 에탄올과 휘발유를 혼합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1975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과 이용이 촉진되었다. 2006년부터는 바이오 에탄올 20%를 혼합한 휘발유가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옥수수를 발효하여 얻은 바이오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섞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에탄올 10%를 혼합한 휘발유를 어디에서나 살 수 있고 이런 혼합 휘발유를 넣어도 이상이 생기지 않는 자동차 엔진이 보편화되어있다. 1990년대부터 바이오 에너지 비율이 0-85%인 연료를 사

용할 수 있는 FFV(flexible fuel vehicle) 자동차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옥수수 1톤당 336.9리터의 에탄올을 회수할 수 있으며, 1헥타(3,000평)의 땅에 옥수수를 심으면 2,132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다.

바이오연료의 사용은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 제4차 보고서 등에서 이산화탄소 저감화 방법의 하나로 권장된 사항이다.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에 의해 당질을 생산한다. 이 당질로부터 에탄올을 만들어 연료로 태워 대기중에 방출해도 식물 성장과정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을 넘지 않으므로 이산화탄소 중립이라고 보는 것이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지구 온난화 방지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종류 온실 기체의 법적구속력을 가진 배출감소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 15개국이 중심이 되어 인준하였으나 미국은 부시정부가 비준을 거부하였고, 한국은 2002년 11월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는 없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바이오연료의 사용이 필수적인 사항이 된 것이다.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유채와 팜 등 유지 작물의 생산이 확대되어 식량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있다. 2020년에는 세계 곡물의 13%, 식물성 기름 생산의 15%, 사탕수수의 30%가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였다(이철호, 2012).

(2)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금지와 수입국들의 고난

옥수수과 밀의 국제가격이 요동치자 각 나라들이 자국의 식량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식량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특히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우크라이나 등 곡물 수출국들이 식량 수출을 중지하거나 제한하자 거의 모든 식량 가격이 폭등했다. 2008년에 들어와서 쌀값의 변화는 거의 폭발적이어서 태국의 장립종쌀이 톤당 330불선에서 1,000불까지 올랐고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쌀도 톤당 600불에서 1,100불로 급등했다(그림 9-1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은 쌀 수출국이었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 쌀의 관세화 수입 개방을 허용하면서 값싼 수입쌀로 국내 쌀 생산기반이 붕괴되었다. 쌀시장 개방 후 10여 년 동안 값싼 수입쌀을 연 2-300만 톤 사들여 서민들의 식량사정은 크게 나아졌다. 그러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사정이 곤두박질친 것이다. 쌀값이 폭등하자 1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통령궁 앞에 모여 ‘아로요대통령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놀란 필리핀정부는 태국과 베트남에서 킬로그램당 1불을 주고 쌀을 수입하여 1/3 가격에 정부가 운영하는 쌀판매소에서 일 인당 일정량만 빈민층에 판매했다. 쌀판매소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쌀을 사려고 아우성이 났다.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어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섰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정부대로 쌀 보조금이 전년도의 15배가 증가한 10억 불을 넘으면서 국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듯 2008년의 곡물파동은 세계 30여 개국에서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모리타나, 수단,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등, 아시아 대륙에서는 필리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등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다. 식량폭동은 모로코와 예멘, 기니, 모리타니,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일어났다. 러시아는 6개월 동안 우유, 빵, 달걀, 식용기름의 가격을 동결했다. 태국은 식량공급의 가격을 동결했고, 인도는 일부 쌀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모로코에서는 식량폭동 혐의로 34명이 투옥되었다. 카메룬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24명이 죽고 1천5백 명이 부상당했다. 예멘에서는 폭동으로 12명이 사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만 명이상이 시위를 벌였다.

세계 식량수급이 불안해 지자 2007년에 인도가 처음으로 밀과 밀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였고, 뒤를 이어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파키스탄, 유럽연합, 호주가 밀과 보리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수출 금지를 선언했다. 2년간 극심한 가뭄을 겪은 호주는 긴급 조치를 발동하여 사료용 곡물의 수출을 제한했고, 유럽연합은 곡물의 수입 관세를 폐지했다. 파키스탄은 곡물 수출세를 받고, 세르비아는 밀과 옥수수의 수출을 금지시켰고, 브라질은 밀에 수출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는 밀과 밀가루의 수출을 금지시켰고, 최저 생산자가격을 인상해 주는 한편 수입관세도 철폐했다. 중국은 84개 곡물품목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취소했고, 57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물량을 제한하고 수출세를 부과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을 중단하거나 수출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유일하게 미국만은 곡물의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은 2008년의 곡물파동에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임이 확실하다. 옥수수를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하여 세계 곡물가격을 2배 이상 폭등시켜 미국 농민의 수입을 높이고 곡물메이저들의 배를 불리는 1석 2조의 효과를 낸 것이다.

2.2. 2010/11년 기상이변

2008년의 곡물파동은 다음해에 일어난 세계 금융대란으로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의한 세계적인 기상이변은 다시 식량위기를 몰고 왔다. 2009년 9월부터 반년 이상 비 한 방울 구경 못한 운남성, 귀주성, 사천성 등 중국 서남부 지역 5개 성은 100년 이래 최대의 가뭄으로 거의 재난 상태였다. 하천 500개, 저수지 310개가 고갈되었으며 피해면적은 한반도의 2배, 피해인구는 2천만 명에 달했다(이철호, 2012).

이어서 2010년 여름에 일어난 러시아의 가뭄과 대규모 산불로 국제 밀 가격이 200불에서 300불로 올랐고 러시아는 밀 수출 금지를 단행했다. 러시아 전체 곡물 파종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천 330만 헥타르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 추산된 피해액만 13억 8천만 달러였다.

같은 해 지구 반대편에서는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다. 7월에는 파키스탄에 80년 만의 최악의 홍수가 일어나 국토의 20%가 물에 잠겼고 2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장을 찾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다른 자연피해 현장을 본 적은 있지만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그 피해는 엄청났다. 2010년 12월과 다음 해 1월에는 건조한 대륙으로 알려진 호주 동북부에서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다. 퀸즈랜드에서만 70개 마을과 도시가 물에 잠겼고 20여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35명이 사망했다. 호주 동부 퀸즈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와 북부 타스매니아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엄청난 비가 온 것이다. 이것은 지구온난화로 높아진 해양온도와 ‘라니냐’ 현상이 맞물린 결과라고 한다. 그 피해가 너무 커 호주정부는 홍수세를 걷어들이며 피해민들을 지원했다. 호주의 밀 경작도 엄청난 피해를 입어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과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의 붕괴

이러한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 튀니지와 이집트였다. 이들 국가들은 그들의 주식인 밀을 주로 러시아와 호주에서 수입하여 먹었으나 이들 나라로부터의 밀수입이 막혀버린 것이다.

2011년 1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23년 철권통치를 하던 벤 아리 대통령이 굶주림과 학정에 성난 민중들의 유혈 시위에 밀려 국외로 탈출했다. 정변의 발단은 굶주리고 공권력의 폭력에 시달린 한 가난한 노점상 청년의 분신자살로 국민들이 봉기했고, 빵을 달라며 외치는 반정부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위 말하는 ‘재스민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재스민은 튀니지의 나라꽃이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주변 아랍국가들의 젊은이들을 자극했다.

이집트는 그 오랜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세계에서 빵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이다. 바게트의 나라 프랑스인들이 하루 평균 130그램의 빵을 먹는데 이집트인들은 무려 400그램을 먹는다. 이집트의 빵은 ‘아이쉬(aysh)’라 하는데 통밀 반죽을 화덕에 구워낸 것이다. 이 납작하고 둥글며 속이 빈 빵을 아침에는 뜯어서 치즈를 발라 먹고, 점심에는 샌드위치처럼 채소를 끼워 먹고, 저녁에는 양고기를 싸서 먹는다. 2008년 아이쉬를 굽는 상점들이 파업하자 정부는 긴급조치로 군대를 동원해 빵을 굽게 했다. 아랍어로 아이쉬는 ‘생명’이란 뜻이다. 이집트인들의 생명줄인 이 빵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밀가루를 제공하는 국영 빵집이 동네마다 있고, 8천만 인구의 반에 가까운 빈곤층 사람들이 민간 빵집보다 훨씬 값이 싼 이들 국영빵집에 매일 아침마다 줄을 서 빵을 산다.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집트의 아이쉬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집트에서 빵은 식량이기 전에 통치자와 국민이 맺은 일종의 계약이다. 통치자가 권력을 갖는 대신 국민들에게 빵만큼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이 계약이 깨질 때 이집트인들은 분노한다. 1977년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외자를 유치하려고 IMF가 주문한 대로 밀가루 보조금을 없애려 했다. 빵값이 급등하게 되자 도시마다 폭동이 일어나, 8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보조금은 유지 됐다.

4년 뒤 사다트가 암살되고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이 출범했다. 30년 장기 집권을 견디던 이집트인들이 다시 폭발한 것은 2008년 곡물파동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부족해진 시점이다. 국영빵집에서 아이쉬를 사려면 네댓 시간 줄을 서야 했고, 1인당 20개로 구매량도 제한 됐다.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은 정부가 군대 예산을 돌려 밀가루를 더 수입한 뒤에야 화를 풀었다.

2011년 1월, 3주째 계속된 카이로 반정부 시위대는 “아이쉬(빵), 호레야(자유), 카라마 인산나야(인권)”를 외쳤다. 이번에도 빵이 원인이 된 것이다. 지난 4·5년 동안 식료품값이 거의 두배로 뛰었다. 러시아의 가뭄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2010년 7월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집트의 연간 밀 수요는 1300만 톤인데 자급률이 46%밖에 안 돼 700만 톤의 밀을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해 먹었던 것이다. 이 수입선이 막히자 이집트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8월부터 이집트 신문의 머리기사는 빵값 얘기로 일관했다. 관영 알 아흐람은 “아이쉬 가격은 변함없다”는 제목 아래 정부가 프랑스와 24만 톤 밀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 통제가 덜한 민영 알 쇼루크는 “러시아 밀을 프랑스 밀로 대체하는 비용이 최대 12억불이나 된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집트 정부는 겨울에 밀을 수확하는 아르헨티나 밀을 수입하려고 남미공동시장과 급히 무역협

정을 체결했지만, 아르헨티나도 라니냐의 영향을 받아 작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호주도 100년 만의 대홍수로 밀을 사 올 수 없었다.

이제 기댈 곳은 미국밖에 없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고 이집트의 오랜 식량 원조국이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버냉키 의장이 경기부양을 위한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미국의 경기부양책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져 투자자들은 달러보다 현물 투자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집트가 밀을 구하지 못해 동분서주할 때 투기자금들이 앞다퉈 곡물시장으로 달려들었고 밀 값은 가파르게 올랐던 것이다(그림 9-1 참조).

그해 이집트의 식료품값은 평균 20% 이상 폭등했다. 아이쉬도 민간 빵집에서는 가격이 25%나 올랐다. 비싼 밀가루를 사오느라 재정압박에 시달리던 이집트 정부는 고품질빵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국영빵집 아이쉬 가격을 올리려다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다.

이집트의 반정부시위는 나날이 격화되었다. 1월 17일과 18일에는 튀니지혁명의 영향을 받아 3명이 분신자살했고, 25일에는 대규모 시위로 4명이 사망했다. 25일 이집트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했고 28일에는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 군 탱크가 진입했다. 2월 1일 100만 명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2일에는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2월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이집트 최고군사위원회가 열렸다. 무바라크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9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일부 권력을 술라이만 부통령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연설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 카이로 해방광장에 집결한 수십만 시위 군중들은 무바라크의 퇴진을 계속 요구했다. 11일도 해방광장에는 수십만의 군중들이 무바라크의 사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했다. 알렉산드리아, 수이스 등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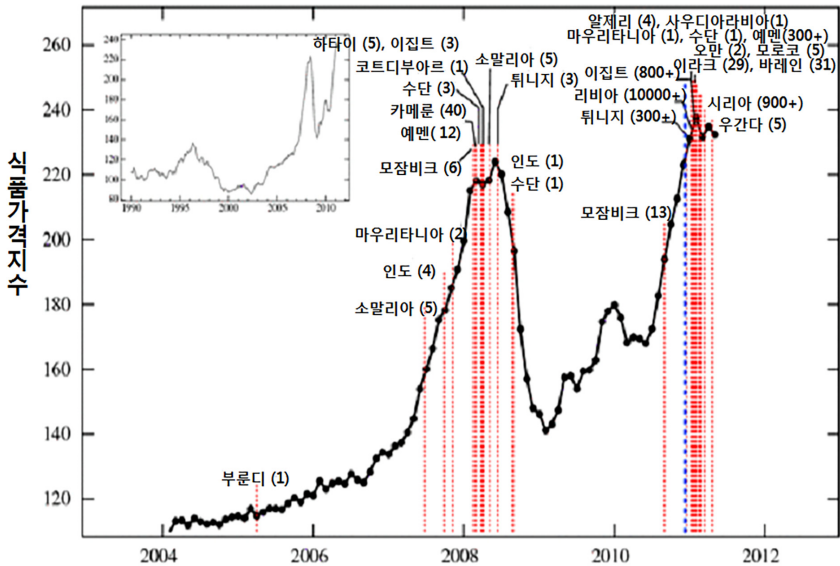
들에서도 수많은 시위자들이 거리에 나섰고, 이집트 전국에서 시위는 재차 고조에 달했다. 이날 술라이만 부통령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무바라크 대통령이 그 직무를 사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랍텔레비전 방송은 무바라크와 그 가족들이 이날 이집트의 시나이반도에 있는 샤름 엘 셰이크로 떠났다고 방송했다. 이로써 거의 100만에 달하는 민중들이 18일간 시위하며 요구한 무바라크 정권의 퇴진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제사회도 무바라크의 퇴진에 빠른 반응을 보였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집트 국민들의 광범위한 이익에 부합되는 이 힘든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무바라크의 퇴진은 민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집트의 정변은 주변 아랍국가들의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무바라크 정권 퇴진 다음날인 2월 12일 알제리와 예멘에서도 수천 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알제리아의 수도 알제에서는 야당세력들의 호소로 중심광장에 약 2,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10여 년 동안 정권을 지켜온 부테플리카 대통령에 대한 민주화 요구시위가 일어났다. 예멘의 수도 나사에서도 학생들의 주도에 부응한 시민 수천 명이 항의 시위를 벌여 20년 이상 장기집권하고 있는 살레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2월 말에는 리비아 사태가 내전 양상으로 번졌고 시리아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식량부족과 독재정권의 부패정치에 저항하는 시민 봉기가 북아프리카와 아랍지역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Lagi et al.(2011)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중동국가에서 2000년 이후 발생한 40여 건의 폭동은 모두 식량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9-2는 식량폭동이 일어났던 국가들과 해당 폭동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식량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소요보다도 더 과격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들 국가로부터 알 수 있는 식량폭동에의 경험은 안정적인 식량가격이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이철호 등, 2019).



()은 사망자 수

그림 9-2. 세계 식품가격지수의 변화와 저개발국의 식량폭동 발생 상황(Lagi et al., 2011)

(2)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재해

기상재해에 의한 농업 생산의 피해는 늘 있어왔던 일이다. 그러나 최근 기상재해의 빈도나 크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림 9-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기상재해에 의한 곡물파동은 7-8년 주기로 발생했으나 최근 그 주기가 빨라져 2010 이후에는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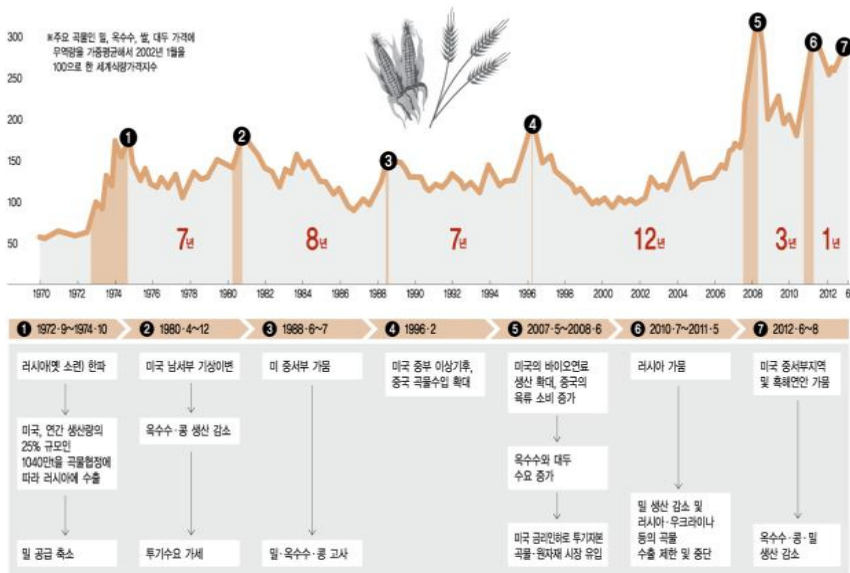


그림 9-3. 기상재앙에 따른 글로벌 곡물파동 주기(이철호 등, 2015)

2011년 가을, 텍사스 주 등 미국 서남부 축산 집산지에 대규모 가뭄이 발생해 축산 농가들이 기르던 소를 모두 팔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지역을 강타한 가뭄 때문에 목초지가 황폐해지면서 소 사료인 건초 값이 1톤당 80달러에서 200달러로 폭등했다. 여름 내내 비만 기다리던 소 주인들이 가을을 맞아 비싼 사료 가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자 3년 이하 연령의 소까지 끌고 경매소로 몰려간 것이다.

축산품 이외에 미국의 최대 수출 곡물인 옥수수·밀·땅콩도 이상기후로 큰 타격을 입었다. 2011년 봄에는 미시시피강 일대의 곡창지대에서 홍수로 360만 에이커(약 1만 4,569km²)에 달하는 경작지가 사라졌다. 여름엔 폭서와 가뭄이 겹치더니 초가을인 9월부터 서리가 내렸다. 11월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옥수수 작황은 지난 3년 이래 최악

이다. 11월 초 미국 정부는 2012년 옥수수 예상 수확량을 7월의 발표(3억 3700만 톤)보다 2,700만 톤 하향 조정했다. 2012년 미국의 가뭄으로 6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6주 동안 옥수수 가격은 50%, 콩은 20% 상승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미국의 가뭄에 의한 곡물가격 상승으로 다음연도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0.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국에서는 2011년 7월 이후 대규모 홍수로 전체 농경지의 12.5%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사정들로 인해 세계적인 ‘푸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계 식량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거나 심지어 이상기후로 생산이 줄어드는 반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육류(소·돼지)와 가금류(닭 등) 소비가 각각 2배, 4배로 늘었다. 이로 인한 옥수수(소 등의 사료) 수요는 10년 전보다 47배나 많아졌다.

이와 같이 수요는 급증하는데 식량의 생산은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후변화국제전문가회의(IPCC)에 의하면 세계 평균기온은 2030년경 1980/1999년 평균기온보다 0.4-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온도는 0.74℃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최근의 기상이변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엘리뇨 현상, 라니냐 현상 등을 일으켜 대규모 태풍과 해일, 집중 호우와 지독한 가뭄을 계속 몰고 온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의 보고(IPCC, 2007)에 의하면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550ppm일 때 지구평균온도가 2℃ 증가하는데 현재 농도는 이미 385ppm을 넘었다고 한다. 만약 현재 추세대로 온실기체가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21세기말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3.5℃ 증가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지구상의 생물종 40-70%가 멸종하며, 해수면이 넘쳐 수천만의 이주민이 발생하고, 아프리카에서는 2억 5천만 명이 물

부족 사태를 겪게 된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급속히 녹아내리고 있다. 2007년까지 남극과 북극에서 녹아버린 빙하는 100만 평방마일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50년 전에 있던 빙하의 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양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의 높아져 남태평양의 일부 섬들은 이미 물에 잠기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식량생산에 미치는 가장 심각한 피해는 해양에 접한 경작지의 유실과 염분에 의한 농지의 감소이다. 2030년이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대부분 녹아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며 남북극지역의 영토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상의 육지는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고, 그만큼 해안가와 강 하류의 비옥한 농지들이 없어지게 된다.

지구온난화는 시베리아와 캐나다 북부의 식량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벼의 생육기간을 단축시켜 수확량을 낮춘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벼의 생산성은 약 1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맥류와 각종 과일, 그리고 호냉성 채소의 재배적지가 북상하게 된다. 프랑스의 포도밭이 사라지고, 한국의 고랭지 배추 재배가 타격을 입게 된다. 해수의 온도 상승은 어족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기존의 어장들은 없어지거나 위치를 바꾸게 된다. 이미 동해안의 명태잡이가 사라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2080년에는 세계의 곡물생산량이 지금보다 0.6-0.9%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지역별로 생산량 증감에 차이를 보이는데, 북반부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곡물생산은 2.7-9.0% 증가하나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3.3-7.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의 곡물생산은 오히려 5.2-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곡물생산은 2.5-7.8% 감소하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3.9-7.5% 감소한다. 특히 남아시아 지역의 곡물생산은 크게 낮아져 18.2%-22.1% 감소할 것으

로 추산된다. 이 기간 동안 세계의 인구는 지금보다 2배가량 증가하며, 그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의 인구 증가에 기인한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식량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 된다(Tubiello and Fischer, 2007).

2.3. 가축전염병의 만연과 대규모 살처분

지구촌 세계화의 부작용 중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 가축전염병의 만연이다. 지역간, 대륙간의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전염성이 강한 가축 질병들이 끊임없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조류독감(Avian Influenza, AI),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소해면상뇌증(BSE)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전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전파력은 낮으나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 방역 방법은 발병지역으로의 출입 이동제한, 철저한 소독과 살처분 등이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살처분 명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가축 전염병의 특정 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가축 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발병 농가로부터 최대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농가의 동물이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축 살처분은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동물을 죽여 없앴으로써 전염병의 전파를 막는 일종의 예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1) 구제역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각종 우제목 동물에서 발병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이다. 감염된 동물의 침, 정액, 수포액, 분변에 오염된 물을 먹거나 직접 접촉되는 경우, 또는 사람, 차량,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동물에 전파되거나 감염된 동물이 숨쉬거나 재채기 할 때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된 동물을 발견하면 접근을 제한하고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명확한 치료법이 없으며, 발생하면 육류 수출이 전면 봉쇄되므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과 백신미접종 청정국으로 나누는데, 한국은 2010년까지 구제역 백신미접종 청정국이었다가 청정국 지위 상실 후 2014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을 인정받았다가 2017년 다시 구제역 재발생으로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다.

한국에서는 1934년 처음 발생했으며, 이후 66년 만인 2000년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발생해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혔다.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5월에도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약 16만 마리를 도살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2010년 11월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발생 약 2주 전에 안동축협 이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베트남 연수를 다녀온 다음날 대규모 축협회의에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제역 사태는 2011년 1월 6일을 기점으로 하여 6개 시·도 46개 시·군으로 늘었으며 94만 8,364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재정 소요액은 살처분 보상금 6,800억 원을 포함해 8,100억 원에 달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소·돼지 35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으며, 국가재난으로 선포되었다(표 9-3). 이 과정에서 대관령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던 수 백 마리의 젓소를 생매장해야하는 비운을 맞았다.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추진한 정부의 지나친 살처분 정책으로 가족처럼

애지중지하던 소들을 잃은 것이다. 대관령목장을 조성하여 평생을 축산 강국을 위해 노력했던 삼양식품의 전중윤 회장은 그 충격이 너무 커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다(이철호, 2020).

표 9-3.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매몰된 소와 돼지 마리수

지역	매몰 두수(마리)	매몰지(곳)
경기	173만 5,502	2,202
강원	41만 3,330	470
충북	33만 6,623	229
충남	46만 6,150	407
전북	1만 2,531	2
경북	42만 8,660	1,124
경남	5만 9,892	73
인천	2만 2,914	64
대구	671	3
부산	646	2
대전	2,150	1
울산	893	8
합계	347만 9,962	4,583

자료: 2010~2011 구제역 백서

방역을 맡았던 공무원 두 명이 과로로 인해 숨졌으며 매몰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30여 명이 과로와 심리적 외상으로 쓰러지거나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황성군 한우, 한우령 등 강원도에서 내세우고 있던 모든 청정 한우 브랜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 여파로 정육업체 및 요식업체의 타격은 물론이고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 일대의 각종 신년맞이 축제가 취소되는 등 후유증이 심대했다.

그 이후에도 2016년 1월 전북 김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2017년 2월에는 충북 보은군과 전북 정읍시에서 구제역에 발생했다. 이때에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발생해서 항체 형성능력이 적은 ‘물백신’ 논란까지 다시 불거졌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발생 농장의 모든 소를 살처분하고 방역 소독과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2) 조류인플루엔자

주로 닭, 오리 등의 조류에 발병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며, 인간에게 옮을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옮으면 치사율이 30%~60%에 달한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므로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은 익혀서 먹으면 안전하다. 다만 식당에서 오리를 사용한 집기를 다른 곳에 사용하여 묻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조류독감에 걸린 닭은 계란을 낳지도 않고, 일단 조류독감이 발견되면 인근 지역을 방역대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가금류와 알 등을 모조리 살처분 및 폐기해버리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금류 농장은 AI가 발생하면 안락사 후 매장, 알류 및 사료, 약품류 역시 폐기처분한다. 반경 3km 이내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는데, 마대자루에 5~6마리씩 산 채로 담아서 미리 파놓은 큰 구덩이에 던져 넣고, 흙을 덮어 처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과 2006년에 발병했으나 이때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진정되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중순 전라남도 해남군, 충청북도 음성군 농가에서 잇따라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에 정부는 수도권, 충청, 호남 등 서해안지역에 이동제한을 발령했다. 4년 6개월 만에 회복한 청정국 지위를 다시 잃게 되었다. 이후에도 더욱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시켰으며, 가금류 사육농장 방문과 주요 철새도래지의 출입 자제 등의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2016년 11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일 동안 2,614만 가금류가 살처분 되었다. 2017년 한 해에 AI로 살처분된 오리 마리수가 3,380만 마리로 집계되었다.

그 이후로 조류독감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발생해 왔으며 대부분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60년대에 처음 발생했다가 포르투갈은 1993년, 스페인은 1995년에 박멸되는 등 이 질병을 근절하는데 30년 이상이 소요됐다. 그 이후 유럽에는 없어졌다가 2007년에 조지아에서 다시 발병하면서 동유럽으로 확산됐으며, 현재 동유럽과 러시아 등지에 풍토병으로 남아 있다. 그러다 2018년 8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이후 중국 전 지역과 몽골·베트남·미얀마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었다. 중국에서는 돼지의 사료로 식당폐기음식물을 사용하는 것이 발병의 원인으로 판단하여 음식폐기물의 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옥수수의 수요가 급증하여 세계 옥수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로 유입된 경위를 보면 2019년 5월 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비무장지대(DMZ)를 넘어오는 멧돼지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방역당국은 철저한 방역을 가했으나,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발생국이 됐다.

2022년 5월 홍천에 이어 양구의 한 양돈농장에서 이 전염병에 걸린 돼지가 확인되었다. 8월 18일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10마리가 양성으로 판정 났으며, 바로 이튿날인 19일부터 20일 사이에 농장의 사육 돼지 전체를 살처분했다. 살처분 처리 규정에 따라 양구지역의 돼지 5,614마리가 살처분 되었다.

현행 살처분 처리규정은 무리한 살처분으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의 살육을 강제하는 경제적, 윤리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살처분은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강도 높은 업무 부담, 매몰 토지 확보, 매몰지역 병원균 발생 가능성, 지하수 오염, 침출수 문제, 축산농가 보상비용 등 대량의 동물 사체 발생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동반한다. 2018년 7월 국회에서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진단’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예방적 차원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수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000만 마리를 넘겼고 보상금 규모는 2조 1,97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실로 막대한 양의 식량이 폐기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

최근의 세계적인 가축전염병 창궐은 기업형 축산으로 밀집 사육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며 동물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입 곡물로 사육한 가축을 대량 매몰 살처분하는 식량손실과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살처분 참여자들의 심리적 외상(트라우마)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4.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식량위기

2019년 12월 중국 우환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과 3개월 만에 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를 공포와 뉴노멀 시대로 몰아갔다. 전염병의 공포가 여행, 외식, 모임을 기피하게 하고 정상적인 작업과 근무에 차질을 가져오면서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수송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일부 식량 수출국들이 자국의 식량비축을 늘리면서 수입국들의 식량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식량안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난 2020년 3월 30일 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의 아래 기사는 당시의 사태를 잘 묘사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과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운송과 생산활동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식량안보를 위해 새로운 무역 파트너십과 지역 내 농업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으로 사재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식량 수출국 가운데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많은 나라의 식품 생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았으나 출입국 제한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을 못 해 생산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올 봄철 작업이 한창일 때 해외에서 농업기능실습생을 확보하지 못해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는 품목·지역을 대상으로 로봇·AI·IoT 등의 활용에 의한 농사일의 자동화 등 스마트 농업기술을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2위의 농림수산물 수입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코로나19의 폭발적 감염과 이동 제한 등으로 식재료의 수확·유통이 막혀 수입이 크게 줄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 식품 공급망에 큰 지장을 주며, 특히 주요 생산국에서 수출 제한을 늘리면 자체 생산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식품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식품 전문가는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쌀·밀의 자국 생산량이 많아 심각한 공급 부족 없이 안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콩과 같은 특정 작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부담 과중으로 연결된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는 “봉쇄로 인한 해상 물류 산업 둔화 등 식품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물류 분야의 붕괴(Disruption)는 추후 몇 달 안에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유엔 세계 식량안보 위원회(UN Committee of World Food Security)는 “국경 차단 및 공급망의 붕괴가 식품 공급 시스템에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쌀, 밀과 같은 주식의 수출 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상하이 통지 대학교(Tongji University in Shanghai)의 교수(Cheng Guoqiang)는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발생하는 메뚜기 떼의 위기는 식품 생산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 식품 시장의 사재기, 수출 제한과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 식품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심각한 세계 식량 위기로 이어져 중국 및 신흥 국가의 식량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27일,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곡류를 비축하고 3월 말까지 새로운 수출 계약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태국은 계란의 내수 수요 급증 및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2배 상승하자 1주일 동안 수출을 금지했다. 홍콩은 쌀 수요의 80%를 베트남과 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홍콩의 대형 슈퍼마켓에는 필수품을 사기 위한 주민들로 붐볐다. 3월 30일, 홍콩 다수의 대형 유통매장에서 쌀은 품절됐다. 많은 매장에선 쌀 최대 2봉지, 계란 2상자(two bags of rice and two boxes of eggs) 등 구매에 제한을 두기도 했다. 이로 인해 홍콩에선 추가적인 수출 규제와 식량 부족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슈퍼마켓의 텅 빈 선반과 매장 밖으로까지 구매를 위해 줄을 선 소비자의 이미지는 전 세계의 마스크를 통해 방송되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공급망이 유지되는 한 큰 부족을 예상하지 않는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봉쇄 조치로 인해 식량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얼마나 심각할지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연구소 맥크리들(McCrindle)은 호주는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사재기로 인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료품 매장에서 빠르게 제품이 소진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적시(just in time) 유통이다. 호주는 2월까지 6개월간 지속된 심각한 가뭄에도 생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가장 큰 문제는 불안감

에서 오는 사재기라고 지적했다. 맥크리들이 3월 19~23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명 중 4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행동 변화를 보였다. 응답자의 6%는 사재기를 했으며, 이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잃기에 충분했다. 응답자의 약 30%가 사재기 현상에 영향을 받아 평소보다 많이 샀다고 답했다”(박태균, 2020; 이철호 등, 2021).

코로나19 유행은 식료품 생산 및 유통 체인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최종 소비자에게 완제품인 식료품의 공급 부족을 일으키고 있지만, 식품 원재료의 1차 생산자에게 과잉생산으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미국에서 가장 큰 소고기 가공생산업체인 JBS USA Holding LLC의 CEO, Andre Nogueira는 미국 내 육류 생산량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사는 브라질에 본사를 둔 육류 대기업으로 미국에서 사육하는 소의 약 23%를 도축하고 있었다. 대규모 육류가공시설에서 종업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육류 가공시설이 임시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감소했다. 미국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육류 공급을 위해, 지난 4월에 육류가공시설을 ‘critical infrastructure’로 언급하며 계속 운영을 촉구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령되기도 했다. JBS는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위스콘신 등에 있는 공장의 운영을 재개했으나, 정상적인 생산량의 70~95%만 생산하였다. 이런 육류 가공시설의 생산량 감소는, 축산업계를 비롯한 생산자,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국 메인주와 아이다호주의 감자 농가도 육류 생산자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레스토랑이 폐쇄되고, 대규모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생산된 감자의 판매처를 찾지 못해 메인주에서 2억 파운드의 감자가 버려질 위기에 놓였다. 감자의 경우, 사용 용도별로 품종이 다각화되어있어, 생산된 감자의 처분이 더욱 어렵다.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해 5% 이상의 손실을 경험한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램(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 CFAP)’을 발표했다. 연방용으로 남은 농산물을 32조 기금(Section 32 funds)으로 사들일 예정이며, 이 중 5,000만 달러가 감자에 배정되었다. 생산자는 충분한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하고, 소비자는 중간 생산업체의 폐쇄 및 생산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식료품 공급망에서의 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철호 등, 2021).

코비드(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의 뉴노멀을 생활화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식량생산과 공급 및 소비행태에서 큰 변화를 초래했다. 코비드19 팬데믹에 의한 식량위기는 첫째, 곡물수출국의 수출제한 및 소비자들의 사재기, 둘째, 인력공급 차질에 의한 물류 불안정, 셋째, 경기침체에 의한 소득 감소 및 빈민화를 주 요인으로 들고 있다. 팬데믹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물류대란이다. 이로 인해 식량의 공급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식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결핍과 기아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이유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0년 세계 영양부족 인구수를 전년도에 비해 15% 증가한 8억 1천만 명으로 추산하였으며 영양 부적합 인구수는 24억 명이라고 발표했다(FAO, 2021).

2.5. 우크라이나전쟁과 식량무기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27%, 옥수수 수출의 19%, 해바라기유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다. 이들 두 나라가 2022년 2월말 전쟁을 벌이면서 한 달 사이에 세계 밀 가격이 37%, 옥수수 가격이 12% 상승했다. 전년대비 가격으로 는 밀 72.2%, 옥수수 35.3%, 대두 18.1% 상승했다(표 9-4). 러시아는 밀, 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수출을 일시 중단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국 (E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에 대한 밀, 보리, 옥수수 등 곡물의 수출을 6월 30일까지 일시 중단했다. 우크라이나는 밀, 귀리, 수수, 육류의 수출을 2022년 연말까지 금지했다. 이러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집트는 밀, 밀가루, 콩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헝가리는 모든 곡물의 수출을 즉각 중지했다. 터키도 곡물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제한을 강화 했다. 이 사태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식량수출을 동결하거나 사재기를 하여 세계시장에서 곡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넘게 식량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그 충격이 더욱 크다.

표 9-4.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미 가뭄으로 인한 곡물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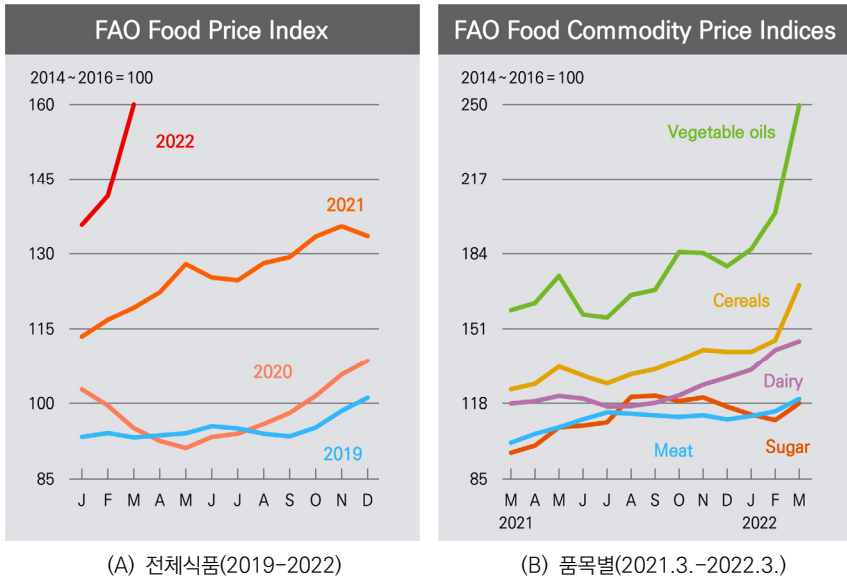
(단위: 달러/톤)

구분	2022년 3.14일	전년	평년	증감율	
				전년	평년
밀	403	234	180	72.2%	123.9%
옥수수	295	218	147	35.3%	100.7%
대두	614	520	361	18.1%	70.1%

출처: 시카고 선물거래소(5월물) / 평년 최대·최소 제외 5년 평균

그림 9-4는 FAO가 발표하는 세계 식량가격지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4A의 전체식량 가격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100에서 135 수준으로 상승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3월에는 157로

급격히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식물성오일 가격지수가 200에서 250으로 가장 크게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곡물가격지수가 150에서 170 수준으로 급상승했다(그림 9-4B).



(A) 전체식품(2019-2022) (B) 품목별(2021.3.-2022.3.)
그림 9-4. 코비드19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세계 식품가격지수의 변화

(1)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의 식량사정

러시아는 세계 밀 2위 수출국(15.8%)이며 우크라이나는 밀(9.8%)과 옥수수(13.8%) 4-5위 수출국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이들 두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곡물 수입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9-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7-2021 기간중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식용 밀을 수입하지 않았다. 콩의 수입도 미미한 수준이다.

표 9-5. 국내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량 현황(최근 5개년)

(단위: 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밀	전체	식용	2,390,289	2,330,758	2,405,193	2,500,437	2,503,114
		사료	1,762,592	1,462,323	1,192,799	1,109,558	1,829,659
		소계	4,152,881	3,793,081	3,597,992	3,609,995	4,332,773
	러시아 (7위)	식용	-	-	-	-	-
		사료	115,197	491,548	8,336	37,258	116,124
		소계	115,197	491,548	8,336	37,258	116,124
	우크라이나 (5위)	식용	-	-	-	-	-
		사료	896,181	764,541	603,145	473,279	287,619
		소계	896,181	764,541	603,145	473,279	287,619
옥수수	전체	식용	2,302,582	2,363,588	2,380,973	2,123,533	2,286,167
		사료	7,006,730	7,791,423	8,973,899	9,531,563	9,360,316
		소계	9,309,312	10,155,011	11,354,872	11,655,096	11,646,483
	러시아 (4위)	식용	846,332	872,229	14,694	229,594	440,164
		사료	71,804	15,570	17,695	24,185	79,835
		소계	918,136	887,799	32,389	253,779	519,999
	우크라이나 (8위)	식용	104,197	71	62,249	292,132	60,804
		사료	539,156	8,165	318,939	1,621,265	115,833
		소계	643,353	8,236	381,188	1,913,397	176,637
대두	전체	식용	209,047	200,704	246,117	243,861	248,122
		가공	1,034,238	1,001,949	979,543	1,048,433	989,911
		소계	1,243,285	1,202,653	1,225,660	1,292,294	1,238,033
	러시아 (5위)	식용	1,300	11,180	7,819	8,942	11,981
		가공	198	500	467	580	845
		소계	1,498	11,680	8,286	9,522	12,826
	우크라이나 (7위)	식용	-	-	17	254	139
		가공	-	-	-	-	-
		소계	-	-	17	254	139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

우리나라는 해외 곡물을 주로 미국,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지에서 수입하므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곡물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표 9-6). 그러나 이집트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식량위기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표 9-6.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입국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만 톤, 억\$)

구분		수입		주요 수입국가 비중 (%, 물량 기준)
		물량	금액	
밀	제분용	250	8	미국(48.9), 호주(42.2), 캐나다(8.7)
	사료용	183	5	미국(30.9), 불가리아(21.9), 루마니아(16.8)
	계	433	13	미국(41.3), 호주(25.7), 불가리아(9.3)
옥수수	식용	229	7	세르비아(21.2), 러시아(19.3), 미국(16.2)
	사료용	936	25	아르헨티나(47.5), 미국(30.8), 우크라이나(14.8)
	계	1,165	32	아르헨티나(38.2), 미국(27.9), 브라질(14.5)
대두	식용	25	2	미국(83.3), 중국(6.3), 캐나다(5.2)
	채유용	99	5	브라질(66.2), 미국(33.8), 러시아(0.1)
	계	124	7	브라질(52.9), 미국(43.7), 중국(1.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

(2) 세계 식량수급 현황과 불평등 분배

참고로 세계 곡물 수급동향은 표 9-7과 같다. 2019/20년도 세계 총 곡물(대두 포함) 생산량은 26억 7,928만 톤으로 2012/13년에 비해 16.6% 증가한 양이다. 이중 밀이 7억 6,237만 톤, 옥수수가 11억 1,960만 톤, 쌀이 4억 9,882만 톤, 콩이 3억 3,988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연간 26억 8천만 톤의 곡물생산은 2021년 세계인구 78억 인에게 1일 1인당 약 1kg의 곡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와 같이 충분한 양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약 10%가 영양실조와 기아에 내 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량의 공평한 분배와 사용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표 9-7. 세계 곡물 및 두류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

년도		2019/20	2020/21 (추정)	2012/13 (참고)
항목				
전체	생산량	2,679.28	2,719.67	2,296.8
	소비량	2,672.70	2,736.42	2,284.4
	기말재고량	815.23	796.49	480.0
	기말재고율	30.5	29.2	21.0
밀	생산량	762.37	776.00	660.5
	소비량	746.75	782.56	680.0
	기말재고량	296.83	290.27	181.1
	기말재고율	39.7	37.1	26.6
조립곡물	생산량	1,417.09	1,433.99	1,159.1
	소비량	1,432.20	1,449.96	1,139.5
	기말재고량	336.67	320.70	175.8
	기말재고율	23.5	22.1	15.4
옥수수	생산량	1,119.60	1,123.28	896.8
	소비량	1,135.62	1,138.16	877.4
	기말재고량	306.33	291.45	144.8
	기말재고율	27.0	25.6	16.5
쌀	생산량	498.82	509.68	476.2
	소비량	493.74	503.91	464.9
	기말재고량	181.74	187.51	123.2
	기말재고율	36.8	37.2	26.5
대두	생산량	339.88	366.23	269.0
	소비량	357.67	362.08	265.2
	기말재고량	96.83	101.74	58.1
	기말재고율	27.1	28.1	21.9

주: 1) 곡물 전체는 밀, 조립 곡물, 쌀(정미)의 계. 또한, 각 품목의 계획이 전체 수치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2) 밀은 밀 및 밀가루(밀 환산)의 계.

3) 기말 재고율(%) = 기말 재고량 × 100 / 소비량

4) 연도별 설정 방법은 품목 및 지역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밀(6-5월), 옥수수(9-8월), 쌀(8-7월), 콩(9-8월)}

5) 재고율의 전년도 대비 및 전월차이란 전년도 및 전월발표와의 포인트 차이.

6) (참고)는 직전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었던 2012/13년도 수급에 대해 기재

7) 또한, 'Oilseeds: World Markets and Trade', 'PS&D'에 대해서는 공표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음.

자료: 미국 농무부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March 9, 2022)
'Oilseeds: World Markets and Trade', 'PS&D'

자료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3호, 2022

지글러(Jean Ziegler, 1999)는 그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세계 기아의 원인을 정치적 부패, 다국적 기업들의 음모, 강대국들의 횡포를 지목했다. 레스터 브라운(Lester R. Brown, 1995)은 그의 저서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Who will feed China?)’에서 중국이 경제 발전하여 일본이나 한국처럼 고기나 우유를 먹기 시작하면 세계의 식량 곡물을 싹쓸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그의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인구는 1900년 15억에서 2000년 61억으로 4배 증가했다. 가축 생산량도 가금류는 4.5배, 양돈 생산 두수는 2.5배, 소는 1.5배 증가했다(그림 9-5). 증가된 곡물 생산은 소, 돼지, 닭 등 가축 사료로 대부분 사용된 것이다. 축산물의 소비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곡물생산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결국 부유한 선진국들의 동물성식품 소비를 위해 대부분의 곡류가 축산사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철호 등, 2019).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의 결정판으로 그동안 악화 일로를 걸어온 세계 식량 불균형의 문제를 극대화 시킨 사건이었다. 러시아는 2022년 3월 22일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이겨 우크라이나 서부 흑해 항구 3개 지역을 통한 곡물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그 다음날 러시아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4발을 오데사 항구에 발사함으로써 식량무기화 의도를 노골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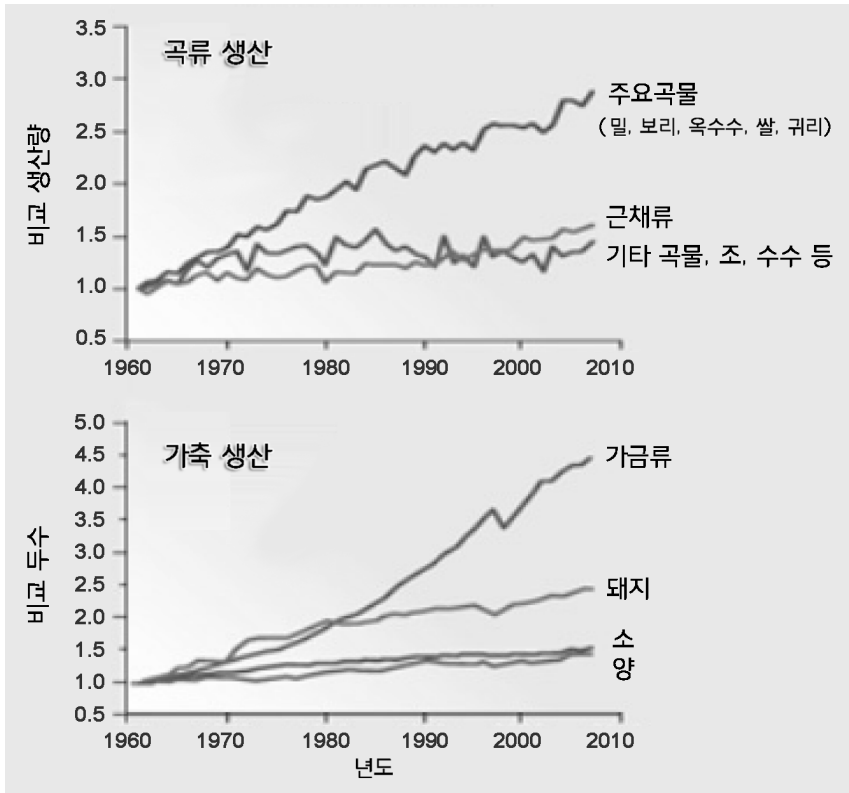


그림 9-5. 세계 곡물 생산지수와 가축 생산 지수의 변화 추이(Godfray 등, 2010)

3. 2000년대 한국의 식량사정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1970년대 말까지 80%에 가까웠으나 축산장려정책과 시장개방정책 등으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여 1980년에는 56%, 우루과이 협상 타결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에는 29%, 2020년에는 20% 수준으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곡물자급률이 최하위인 식량안보 취약국으로 분류된다. 곡종별로 보면

쌀과 보리쌀, 서류는 1990년까지는 자급률 100% 가까이 유지하였으나, 보리는 1990년을 기점으로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24.9%까지 하락하였다. 콩의 경우도 1966년에는 자급률 100%를 유지하기도 했고, 1978년까지 자급률 5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수요량 증가와 국내생산량 감소로 급격히 하락하여 2017년에는 5.7%까지 하락하였다. 밀과 옥수수는 2017년 자급률이 1% 이하까지 하락하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표 9-8)(이철호 등, 2019).

표 9-8. 연도별 곡물자급률 변동 추이

(단위: %)

연도별	전체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60	94.5	100.8	110.4	33.9	18.9	79.3	100.0	100.0
'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90	43.1	108.3	97.4	0.05	1.9	20.1	95.6	13.9
'00	29.7	102.9	46.9	0.1	0.9	6.8	99.3	5.2
'10	27.6	104.5	24.7	0.9	0.9	10.1	98.7	10.0
'15	23.9	101.0	21.9	0.7	0.8	9.4	94.6	11.8
'16	23.7	102.5	23.3	0.9	0.8	7.0	94.8	11.9
'17p	23.4	94.5	24.9	0.9	0.8	5.4	95.2	9.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우리나라의 곡물 수급 상황은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제 곡물 수입량은 식용 600만 톤과 사료용 1,200만 톤 등 합계 1,800만 톤 이상을 수입하였다. 식용 밀과 옥수수의 수입량은 각각 240만 5천 톤과 237만 3천 톤이었으며, 채유용 콩은 98만 톤, 식용 콩은 24만 6천 톤이었다. 사료용 곡물은 옥수수가

897만 4천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두박과 밀이 각각 187만 3천 톤과 119만 3천 톤이다(표 9-9).

표 9-9. 주요 곡물 수입량

(단위: 천 톤)

구분	밀		옥수수		콩			합계	
	식용	사료용	식용	사료용	식용	채유용	사료용 (대두박)	식용	사료용
2017	2,390	1,763	2,303	7,007	209	1,034	1,705	5,936	10,475
2018	2,331	1,462	2,364	7,791	201	1,002	1,867	5,898	11,120
2019	2,405	1,193	2,373	8,974	246	980	1,873	6,004	12,040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곡물별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 수입곡물 의존도는 표 9-5에서 보인바와 같이 밀은 미국과 호주에,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와 미국에, 콩은 미국과 브라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식량문제에 대한 인식은 위험할 정도로 안이하다. 슈퍼에는 먹을 음식이 항상 쌓여 있고 돈만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높은 경제력과 식품산업 발전으로 식량안보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2015년도 식량안보지수는 32.2로 세계 16위이며, 일본(44.9)이나 중국(38.9)보다는 낮다. 한국의 식량안보지수가 비교적 높은 것은 높은 경제력으로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며 국민이 느끼는 식량의 풍족함을 반영하고 있다. 매스컴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저장 창고비용이 많이 들고 쌀값이 하락한다고 농민을 걱정한다. 남아도는 쌀을 이북에도 보내고 가난한 나라에 원조한다고 대서특필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식량위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식량안보를 말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량수급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수출 길이 막히고 식량 수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경제 제재나 전쟁 위협이 우리 옆에 상존해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식용곡물자급률을 식량자급률처럼 사용해 왔다. 곡물수입량에서 사료곡물을 뺀 식용곡물만으로 자급률을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사료곡물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식량자급률 계산에서 뺄 수 없는 사항이다. 쌀이 거의 자급되므로 식용곡물 자급률은 항상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2020년의 곡물자급률이 20%일 때 식용곡물 자급률은 45%로 식량자급률을 실제보다 2배 높게 부풀린 값이다. 식량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식용곡물 자급률을 식량자급률로 보도해 온 것이다.

식량의 전체자급률은 공급되는 모든 식량을 열량(칼로리)으로 환산한 식량에너지자급률로 나타내는 것이 상례인데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칼로리자급률은 1970년의 80%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추락하여 2018년에는 35%로 추정되었다(표 9-10). 이와 같이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전체국민의 35% 정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이며, 무역봉쇄나 전쟁이 일어나면 2개월 이내에 전체 국민의 2/3가 굶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철호 등, 2021).

표 9-10. 한국인의 공급 영양소 자급률 변화

년도	공급 에너지	공급 단백질	공급 지방
1970	79.5	80.1	77.2
1980	70.0	75.2	64.2
1990	62.4	67.8	30.3
2000	50.6	52.8	21.4
2010	46.8	47.6	16.7
2015	42.5	43.9	16.0
2017	36.6	42.4	31.8
2018	35.1	43.2	21.4

자료: 김상호 외(2019)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국민 대부분이 식량이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쌀이 남아돈다’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쌀의 소비는 1970년 1인당 연간 136kg 이던 것이 2019년에는 60kg 이하로 줄었다(표 9-11). 2020년 1인당 1일 쌀 소비량은 162g으로 조사되어 쌀로부터 공급받는 열량은 1일 648kcal에 불과하다. 이것은 한국인 1일 평균 열량공급량 2,900kcal의 22%에 해당한다. 1970년대 전체 칼로리 공급의 50%를 차지하던 쌀이 2020년에는 20% 밖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으로서의 쌀의 위상이 이미 무너진 것이다. 반면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밀의 소비량이 쌀의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옥수수는 쌀의 1/3에 달하고 있다(표 9-11). 밀, 콩, 옥수수를 사료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고기와 우유와 계란이 우리 식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낮아진 쌀의 기여도에 비해 국민들은 아직도 쌀이 충분하면 식량에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표 9-11. 주요 곡물의 1인당 연간 공급량(kg/person/year) 변화 추이

곡물명	1970	1980	1990	2000	2010	2016
쌀	134	132	126	98	81	71
보리	60	14	2	2	1	1
밀	19	29	30	36	33	32
옥수수	3	9	22	28	26	26
콩	8	8	8	8	8	8

자료: 김상호 외(2019)

이러한 착시현상이 여러 방면으로 식량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우선 식량정책 입안자들이 쌀이 남아도는 것을 식량문제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착각하고 쌀의 생산을 줄이고 더 나아가 농업 증산의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농지전용에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2008년 93만 6천 헥타르이던 벼 재배면적이 불과 10년 만에 75만 5천 헥타르로 줄어, 쌀 생산량은 연간 484만 톤에서 397만 톤(2017년)으로 감소했다(그림 9-6)(이철호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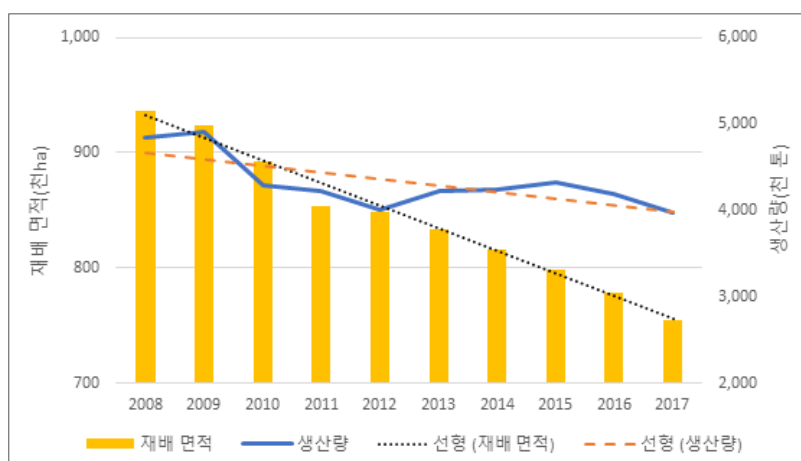


그림 9-6.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이철호 등, 2019)

그림 9-7은 한·일 양국의 식량자급률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0년도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9.7%, 일본은 28%이었다. 일본은 1999년 7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0년 3월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식량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일관성 있게 수행했다. 그 결과 15년이 경과한 2016년 1% 증가한 곡물자급률 29%를 달성했다(고재모 외, 2017). 반면 한국은 일본을 모방하여 2007년 12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제정하고 2009년 11월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나 핵심과제인 식량자급률 목표가 없었고 뒤늦게 목표를 정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공약(空約)에 불과했다. 이러한 정책의지의 결여와 일관성 없는 농정의 결과가 일본보다 8%나 낮은 곡물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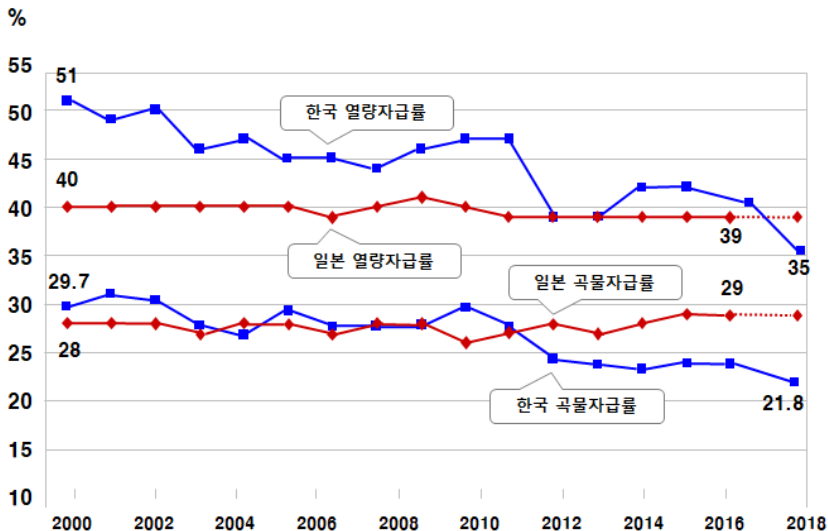


그림 9-7. 한국과 일본의 식량자급률 변화 추이(2000-2018)

자료: 한국, 일본 식품수급표(고재모 외, 2017)

열량자급률 변화에서 한·일 양국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열량자급률 40%에서 거의 변화 없이 15년을 견뎌 2016년에는 1% 낮아진 39%를 유지했다. 그러나 한국은 2000년 51%에서 2012년 39%로 떨어졌다가 2014년에는 42%로 올라가고 2018년에는 다시 35%로 내려간다. 이것은 우리나라 통계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식량자원에 포함시키는 작물의 종류나 생산량 통계에 따라 열량 계산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한국의 수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오차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4. 한국 식품산업 규모 변화와 현황

1980년대의 고도성장으로 선진국의 가공식품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한 한국의 식품산업은 90년대의 무역자유화와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과 체질강화의 시련을 겪었다. 식품산업의 이러한 피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세계진출의 시대를 열었다. 한국의 식품산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산학연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는 산업발전의 큰 버팀목이 되었으며 특히 산업통상부가 지원하는 산학공동연구, 농식품부의 농업기술연구지원사업, 한국과총의 학술지원등이 산학연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국가적인 발전 노력에 힘입어 한국의 식품산업은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7/08년의 세계 곡물파동과 2010년부터 계속된 세계 기상이변에 의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서도 국내 식품상황은 큰 변동 없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0%

수준이지만 식품산업이 세계적인 식량파동에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대 한국의 식품산업은 연 3-5% 성장세를 유지하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218.0조원으로 2016년 대비 6.1%증가하였다. 식음료제조업 89.7조 원, 외식산업(음식점업) 128.3조 원, 농림업 생산액 50.7조 원이다. 10년 전인 2007년도에 비해서는 약 2배, 110조 증가하였다(표 9-12).

표 9-12. 국내 식품산업 규모 변화(2007-2017)

구 분	2007	2010	2015	2016	2017
□ 제조·외식(A+B)	107,518.1	131,290.8	191,950.5	205,464.5	218,017.7
○ 음료식품제조업(A) ¹⁾	48,149.1	63,725.0	83,937.2	86,611.2	89,717.9
- 사료 제외	42,412.2	55,574.4	73,588.6	76,725.6	80,169.3
○ 음식점업(B) ²⁾	59,369.1	67,565.8	108,013.3	118,853.3	128,299.8
□ 식품유통(C+D)	107,744.1	150,550.8	231,796.9	244,498.0	256,053.6
○ 음료식품 및 담배도매업 ²⁾	61,976.8	88,527.0	139,195.0	146,523.1	153,523.4
- 담배 제외(C)	58,612.4	85,386.9	135,542.3	143,466.1	150,704.7
○ 음료식품 및 담배도매업 ²⁾	10,147.4	12,674.1	20,892.0	22,352.5	24,002.1
- 담배 제외(C)	10,011.5	12,593.0	20,733.8	22,181.2	23,783.3
○ 식품 소매업 ³⁾	49,131.7	65,163.9	96,254.6	101,031.9	105,348.9
□ 제조·외식·유통(A+B+C+D)	215,262.2	281,841.6	423,747.4	449,962.5	474,071.3
□ 농림업 ⁴⁾	35,837.2	47,979.4	50,843.0	49,543.6	50,680.9

자료 1)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10차 표준산업분류)]

2)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음식점 및 주점업, 10차 표준산업분류)

2)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음식료품 및 담배 도소매업, 2007~2015년: 9차 표준산업분류, 2016년 이후: 10차 표준산업분류)

3) 통계청 소매판매액 통계(2007~2009년: 2005년 기준, 2010~2014년: 2010년 기준, 2015년 이후: 2015년 기준)

4) 농림축산식품부 2018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업 생산액

주 1) 2010년, 2015년 자료는 통계청 경제총조사(특성편, 광업 및 제조업) 자료임

2) 식품유통업의 경우 원 출처인 서비스업조사가 개정 이전(2016년 이전) 자료를 중분류(9차→10차 연계)로만 제공함에 따라 2016년 이전 자료는 9차 개정 자료로 수록

식품 유통(식품 도소매업)까지 포함한 시장규모는 2017년 474.1조원(담배 도소매업 제외)으로 추정된다. 음식료품 도매업은 153.5조원, 음식료품 소매업은 24.0조원이고, 전체 소매업 판매액 중 식품 판매액은 105.3조원이다. 음식료품 소매업은 음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이며 식품 판매액은 종합소매업 등을 포함한 소매점에서 거래된 식품 판매액(통계청 소매판매액 통계)이다.

한국의 식품산업은 국내 제조업 총생산(GDP)의 16.3%, 국내 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협의의 식품산업 즉 식음료제조업의 생산액을 추계한 값이다. 광의의 식품산업은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업을 포함하며 전체 생산규모는 423조원(2017년)에 달한다. 식품제조업은 연 5% 수준으로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도 식품산업 생산액은 89조 원으로 50조원의 농수산업 생산액보다 1.8배 높다.

10년간 국내 식품산업 성장추이(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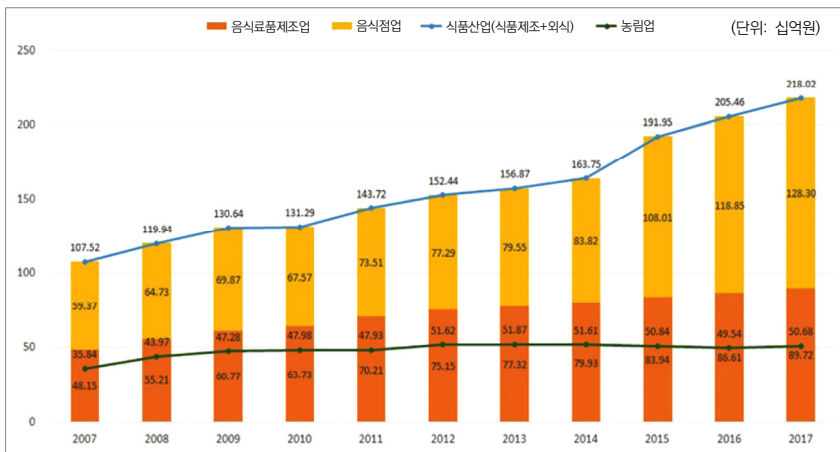


그림 9-8. 국내 식품산업(식음료제조업, 외식산업, 농림업) 성장 추이(2007~2017)

출처: aT센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년

외식산업 생산액은 128조 원으로 식품제조업 생산액 89조 원과 합하면 218조 원으로 농수산업의 4.3배에 달한다(그림 9-8). 따라서 한국의 식품 산업은 국내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모자라는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가공하여 국민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1.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현황

2020년 우리나라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84조 3,300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2020년 식품산업 업종별 생산실적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48조 3,9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축산업 관련업 27조 7,026억 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조 2,642억 원, 용기·포장류업 5조 9,612억 원으로 조사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업종별 생산실적을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이 46조 563억 원으로 가장 크고, 식육가공업과 유가공업이 각각 6조 1,495억 원과 5조 7,710억 원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9-13). 식품첨가물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은 각각 2조 3,425억 원과 2조 2,642억 원을 생산했다. 특히 건강식품 생산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6.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공업과 알가공업 생산액은 2018년 우유의 과잉생산과 조류독감(AI)과 계란류의 농약오염, 동물복지 등에 의한 생산 감소로 큰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나 2019/2020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9-13. 식품산업 업종별 생산실적(2019-2020)

구 분		'19년		'20년		전년대비 성장률(%)
		생산액(억원)	비율(%)	생산액(억원)	비율(%)	
합 계		810,077	100.0	843,267	100.0	4.1
식 품 등	식품제조가공업	454,917	56.2	460,563	54.6	1.2
	식품첨가물제조업	21,336	2.6	23,425	2.8	9.8
	소 계	476,252	58.8	483,987	57.4	1.6
축 산 물	식육가공업	58,626	7.2	61,495	7.3	4.9
	유가공업	56,453	7.0	57,710	6.8	2.2
	알가공업	3,453	0.4	4,025	0.5	16.6
	식육포장처리업	136,970	16.9	153,795	18.2	12.3
	소 계	255,502	31.5	277,026	32.9	8.4
건강기능식품		19,464	2.4	26,642	2.7	16.3
용기·포장지 제조업 (웅기류포함)		58,859	7.3	59,612	7.1	1.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식품별 생산현황을 보면 포장육(돼지, 소)이 5년 연속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념육류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9-9는 2020년 식품별 생산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육류제품이 전체 식품생산액의 19% (닭포장육 포함)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인의 육식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즉석식품·편의식품류가 전체 식품시장의 4%에 육박하고 있어 고도의 식품가공 기술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스류 생산액이 5위를 차지하는 것도 한국 식품시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이 중요한 식품류임을 나타내고 있다. 김치가 단일 품목으로 1조원 시장(17위)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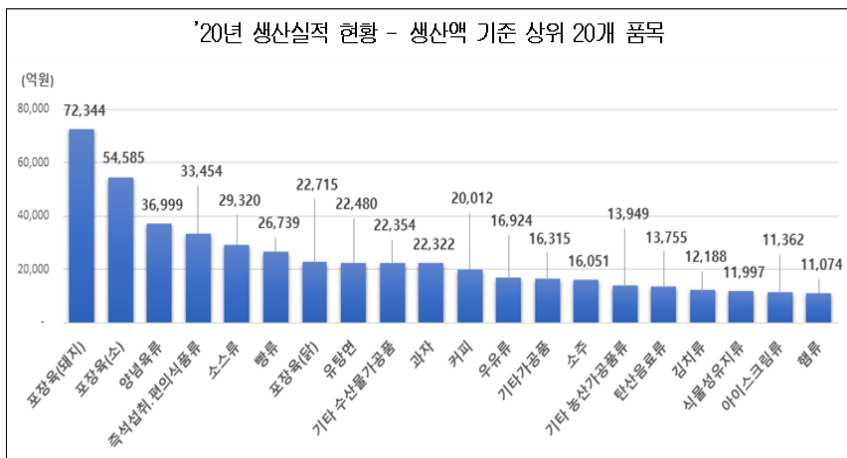


그림 9-9. 식품별 생산실적 현황(상위 20품목)(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한국의 식품산업은 고도성장기간을 거치면서 연간 생산액이 1조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들이 형성되었다. 표 9-14는 2020년 가공식품 생산액 상위 10개 업체의 생산실적이다. CJ제일제당(주), 하이트진로(주), (주)농심, 롯데칠성음료(주)가 생산액 1조원을 넘었으며, 상위 10개 업체의 생산액이 전체 생산액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물 분야에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1조 1,034억 원을 생산해 1조 클럽에 5개 업체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표 9-14. 한국 식품산업 상위 10개 업체 생산액 현황(2019-2020)

업체명('19년)	생산액	점유율 ¹⁾	업체명('20년)	생산액	점유율 ¹⁾
1 롯데칠성음료(주)	22,228	5.1	1 씨제이제일제당(주)	21,157	4.6
2 씨제이제일제당(주)	21,371	4.9	2 하이트진로(주)	17,792	3.9
3 (주)농심	18,068	4.1	3 (주)농심	17,298	3.8
4 하이트진로(주)	14,515	3.3	4 롯데칠성음료(주)	16,740	3.6
5 (주)오뚜기	8,999	2.1	5 롯데제과(주)	8,658	1.9
6 롯데제과(주)	8,690	2.0	6 (주)오뚜기	7,974	1.7
7 (주)오리온	7,859	1.8	7 동서식품(주)	7,496	1.6
8 동서식품(주)	7,520	1.7	8 대상(주)	7,135	1.5
9 (주)파리크라상	6,615	1.5	9 (주)파리크라상	6,670	1.4
10 롯데푸드(주)	6,118	1.4	10 롯데푸드(주)	6,214	1.3
소계(상위 10개)	121,972	28.0	소계(상위 10개)	117,134	25.4

1)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조사처리 포함) 전체 생산액 중 점유율을 의미함

우리나라 식품산업 제조업체수는 2020년 현재 42,803개소이며, 그중 식품제조업체수(주류, 조사처리, 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지제조업 포함)는 31,802개소, 축산물 제조업 10,480개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 521로 집계되고 있다. 식품산업 종업원수는 식품제조업 334,452명, 축산물 제조업 131,633명, 건강기능식품산업 20,884명으로 도합 48만 7천 명이 식품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전국 제조업종사자 410만 명의 11.9%에 해당한다.

표 9-15에 보면 종업원수 5인 이하의 가내공업에 해당하는 업체수는 전체의 절반(64%)을 넘는 27,415개소이며 이들의 생산액 비율은 전체의 5.6에 불과한 영세 소기업들이다.

표 9-15. 한국 식품산업 종원원 규모별 생산액

(단위: 개소, 억원, %)

구 분	'19년				'20년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생산액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계	41,596	100.0	810,077	100.0	42,803	100.0	843,267	100.0
1~5인	26,607	64.0	44,525	5.5	27,415	64.0	46,993	5.6
6~10인	5,909	14.2	47,456	5.9	6,204	14.5	50,165	5.9
11~20인	4,689	11.3	92,051	11.4	4,801	11.2	96,462	11.4
21~30인	1,478	3.6	53,379	6.6	1,429	3.3	54,266	6.4
31~50인	1,306	3.1	80,733	10.0	1,337	3.1	83,360	9.9
51~80인	661	1.6	74,973	9.3	665	1.6	88,623	10.5
81~100인	243	0.6	37,555	4.6	247	0.6	45,554	5.4
101~150인	254	0.6	70,068	8.6	248	0.6	72,984	8.7
151~200인	172	0.4	89,485	11.0	192	0.4	79,111	9.4
201~300인	161	0.4	104,110	12.9	162	0.4	106,750	12.7
301~500인	78	0.2	67,779	8.4	68	0.2	69,860	8.3
501~1,000인	32	0.1	45,286	5.6	32	0.1	46,895	5.6
1,000인 이상	6	0.0	2,678	0.3	3	0.0	2,244	0.3

4.2. 국내 외식산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늦게 시작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한말 일제강점기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외식산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구한말의 객주집이나 일제시대의 유곽(술집)이 있었으나 음식점이 보편화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의 일이다. 외식산업의 시작은 19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활성화 된 치킨 체인점 등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부터이다.

2018년 국내 음식점 및 주점업 수는 총 70만 9천여소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음식점업은 50만 6,437개소이고 한식 음식점이 62%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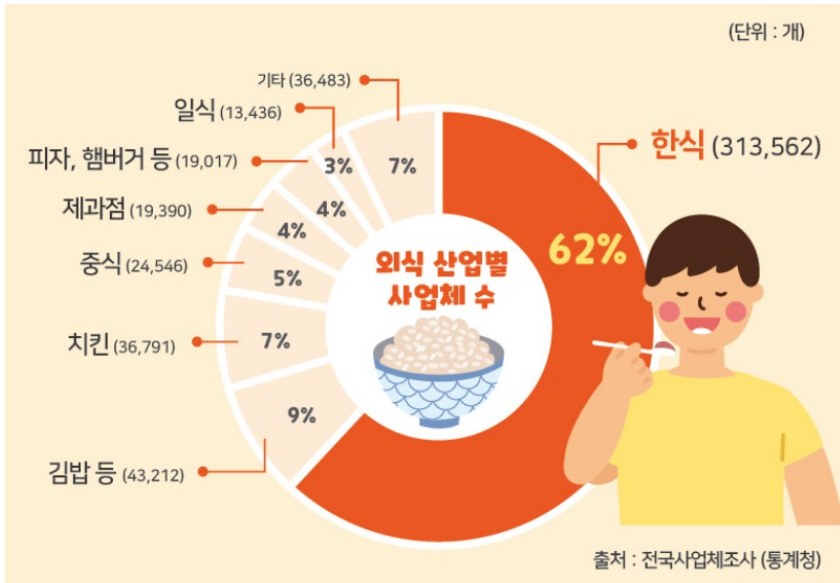


그림 9-10. 국내 음식점업의 종류와 규모(2018)

국내 외식산업은 2019년 기준 매출액 144조원, 사업체수 73만 여개, 종사자수 219만 명으로 외형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외식산업의 선진화 평가지수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 산업 역시 2021년 기준 4,973개로 8년간 연평균 8.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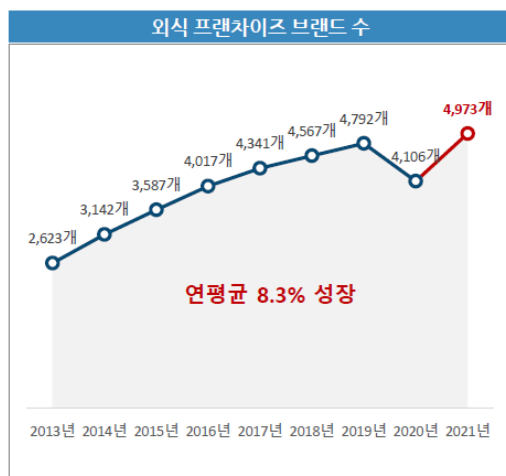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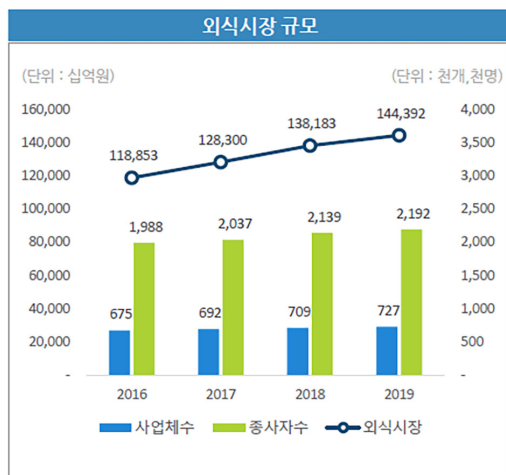


그림 9-11. 국내 외식시장 규모와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 변화 추이

외식산업은 업종에 따라 성장률 차이가 매우 크다.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커피/음료 업종은 연평균 21.8% 성장을 하였으며, 이어서 분식, 중식, 제과 업종의 성장률이 높다. 반면에 양식, 뷔페, 유흥주점 등의 업종은 정체상태이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표 9-16).

표 9-16. 외식업 주요업종의 성장률(김영갑, 2020)

(단위: 천원)

성장률 순위	업종	2016년 (월평균)	2017년 (월평균)	2018년 (월평균)	2019년 (월평균)	평균 성장률
1	커피·음료	677,264	808,624	963,936	1,118,484	21.8%
2	분식	636,226	733,630	828,650	927,917	15.2%
3	중식	468,526	541,136	616,524	666,345	14.3%
4	제과·제발·떡 ·케이크	489,999	540,360	612,586	657,517	11.7%
5	간이주점	704,107	786,972	892,323	931,080	11.2%
6	배달음식	5,329	6,360	6,880	6,942	10.1%
7	패스트푸드	479,713	550,607	579,357	627,737	9.9%
8	한식	3,208,857	3,578,679	3,798,481	4,011,902	8.2%
9	고기요리	1,371,174	1,514,081	1,630,809	1,699,051	8.0%
10	일식·수산물	1,330,131	1,532,364	1,630,587	1,637,066	7.7%
11	달·오리요리	813,296	878,301	981,359	983,506	7.5%
12	별식·퓨전요리	316,077	350,279	383,327	379,209	7.0%
13	양식	438,530	487,799	500,285	489,277	3.8%
14	뷔페	122,017	121,950	122,351	123,784	0.5%
15	유흥주점	637,140	649,510	635,137	615,198	-1.3%
	외식업 전체	11,698,392	13,080,658	14,182,868	14,875,021	9.1%

그러나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대되면서 외식산업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방문 외식이 급감하고 배달/포장 외식으로 대체되었다. 개인 방역을 위한 외출자제, 모임자제, 가정내 취식이 선호되면서 외식업체의 줄도산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다행히 2022년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외식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이고 있다. 그러나 가정식 선호, 가정간편식(HMR)/밀키트의 이용, 택배 배송의 편이성 등을 경험한 소비자들의 생활습관 변화는 외식산업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5.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설립과 활동

2007/2008년의 세계 곡물파동에 의한 애그플레이션, 미국의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나타난 금융대란, 그리고 이어진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의한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은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개발과 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 만들어 졌다. 재단은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농업과 식품산업이 식량공급의 주체로서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를 책임지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많은 식품산업 지도자들이 이 일에 호응하여 주요 식품대기업 CEO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조직되었다.

2010년 겨울 필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품안전긴급대응사업(FSER) 컨설턴트로 이태리 로마에 3개월간 머물면서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왜 해야 하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구상하여 재단의 사업 구상을 구체화 했다(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2011). 재단은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대표,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을 출범시켜 2011년 3월 aT센터 대회의실에서 국민운동 전진대회를 개최했다(그림 9-12). 전진대회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격려사와 홍일식 한국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보, 김학용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의 축사가 있었다. 특별강연으로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이 “글로벌 식량위기시대의 식량안보전략”을 발표했다. 대회는 국민운동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선언문

세계의 식량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잦은 기상이변과 중국, 인도 등 신흥 중진국의 경제성장에 의한 동물성식품의 폭발적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생산의 사용 등으로 세계 곡물시장에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오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의 식량부족을 예감한 각 나라들이 식량 수출을 제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식량전쟁의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곡물의 70% 이상, 전체식량의 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에 대한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 전체 식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이 남아도는 것을 전체 식량이 아주 풍족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식량증산이나 소비절약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식량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식량문제를 남의 손에 의탁하거나 방치하여 둘 수 없다. 국민 각자가 식량낭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리는 일에 동참하여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세계 식량난에 대비하는 자기 몫의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까지 식량부족의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식량주권을 회복할 때까지 온 국민이 각자 할 일을 정하여 실천하자.

- 식량을 아끼고 낭비를 부끄럽게 여기는 일을 생활화 한다.
-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의 고마움을 아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만든다.
-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식량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다.
- 농어촌을 삶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국민이 된다.



그림 9-12.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전진대회(2011년 3월 30일, aT센터 대회의실)

5.1.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단기(5-6년) 정책 로드맵

한국은 식량안보에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가지고 있다.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수입하여 영양과잉과 식량낭비의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북한은 외국의 식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어 국민 대부분이 만성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100-150만톤의 쌀이 부족하게 된다(이철호 등, 2012). 따라서 한국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식량 예비율 18%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의 적정재고량 72만 톤보다 최소한 100만 톤 이상의 쌀을 더 비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연간 쌀 생산량 400만 톤을 480만 톤 수준으로 늘려야 하며 논 경지면적을 2011년도

표 9-17. 식량자금을 제고를 위한 단계(5-6년) 정책 로드맵(이철호 등, 2014)

		사회적합의단계(1-2년)	법제화단계(1-2년)	시행준비단계(1-2년)	시행단계	기대효과
쌀	무상 지원	영세민 쌀 무상지원법 발의	국회통과 및 입법예고	행정운영체계 준비 쌀 쿠폰 사용범위 제도	저소득층 쌀 무상지원	쌀 17만 5천톤 수요창출
	통일미 비축	통일대비 쌀 120만 톤 비축 법안발의	통일미 비축법 국회 통과 및 입법예고	통일미 비축 실시		쌀 20만톤 수요창출
	완전미 유통	쌀 도정수율 기준조정 완전미 유통등급 설정	쌀 품질등급화 및 완전미 유통체계확립			쌀 24만톤 수요창출
	정책	기초 양곡정책 재검토				선 순환적 식량정책
콩	TRQ	TRQ콩 배정 방식 개정 방안 발의	TRQ콩 배정에 국산콩 구입조건 실시	식용콩 자금을 50% 목표		식용콩 자금률 70% 달성
	공생산 단지화	공생산 단지화를 위한 지원정책발의			콩 생산단지 6개소 설립	콩 생산단지 6개소 설립
	SPC 추가설립	SPC 설립 지원법 발의	SPC 2개소 추가 설립	SPC 3개소 추가 설립		SPC 6개소 설립
	콩 계약재배	콩 계약재배 지원법 발의	콩 계약재배 지원법 국회 통과, 입법 예고			
축산	축산법 개정	축산법 개정안 발의	국회 통과 및 입법예고	개정 축산업허가제 실시 (자가 사료 생산 10%의무화)	자가사료생산 20% 의무화	조식료 완전자금
	직불제 실시	녹색환경지원 직불제법 발의	국회 통과 및 입법예고	녹색환경지원 직불제 실시		환경지원직불금 제도확립
식량 낭비	유통기한 표시제 개선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병기 표시제도 법제화 및 실시				식품 폐기량 50% 감소 → 자금을 15%증가

수준인 96만 헥타르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외치는 이유이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이철호 등, 2014)에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과 로드맵을 제안하였다(표 9-17).

5.2. 식량안보 학술활동과 출판 홍보사업

재단은 2020년까지 24회에 걸친 식량안보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매년 2-3건의 식량안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이철호, 2020). 재단은 홈페이지(www.foodsecurity.or.kr)를 개설하여 국내외 식량안보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고 업데이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재단은 국민교육 및 홍보를 위해 출판사업(도서출판 식안연)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출판서적은 표 9-18과 같다.

표 9-18. 도서출판 식안연 주요 출판 도서

〈단행본〉

도서명	연도	저자
식량전쟁 (Food War 2030)	2012년	이철호 (영문판 2013)
식품산업, 한식 세계화에 날개 달다	2012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2012년	이철호, 문헌팔, 김세권, 김용택, 박태균, 권익부 (영문판 2015)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2014년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이숙종, 이꽃임
韓·中·日 식량정책 비교	2017년	고재모, 김태곤, 이철호
콩 스토리텔링 (국영문 합본)	2017년	한국콩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편
세계 곡물시장과 한국의 식량안보	2018년	성명환, 오정규, 김민수, 임호상, 이철호
건강100세 장수식품 이야기	2019년	박상철, 이미숙, 이철호, 김경철, 신동화, 박현진, 권대영, 채수완

도서명	연도	저자
요셉의 지혜, 한반도 식량비축 계획	2019년	이철호, 위남량, 최지현, 임정빈, 안병일
비만과의 전쟁	2019년	이철호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2019년	박현진, 김덕호, 권오란, 김현옥, 박태균,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처음10년을 돌아보며	2020년	이철호
국가비상시 식량안보계획	2021년	이철호, 최지현, 박성진, 이남택, 송성완, 박태균
한국의 발효식품 - 역사, 문화 그리고 가공기술	2021년	신동화 편저
식품위생안전법규와 제도	2021년	전은숙
한국식품사연구	2021년	이철호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	2022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비전	2022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식량안보 시리즈〉

도서명	연도	저자
1. 나트륨, 건강 그리고 맛	2014년	이숙중, 이철호
2. 건강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2015년	김영수, 최재성, 석호문, 신동화
3. GMO 바로알기	2015년	박수철, 김해영, 이철호
4. 쌀의 혁명	2015년	이철호, 이숙중, 김미령
5. 식량낭비 줄이기	2016년	채희정, 이숙중, 이철호
6. 목소리와 견해: 왜 생명공학인가?	2016년	Navarro, M.J. (Ed.), 2015, 원저/ 크롭라이프코리아 번역
7. 식량생산 제고를 위한 新육종기술	2017년	한지학, 정 민
8. 21세기 구원투수 고구마	2017년	곽상수, 박성철, 이준설
9. 4차 산업혁명과 식량산업	2018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10. 'Yes to GMOs' 생명공학기술의 진실	2018년	Borut Bohanec & Miššo Alkalaj
11. 알기쉬운 방사능 · 방사선 & 식품안전	2020년	권중호

5.3.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

재단은 2019년부터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추진위원을 위촉하고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자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한 ‘나의 액션’을 SNS에 공지하는 운동을 시작했다(표 9-18). 다음은 국민운동 취지문이다.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 취지문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공급된 식량의 30%를 음식물쓰레기로 폐기하는 현재의 무절제한 식사행동을 개선하지 않고는 식량자급이나 식량안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식량 손실과 낭비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저장,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온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 관련부처 담당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식량손실과 낭비의 원인이 되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에서는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국민 의식전환과 절약정신을 고취해야 합니다. 식량낭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면 칼로리 기준으로 38%에 불과한 전체식량자급률을 53%로 올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초등학교생까지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자 할 일을 정하여 공표하고 실천함으로써 **2030년까지 식량낭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2019년 9월 27일 ‘식량 낭비 감축을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 정부 건의문과 식량낭비줄이기 국민행동강령을 발표하였으며, 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국민 각자가 ‘식량낭비줄이기 나의액션’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실천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나부터 헌신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바랍니다.

대 정부 건의문 및 국민행동강령

대 정부 건의문

1. 식량낭비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 특히 환경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식약처와 각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식량낭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기 위한 가칭 '식량낭비 감축을 위한 협의체(Task Force)'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의 '못난이 식재료'를 폐기하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저가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성할 것을 촉구한다.
3.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를 확대하며 소비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4.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에서 발생하는 반품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고 푸드뱅크의 활동을 확대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는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나 국가푸드플랜 수립 시 식량낭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생활환경운동 여성단체연합 등 민간 조직과 협력하여 범국가적인 식량낭비 줄이기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건의한다.

식량낭비줄이기 국민행동강령

1. 음식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식량을 생산하고 저장, 가공, 조리,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자.
2. 음식을 필요이상으로 구입하거나 조리하는 습관을 버리자.
3. 음식의 저장 방법을 숙지하고 가급적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자.
4. 유통기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남아 있으므로 함부로 버리지 말자.
5.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사할 때 잔반을 남기지 말고 먹고 난 뒷자리를 깨끗하게 하자.
6.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국민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실천하자.

5.4. 식량안보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글로벌 기후변화, 전염병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국가 간 분쟁 등 세계 식량위기를 일으킬 요인들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신 냉전시대의 도래로 글로벌 무역자유화 시대는 끝나가고 자국 우선 보호 무역시대로 회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수출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견되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0%에 불과한 한국의 식량안보가 위태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위기를 대비할 정책전환과 식량안보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쌀가공식품산업협회(회장 김문수)의 지원으로 ‘국가 식량안보법 제정안 모델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2022년 10월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초안을 발표하였다(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2022). 특별법 초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의 배경과 추진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기관리를 위한 쌀 무상지원 제도

이상기후나 전염병 팬데믹, 국제분쟁 등으로 식량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굶주림에 직면하게 되는 사람들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이들에 대한 식량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전체인구의 6%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월 10kg의 쌀 또는 쌀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무상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지금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철호 등, 2014). 이것은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통일이 되는 즉시 북한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려면 우리 사회가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푸드스탬프제도와 달리 쌀과 쌀 가공식품만을 지원하는 것은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제도에 소요되는 쌀의 양은 37만 톤으로 현행 저소득층에 대한 쌀 반값 할인 판매

제도에 소요되는 약 6만 8,000톤을 제하면 쌀 30만 2,000톤의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 이를 위한 정부예산은 7,979억 원으로 추산되며 우리나라 보건 복지예산의 약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2) 통일을 대비한 쌀 120만 톤 비축제도 법제화

식량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방안은 식량 비축량을 늘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곡관리법에 18%의 양곡(약 80만 톤) 비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양은 일단 유사시에 우리 국민이 2개월간 견딜 수 있는 양이다. 중국은 국민이 1년 동안 먹을 양곡을 비축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이 되면 150만여 톤의 양곡이 부족하게 된다(이철호 등, 2012).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쌀 120만 톤의 항시 비축을 법으로 정할 것을 촉구한다(이철호 등, 2019).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인도적 목적으로 법으로 정한 비축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비축 방법은 매년 60만 톤의 쌀을 비축하여 2년 후에 쌀 가공식품산업으로 방출하는 것이다. 비축 쌀 60만 톤 중 40만 톤은 MMA 수입쌀 전량을 비축용으로 사용하며 국내생산 쌀 20만 톤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쌀 가공식품산업의 원료공급이 안정화되어 쌀 가공산업이 활성화되고 쌀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쌀 가격을 안정화하고 미곡증산을 유도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에 의한 예비율(18%)에 추가하여 통일미 120만 톤을 비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4,4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농림수산업예산의 약 4%에 해당한다.

(3) 곡물 비축시설의 확장과 식량콤비나트 건설

저소득 취약계층의 쌀 무상지원과 통일미 상시 비축을 위해 약 150만 톤의 쌀이 추가로 저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량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곡물저장시설의 건설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새로 건설되는 새만금 항만건설사업에 10만 톤 급의 대형 화물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건설하고 뉴매틱 운송시설로 연결되는 지점에 대규모 곡물저장사일로를 건설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박종민, 2022)(그림 9-13).



그림 9-13.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개요

식량코비나트 건설을 위한 새만금 항만건설사업은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 식량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일이다. 정부가 항만시설과 곡물저장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관련 식품 가공기업들이 주변에 공장을 세워 대규모 식량코비나트가 조성될 것이며,

새만금지역은 식량수출입의 중심지가 되어 동북아 식량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

(4) 민간기업의 원료 재고량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현재 식품산업 원료를 공급하는 제분산업, 전분당산업, 식용유제조업체 등은 대략 1개월분의 원료 곡물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제분회사의 상시 재고량이 2,3개월분이 되도록 운영하며, 정부는 1.8개월분에 대해서 보관비용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식품회사들이 2-3개월분의 원료 재고량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금융혜택도 주는 적극적인 식량비축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사료곡물의 비축도 정부의 공공비축제도를 사료업계가 비축하고 정부로부터 비용지원과 금융혜택을 받는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5)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지원과 목표 책임제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돈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그동안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등 식량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식량위기를 대비하여 120만 톤의 식량을 추가로 비축하려면 현재 350만 톤 수준의 쌀 생산량을 400만 톤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그 외에도 콩, 밀, 보리의 증산 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생산된 곡물에 대한 확실한 가격지지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농민이 생산비와 수익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에 대한 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 주는 것이 식량위기를 대비하는 방법이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5-6년 내에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그 로드맵을 제시한바 있다(표 9-17 참조)(이철호 등, 2014).

(6)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유통사업 지원강화

세계 곡물시장은 생산지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을 판매하는 얇은시장(thin market)이고 소수의 농업대국이 다수의 식량부족국가들에 수출하는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다. 거기에 4대 곡물메이저(ADM, Bunge, Cargill, Dreyfus)가 전체 거래량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폐쇄된 시장이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끼어들려고 시도했지만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성명환 등, 2018). 그러나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지분(75%)을 인수하였고, (주)하림의 팬오션이 미국 워싱턴주 롱뷰항에 있는 곡물터미널에 병기에 이어 2대 주주(36%) 지위를 확보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정부는 우리의 민간기업이 글로벌 곡물 공급망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곡물유통라인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식량 확보 방법이며 식량 자주율을 높이는 방책이다.

(7)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 협력사업 강화

해외 농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동안 컸으나 점차 그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농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 실패하였으며, 정보 부족, 경험 부족, 정부의 일관성 결여 등이 실패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1990년대 해외투자제한조치 완화 이후 민간의 해외 농업개발이 재개되었으나 대부분 사업이 중단되었다. 특히 연해주, 중국 등의 지역에 활발히 진출했으나, 현지의 제도적인 불확실성, 대규모 농장 경영의 경험 부족, 유통 판매망 확보 실패 등의 이유로 일부 판매망을 확보한 실수요자(예: 풀무원이나 남양알로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중단되거나 철수한 상태이다. 다만 1990년대 말 이후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일부 식품기업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는 식량안보와

무관한 해외직접투자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식품기업들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과 KOICA의 베트남 농촌개발 사업을 통한 고추 계약재배와 오리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베트남 씨감자 기술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이효정, 2022).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한 민간기업의 원료확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8) 생명공학기술의 연구지원과 활용

생명공학기술은 장기적으로 세계 식량생산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1년부터 GM작물실용화사업단(2015년부터 ‘GM작물개발사업단’으로 개칭)을 출범시켜 안전성 기준에 맞고 소비자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GM작물 개발에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공학 및 작물육종 연구기반을 중심으로 대학, 국공립연구소, 민간기업의 전문연구팀이 공동으로 국내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국내용 고부가 GM작물과 함께 글로벌 종자시장에 진출할 글로벌 GM작물을 산학관연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으로 관련 기술개발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세계 첨단 수준을 달리던 한국의 생명공학 작물개발 능력이 사장되어 불원한 종자 속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유전자편집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되어 활용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GMO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중국은 생명공학 작물의 개발과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전자편집기술을

일반 육종기술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과학계의 말을 듣지 않고 운동권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정책으로는 식량위기를 막을 수 없다.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만이 우리나라가 안정된 식량공급 능력을 가지고 선진국의 대열에 남을 수 있는 길이다. 정부는 생명공학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잘못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에 힘을 기울이고 생명공학 작물개발을 위한 연구역량을 키워야 한다.

(9) 식품산업의 육성과 푸드테크의 선진화

식품산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식량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식품산업(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의 생산액 규모는 218조 원으로 농림업 생산액 50.7조 원의 4배가 넘는다. 식품산업은 세계를 누비며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식품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제조하여 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산업은 식량위기 상황에 가장 앞장서서 대처하는 첨병의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식물성 발효식품의 건강기능성이 부각되고 곡물소비가 큰 육류 등 동물성식품을 대체할 대체육, 대체단백질 소재의 이용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한국 전통 식품기술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기술의 범위를 확장하여 식품가공 기술뿐만 아니라 농업기술, 주방 및 외식산업, 식품안전 및 이력관리, 식품 폐기물관리, 식품배달, 소비자 앱 및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푸드테크 개념이 식품의 공급 체인 전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형 푸드테크의 기술개발을 통해 한국 식품산업을 세계화하고 식품공급능력을 키우는 것은 식량안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박현진 등, 2019).

(10)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공급되는 식품의 1/3을 먹지 않고 버리는 이 엄청난 낭비풍조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식량 위기의 고통은 극심할 것이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식량낭비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등)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식량낭비를 조장하는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사후처리에 집중되어있는 현행 사업방식을 벗어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식량낭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면 식량(열량)자급률을 50%로 높일 수 있다(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2021).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그리고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신냉전 구도에 의한 동북아 분쟁격화가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극히 위태롭게 하고 있다. 식량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저소득 취약계층 양곡지원, 통일미 비축 등)를 서둘러 실시해야 하며 실질적인 장단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식량안보는 국방에 버금가는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컨트롤타워에서 관련 부처들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 국회는 식량안보를 위한 예산 증액과 각종 법령 마련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4년 ‘국제곡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보단계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은 연구기관의 제안에 머물러 있고 법적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이철호 등, 2021). 일본은 2002년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대비한 식량안보 지침’을 제정하여 필요한 조치의 기본 내용, 해당 조치의 근거

법령, 해당 조치의 이행 절차 등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이 지침은 2015년에 ‘식량안보 긴급상황 지침’으로 개정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식량안보 긴급상황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총리실에서 국가적 아젠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2020년 3월의 코로나19 팬데믹이나 2022년 2월의 우크라이나전쟁 발생 시에 정부는 식량안보 긴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단계별 대응체계를 작동했어야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놀랍게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동안 흉년이 들거나 세계 곡물파동이 일어나면 반짝 정신을 차리고 걱정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조치 없이 모두 잊어버리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것이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나 국회가 이 문제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라도 세계 식량상황을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공유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세계 식량위기와 식량무기화 조짐이 가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라도 심기일전하여 식량위기를 막으려는 범정부적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재모, 김태곤, 이철호,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도서출판 식안연 (2017)
 김영갑, 국내 외식산업 현황과 2020년 전망, 2019년 국내 외식트렌드 조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FMD-AI2/> (2022)
 박종민, 새만금 개발 현황 및 방향,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 세계 식량위기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 자료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

- 박태균, 식량위기 시의 언론과 SNS의 역할, 국가 비상시 식량안보계획 연구보고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2020)
- 박현진, 김덕호, 권오란, 김현옥, 박태균, 이철호,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도서출판 식안연 (2019)
- 보건복지부,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표 (2022)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푸드테크, 식의약 R&D 이슈보고서 (2022)
- 성명환, 오정규, 김민수, 임호상, 이철호, 세계 곡물시장과 한국의 식량안보, 도서출판 식안연 (2018)
- 이철호, 식량전쟁, 도서출판 식안연 (2012)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처음 10년을 돌아보며, 도서출판 식안연 (2020)
-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김세권, 박태균, 권익부,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도서출판 식안연 (2012)
-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이숙종, 이꽃임,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도서출판 식안연 (2014)
- 이철호, 유장렬, 문헌팔, 박현진, 광상수, 이향기, 박수철, 김주곤, 이숙종, 생명공학 수용을 통한 한국 농업 혁신 정책방안, 한림원연구보고서 101,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5)
- 이철호, 김유향, 박현진, 박승우, 정효지, 이숙종, IAP 식량영양안보와 농업-한국의 전망, 한림연구보고서 11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6)
- 이철호, 위남량, 최지현, 임정빈, 안병일, 요셉의 지혜, 한반도 식량비축 계획, 도서출판 식안연 (2019)
- 이철호, 최지현, 박성진, 이남택, 송성완, 박태균, 국가비상시 식량안보계획, 도서출판 식안연 (2021)
- 이효정, 2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제28회 식량안보세미나-한국식품산업의 세계비전 자료집,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2022)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 러·우크라이나 사태 국제곡물시장 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3호, 108 (2022)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왜 해야 하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2011)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 추진위원회 활동계획 (2021)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초안 (2022)
- FAO, 2021,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Rome (2021)
- Godfray, H.C.J., et.al., Food security: The challenge of feeding 9 billion people, *Science*, 327:812-818 (2010)
- IPCC,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M.L. Parry et.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7)
- Lagi, M., K. Z. Bertrand and Y. Bar-Yam, The Food Crises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New England Complex Systems Institute, USA. (http://necsi.edu/research/social/food_crises.pdf) (2011)
- Lester R. Brown, *Who will feed China?*, W.W. Norton & Company, New York (1995)
- SCMP, Coronavirus may cause global food shortages as panic buying and export curbs hit supply, 2020.03.30. <https://www.scmp.com/economy/global-economy/article/3077621/coronavirus-may-cause-food-shortages-panic-buying-and-export>
- Tubiello, F.N. and Fischer, G., Reducing climate change impacts on agriculture: Global and regional effects of mitigation, 2000-2080, *Techn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4, 1030-1056 (2007)
- Ziegler, Jean, *World Hunger Explained to my Son* (1999), 유영미 역, 갈라파고스 (2016)

1. 한국의 재발견

지난 천 년 동안 극동의 작은 나라로 숨어살던 은둔의 나라 조선(Hermit Nation Joseon)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운 좋은 후진국 중의 하나라고 치부해온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열풍이 세계를 뜨겁게 하고 있다. K-POP을 이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는 유엔에서 3차례나 연설을 하고, 백악관에 초대되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포용과 다양성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였다. 일반 외국인기 가수들의 면모와는 색다른 빛을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특수성과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문화영토론을 주창해온 홍일식 교수는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홍일식, 2017).

“우리 동양인은 수천 년 전부터 같고 닮아온 높은 수준의 정신문화를 아직도 가슴속에 지니고 있다. 인(仁), 의(義), 예(禮), 지(智)의 도덕(道德)이 그것인데 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많이 희석되기는 했어도 동양 3국 중에 그래도 한국인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의 조상을 섬기는 생활태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유교문화의 발상지인 중국에서조차 거의 사라진 제사(祭祀) 제도가 우리에게만은

의연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그 특성이 인정된다. 바로 이것이다. 부모를 잘 모시고 조상을 섬기며 노인을 공경하는 이 아름답고 착한 인간의 마음·인간의 정신으로 저들 서양인을 일깨워 줘야 한다. 즉 우리의 문화영토를 겸손하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그들의 저항이나 시기나 방해로 받을 염려가 없다. 바로 이 준비를 서두르지 않고 지금처럼 값싸게 물건이나 만들어 판다면 멸종아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고야 말 것이다”.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되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류열풍으로 열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도덕성을 높이고 이웃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격조 높은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민족의 국시(國是)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비전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문화역량을 가늠하고 식품분야가 세계를 향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1.1. 한류열풍이 식품산업에 미친 영향

최현철(2021)은 ‘한류 4.0, 신(新)한류는 어떤 대중문화인가?’라는 논문에서 한류의 역사를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류 1.0은 1997년-2000년대 중반까지 한류의 태동시기로 주로 영상콘텐츠가 중심이 되어 영화, 가요, 드라마가 아시아와 동남아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는 대단한 인기를 끌며 베트남에서는 ‘대장금’이 방영되는 날에는 국무회의를 연기할 정도였다고 한다. 한류 2.0은 2000년대 중반-2010년 초반으로 아이돌 가수가 주축이 되어 한국 대중가요(K-pop)가 유행을 이끌며 아시아, 중동, 유럽, 미국,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한류 3.0은 2010년 초반 이후 한류의 다양화시기로 한국문화(K-culture)

가 널리 자리 잡으며 한국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전통예술, 음식, 관광, 패션, 미용, 의료까지 한국문화가 전 분야로 퍼져나가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음식, 패션, 화장품을 소비하고 미용시술을 받는다. 심지어는 콘서트장에 가서 K-POP을 따라 부르기 위해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총 92개국의 1,594개 동호회에서 7,312만 명의 한류팬이 활동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대륙별로 아시아 대양주가 4,423만 명, 미주 1,881만 명, 아프리카와 중동 12만 명이다(이병하, 2018). 영국은 2002년에 이미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K-POP을 등재했다. 2019년 제72회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Palme d'Or)을 받으면서 한류와 한국영화(K-movie)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 프랑스에서는 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을 ‘봉 도르’(봉준호의 성과 붙여진 상 이름 뒷부분을 합친 애칭)라고 부른다(김민수, 2022).

외국인들이 갖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전쟁, 남북관계, 정치상황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대중음악, 한식, 영화, 드라마, 뷰티, 패션, 예능 프로그램 등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되어, 한류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0-1). 한국식품(K-food)이 분야별 인지도 2위에 자리한 것을 보면 한류열풍이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 확대와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도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정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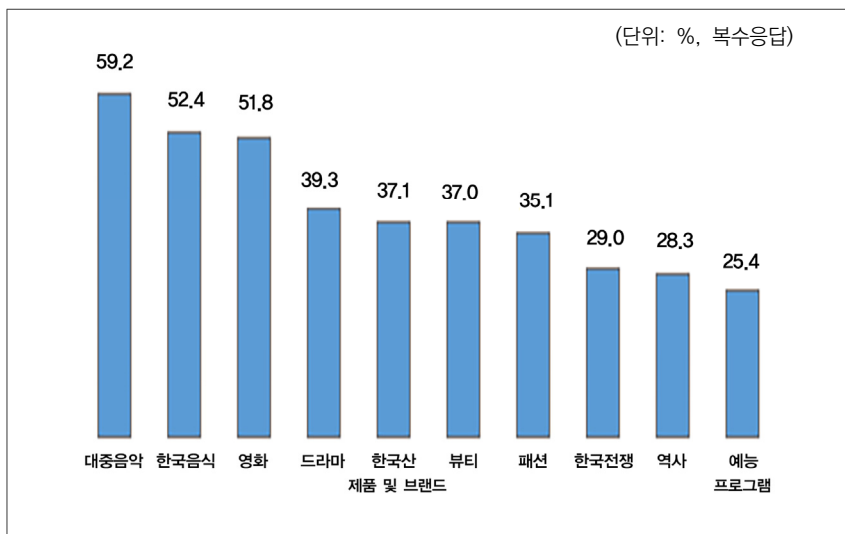


그림 10-1. 외국인의 한국 분야별 인지도 TOP 10

자료: 해외문화홍보원, 2021, 2021년 국가이미지 조사보고서

프랑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 수상한 ‘기생충’에 등장한 농심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조리한 ‘짜파구리’에 대한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해외 요리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기생충식 짜파구리 만드는 방법이 여럿 올라왔으며, 일본 도쿄에는 짜파구리를 파는 카페가 등장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짜파구리 인기에 따라, 실제로 농심의 2020년 미국법인 라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5% 증가한 2,502억 원을 기록하였다(그림 10-2)(김정년, 2022).



기생충



「오 스까 목자~」

짜파구리

시네필 카페 '기생충 세트' 이어 SNS 타고 인증 유행
 “짜장면이랑 달라” “한국 ‘쉬는’ 문화 있어” 정보 공유

パラサイト 半地下の家族 COLLABORATION

1/10-1/30

カンヌ国際映画祭の18年ドール受賞
 韓国の名作映画監督の「パラサイト」半地下の家族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企画

PARASITE SET 1,500-

劇中に登場するステーキ入りジャージャー麺

韓国で人気のチャバゲティとグリラーダがコラボしたステーキ入りジャージャー麺。

+

ドリンク(コーヒー・紅茶・フルーツジュース
 カフェラテ・ビール・ワイン+1000)

CLASS SOCIETY:
 PEACH COCKTAIL 900-

劇中に登場する「桃」
 のリキュールをベースに
 階級社会を象徴した2層構造のカクテル

白桃・グレナデンシロップ・ピーチリキュール

ノンアルコール VER
 白桃・グレナデンシロップ・ピーチジュース



도쿄 시부야의 한 시네필 카페에서 한정판 메뉴로 내놓은 '기생충 세트 짜파구리'와 '계급 사회 복숭아 칵테일'. Café monochrome 홈페이지 캡처

그림 10-2. 영화 기생충 흥행에 따른 글로벌 짜파구리 인기

자료: 농심 홈페이지 및 한국일보, 2020,
 '기생충' 개봉 후 일본 관객들 “짜파구리 먹어보자” 인기 확산

황동혁 감독이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2021년 9월 17일 공개된 이후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연출하였으며, 극한의 게임 중 하나로 ‘달고나 뽑기’가 등장하였고, 드라마 중간에 주인공들이 소주 안주로 삼양라면 라면땅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생소하면서도 신기한 한국식품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확산되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이 오징어게임의 달고나를 보고서 K-과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오징어게임 개봉 직후인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미 과자류(베이커리류) 월평균 수출액이 884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7.6% 급증하였다고 한다. 또한, 삼양식품은 미국, 캐나다, 태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라면땅’ 레시피를 제공하는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오징어게임을 적극 활용하였다(그림 10-3)(김정년, 2022).



그림 10-3. 오징어게임 속 한국식품

미국의 K팝 매체 올케이팝(Allkpop), 코리아부(Koreaboo) 등 다수의 매체들은 “미국에 라면 수출 급증, BTS 지민의 힘에 달려있다”며 이례적인 수출 증가에 주목한 바 있다. 실제로 라면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 2021년 상반기 미국과 중국에서의 삼양식품 불닭 브랜드 매출은 각각 280억 원과 85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43%, 170%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BTS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문화예술계를 넘어 K-

푸드 열풍의 주역으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제품리뷰 사이트 와이어커터에 실린 ‘최고의 인스턴트 라면’(The best instant noodles)에서 신라면 블랙이 1위를 차지하였고, 글로벌 여행 전문 사이트인 ‘더 트래블(The Travel)’이 뽑은 세계 최고의 라면에도 뽑히는 등 한국 라면이 전 세계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계속해서 선정되고 있다. 또한, 뉴욕타임즈의 공식 인스타그램은 흰 쌀밥 위에 김 가루, 계란프라이가 올라간 음식 사진을 게시하면서 ‘계란밥’(Gyeran bap)이라고 소개하였으며, 2021년 1월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숙취에 좋은 전 세계 9가지 음식’ 중 하나로 전주 콩나물국밥을 소개했다. 로렌 쇼키 음식평론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해장국으로 파, 고추 등을 썰어 넣은 전주의 콩나물 해장국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먹는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1년 3월 CNN은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달고나 커피’를 전했고, 7월에는 미국 스펀이 부대찌개를 ‘클래식 부대찌개 아미 스투’(Classic BudaeJjigae Army Stew)라며 한국 음식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한국음식에 대한 해외언론의 관심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식에 대한 우호적인 해외 언론보도는 한국산 식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향상시켜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정년, 2022).

1.2.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

한류열풍은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지 생계형 한식점으로 시작된 해외 외식산업은 2008년 한식 세계화 선포식, 2011년 외식산업진흥법 공포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BBQ(2002년 중국, 2007년 베트남, 2010년 캄보디아 등), 파리바게트(2002년 미국, 2004년 중국 등), 놀부(2006년 중국, 2009년 싱가포르), 비비고(2010년 미국/중국

/싱가포르), 본가(2005년 중국), 오발탄(2006년 중국), 본죽(2006년 미국, 2007년 일본), 교촌치킨(2007년 미국) 등 많은 외식 브랜드들이 해외에 진출하였다(윤은옥, 2022).

한식진흥원이 조사한 2019년~2021년 상반기 유튜브 영상수 1위를 차지한 한국식 치킨은 최근 K-푸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메뉴로 2019년 상반기 213개였던 영상수가 2021년 상반기 861개로 증가하는 등 K-치킨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그림 10-4). 2022년 6월말 기준 미국에만 15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BBQ는 2021년 미국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Nation's Restaurant News)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외식 브랜드 5위에 이어 2022년에는 2위에 선정, 브랜드 파워 331위, 매출 100억 원 돌파하며, 매출 기준 미국 내 500대 외식기업에 오를 정도로 성공적인 영업력을 펼치고 있다(윤은옥, 2022).



그림 10-4. 해외 진출 치킨 프랜차이즈

2. 한국 식품산업의 수출 실적과 세계화 사례

2.1. 한국 농수산물식품 수출 실적

우리나라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2021년 113.6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2011년 76.9억 달러이던 한국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이 2020년에는 98.7억 달러로 28% 증가하였으며, 2016년부터 수출액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10-5). 특히 가공식품이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의 수출액 증가율은 41.8%로 신선식품이나 수산물 수출액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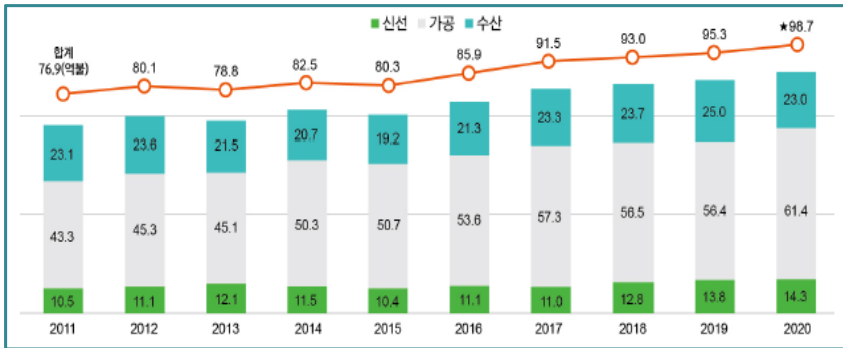


그림 10-5.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변화(2011-202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으로 각각 20.2%, 16.0%, 15.4%(2020년 기준)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10-1). 최근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1.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2019-2020)

(단위: 백만달러, %)

구분	국가	2019		2020		증감률 (B/A)	증감액 (B-A)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합 계		9,529.2	100.0	9,868.8	100.0	3.6	339.6
1	일본	2,158.3	22.6	1,995.1	20.2	-7.6	-163.3
2	중국	1,628.7	17.1	1,580.5	16.0	-3.0	-48.2
3	미국	1,171.3	12.3	1,519.8	15.4	29.7	348.5
4	베트남	671.7	7.0	652.5	6.6	-2.9	-19.2
5	홍콩	413.3	4.3	432.2	4.4	4.6	18.9
6	태국	398.2	4.2	391.7	4.0	-1.6	-6.5
7	대만	366.9	3.8	358.3	3.6	-2.3	-8.6
8	아랍에미리트	137.6	1.4	262.6	2.7	90.9	125.0
9	필리핀	157.2	1.6	209.9	2.1	33.5	52.7
10	인도네시아	197.7	2.1	209.9	2.1	6.2	12.2
11	호주	161.2	1.7	189.3	1.9	17.4	28.1
12	러시아	204.7	2.1	180.8	1.8	-11.7	-24.0
13	싱가포르	145.2	1.5	171.4	1.7	18.0	26.1
14	캐나다	133.3	1.4	156.3	1.6	17.3	23.0
15	말레이시아	116.6	1.2	143.2	1.5	22.7	26.5
16	네덜란드	99.7	1.0	116.4	1.2	16.7	16.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한국 농수산물식품 수출품 중 1억불 이상 수출품목은 담배를 제외하면 라면, 김, 참치, 음료, 커피조제품, 인삼류, 김치, 설탕, 비스킷, 어류제품 등 10개 제품이다(표 10-2). 특히 라면 수출액은 2018년 5위 4.1억 달러에서 2020년 2위 6.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김치 수출도 2019년 12위 1.0억 달러에서 2020년 8위 1.4억 달러로 증가했다.

표 10-2. 한국 농수산물식품 수출품 중 1억불 이상 수출품목(2018-2020)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증감률 (B/A)
	품목	금액	품목	금액(A)	품목	금액(B)	
	합 계	9,300.3	-	9,529.2	-	9,868.8	3.6
	소 계(1억불)	3,640.2	-	3,858.4	-	4,089.6	6.0
1	커피	792.2	커피	717.4	커피	816.7	13.8
2	참치	617.7	김	579.2	라면	603.6	29.2
3	김	525.6	참치	571.6	김	600.4	3.7
4	음료	417.7	라면	467.0	참치	528.0	-7.6
5	라면	413.1	음료	422.0	음료	410.4	-2.7
6	커피조제품	265.7	커피조제품	270.3	커피조제품	274.6	1.6
7	인삼류	187.9	인삼류	210.3	인삼류	229.8	9.3
8	맥주	154.4	맥주	146.2	김치	144.5	37.6
9	설탕	140.2	흡연용담배	133.5	설탕	138.1	15.3
10	비스킷	125.8	설탕	119.8	흡연용담배	122.4	-8.3
11	(조제분유)	99.2	비스킷	116.1	비스킷	117.6	1.2
12	(소주)	97.6	김치	105.0	어류제품	103.5	9.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그러나 농림수산물식품 무역수지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98억 7천만 달러에 비해 수입액은 398억 7천만 달러로 수출액의 4배를 수입하였다(표 10-3). 국가 전체 수입액의 8.5%를 농림수산물식품 수입에 사용하고 있다. 수입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농산물 중 곡류(밀, 옥수수, 콩) 38억 6천만 달러(4조 2,460만 원)와 축산물 중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47억 7천만 달러(5조 2,470만 원)이다(2020년 기준). 농수산업에 불리한 세계 무역기구(WTO)의 마라케쉬협정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들의 결과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주력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므로 이들 제품의 수출을 위해 농수산물 시장을 내어 주어야 하는 필연성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식품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표 10-3. 농림수산물식품 무역수지 현황(2019-2020)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국가전체	542,232	503,342	38,889	512,498	467,632	44,865
농림수산물식품	9,529	40,093	-30,564	9,869	39,876	-30,007
농산물	6,146	19,876	-13,730	6,675	20,669	-13,994
축산물	461	7,786	-7,325	495	7,627	-7,132
임산물	419	6,642	-6,223	393	5,983	-5,590
수산물	2,504	5,788	-3,284	2,304	5,597	-3,29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2. 한국 식품의 세계화 사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2012년 ‘식품산업, 한식세계화에 날개 달다’를 편찬하여 식품산업의 세계화 노력을 사회에 알리고 권장 고무하는 일을 했다. 세계시장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식품 12개를 선정하여 각각의 세계화 전략과 진출 과정을 회사 CEO들이 저술하게 했다. 10년이 지난 2022년에 재단의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화와 지구촌 식량안보를 위한 기여’ 연구를 수행하면서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손홍석 교수가 세계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한국 식품 8가지의 최근 생산현황과 세계화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손홍석, 2022). 그 내용을 간추려 아래에 소개한다.

(1) 햇반

국내 즉석밥 시장 규모는 2011년 1,290억 원에서 2017년 3,27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등의 확대에 인하여 2020년에는 4,437억 원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즉석밥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0년 국내 즉석밥 시장점유율 1위는 CJ제일제당이 66.7%로 꾸준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어 오투기가 32.1%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석밥의 수요는 맛별이와 소규모 가족의 증가, 재해 대비용 등의 사회 배경으로 등장 이후 30년 동안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2019년 총 누적 매출 3조원, 누적 판매량 30억개를 돌파하였다. 23년간 판매된 햇반을 나란히 배열하면 지구를 10바퀴가량 돌릴 수 있으며, 그간 사용한 쌀의 총량은 400만 가마니에 육박한다. 1996년 출시된 햇반은 매해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9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전년의 15% 성장한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5,500억 원의 예상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그림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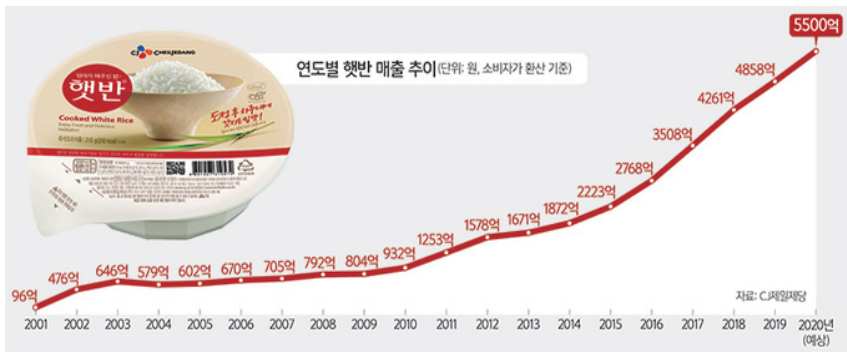


그림 10-6. 연도별 햇반 매출 추이

출처: CJ제일제당 홈페이지

미주교포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첫째 매출은 5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여 2006년에 70배가 넘는 35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2011년 한해 멕시코에서 6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이 달성됐으며 월마트 계열 유통채널 샘스 클럽에도 제품을 입점시켰다. 즉석밥의 세계화 성공요인은 기술력, 기내식 개발, 공격적 시장 공략 등을 들 수 있다(손홍석, 2022).

CJ제일제당은 국외 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국가에 제품명, 유통 전략 등에 차별화를 두며 국가마다 다르게 현지화 마케팅을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주식인 흰 쌀밥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찬과 찌개를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석밥(햇반)이 복합밥(햇반 컵반)보다 판매율이 월등히 높지만, 미국, 러시아, 홍콩, 일본, 중국 등 30여개 수출국은 국내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간편하게 단품으로 먹을 수 있는 복합밥 제품군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였다.

(2) 김치

세대 및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용 상품김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포장김치 시장규모는 2015년 1,482억원에서 2019년 2,832억원으로 4년간 2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2020년 9월 시장규모도 2,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하였다(그림 10-7). 국내 포장김치 1위 브랜드는 대상 ‘종가집’으로 줄곧 1위를 지켜오고 있다. 그러나 2016년 CJ제일제당이 ‘비비고 김치’를 선보이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던 대상의 점유율이 갈수록 낮아졌으며, CJ제일제당은 점유율을 늘려 갔다. 2020년 시장 점유율 차이는 4.2% 포인트로, 현재 국내 포장김치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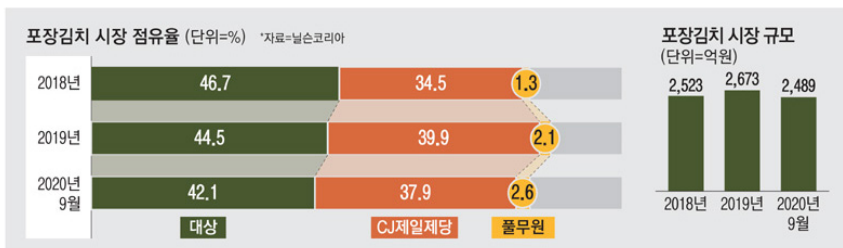


그림 10-7. 포장김치 시장 규모 및 점유율

출처: 닐슨코리아

2020년 김치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37.6% 증가한 1억 4,500만 달러로, 2019년에 2013년 이후 6년만에 1억불 수출을 재달성 하였고, 2020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 및 가정용 소비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한류 영향 등으로 일본, 미국 등 전년대비 수출이 대폭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치의 세계화 성공 요인은 현지 식문화가 반영된 제품생산과 김치 우수성·전통성 홍보를 위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손홍석, 2022).

종가집은 국내 업계 최초로 북미와 유럽에서 식품안전 신뢰도 표준으로 여겨지는 ‘코셔(Kosher)’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그림 10-8). 2009년 맛김치, 포기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등 총 4종이 할랄 인증도 받았다.

종가집은 미국에 수출을 개시하기 위해 교포 채널 방송의 광고를 통하여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선전을 함으로 미국교포 사회에서 고향의 추억을 재현시켜 줄 수 있는 인기상품으로 부상시켰으며, 현지 미국인들에게도 매우 호평 받는 식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 뉴욕타임즈 지면에 ‘김치



그림 10-8. 코셔 인증 김치

출처: 종가집 홈페이지

는 당연히 한국음식' 광고 게재, 김치 다큐멘터리인 '김치유니버스'를 국문·영어판 제작 및 게재,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글로벌 김치 요리대회 개최 등의 김치 우수성·전통성 홍보를 위한 활동 등도 김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신라면

2021년 신라면의 3분기 누적 매출은 총 6,900억 원으로 이중 해외(3,700억 원)가 53.6%에 달하며, 국내 매출을 넘어섰다. 신라면의 전체 매출 전망치는 9,300억 원으로 단일 브랜드로 연 매출 1조원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2015년 식품업계 단일 브랜드 최초 누적매출 10조원을 돌파, 2021년 15조 3,000억원 달성하였다. 농심은 1986년 신라면을 출시한 이듬해 1987년 수출을 시작했다. 1990년대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며 중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2000년대 들어 미국에도 생산기지를 마련한 농심은 해외 시장에서의 행보를 매년 확대하여 2014년 수출국가 수를 100개국을 달성한 바 있다. 신라면은 2017년에는 한국 식품 최초로 미국 월마트 4,000여 개 전 점포에 입점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연이은 낭보를 전했다. 신라면은 세계 100여 개 국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 특히, 미국 제2공장 가동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멕시코와 남미 지역까지 공급량을 확대하여 글로벌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신라면의 세계화 성공 요인은 현지화 마케팅, 현지 유통력 유통채널 확보 등을 들 수 있다(손홍석, 2022).

한국의 매운 맛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글로벌 전략을 추진한 농심은 일본에서 시식, 샘플링 등의 직접 마케팅 체험행사와 유동인구를 고려한 옥외 광고 매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2002년 일본 도쿄 전철 광고가 그 시발점이다(그림 10-9). 일본의 전철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본의 대표적이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10-9. 신라면의 일본 전철 광고

출처: 농심 홈페이지

또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이후 J리그 축구 경기, 2009년 라쿠텐 구장 야구 경기 등에 빌보드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맞아 양국의 문화 교류에 가속도가 붙을 시기에 하네다 공항 내 카트 광고를 실시함으로 신라면 브랜드를 인지도를 높였다. 일본에서 농심의 성장을 견인한 또 하나의 주역은 ‘신라면 키친카’이다. 신라면 키친카는 신라면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하는 푸드트럭으로 2013년부터 운행됐다. 신라면 키친카는 매년 봄·가을에 걸친 7개월간 일본 내 주요 도시를 누비며 신라면 시식행사를 통해 한국의 매운 맛을 알려왔으며, 그동안 신라면 키친카가 일본 전역을 누비며 펼친 시식행사는 150여회로 이동거리만 10만km에 달한다.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중국 소비패턴을 활용하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등에 신라면을 입점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직거래 계약하여 미국전역에 라면을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최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등에 입점하여 대량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손홍석, 2022).

(4) 포장두부

한국의 두부 시장은 오랜 세월 동안 영세한 가내수공업 형태의 공장에서 소량 제조된 판두부를 식칼로 한모씩 잘라 물에 담가 놓았다가 손님이 오면 헌 신문지에 말아서 주는 식이었다. 두부는 상하기 쉬운 단백질 식품이므로 상온에서 그런 식으로 팔면 하루해를 넘기지 못해 상하기 십상이었다. 그러던 중 국민의 다소비 식품이 불량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두부류 제조업을 중소기업 합병 장려업종으로 지정·고시하고, 합병된 지역에서는 신규 영업 허가를 제한하였다. 이때 2,000여개의 두부집이 500여개소로 축소되었으며, 통합된 두부집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식품회사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고 자금을 염출하여 대량 생산 체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업체 중 풀무원은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두부는 좋은 국산콩만 쓰고 응고제도 그때 가장 안전성이 높은 것을 택하였다. 또한 헌 신문지가 아니라 밀봉 포장하기 시작하면서 품질 개선 및 위생 개선에 앞장선 것이다. 또한, 두부는 온도에 민감한 식품이기에 유통 중 변질될 위험성이 높았는데, 1986년 냉장차로 두부 유통을 시작하고, 2002년부터는 공장, 물류센터 창고, 움직이는 차량 적재함의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콜드 체인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어 두부 제조, 유통의 선진화를 이끌어내었다.

풀무원은 1984년 국내 첫 포장두부를 출시하였고, 2011년 두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풀무원은 시장점유율 50%를 넘기지 못하는 등 제약이 따라, 매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현재까지 45~50%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까지 두부 수출물량은 3,306톤으로 2019년 838톤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수출금액도 506만 달러로 2019년 170만 달러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이는 전 세계 식품시장에서 기능성식품과 식물성 단백질 수요급증 등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수입대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활용한 해외수출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전체 두부 수출물량 중 75%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풀무원은 해외 진출 후 지속적인 적자였으나, 2020년 미국과 중국 법인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 풀무원의 해외 진출 성공 요인은 소비자가 안심하는 바른 먹거리 전략과 현지 입맛과 취향에 맞는 두부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손홍석, 2022).

풀무원은 2002년 LA에 콩 연구소를 세웠으며, 기존 두부와는 전혀 다른 치즈풍 두부를 개발해냈다. 2004년 유기농 콩 전문 기업 와일드우드를 인수하고 생산 라인을 정비하여 미국식 두부 제품들을 개발하였으며, 와일드우드의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여 미국 내 대형할인점에 입점하였다. 다양한 두부 요리와 판촉 행사를 통해 미국인들은 쉽게 두부를 접하게 되었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불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 소비확산 트렌드에 맞게 입맛과 취향에 맞는 두부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그림 10-10). 중국인이 두부를 먹는 형태는 볶음용 50%, 데침용 30%, 부침용 15%, 튀김용 5% 정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높은 열에 조리해서 먹는 식습관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포두부(滷豆腐), 백간(白干), 향간(香干) 등 가공두부 신제품을 제조하여 중국 가공두부 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림 10-10. 풀무원USA가 판매중인
와일드우드 고단백 두부(좌), 나소야 오가닉 두부(우)

출처: 풀무원 홈페이지

(5) 막걸리

막걸리는 원료, 제조방법, 지역성, 살균 및 비살균에 따른 특징이 다양하여 세계 어떤 주류보다도 독창성이 있는 가장 한국적인 술이라고 할 수 있다. 막걸리는 발효제에 따라 누룩막걸리, 입국막걸리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탁주류에 쓰이는 발효제는 막누룩에 속하는 밀가루와 밀기울로 만들어진 조곡이 일반적이나 이화주 같은 고급탁주는 쌀로 만든 누룩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통누룩은 자연상태에서 다양한 균들로 만들어진 천연발효제이기 때문에 균일화된 품질을 얻기 어렵다.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맛과 향을 지닌 술을 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조과정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생산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막걸리 생산은 국내외 막걸리 붐이 일었던 2011년도에 출고량 45만kl를 달성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 이어 2020년 다시 출고량이 40만kl 미만으로 떨어졌다(표 10-4).

표 10-4. 막걸리 생산동향

구분		'15	'16	'17	'18	'19	'20
출고량(kℓ)		416,046	399,667	409,407	402,580	370,500	-
출고금액(백만원)		470,061	454,068	446,852	459,066	442,967	-
수출	물량(톤)	13,893	13,654	12,904	12,848	12,772	12,556
	금액(천불)	12,902	12,868	12,247	12,410	12,191	12,469
단가/kg	수출단가(불)	0.93	0.94	0.95	0.97	0.95	
원/liter	국내가격(원)	1,129	1,136	1,094	1,140	1,196	-

출처: 국제통계연보, 수출통계(KATI), 2020

특히 2011년을 정점으로 국내외 소비기반이 흔들려 출고량, 소비량, 수출량이 모두 감소해왔으나 2016년부터 소폭 반등세를 보이며 2020년에도 일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막걸리 주세가 2020년부터 약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1L 당 41.9원)되어 업체들의 프리미엄 막걸리 생산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프리미엄 막걸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키워드 긍정 비율 96.0%, 2019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을 기반으로 막걸리의 고급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막걸리의 세계화 성공 요인은 살균 탁주의 개발과 다양한 제품개발에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손홍석, 2022).

막걸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낮은 알코올도수와 살아있는 효모로 인해 유통기한이 짧아 수출을 할 수 없었다. 생막걸리는 탄산가스에 의해 제품용기가 터지는 현상과 냉장보관을 하더라도 보관기간이 길어지면 후발효로 맛이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었다. 하지만 1992년 탁주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 인천탁주의 팩막걸리



그림 10-11. 인천탁주 팩막걸리

‘농주’가 출시되면서 탁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그림 10-11).

살균막걸리는 고려대학교 식품재료공학연구실 이철호 교수팀이 고온단 시간(HTST) 살균방법(80℃, 20초)으로 쓴맛과 화독내의 발현을 최소화함으로써 장기저장 막걸리의 상품화에 성공한 것이다(이철호 등, 1991). 이로써 유통기간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포장(팩, 캔) 막걸리가 출시되면서 수출의 발판이 마련되었다(이철호, 2012). 최근에는 제품 용기의 발달로 병입 이후 생성된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효모의 활성을 제어하는 기술도 발전하여 점차 생막걸리의 유통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국순당 등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막걸리(저도주, 유산균, 홍삼, 바나나, 유자, 멜론, 알밤, 복숭아 등)가 출시되며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막걸리가 개발되고 있다. 또한 젊은 양조장 증가 및 유통업계 콜라보에 따른 트렌디한 디자인의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6) 장류

2020년 생산액 기준으로 장류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품목은 간장(29.4%), 고추장(26.1%), 혼합장(19.1%), 된장(13.7%), 청국장(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류 전체 생산량은 2020년 67만 9,526톤으로 2016년 대비 5.5% 감소하고, 2019년 대비 0.8% 감소하였고, 1인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편의성이 강화된 혼합장과 소스류의 수요 증가로 2017년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의 전통 장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표 10-5). 이후 간장과 고추장은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된장의 경우는 지속 하락하고 있다.

표 10-5. 장류 전체 생산량 추이

(단위: 톤)

구분	간장	고추장	된장	혼합장	기타장류	장류전체
2016	360,010	135,331	98,912	89,106	35,592	718,951
2017	257,297	130,563	97,272	95,790	38,520	619,442
2018	308,578	131,713	92,503	95,206	36,825	664,825
2019	312,085	134,191	93,036	107,780	37,860	684,952
2020	304,511	141,352	89,822	102,480	41,361	679,526

출처: 국연도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장류의 2020년(3분기) 누계 수출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장류 수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한류 열풍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장류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전년동기 대비 27%↑), 중국(43%↑), 일본(26%↑)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출이 저조했던 동남아 국가에서의 수출실적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태국에서 장류 수출이 123% 증가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고추장 수출이 167% 증가했으며, 이는 한식을 소재로 한 K-드라마 등이 인기를 끌면서 직접 한식을 요리해보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소스류의 세계화 성공 요인은 (주) 샘표식품과 CJ제일제당 등 관련기업의 세계화 연구개발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손홍석, 2022).

샘표는 한식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탐다운 전략을 도입,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술쟁 세프들에게 장을 소개하고 사용해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이 가지고 있는 맛, 향미, 사용법을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 페어링 맵’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여 2012년 ‘마드리드 퓨전’에서 처음 선보였다(그림 10-12). 장 페어링 맵은 장의 성격을 맛, 질감, 향미로 표현하고 사용법을 서양인들에게 익숙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설명

한 일명 장의 맛지도이다. 한편, 샘표는 우리 장의 외국어 표기를 우리 발음대로 간장은 ‘GanJang’, 된장은 ‘DoenJang’, 고추장은 ‘GochuJang’으로 소개함으로써 우리 장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화를 실시하였다. 샘표는 수출 초기 교포시장을 중심으로 판매해 왔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 중동, 하와이 등 72개국에 다양한 샘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그림 10-12. 샘플의 장 페어링 맵

CJ제일제당은 고추장 현지화와 관련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미국의 식품 회사인 애니천(Annie Chun's)을 인수하고, 미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한 맛 방향 연구와 소비자 조사를 거쳐 2009년 12월 '애니천 고추장 소스'를 출시하며 미국 현지 메인스트림 유통채널 5,000개 점포에 입점시켰다. 이후 밴쿠버 등 캐나다 서부 지역 200여 개 유통점에도 입점에 성공하며 북미 전체에서 고추장 소스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는 고추장을 세계인의 핫 소스로 도약시키기 위한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추장의 한국식 발음 그대로 영문화하여

‘GOCHUJANG’이라는 영문표기를 사용했고,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소스로 써 현지인들의 식습관에 맞게 찍어먹거나(Dipping) 뿌려먹을(Topping) 수 있도록 현지화에 초점을 둔 제품이라 그 의미가 크다. 제품 출시와 더불어 CJ제일제당은 ‘햄버거 고추장 소스 콘테스트’와 행사를 통해 현지 음식에 맞게 고추장을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였다.

(7) 구이김

국내 조미김 시장은 1986년 동방유량이 해표김을 출시했고, 해태, 대한 종합식품, 동원, 대상, 사조가 합류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동원은 우수한 기술진 확보, 일본 최고의 위생적 생산라인 도입, 알루미늄 포장지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였고, 현재까지도 김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김 생산량이 5만 톤 미만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2배인 10만 톤을 넘었으며,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2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 이후 40년 동안 약 5배 가량의 급속한 김 생산량 증가를 보이며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2020년 김 수출은 BIG 5중 미국, 일본을 제외한 중국, 태국, 대만 등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조미김 수출이 2019년보다 20% 이상 상승 및 신흥국인 러시아의 부상에 따라 수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6억 불을 달성하였다(표 10-6).

표 10-6. 김의 수출동향

단위: 천톤, 백만불, %

구분	'16	'17	'18	'19		'20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353.0	513.2	525.6	26.9	579.2	24.9	600.4	-7.4	3.7
미국	70.3	86.6	95.2	5.4	113.1	4.9	138.0	-8.3	22.0
일본	78.2	114.8	117.8	5.3	131.8	5.3	132.9	1.0	0.8
중국	68.2	88.9	84.0	4.9	112.2	3.8	100.8	-21.4	-10.1
태국	55.1	72.9	82.0	3.8	61.9	2.7	42.2	-28.6	-31.8
러시아	4.3	18.2	16.2	1.1	24.3	1.5	31.2	34.4	28.2
대만	18.9	33.0	32.2	1.2	27.9	1.2	26.5	-4.1	-5.1

출처: KATI

김의 세계화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 현지 시장을 고려한 제품의 다양화에 있다. 국내와 달리 일본에서는 조미 김이 밥 반찬보다는 술안주로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동원은 일본의 소비자 동향을 파악해 포장 및 디자인을 젊은 사람의 취향에 맞게 변경하고, 조미김이 밥 반찬이 아닌 술안주용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포장량을 현저히 줄였으며, 겉 포장지 디자인을 맥주잔에 맥주가 가득 담겨 있는 이미지로 바꿔 김 코너가 아닌 술안주 코너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등 판매 전략을 새로 수립하였다. 이러한 판매전략은 성공적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격적으로 다양한 판매전략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 수출물량도 나날이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2011년 ‘양반 씨베지스(Sea Veggies)’란 이름으로 3종(오리지널, 흑후추, 칠리맛)을 선보였다. 양반 씨베지스 3종은 미국의 대형 유통기업 크로거(Kroger)가 운영하는 전국 3,000개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동원F&B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조미김을 ‘바다야채’란 개념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2016년 미국 북동부 지역 코스트코 87개 매장에 ‘양반 스낵김

아몬드'를 입점시켰다.

김이 생소한 나라에선 홍보에 힘을 기울이며 시장을 개척했다. 해조류를 접하기 어려운 러시아가 대표적인 사례다. 러시아인들에게 김은 생소한 식품이었기 때문에 동원F&B는 양반김 수출과 더불어 해조류에는 무기질과 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덕분에 양반김은 러시아인들에게 고급 영양 간식 대접을 받고 있다. 최근엔 중국이나 태국 같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공을 들인다. 특히 태국은 김 소비가 활발하고, 한류 바람도 강해 양반김이 인기다. 동원F&B는 신흥시장에 힘을 더 쏟기 위해 양반김 4종(돌김, 올리브김, 참기름김, 더바삭한김)의 할랄 인증을 따냈다(손홍석, 2022).

(8) 냉동만두

1970년대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만두시장은 영세업체들에 의해 가정용과 재래시장 중심의 업소용으로 시장을 양분한 전형적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생산 설비의 현대화와 제품 개발을 통해 만두가 본격적으로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만두시장에서 2013년까지 1위는 1987년도 출시된 '고향만두'를 보유하고 있는 해태제과였다. 2013년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왕교자'가 출시되면서 당해년 시장 점유율이 비슷해졌으며, 이 후 시장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며 CJ제일제당이 냉동만두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가 되었다.

2020년 국내 냉동만두 시장의 규모는 약 5,455억 원이다. 2018년 4,912억 원, 2019년 5,078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냉동만두 시장 규모가 5,500억 원대를 가리키는 가운데, 국내 냉동만두 시장 점유율에서 CJ제일제당이 45.9%를 차지하며 원톱 체제를 유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풀무원 15.6%, 해태 12.6%, 동원 8.3%으로 나타났다(그림 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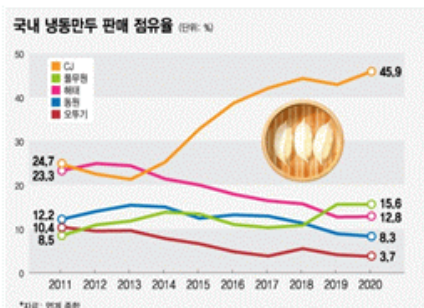


그림 10-13. 국내 만두 매출 현황 추이 및 점유율

출처: 닐슨 및 업계 종합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0년 냉동만두 수출액은 5,089만 달러로 전년 3,481만 달러 대비 46.2% 증가하였다. 2016년 2,194만 달러에 불과했던 냉동만두 수출액은 2017년 2,392만 달러, 2018년 3,135만 달러, 2019년 3,481만 달러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간편식(HMR)과 농산가공식품의 해외 수요가 증가했고, 한국 냉동만두의 인기도 급등하였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K-푸드 열풍으로 냉동만두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국가별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 일본, 필리핀 등이며, 미국의 경우 2020년 1,174만 달러로 전체 냉동만두 수출의 23.1%를 차지한다.

냉동만두의 세계화 성공 요인은 국가별 현지화 전략과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이다(손홍석, 2022). CJ제일제당은 미국 현지인들에게 익숙한 한입크기의 ‘비비고 미니완탕’에 집중하면서도 ‘만두(Mandu)’로 표기한 제품을 계속 노출시켜 친밀도를 넓혀갔다. 중국에서는 피가 얇고 고기와 야채가 많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하여 건강식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러시아에서는 전통만두인 ‘펠메니’를 생산하였다. 특히 돼지고기만 사용하는 한국 냉동

만두와 달리 러시아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소고기를 함께 사용하는 식문화 특징을 반영하여 현지화 제품으로 차별화함으로써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였다.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동일한 비비고 만두 설비 투자를 통해 기존 현지식 만두 제품의 특징을 살리면서, 한국 식문화와 접목시킬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특히 베트남의 교통수단(자전거, 오토바이)과 도로 인프라 등을 감안해, 제품을 파우치가 아닌 플라스틱 트레이에 하나씩 담은 제품 패키징을 통해 현지 소비자의 시선과 입맛을 사로잡았다.

CJ제일제당은 애니천(2005년), 옴니(2009년), TMI(2013년), 카히키(2019년) 등의 현지 식품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하였으며, 특히, 2019년 미국 전역에 식료품 유통 채널을 보유한 쉬완스 컴퍼니(Schwan's Company) 인수로 기존 뉴욕, 뉴저지, 오키호 등 5곳의 생산기지를 22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코스트코 등 일부 대형 유통채널에 집중되어온 비비고 제품을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물류·유통·영업망을 통해 북미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CJ제일제당은 DCH와 합자법인을 세우고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중국 유통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2019년 중국법인에 온라인 사업팀을 신설하였다. 온라인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 한 후 18개월 만에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매출이 13배 성장되었다.

3.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와 한국 식품산업의 기여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19년 7조8,323억 달러로 추정된다(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1)(표 10-7). 식료품 시장이 4조 달러, 음료시장이 3조 달러로 세계 자동차시장 규모 2조 9천억 달러(www.ibisworld.com 2022)의 2.7배에 달한다.

표 10-7. 세계 식품시장 규모

(단위: 10억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세계 식품시장	7,415.3	7,743.2	7,832.3	▲1.15%
식료품시장	3,847.2	3,994.2	4,013.7	▲0.49%
음료시장	2,853.4	2,968.7	2,992.3	▲0.79%
담배시장	714.4	780.3	826.3	▲5.9%

- 식품 관련 통계정보를 통계청, Global data 등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업종·품목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결과.

데이터 생산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가별 식품시장 규모를 보면 중국이 2019년 1조 7천억 달러로 가장 크고, 그다음이 미국으로 1조 2천억 시장이다(표 10-8). 2016년까지 1위를 달리던 미국이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우리나라는 1,139억 달러(125조 2,900억 원)로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식품시장으로 세계 전체 식품시장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8에는 국가별 식품시장의 크기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식품시장 규모를 각 나라의 1인당 GDP와 비교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의 2019년 1인당 식품시장 규모는 대략 4,100-3,500 달러 규모이며, 일본이 3,100달러, 한국, 아르헨티나, 폴란드가 2,200달러 수준이다. 그다음 중국,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가 1,700-1,200달러, 터키, 태국, 필리핀, 베트남이 900-700달러, 인도네시아 305달러, 인도 146달러로 분포되어 있다. 1인당 식품시장 규모는 각 나라의 1인당 GDP 순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표 10-8. 국가별 식품시장 규모(매출액)와 1인당 식품시장(2019)

순위	국가명	식품시장 규모 (백만 달러)	인구 (백만 인)	1인당 식품시장 (US\$)	1인당 GDP (US\$)
1	중국	1,696,509	1,430	1,187	10,276
2	미국	1,241,455	329	3,773	65,111
3	일본	396,744	125	3,174	40,846
4	독일	328,527	82	4,006	46,563
5	브라질	292,775	212	1,381	8,795
6	러시아	258,401	146	1,770	11,162
7	프랑스	257,999	95	3,969	41,761
8	영국	240,976	68	3,544	41,030
9	이탈리아	232,716	59	3,944	32,947
10	인도	200,456	1,369	146	2,172
11	스페인	168,370	47	3,582	29,961
12	멕시코	159,639	132	1,209	10,118
13	캐나다	141,713	38	3,729	46,213
14	호주	117,641	25	4,705	53,825
15	대한민국	113,952	51	2,234	31,431
16	아르헨티나	94,781	45	2,106	9,887
17	폴란드	82,853	38	2,180	14,901
18	인도네시아	79,247	26	305	4,164
19	터키	78,587	83	946	9,400
20	필리핀	78,268	108	725	3,294
21	베트남	73,396	96	764	2,740
22	네덜란드	65,368	17	3,845	52,367
23	태국	63,654	69	923	7,790

자료: Globaldata(<http://consumer.globaldata.com>)의 자료에서 추산

표 10-9는 세계 10대 식품기업과 국내 10대 식품기업의 매출액을 비교한 것이다. 세계 최대 식품기업인 스위스 네슬레(Nestle)사의 2019년도

매출액은 96조 2,300억 원으로 우리나라 최대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 매출액(2021)의 14배에 달하고 있다.

표 10-9. 세계 10대 식음료기업과 국내 10대 식음료기업의 매출액 비교

글로벌 10대 식음료기업(2019) ^a					국내 10대 식음료기업(2021) ^b		
순위	기업명	국가	매출액		순위	기업명	매출액
			(백만USD)	(10억 원) ^c			(10억 원)
1	네슬레	스위스	89,195	96,230	1	CJ제일제당	6,796
2	펩시	미국	64,661	77,600	2	대상	2,875
3	엔하이저부시	벨기에	54,619	65,540	3	오뚜기	2,415
4	JBS	브라질	46,790	56,150	4	롯데칠성	2,345
5	타이슨푸드	미국	40,052	48,060	5	농심	2,103
6	ADM	미국	38,900	46,680	6	하이트진로	1,977
7	마즈	미국	35,000	42,000	7	삼양사	1,784
8	카길	미국	32,500	39,000	8	동원F&B	1,771
9	코카콜라	미국	31,856	38,220	9	롯데푸드	1,608
10	크라프트	미국	26,259	31,510	10	롯데제과	1,546

자료출처: a) <https://smellofmoney.tistory.com/106>,
b) 식품저널 DB, c) 환율 1USD=1,100원

네슬레는 1866년 앙리 네슬레(Henri Nestle)에 의해 이유식제조 회사로 창업한 기업으로, 스위스 베비(Vevey)에 본사가 있으며, 이유식, 초콜릿, 커피제품으로 세계 1위 기업이 되었다. 2위 미국의 펩시(PEPSICO)는 1898년 약사 케일럽 브래덤(Caleb Bradham)이 창업한 회사로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으며 음료뿐만 아니라 트로피카나 등 과자류도 생산한다. 3위 엔하이저부시(Anheuser Busch InBev)는 벨기에 맥주 제조회사로 버드와이저, 코로나, 호가든 등을 판매한다. 우리나라의 OB맥주도 인수하였다. 4위 JBS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육류가공회사로 본사는 브라질 상파울루

에 있으며, 전 세계에 150여 개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5위 타이슨푸드(Tyson Foods)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육류가공회사이다. 미국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에 300여 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ADM(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는 5대 곡물메이저 중의 하나로 곡물거래와 농산물 가공·판매 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 음료, 기능성식품과 동물사료 가공 산업에 270여 개 공장과 420개 조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농식품을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마즈(Mars)는 미국 버지니아에 본사가 있는 식품업체로 과자생산으로 유명하다. 스니커스, 트윅스, M&M 초콜렛 등 제과와 음료, 애완동물 사료도 생산한다. 카길(Cargill)도 세계 5대 곡물메이저 중 하나로 세계 주요 곡창지대에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구매, 저장, 가공 유통사업을 한다. 회사 자체 인공위성까지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곡창지대의 작황상태를 하루 3회씩 체크할 정도로 정보능력을 키워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코카콜라(Coca Cola Company)는 미국의 약사 존 스티스 펌퍼턴(John Stith Pemberton)에 의해 만들어진 음료이다. 그 후 제조 판매권을 사들인 약제상 에이서 켄들러가 동업자와 함께 1892년에 설립하였다. 본사는 미국 조지아에 있으며, 미국을 상징하는 탄산음료 브랜드이다. 크래프트(Kraft Heinz Company)는 미국의 식품기업 크래프트와 하인즈가 합병하여 탄생시킨 기업으로, 워렌 버핏(Warren Edward Buffett)이 투자한 회사로도 유명하다. 하인즈의 토마토케찹과 여러 가지 소스 및 피클과 크래프트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외에도 음료, 오레오 등을 생산한다.

우리나라 식품 대기업들은 아직 세계적인 글로벌기업 순위에서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은 많지 않다. 포브스(Forbes)의 2000년 세계 식품기업 목록(<http://forbes.com/global2000>)에 CJ제일제당이 59위, KT&G

가 94위, 롯데(Lotte)가 114위로 기록되어 있다. 구글(Google AdSense)의 글로벌 100대 식품기업에는 93위 농심, 94위 오뚜기가 등재되어 있다 (<https://smellofmoney.tistory.com/228>, 2022. 6. 26).

3.1. 한국 식품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한국 식품기업의 해외진출 역사는 오래 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주)대상은 1973년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MSG공장을 건설하여 동남아시아에 한국 식품산업이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대상은 인도네시아에서 MSG, 전분당, 종합식품 사업을 통해 2021년 3,69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농심은 1999년 중국에 독자법인을 세워 현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해 매출 700만 달러로 시작하여 2018년 2억 8,000만 달러(3,080억 원)로 20년 동안 40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미국의 냉동식품회사 쉬완스(Schwan's Company)를 인수하여 미국 내 식품매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3,649억 원이었던 쉬완스 매출액이 2021년 3조 3,286억 원으로 약 10배 성장했다. 이로써 CJ의 전체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중이 60%에 달하게 되었다. CJ는 전 세계 15개국에 74개소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임직원수가 17,350명에 달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김정년, 2022).

이와 같이 한국 식품산업은 시장이 확보된 수출국에 생산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현지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품목 특성상 현지생산법인을 먼저 설립하거나 인수한 후에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풀무원의 해외 두부공장이 대표적 사례이다. 냉장제품인 두부의 경우 냉장운송비 과다 및 유통기한 문제로 인해 국내생산품을 수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 미국, 중국에 두부공장을 설립하

거나 기존 시설을 인수한 후에 장시간에 걸쳐 시장을 개척하여 최근 흑자 전환을 이루었다. 풀무원은 현재 미국 냉장두부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료산지에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수출전진기지 및 원료조달기지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상과 CJ제일제당이 사탕수수 등 주산지인 인도네시아에 생산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과 육류 공급이 원활한 뉴질랜드에 생산법인을 설립한 오투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의하면 2022년 6월 현재, CJ제일제당 등 우리나라 주요 식품기업 13개사가 18개국에 생산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출 국가를 살펴보면, 연간수출액이 1억 불 이상의 주요수출국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주로 설립되어 있으나, 수출이 미진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EU지역과 브라질, 세네갈, 뉴질랜드 등 남미, 아프리카, 대양주까지 전 세계 각지에 진출되어 있다(그림 10-14)(김정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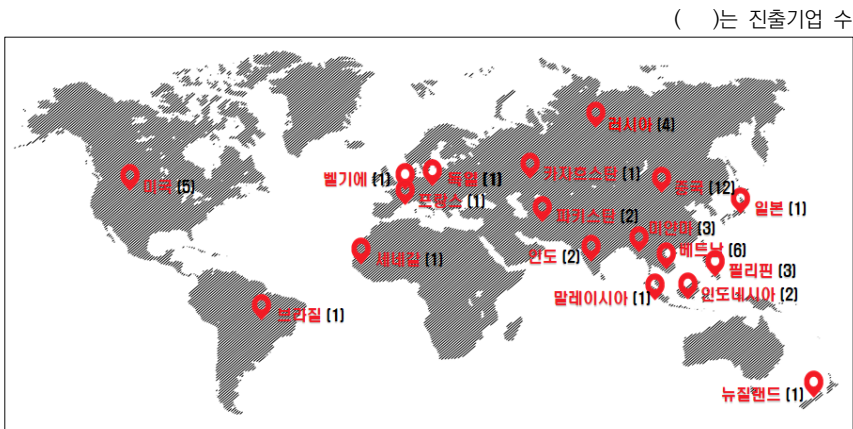


그림10-14. 주요기업별 해외생산법인 현황

자료: 김정년(2022)

표 10-10은 우리나라 주요 식품기업의 해외 생산 법인 현황이다(김정년, 2022).

표10-10. 한국 주요 식품기업 해외 생산 법인 현황

기업명	국가	지역	생산품목
농심	중국	심양 백산 청도 상해	라면, 스낵 먹는샘물 스프, 스낵, 생지, 건조농수산물가공 라면
	미국	LA, 랜초 쿠카몽가	라면
대성	중국	북경	김치
	미국	LA	김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팜오일, 전분당, DGA, MSG
	베트남	벳찌 띠이닝 흥옌 하이즈엉	발효조미료 물엿, 타피오카 전분 신선, 육가공 상온식품
	필리핀	카가안디오로	물엿
롯데제과	중국	청도	파이, 비스킷, 초콜릿
	카자흐스탄	알마티, 쉴켄트	초코, 캔디, 비스킷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카라치	스낵, 비스킷, 파스타
	벨기에	니콜라스	초콜릿
	인도	넬리쿠팜, 첸나이, 하리아나, 구자라트	파이, 캔디, 껌, 아이스크림
	러시아	칼루가	파이
	미얀마	양곤	비스킷, 파이, 양산빵
롯데칠성 음료	중국	장백	생수
	필리핀	마닐라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다류 등
	미얀마	양곤	탄산음료, 에너지, 생수 등
	파키스탄	라호르	탄산음료, 생수 등
CJ 제일제당	중국	심양, 요성, 하이더 불산 장먼, 요성	라이신, 트립토판, 발린, 핵산, 기능성 아미노산 등 발효대두박, 만두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줌방	핵산, MSG, 라이신 등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오하이오, 뉴저지, 미네소타	만두, 볶음밥, 면, 소스, 롤, 김, 레디밀
	필리핀	민다나오	자일로스
	브라질	베라시까바	라이신

기업명	국가	지역	생산물목
CJ 제일제당	베트남	롱안성 봉따우 호치민 롱안	만두, 가공밥, 김치, K소스 밀가루, 프리믹스 김치, 만두, HMR, 냉장냉동식품 만두, 즉석밥, 김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두
	미얀마	양곤	식용유
	독일	니드데라우	냉동식품
	말레이시아	테렝가누	L-메티오닌
아워홈	중국	청도	냉동야채, 조림류, 탕류, 양념육 등
SPC그룹	중국	톈진, 대련	빵, 케이크, 가공채소, 소스
	프랑스	파리	빵류
	베트남	호치민	빵류
오뚜기	중국	연운항	농산물건조, 농축, 냉동가공, 당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스, 마요네즈, 육가공품
	미국	캘리포니아	카레, 프리믹스, 라면, 소스, 3분제품, 참기름 등
	베트남	빈증	식초, 소스류, 드레싱류
오리온	중국	허베이, 상해, 북경, 광주, 선양 신장위구르자치구	스낵
	베트남	미푹, 옌푹	스낵, 양산빵 등
	러시아	뜨베리, 노보시비리스크	스낵(초코파이)
	인도	라자스탄	제과
KGC 인삼공사	중국	연길	홍삼류
팔도	러시아	라멘스코예, 리시잔	라면
	베트남	푸토	라면
풀무원	중국	중경, 북경, 상해	두부, 파스타, 냉장간편식, 냉장면제품, 떡볶이, 건강기능식품 등
	일본	오마치, 쓰끼요노, 아즈미노, 교다, 가나가와	두부, 유부, 육가공대체식품, 대두가공식품
	미국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뉴욕	두부, 콩가공식품, 파스타, 소스, 베이크밀
동원그룹	미국	사모아	참치
	세네갈	다카르	참치
	중국	위해	조미식품

자료: 김정년(2022)

4. 세계 식량위기를 막기 위한 식품기업의 역할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존을 시작한 이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온 생존의 원칙은 식량을 획득하는 일이었다. 민족의 이동이나 끊이지 않은 전쟁은 대부분 식량획득을 위한 노력이었다. 20세기만 해도 세계 각처에서 수만 명에서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굶어죽는 대규모 기근이 20여 차례나 발생했다(서완수, 2018; 이철호 등, 2019). 대부분 가뭄이나 이상기후, 전쟁, 봉쇄작전 등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20세기말부터 21세기로 이어지는 만성적인 세계 식량부족 사태는 무역자유화 경제 질서에서 파생된 세계 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들의 세계 분업화를 위한 비교우위 경제이론에 밀려 가난한 나라들이 그들의 식량 생산을 포기하고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커피, 사탕수수 등을 생산하면서 그들의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 인프라가 붕괴되고 값싼 수입식품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 가나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이철호, 2012).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기아인구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5년의 8.2억 명에서 2009년에는 10억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10-15).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가장 많아 6억 4,200만, 아프리카 2억 6,500만이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세계적인 식량 불균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쉬운 일이 아니다.

4.1.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전 세계 189개국 정상은 2000년 9월 UN 제55차 정기총회에서 밀레니엄 선언을 채택하였다. 2001년 6월에는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구체적 실행 목표로 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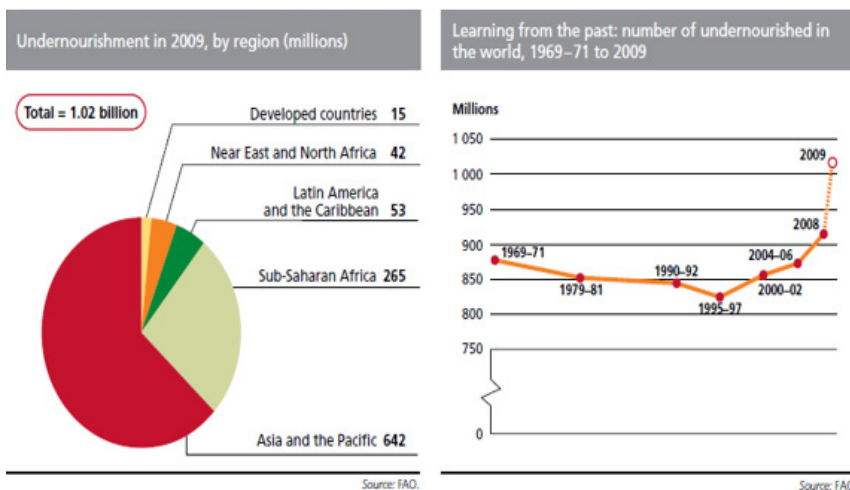


그림 10-15. 세계 기아인구수의 변화(1969-2009)

Goals, MDGs)를 발표했다. MDGs는 절대빈곤과 기아의 극복,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의 향상, 아동사망률의 감소, 모자보건의 향상, HIV/AIDS와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의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절대 빈곤률이 1990년대 47%에서 2015년 14%로 감소되었고,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계를 이어가는 절대 빈곤 인구가 1990년 19억 명에서 2015년 8억 명으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이효정, 2022).

MDGs의 후속 의제로써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빈곤 종식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담고 있으며, 이 중 SDG 2번 목표는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림 10-16)(표 10-11).



그림 1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출처: UN 웹사이트(<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표 10-1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지속적 · 포용적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그러나 기후변화, 분쟁, 경제 침체, 불평 등 증가로 인해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이후 기아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보다 2021년에 기아 인구수가 약 1억 5천만 명이 더 증가한 것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2021년에는 3명 중 1명(23억 명)이 중증도 이상의 식량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거의 3억 5천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중앙 및 남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UN, 2022).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야기된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과 인력수급의 차질에 의한 농업 및 식품산업의 생산 감소와 물류 대란, 그리고 경기침체에 의한 전반적인 소득 감소와 빈민화가 세계 식량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연합이 그동안 공들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30)의 성과를 무위로 돌아가게 했으며 특히 빈곤퇴치와 기아종식 목표는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 Guterres)는 2021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 식량시스템정상회의(UN Food System Summit)에서 수억 명이 굶주리는 반면 수억 명이 비만으로 고통받는 오늘의 불평등한 식량체계를 지적하며, 식량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식량의 1/3을 낭비하고 지구 온실가스의 1/3을 방출하는 불합리한 식량체인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취동위(Qu Dongyu, 전 중국 농업부 차관) 사무총장은 기아종식을 위한 민간부문 서약(Zero Hunger Private Sector Pledge)을 강조했다. FAO는 그동안 기아종식을 위한 민간기업 모금 활동을 통해 34개국 40여 기업으로부터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았다.

이 사업은 다국적 대기업 후원뿐만 아니라 지역별 농업-식량생산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여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4.2.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식품산업의 기여

기아종식과 가난퇴치를 위해서는 식품산업의 기여가 대단히 중요하다. 식품산업이 배고픈 사람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세계적 사명과 책임감을 깊이 인식할 때 세계의 기아는 종식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으로 기아인구수가 통계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전체 식량에너지 기준으로 35%에 불과하며 곡물자급률은 20%에 불과하지만 식품산업이 모자라는 식량을 수입하여 가공·공급하고 있다. 한국의 식품산업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세계적인 식품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제 한국의 식품산업은 세계를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접근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발효식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대체육 생산의 필요성이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를 앞당기고 있다. 푸드테크놀로지 매거진 11월호에 의하면 면역력 증진과 장내 마이크로비옴에 이롭다는 이유로 발효식품의 미국내 판매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김치를 포함한 발효채소 매출액이 17% 증가하였으며, 발효 장류는 24% 증가했다. 식물성 대체육 매출액은 같은 기간 24% 증가했다. 발효식품과 그 원료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 6,89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인 김치, 장류, 두부는 이미 세계 식품이 되었으며, 미국에서 팔리는 두부의 절반 이상을 한국 식품기업에서 공급하고 있다.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화에 걸맞게 한국 기업들은 이제 세계 기아종식을 위한 민간차원의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후원금 지원의 차원을 넘어

서 가난한 나라들의 농민과 영세 식품기업들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가난퇴치를 위한 농산가공 환경의 정착, 식량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의 이전과 시설 지원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일에 우리 기업들이 나설 때이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농민과 식품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상생하는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한국 식품산업의 위상과 신뢰도를 높여 세계적인 지지와 성장을 약속 받을 수 있다. 한민족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꿈을 실현하는 길이다.

4.3. 한국 식품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사례

(1) CJ제일제당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베트남 농촌개발 사업

- 사업명: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
- 사업대상지: 닌투언(NinhThuan)성 닌선(NinhSon)현 람선(Lam Son)면 땀응(Tam Ugan) 2 마을
- 사업기간: 2014~2017(3년)
- 사업비: 170만 불
- 사업 목적: 베트남 최빈지역 농촌개발 및 지속가능한소득 증진
- 사업참여자: CJ, KOICA, 닌투언성, K-WATER
- 주요 사업내용: 마을자치 역량강화, 마을환경개선, 농업생산성 증대, CJ 고추작물 계약재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 주요 성과: 마을 빈곤가구의 비율이 사업초기 33%에서 16% 이하로 감소

도이머이(Doi Moi, 개혁·개방) 정책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은 1990년대 이후 평균 7.3%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10년대 들어 중저소득국으로 승격되었다. 베트남은 빈곤층의 기준인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47%(2007년 기준)이며, 빈곤층의 약 90%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은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지만 교육 수준이

높고 비교적 경제적 상황이 나은 켌(Kinh)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민족이 전체 빈곤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3년 20%에서 2010년 47%로 급증하였는데, 본 연구의 사례인 팜응2마을은 거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거주지여서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KOICA의 사업 목표 달성에도 적합한 사업이다(그림 10-17)(이효정,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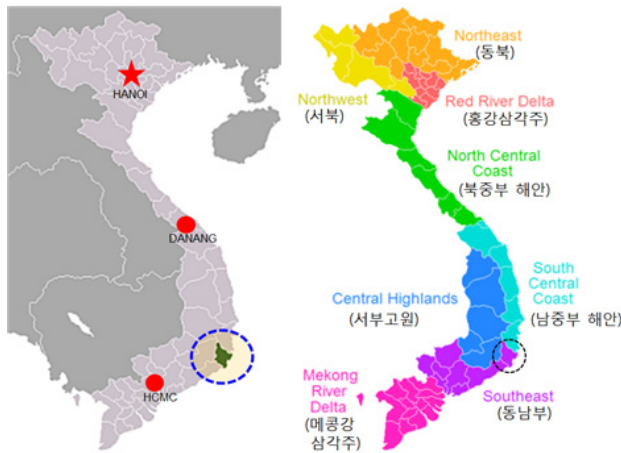


그림 10-17. 베트남 농촌개발 사업대상지 위치

사업기획 당시(2013년) CJ는 전략적 사회공헌 사업의 기회를 찾고 있었으며, KOICA에 베트남의 최빈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다. CJ제일제당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고추)의 공급처의 다원화를 위해 베트남, 미얀마 등의 생산지를 모색하고 있었다. 중국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료가격 급변, 수급상황 변동 등의 위험에 대응하고, 일정 품질이 유지되는 원료를 조달하는 것 또한 비즈니스 관점의 목적이었다. 동시에 사업대상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도 상당부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닌투언 지역에서 재배가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는 연구과정을 거쳤고, 고추를 한번도 재배해 본 적이 없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재배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빈곤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상 유치원, 초등학교, 마을회관의 일부를 개보수하여 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였다. 유치원의 급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어린 아이를 둔 농민들은 오전에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여자 화장실을 분리해서 만듦으로써 고학년 여학생들이 화장실 문제를 더 이상 겪지 않게 하였다.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 문해교육과 한국 영화 상영 등의 문화활동을 지원하였다. 농기계 बैं크를 운영해서 농민들이 보다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고추 수확기에 함께 모여 작업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였다(표 10-12).

표 10-12. KOICA-CJ제일제당 베트남 농촌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요소		활동내용
농촌발전 자생력 강화	마을 자치역량 강화	마을 자치역량 강화 지역발전 기금 운용
	마을 생활환경 시범개선	유치원 개보수
		마을회관 리모델링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수도관 연결
농업소득증대	농업 생산성 증대	영농교육 실시
		관개용수로 개선
	CJ 고추작물 계약재배	고추작물 모델 농가 육성
		CJ 수요작물 계약재배
		CJ R&D 농장 운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	농기계 बैं크 운영
		소액금융 대출 실시
		공동작업장 설치
건조장 건립 및 운영		

출처: KOICA 사업자료

사업의 핵심 요소는 고추를 재배하고, 건조하여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마을 내에 건조공장을 건립하고 연중 고추의 건조 가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을의 청년 4인을 상시 고용하였으며, 수확철에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고추 농사를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였으며, 협동조합-CJ-넌투언성 정부-KOICA 간의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추의 생산-건조-판매 체계를 구축한 것이 동 사업의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 사업에 직접적인 참여주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공기업인 K-WATER는 사업대상지의 농업용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개시설을 지원하기도 했다. 사업수행결과 마을의 빈곤가구 비율이 33%에서 16%이하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KOICA는 자원봉사 단원을 파견하고, CJ는 협동조합과 거래를 지속하고, 건조 공장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림 10-18)(이효정, 2022).



고추를 재배하는
베트남 농민



수확하는 농민들



마을내에 건립된
고추건조공장

그림 10-18. KOICA-CJ 베트남 농촌개발 사업의 성과

(2) 오리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베트남 씨감자 기술지원 사업

- 사업명: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08-2010년(3년)
- 사업비: 4억 9천만원
- 사업대상지: 베트남 하노이, 달랏(Da Lat) 일대
- 주요 사업내용: 베트남 가공용 씨감자 생산기술 및 자재, 전문인력 양성, 저장시설 지원
- 주요 성과: 종서 생산량 2011년 15,000톤/800ha

사업 기획당시 오리온스넥인터내쇼날은 자사가 생산하는 감자칩의 원재료인 감자를 개발도상국에서 조달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에 베트남 하노이와 달랏 지역을 중심으로 가공용 감자의 종서를 공급하고, 오리온 푸드비나(Orion Food Vina, 오리온이 설립한 현지 법인)를 통해 감자를 수매하고 가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사업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를 대신하여 사업을 집행하였다. 사업수행기관인 강원대학교는 하노이농업대학(현재 베트남 국립농업대학)에 종서 생산시설, 조직배양 기술 지원을 실시했으며, 하노이농업대학에서 무병종서를 증식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감자 생산 농민은 우량 종서를 제공받고, 재배 기술을 교육받았다. 또한 옥수수에 비해 1.7배의 수익성이 있어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종서 생산기술을 지원받은 하노이농업대학은 원원종(G0), 원종(G1) 배양기술이 우리나라의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허장 외, 2019). 베트남은 가공용 감자 종서를 연 300여 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으나, 이 사업을 통해 800ha에서 15,000톤을 생산하였고, kg당 3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이효정, 2022).

오리온은 하노이 농업대학 농생물연구소에 종서 생산용 온실 2개동과 무경운 수경재배시설을 지원하였고, 20개 현 15,000개 농가와 700ha 농지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2019년 현재). 달랏의 농장은 연작으로 인해 청고병이 발병하여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베트남 농업과학원(VAAS) 산하 감자채소화훼연구센터(PVFC)가

표 10-13.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기술지원 사업 이해관계자와 역할

이해관계자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구)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지원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실행기관(농식품부의 ODA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
강원대학교	- 현장 사업 총괄 - 원종 G1 증식 네트하우스 등 지원 - 조직배양 및 순차 증식 기술연수 및 현지 지도 - 씨감자 생산 과정 수시 모니터링 및 벤치마킹 보완 지도 - 베트남 농업농촌발전부와 협력사업 추진과정 점검 - 지원사업의 현지 평가 및 홍보 등 효과극대화 방안 수립 추진
오리온스넥 인터네셔널	- G1 증식용 망실 지원 - 씨감자 생산-보급-원료 계약생산 주도 - 감자칩 가공 품질평가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력 제고 - 정부와 기업의 협력 성공사례 홍보 및 유사사업 확대 - 베트남 농업농촌발전부와 협력 추진 -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도 증진 및 양국 협력관계 조성
베트남 농업농촌발전부	- 가공용 감자 생산계획 수립 추진 지원 - 한국정부, 베트남 진출 한국 가공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베트남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한국기업과의 협력관계 조성 -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Liwayway, An Lac 등)과의 경쟁우위 유지 지원 - 계약재배를 통한 감자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기반 확립
하노이농업대학	- 씨감자 생산 일관시설 시공에 필요한 건물, 부지, 전기, 수도, 인력, 시약 등 한국측 지원물자 이외 모든 것 제공 - 시공시설에 대해 강원대학교, OSI 팀과 공동감리 - 신설 냉장 저장시설 부지 및 건물 제공(회의실 및 강의실) - 조직배양 및 순화증식하우스시설 이용, 씨감자 생산기술 교육 및 자체 생산(2011년 보급용 씨감자 500톤 생산) - 생산 씨감자의 virus검정기술 축척 및 자체 검정, 국내 기술 이전

종서를 생산, 보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리온은 현지 농가에 농기계를 기증하고,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2017년 현지 생산제품(오스타)이 생감자 스낵 시장의 36%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허장 외, 2019).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리온은 종서의 생산과 보급-계약생산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가치사슬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정부 부처(농업농촌발전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강원대학교는 사업수행기관으로써 베트남 정부와 오리온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표 10-13).

5. 한국 식품산업의 미래

필자는 소설 ‘식량전쟁’(이철호, 2012)에서 2030년에 식량 무기화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핵전쟁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썼다. 오늘의 세계정세를 볼 때 크게 빗나간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 책에서 2020년에 남북한이 통일될 거라고 했으나 아직 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 책에서 북한의 제2인자 장성택의 실각을 예언했고, 유전자 편집기술이 앞으로 세계 종자개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측했다. 소설에서 나는 북한에서 내려온 생물학자가 유전자 편집기술로 새로운 종자개량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내지 않고 세계에 공여함으로서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한다는 꿈같은 이야기를 썼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우리의 이상(理想)이라고 생각한다. 단군의 후손으로 한반도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수난을 겪으면서 한민족(韓民族)이 살아남은 데에는 필연코 남다른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저 저희들끼리 잘 먹고 잘사는 오늘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염원했던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많은 지식인들이 한국의 세계사적 사명을 예언해 왔다(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2012). 나는 소설의 마지막을 인도의 시성 타고르(Rabindranath Tagore)의 ‘동방의 등불’로 마감하였다.

한국의 식품산업은 식품재료가 턱없이 부족한 나라에서 5천만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는 어려운 일을 해왔다.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의 80%가 산악지대인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쌀을 자급하고 전체 식량에너지의 35%를 농수산업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다. 식품기업들은 모자라는 식량을 세계를 누비며 찾아 사들여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한국음식을 제조 가공하고 있다. 다행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식물성 식품소재와 발효기술을 이용하여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식품생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김치, 나물, 장류, 두부 등은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식품이다. 한식의 비빔밥, 만두, 떡볶이, 찌개, 탕류 등 식물성 한 끼 식사는 6-7배의 곡물을 소비하는 서양의 스테이크나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식단일 뿐만 아니라 육식에서 오는 각종 성인병을 막을 수 있는 건강 식품이다.

한국 전통음식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최근의 임상 연구에 의하면 한식식이처방으로 혈압과 혈당 조절이 가능하며, 당뇨병과 고혈압, 심혈관질환의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채수완, 2022). 특히 청국장, 된장, 고추장 등 전통발효식품들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율을 낮추고 체중과 체지방율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임상실험결과와 역학조사 자료에 의해 한식은 지중해식단에 못지않은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다(박상철, 2019).

한국의 식품산업은 이러한 경제적 건강식품을 세계에 공급하여 세계의

식량 부족을 해소하고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식물성 발효식품의 면역증진효과가 입증되고 식물성 소재로 만든 대체육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오늘의 현실은 한국 음식의 세계화와 한국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을 재촉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민수, 프랑스에서 한류열풍과 K-Movie의 의미, 문화영토연구, 3권 1호, p.5-33 (2022)
- 김정년, 한국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망,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도서출판 식안연, p.135-193 (2022)
- 박상철, 과연 불로장생식단은 있는가?, 건강100세 장수식품이야기, 박상철, 이미숙, 이철호, 김경철, 신동화, 박현진, 권대영, 채수완 공저, 도서출판 식안연, p.15-49 (2019)
- 서완수, 북방농업의 이해, (주) 북랩 (2018)
- 손홍석, 음식역사를 통해 본 한국식품의 비교우위,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도서출판 식안연, p.19-76 (2022)
- 윤은옥,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과제,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도서출판 식안연, p.197-238 (2022)
- 이병하, 4차산업혁명시대, 한류와 블록체인의 융합 전략, 미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2018권(제2호), 미래학회, p.228 (2018)
- 이철호, 식량전쟁, 도서출판 식안연 (2012)
- 이철호, 태원택, 김기명, 이현덕, 탁주의 저온 살균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과학회지 : 23(1), 44-51 (1991)
- 이철호, 막걸리 현해탄을 건너다, 식품산업 한식 세계화에 날개달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15-40 (2012)
- 이철호, 위남량, 최지현, 임정빈, 안병일, 요셉의 지혜 한반도 식량비축 계획,

- 도서출판 식안연 (2019)
- 이효정,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방안,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도서출판 식안연, p.301-370 (2022)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 다산북스 (2012)
- 채수완, 한국 전통식품의 건강기능성, 한국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도서출판 식안연, p.79-132 (2022)
- 최현철, 한류 4.0, 신(新)한류는 어떤 대중문화인가? D. 닷슨의 대중문화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예술, 제11호, 인문예술학회, p.255 (2021)
- 허장, 전형진, 김상현, 이효정, 이병훈, 이대섭, 이수환, 최정만, 한-베트남 농업 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 홍일식,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 범우. p.83 (2017)
- U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2, UN. (2022)



- 가격지지정책 428
- 가공식품 공급량 201, 242
- 가공식품 생산액 217, 305
- 가공식품류 196, 216
- 가나안농군학교 176
- 가미꾸로이와동굴 15
- 가시아유적 15
- 가정간편식(HMR) 416, 463
- 가축 생산량 398
- 가축전염병 302, 383
- 가트 각료회의 219, 220
- 가호유적 25
- 간장 파동 249
- 간장(GanJang) 457, 459
- 갈석산(碣石山) 33
- 감 54
- 감귤 265
- 감자류 187
- 감자의 섭취량 190
- 갑신정변 44, 61
- 갑오개혁 61
- 강인희 14, 49
- 강화도 조약 60
- 개성공단 321, 323
- 개항 56
- 거석문화 32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409
- 건강보조식품 309
- 건강식품 생산액 409
- 건강식품류 252, 485
- 건강식품산업 252
- 건어품 118
- 게일(James S. Gale) 69, 260
- 견과류 154
- 결핵 발생률/사망률 186, 194, 335, 359, 361
- 경복궁 중건 60
- 경성우유협동조합 118
- 경제유표 42
- 경자유전의 원칙 131, 404
- 경작지의 전용 230
- 경제개발 3개년 계획 129
- 경제개발 5개년계획 167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14, 276, 399
- 경제국방병진노선 331
-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67
- 경제성장기 189
- 경제식단 485
- 경제적 건강식품 485
- 경제제재 343
- 경제협력국(ECA) 141, 142
- 계란류 154, 188, 231
- 계란밥 442
- 계절별 영양조사 194
- 계층별 쌀 생산량 89
- 고구려(高句麗) 34
- 고난의 행군 332
- 고대버 24
- 고려도경(1123) 49
- 고려시대 30
- 고려식품 249
- 고려인삼제품 162
- 고령화 234
- 고르바초프의 개혁 259
- 고름우유사건 256, 299
- 고리원자력발전소 172
- 고미가정책 184
- 고산리유적 15
- 고온단시간(HTST) 살균방법 457
- 고조선(기원전 2333-108) 30, 33, 36
- 고조선문명 19, 27, 30
- 고종 양위 사건 81
- 고종의 즉위 60
- 고종국 문명 19
- 고추장 71, 457, 459, 485
- 고혈압 환자 진료 건수 239
- 교회선 회장 267

- 곡류 203
- 곡류 수입액 222
- 곡류 종류별 생산량 187
- 곡류섭취 194
- 곡류에너지의 비율 194
- 곡류채식문화 26
- 곡물 공급량 188
- 곡물 메이저 281, 429
- 곡물 비축시설의 확장 426
- 곡물 수입량 400
- 곡물 수출 56
- 곡물 수출세 373
- 곡물 엘리베이터 277
- 곡물 재고량 428
- 곡물가격지수 278, 394
- 곡물류 경지면적 230
- 곡물생산 382
- 곡물수입 필요량 150
- 곡물수출국의 수출제한 392
- 곡물유통회사 288
- 곡물의 수출제한조치 373
- 곡물의 재배 한계선 95
- 곡물의 해외유통망 277
- 곡물자급률 174, 216, 220, 221, 232, 262, 288, 361, 399, 405, 477
- 곡물터미널 429
- 곡주(穀酒)의 제조 32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381
-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266
- 공공비축제도 229, 428
- 공급과잉 227
- 공업진흥청 172
- 공적개발원조(ODA) 430
- 공정거래법 213
- 과실 음료시장 250
- 과실류 188, 222, 230, 231, 234
- 과실음료 306
- 과일류의 섭취량 191
- 과잉섭취 239
- 과자류 153, 202, 242
- 과자제조업 112
- 과즙음료 250
- 과채류 소비 230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8
- 관세 일괄 인하방식 220
- 관세양허표 218
- 관세율 217, 219, 304, 308
- 관세화 원칙 229
- 관세화 유예 228
- 관자(管子) 26
- 광무개혁 61
- 광우병 294
- 광우병 대란 263, 288, 301
- 광우병 쇠고기 파동 300
- 광의의 식품산업 408
- 광주 민주화운동 211
- 교육구국운동 82
- 교촌치킨 443
- 교토의정서 371
- 구려(句麗) 34
- 구석기시대 15, 30
- 구석기유적 발굴지 17
- 구석기인들의 이동 통로 17
- 구이(roasting)문화 15, 18
- 구이김 460
- 구제역 384
-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384
- 구한말의 한국사회 54
- 구황식품 190
- 국가문서보관소(US National Archives) 141
- 국가별 식품시장 규모 465
- 국가재건최고회의 166
- 국권피탈 과정 81
- 국내 식품산업 규모 변화 407
- 국내 제조업 총생산(GDP) 408
- 국내총생산 214, 262
- 국립보건원 302
- 국무부의 국제협조처(ICA) 152
- 국민건강영양보고서 362
- 국민영양조사 192, 194, 235
- 국민영양조사 결과보고서 236, 238
- 국민운동 선언문 417
- 국민운동 전진대회 417
- 국민징용령 119
- 국민총생산 154
- 국민총소득 262
- 국산 차(茶) 312
- 국순당 457

국제 곡물 흐름도 279
 국제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278
 국제개발협력 사례 478
 국제개발협력사업 430
 국제곡물 조기경보 시스템 432
 국제무역기구(ITO) 218
 국제미작연구소(IRRI) 179
 국제수역사무국(OIE) 292, 384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265
 국제통화기금 218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263
 군 위안부 제도 119
 군사정변 165
 군장제도 32
 귀속농지 130
 그라안제프(Andrew J. Grajdanzev) 78
 그리피스(William E. Griffiths) 50, 78
 글로벌 100대 식품기업 469
 글로벌 10대 식품기업 467
 글로벌 곡물파동 주기 380
 글로벌 금융위기 263
 글로벌 유통기업 315
 금강 상류 20, 23
 금강산 관광 321
 금융대란 417
 금융실명제 214
 금융위기 364
 급성영양실조(wasting) 336
 급속동결기술 253
 기능공 양성정책 172
 기본식 47
 기상재해 379
 기아민 150
 기아의 종식 474, 477
 기아인구수 477
 기업형 축산 388
 기유각서 81
 기해박해 43
 기호식 47
 기호식품 산업 196
 기후변화 430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 371
 기후온난화 370
 길모어(Gilmore, 1892) 54

김방장유양조장(현 매일식품) 160
 김의 세계화 성공 요인 461
 김일성 134, 318, 320, 332
 김재철 회장 246
 김정은 323
 김정일 321
 김치 31, 69, 314, 445, 449, 477, 485
 김치수출 실적 450
 김치유니버스 451
 김호직 102
 끊임문화 15, 17, 18, 31

L

나다(Nahda) 180
 나물 485
 나의 액션 423
 낙농제품 197
 난쟁이 밀(dwarf wheat) 179
 난징대학살 119, 123
 난하(漯河) 33
 남북 교역 343
 남북 분단 154
 남북 인적 왕래 343
 남북 적십자 회담 327
 남북대표자 연석회의 125
 남북학생회담 165
 남북한의 에너지 공급량 356
 남성의 비만을 348
 남양알로에 429
 남양유업 244, 245
 남오세티야 전쟁 366
 남한 총선 125
 남한강유역 20, 23
 남한의 총인구 141
 낭비적 구조 239, 360
 내분비장애물질 유해논란 300
 냉동만두 251, 462
 냉동만두 수출액 463
 냉동식품 시장 252, 308
 냉동식품산업 251
 냉장 유통 243
 냉장·냉동업 198
 냉장차 453

냉전체제 259
 네슬레(Nestle) 312, 466, 467
 노르딕농과대학 178
 노먼 블로그(Norman Borlaug) 179
 녹색혁명 179, 180
 논농업직접지불제 227
 농가의 외국 로열티 지급액 266
 농림업 생산액 407
 농림축산식품부 482
 농산물 품목 개방비율 277
 농산업 생산 통계 9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303
 농수산식품 수출액 444
 농수산식품 수출품 445
 농수축산업 217
 농심 411, 469
 농약관리법 303
 농어촌개발공사 175, 245
 농업 인프라 222, 225
 농업 집산화 326
 농업기술연구지원사업 406
 농업의 시작 20, 32
 농업인구 142, 173, 215, 216, 262, 361
 농우바이오 267
 농작물 경지면적 89
 농주 457
 농지개혁 130
 농지소유 실태 130
 농지전용 404
 농촌진흥청 181, 353
 농촌청소년문화재단 179
 뇌혈관질환 241
 누룩막걸리 455
 뉴노멀 시대 388, 392



달고나 커피 442
 담배 70
 당뇨병 진료 건수 239
 대두박 222, 401
 대두유 251
 대북 제재 321, 324
 대시증후군 환자수 361
 대산농촌문화재단 179
 대상 249, 308, 460, 469, 470
 대선제분 115
 대원군 이하응 60
 대장균 O-157 오염사건 300
 대장균 검출 205
 대창장유사(현 진미식품) 160
 대체감미료 255
 대체단백질 소재 431
 대체육 431, 477
 대통령의 월급 148
 대하춘유적 25
 대한민국 정부수립 125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196
 대한제국 군대해산 81
 대한제국의 성립 60
 대한제당협회 159, 207
 대한제분 159
 대한중합식품 197, 460
 대한해협 17
 대형마트업계 315
 덴마크 국제협력단(DANIDA) 178
 덴마크 농업연수 프로그램 177
 덴마크 말링(Malling)농업학교 177
 덴마크 왕립수의농대 178
 도서출판 식안연 421
 도시락 조사결과 158
 도시화 현상 230
 도정업 112
 도쿄 국제군사법정 123
 도쿄 라운드 220
 도투락 만두 252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268
 독과점의 폐해 196
 독도영유권 128
 독립신문 127
 독립정신 127

다류 312, 313
 단립벼와 쿡의 원산지 28
 단립벼의 재배기원 20, 27
 단립종벼(Japonica type) 27
 단백질 급원 67
 단백질 섭취량 105, 194, 236, 362
 단백질식품 242

돈주 342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 194
 동물성 식품 섭취량 191, 194, 361
 동물성식품 234
 동물성식품 소비량 232, 346, 349
 동방유랑 198, 251
 동방청량음료합명회사 161
 동부한농종묘 267
 동북아 국가형성기 26
 동심동유적 16
 동서식품 200, 249, 312
 동아화성공업 161
 동양맥주 161
 동양제과 160
 동양척식주식회사 27
 동옥저(東沃沮) 34
 동원F&B 460, 461
 동원산업 245, 308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331
 동이열전(東夷列傳) 34
 동이족(東夷族) 24, 29, 32, 34
 동이족의 분포지역 33
 동학(東學) 43
 동학농민운동 61
 동학혁명 44
 돼지고기 수입 규모 271
 돼지고기 자급률 272
 돼지고기의 소비량 236
 된장(DoenJang) 457, 459, 485
 두류 187
 두부 477, 485
 두부 수출물량 453
 두유(豆乳) 200
 두유시장 245
 딜런 라운드 219
 떡 314
 떡볶이 485
 토르띠아 폭동 369
 독사발 52

ㄹ

라니나 현상 374, 381
 라루(Leonard Larue) 선장 135

라면 197, 253, 445
 라면스프 농약오염사건 255
 라면시장 199, 250
 러·일전쟁 80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량 395
 레스터 브라운(Lester R. Brown) 398
 레토르트 식품 242, 245, 248
 로베이츠(Martine Robbeets) 21
 롯데라면 197, 198
 롯데리아 247
 롯데제과 198
 롯데칠성 245, 411
 롯데푸드 162
 롯데햄 308
 롱가리트사건 203, 299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79
 뤼브케 대통령 168
 류달영 교수 178
 류태영 박사 178
 리미니(Rimini) 반응 203



마라케쉬협정 446
 마셜플랜(Marshall plan) 259
 마와타리 16
 마요네즈 309
 마제석기(간석기) 15
 마즈(Mars) 468
 막걸리 455
 막걸리 주세 456
 만두 463, 485
 만성영양실조(stunting) 336
 만주사변 84
 매몰 살처분 385
 매운맛 71
 매일유업 176, 244, 245
 맥도날드 247
 맥로드(Hohn M'Loed) 59
 맥아더(D. MacArthur) 135
 먹는 물 관리법 303, 311
 메소포타미아 문명 19
 면역증진효과 486
 명치옥(明治屋) 112

명태 330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24
 목민심서 42
 문산토 268
 몰타체제(Malta system) 259
 무균·무진포장기 243
 무바라크 정권 퇴진 378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 133, 318, 325
 무역 수출액 215
 무역규모 261
 무역수지 215, 224, 368, 446
 무역자유화 211, 225, 269, 473
 문맹퇴치운동 129
 문화대혁명 327
 문화영토론 436
 문화인류학 14
 물가상승률 143
 미 국방부의 대외활동본부(FOA) 152
 미·소 공동위원회의 124
 미·중 무역전쟁 367
 미강유 251
 미국공출제도 108
 미국수집령 184
 미국역사박물관 52
 미국의 잉여 농산물 153
 미국한림원(US National Academy) 303
 미군정법령 130
 미니캡젤리질식사건 300
 미원 162, 207, 249, 250
 미주산업 249
 미풍 207
 민간 구호 원조(Civil Relief in Korea) 152
 민족말살정책 82
 민족통일연맹 165
 민주화추진협의회 212
 밀 수출 금지 374
 밀가루 196, 231
 밀가루의 소비증가 231
 밀의 소비량 236
 밀의 지급률 232



바게트의 나라 375
 바다야채 461

바빌로프(N.I. Pavlov) 27
 바이든 대통령 436
 바이오 디젤 371
 바이오 에탄올 370
 바이오연료 370, 373
 박정희 165, 167, 171, 178
 박정희 정부 180, 212
 박지원(1937-1807) 130
 반계수록 42
 반공포로 석방 129
 반기문 177, 374
 반춘유적 25
 발효기술 31, 36
 발효문화 15, 17, 30
 발효식품 410, 450, 477
 발효유 307
 발효제 455
 발효채소 매출액 477
 방사선조사기술 301
 방신영 156
 방탄소년단 BTS 436
 배달문화 246
 버드(Isabella Bird) 65
 베를린장벽의 붕괴 259
 베지밀 200
 베트남 농촌개발 사업 478
 베트남 씨감자 기술지원 사업 482
 벤자민 플랭클린(Benjamin Franklin) 29
 벼 재배면적 273, 404
 벼의 재배 23
 병인박해 43
 병인양요 60
 병자수호조약 61
 병조림 253
 보리음료 249, 306
 보리의 공급 188
 보리의 소비량 236
 보릿고개 186, 188, 221
 보신탄 업소 248
 보조선(별식) 47
 복합밥(햇반 컵반) 449
 부여(夫餘) 30, 34
 부정·불량 식품 254, 298, 301
 부족국가의 형성 3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59
 북조선 실정에 관한 보고서 325
 북조선인민위원회 318
 북조선토지개혁법 133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 343
 북한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 335
 북한 월남인 142
 북한 주민의 영양실태 335
 북한 탈출민 135
 북한에 대한 양자 간 식량 원조 355
 북한의 1인당 GDP 327
 북한의 곡물 수입량 통계 353
 북한의 곡물 총 소요량 350
 북한의 무역 총액 343
 북한의 빈부격차 342
 북한의 산업화 정책 326
 북한의 상업적 곡물 수입 354
 북한의 식량 352
 북한의 식량배급기준 333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 351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350
 북한의 식품단백질 공급량 357
 북한의 식품에너지 공급량 357
 북한의 연평균 생산추정량 353
 북한의 인권 문제 339
 북한의 재정지출 328
 북한의 전체 식량수입량 354
 북한의 정치구조 320
 북한주민의 평균 신장 358
 분유의 무상배급 153
 불량식품 203, 204, 205, 206, 209
 불이흥업주식회사 87
 비관세장벽 220
 비교우위 경제이론 221, 225, 364, 473
 비락식혜 313
 비만인구수 346, 360
 비비고 442, 449, 462, 464
 비빔밥 485
 비아그라 식품 사건 300
 빗살무늬(줄문) 토기층 16
 빙과류 162
 빙그레 244
 빵·면류 202, 242



사기(史記) 26
 사료용 곡물 400
 사망률 158, 241
 사망원인 195, 348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110
 사무엘 보웬(Samuel Bowen) 29
 4·19 대학생 총궐기시위 127, 165
 사조산업 246, 460
 4차 산업혁명 260
 사채동결조치 170
 사카린의 안전성 논란 255
 사케 115
 사환곡제도 184
 사회적 거리두기 392, 416
 사회주의헌법 320
 산동반도 20, 28
 산미증산계획 100
 산분해간장 MCPD 299
 산옹(山戎) 25
 산정장류양조장(현 몽고식품) 160
 산지 엘리베이터 279
 산학공동연구 406
 살균막걸리 457
 살처분 383, 388
 삼강산업 162
 삼겹살과 소주 247
 삼국사기 35
 삼국시대 30, 36
 삼국지 위지 동이전 35
 삼국지(三國志) 33
 삼례봉기 45
 삼립식품 198, 207, 248
 삼분파동 196
 삼시장류양조장(현 샘표식품) 160
 삼아알미늄(주) 245
 삼양라면 198
 삼양사 159, 175
 삼양식품공업 197, 206, 207
 삼육두유 245
 3·1독립운동 82
 3·15 부정선거 127
 3저 호황 213, 248

상노대도유적 16
 새마을운동 166, 176, 179, 230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176
 새만금 항만건설사업 427
 새천년개발목표(MDGs) 473
 새천년마을계획 177
 샘플 458
 샘플장유양조장 207
 생명공학기술 430
 생명공학식품 431
 생물반응기 17
 생수 판매 310
 생식제품 식중독균 검출사건 300
 사라 박사(Terry Sharrer) 52
 서구식 식사습관 240
 서류의 공급량 23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366
 서비스 시장 220
 서양식 식생활 196
 서울식품공업 207
 서울우유협동조합 118, 160, 244, 307, 411
 서유견문(西遊見聞) 73
 서포항유적 16
 서학(西學) 42
 선일포도당 175
 선진국의 조건 421
 설고(雪餼) 74
 설문(說文) 34
 설탕 154, 188, 196, 231, 365, 445
 설탕의 수출량 116
 섭취열량 236
 성인병의 발생 195
 성호사설 42
 성홍열 111
 세계 곡물 및 두류 수급 동향 397
 세계 곡물 생산지수 399
 세계 곡물대란 263
 세계 곡물시장 277, 288
 세계 곡물파동 406, 417
 세계 기아인구수 473
 세계 분업화 473
 세계 식량가격지수 393
 세계 식량부족 사태 473
 세계 식량시스템정상회의 476
 세계 식량위기 433
 세계 식품시장 규모 464
 세계 인구 398
 세계 종자 시장 266
 세계 총 곡물(대두 포함) 생산량 396
 세계경제포럼(WEF) 260
 세계무역기구(WTO) 214, 220, 261, 269, 287, 399
 세계식량계획(WFP) 335, 340, 350
 세계은행 218
 세계의 독립문명 19
 세계화 성공 요인 456, 458, 463
 세계화(Globalization) 234, 260, 364
 세션 용기문토기 16
 소련의 붕괴 331
 소로리 법씨 20
 소로리유적 24, 27
 소비자들의 사재기 392
 소스류 309
 소스류 생산액 410
 소작농 130, 133
 소작농민 87
 소주 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사건 255
 소해면상뇌증(BSE) 383
 손탁(Antoniette Sontag) 74
 쇠고기 소비량 242
 쇠고기 수입량 271
 쇠고기 수입액 222
 쇠고기 자급률 271
 쇠고기협상 반대 시위 293
 수산물 188
 수산물 가공 통계 118
 수산물 가공산업 117
 수산물 생산량 142
 수산물 제조업체 308
 수산물 통계 90
 수산물검사법 303
 수산통계연보 460
 수서(隋書) 33
 수입 자몽의 알라파동 255
 수입농산물의 농약오염사건 255
 수입밀 농약오염 255, 299
 수입자몽 알라 파동 299
 수출 엘리베이터 282

- 수출라면 방사선조사논란 300
- 수출액 261, 368
- 수출입 통계 215, 261
- 수출자유지역 172
- 수출제한 393
-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230
- 수확 후 관리기술 478
- 순환기계 질환 195
- 숟가락 52
- 쉬완스(Schwan's Company) 464, 469
- 스낵 분야 199
- 스미소니안연구소(Smithsonian Institution) 52
- 스탈린(Joseph V. Stalin) 134, 319
- 시드텍 코리아 268
- 시성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485
- 시의전서(是議全書) 47
- 시장개방 214, 222, 227, 399
- 시진핑 366
- 시카고 곡물거래소 278
- 식당폐기음식물 387
- 식량 무기화 484
- 식량 배급제 109
- 식량 부족 현상 390
- 식량 불안정 상태 476
- 식량 소재산업 159
- 식량 영양 최적화 모델 361
- 식량 위기 390
- 식량(열량)자급률 432
- 식량공급 관리 143
- 식량공급량 105
- 식량공급의 주체 417
- 식량낭비 419
-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 423
-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 추진위원회 432
- 식량낭비줄이기 국민행동강령 424
- 식량무기화 392, 398, 433
- 식량배급 360, 369
- 식량부족 49, 149, 185
- 식량비축정책 428
- 식량속국 365
- 식량수급 구조 402
- 식량수급 현황 151
- 식량수급표 238
- 식량안보 222, 225, 229, 278, 399, 417, 474
- 식량안보 긴급상황 지침 433
- 식량안보 시리즈 422
- 식량안보 위기 275, 433
- 식량안보 위기대응 매뉴얼 432
- 식량안보세미나 421
- 식량안보지수 401
- 식량안보특별법 425
- 식량에너지 자급률 360, 402
- 식량위기 277, 374, 389, 392, 417, 427, 430
- 식량위기론 278
- 식량의 과다섭취 349
- 식량의 낭비 현상 238
- 식량의 낭비구조 190
- 식량자급 179
- 식량자급률 173, 215, 220, 225, 345, 349, 421, 428, 477
- 식량자급률 하락 275
-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417
- 식량자주를 288
- 식량전쟁 484
- 식량체계 476
- 식량체인 476
- 식량컴비나트 건설 426
- 식량폭동 373
- 식료품 시장 464
- 식물성 단백질 105, 454
- 식물성 대체식품 31
- 식물성 대체육 매출액 477
- 식물성 발효식품 486
- 식미평가방법 274
- 식사목표(dietary goal) 107
- 식생활의 서구화 234
- 식습관 변화 187
- 식용 공 400
- 식용곡물자급률 402
- 식용유 251, 254
- 식용유제조업체 428
- 식용유지산업 251
- 식육가공업 409
- 식음료제조업의 생산액 408
- 식품 물가동향 146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409
- 식품 수급표 155
- 식품 안전 204

식품 유통산업 315
 식품 첨가물 203
 식품 포장재 253
 식품공업 152, 216
 식품공업 종사자 수 198
 식품공업협회 200
 식품공전 309, 312
 식품군별 섭취량 변화 234
 식품기업들의 생산액 113
 식품기업의 해외 생산 법인 471
 식품산업 216, 431, 477
 식품산업 생산실적 409
 식품산업 생산액과 생산량 113
 식품산업 업종별 생산실적 409
 식품산업 제조업체수 412
 식품산업 종업원수 412
 식품산업기술 406
 식품산업의 세계화 447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417
 식품섭취량 190
 식품수급표 189, 235
 식품수입액 222
 식품안전 특별법 205
 식품안전관리 202
 식품안전구상(Food Safety Initiative) 297
 식품안전위원회 297
 식품안전체계 297
 식품업 종사자수 113
 식품업체 수 113
 식품위생법 196, 202, 206, 303, 309
 식품위생사건 298
 식품위생사건백서 254, 298
 식품위생심의위원회 203
 식품위해 관리체계 297
 식품위해 평가체계 297
 식품위해 홍보체계 297
 식품유통업 408
 식품의 안전성 평가기술 304
 식품의약품안전본부 302
 식품의약품안전처 304
 식품의약품안전청 302
 식품제조·가공업 409
 식품제조업 408
 식품제조업체수 412
 식품첨가물 309
 식품첨가물제조업 409
 식품포장산업 253
 식품포장재 랩의 유해공방 256
 신냉전 365
 신당서(新唐書) 34
 신라면 451
 신라면 키친카 452
 신라면의 세계화 451
 신미양요 60
 신석기시대 15, 22, 30
 신용하 19
 신유박해 43
 신자유주의 364
 신젠타 268
 신탁통치 반대 운동 124
 신한공사(新韓公社) 130
 신한일어업협정 128
 신헌박해 43
 신화시대 36
 실학파 42
 심장 질환 195
 심장병 241
 10·4 남북정상선언 321
 10대 식품기업의 매출액 466
 싱가포르회담 324
 쌀 관세율 274
 쌀 관세화 273
 쌀 관세화 유예 229
 쌀 무상지원 제도 425
 쌀 생산량 92, 142, 151, 186, 187, 404
 쌀 생산량과 수매 상황 144
 쌀 소비량 361
 쌀 재배면적 축소정책 273
 쌀가공식품산업협회 425
 쌀과 콩 57, 64
 쌀과 콩의 재배기원 27
 쌀시장 개방 225
 쌀시장 관세화 유예 272
 쌀의 공급량 188
 쌀의 기여도 403
 쌀의 자급 182, 185



아관파천 61
 아바나현장 218
 아스파탐 255
 아시아생산성본부(APO) 225
 아이쉬(aysh) 375
 아이스크림 199, 254
 아일랜드(Alleyne Ireland) 83, 110
 아질산염 논란 300
 아크릴아마이드 파동 300, 301
 아편전쟁(1840-1842) 29
 아프리카 가나의 이야기 473
 아프리카돼지열병 387
 악성 신생물 195
 악장유적 25
 안데스 문명 19
 안중근 80
 안토니우 구테흐스(A. Guterres) 476
 알렌(Horace N. Allen, M.D.) 69
 알마진카 16
 알코올제조기술 32
 암 사망자수 241
 애국계몽운동 81
 애그플레이션(agflation) 406, 417
 애니천 고추장 소스 459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171, 324
 야스쿠니 신사 123
 약탁주 115
 양곡관리기금법 184
 양곡관리법 143, 184, 426
 양곡교환제 184
 양곡매입법 142
 양념육류 410
 양반 씨베지스(Sea Veggies) 461
 양사오유적 20
 양서(梁書) 33
 양저문화유적 27
 양정개혁 185, 227
 양조기술 31
 양조업 112
 어류 가공품 57
 어류제품 445
 어유박 118

어육 및 수산물 분야 308
 어패류 231, 234, 275
 언더우드 가문의 헌신 139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39
 언론의 자유 129
 업종별 생산실적 409
 에너지 공급량 105
 에너지 구성비 67, 107, 108, 345, 361
 에너지 섭취량 109, 192, 194, 240, 361, 362
 에너지의 구성 105
 에드워드 알몬드(Edward Almond) 장군 135
 엔하이저부시(Anheuser Busch InBev) 467
 엘리노 현상 381
 영국계수 109, 154, 173, 215
 여성 비만을 348
 여성 취업률 234
 연도별 곡물자급률 400
 연합군의 일본 점령 123
 열국시대(列國時代) 34, 36
 열량구성비 362
 열량자급률 406
 염관리법 303
 염장건어품 118
 염장기술 32
 염장발효문화 36
 염장품 118
 영아사망률 110, 158
 영양개선 474
 영양결핍 186
 영양공급량 105, 155, 189, 237
 영양과잉 419
 영양권장량(RDA) 106
 영양목표 362
 영양섭취 조사 155
 영양섭취량 155, 237
 영양소 섭취량 192, 194
 영양소 자급률 403
 영양소별 섭취량의 변화 236
 영양소의 공급 구성비 236
 영양실조 151, 334, 335, 342
 영양실태 조사 192
 영양의 과잉섭취 194, 240
 영양인류학 359
 예맥족(滅貊族) 26, 27

5·18민주화운동 211
 오투기 198, 245, 309, 470
 오리온 430, 482
 오리온 푸드비나(Orion Food Vina) 482
 오리온스낵인터내쇼날 482
 오바마 정권 366, 378
 우주연문장전산고(1850년경) 48
 오징어게임 441
 오펜베르트(Ernst Oppert) 49, 55, 78
 옥수수의 자급률 233
 외교독립론 127
 외국 생수 311
 외국인 거류자수 64
 외국인 거류지 63
 외식 프랜차이즈 413
 외식구성비 247
 외식산업 216, 234, 408, 414
 외식산업 생산액 409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442
 외식산업진흥법 442
 외식업체수 247
 외화상점 341
 외환위기 263, 308, 315
 요동반도 20, 28
 요리 삼각형 14
 용기·포장류업 409
 용산유적 20
 우루과이 라운드(UR) 219, 287
 우선암동굴 15
 우스티노브카 16
 우유 소비량 199, 307
 우유류 154, 187, 188, 222, 231, 275
 우유의 항생물질 오염사건 256
 우지파동 250, 255, 299
 우크라이나전쟁 392, 476
 윤요호 사건 60
 울산 반구대 암각화 17
 워렌 버핏(Warren Edward Buffett) 468
 원두커피 312
 원시 무문토기 16
 원시알타이어족 22
 원시토기문화 14, 17, 29, 35
 원시토기문화시대 26, 32
 원유자급률 272
 월남전 197
 월남한 피난민 140
 월평균 임금 148
 유가공산업 118, 201
 유가공업 160, 244, 409
 유가공품 199, 248
 유길준 73
 유당불내증 153, 200
 유라시아 대륙 20
 유럽공동시장(EC) 219
 유로마йдан 365
 유목민가설 21
 유상매수·유상분배 131
 유성탄산음료 249, 306
 유신헌법 166
 유엔 세계 식량안보 위원회 39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21
 유엔 한국위원회 125
 유엔 한국재건단(UNKRA) 150
 유엔군 135
 유엔군 한국민간구호처(CRIK) 150
 유엔군사령부(UNC) 149
 유엔아동기금(UNICEF) 335
 유전자변형 기술 301
 유전자변형두부 사건 300
 유전자편집기술 430, 484
 유제품 160, 187, 203, 234, 244, 253
 유제품 관세철폐 272
 유제품 소비량 272
 유제품 시장 307
 유지가공품 201, 242
 유지류 154, 188, 234, 345
 유지류 공급량 231
 유지류 자급률 275
 유채류 222
 유틸란드리아(Jutlandia) 177
 유해색소 205
 유형원(潘溪 柳馨遠, 1622~1673) 42, 130
 6·10 민주항쟁 212, 213
 6·15 남북 공동선언 321
 6·25전쟁 154
 6·29선언 213
 육가공 생산업체 수 244
 육가공 시장 254, 308

육가공품 187, 197, 201, 217, 305, 410
 육류 188, 203, 231, 234
 육류 및 육가공품 공급량 242
 육류 소비 230
 윤내현 32
 윤보선 165, 177
 윤봉길 의사 122
 융숙(戎菽) 25
 은둔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 50
 을미사변 61
 을사늑약 80
 음료류 202, 242
 음료시장 464
 음식료품 도매업 408
 음식물쓰레기 432
 음식점 및 주점업 수 414
 음식폐기물 387
 의례음식(떡, 한과 등) 35
 이기열 153
 이명박 정부 290, 295, 322
 이병철 회장 159
 이산가족 320
 이상가후 380
 이상적인 식사목표 345
 이성우 27
 이승만 라인 평화선 128
 이승만(1875-1965) 125, 127, 137, 143, 319
 이승만의 업적 128
 이승만의 정음발언 124
 이온음료 250
 이왕영 사장 268
 이익(星湖 李瀾, 1681-1763) 42
 이질 111
 이집트 문명 19
 인공조미료 161
 인구 통계 72
 인구밀도 141, 361
 인구수 45, 153, 361
 인구의 도시 집중 185, 230
 인구의 도시화 234
 인구증가 430
 인구증가율 361
 인도 문명 19
 인력공급 차질 392

인삼류 92, 445
 인스탄트커피 시장 249
 인천상륙작전 135, 319
 인하공과대학 129
 일반영양강화식품군 252
 일본 이주민 142
 일본-한국어족 22
 일본의 항복 125
 일본총합식품연구소 274
 1인 1일 평균 식품섭취량 361
 1인당 GNP 173, 215, 361
 1인당 국민소득 216, 368
 1인당 식품 공급량 변화 231
 1인당 식품시장 규모 465
 1인당 쌀 소비량 103
 일일 섭취에너지 108
 일일 평균 열량공급량 156
 일제 강점기 77, 127
 일제 강점기의 가축 마리수 96
 일제의 패망 123
 일주서 25
 임대홍 회장 161
 임시정부 127
 임오군란 44, 60
 임원섭육지 47, 102
 입국막걸리 455
 잉여농산물 원조 174, 221



자급률 269, 275, 400
 자반류 118
 자본시장 자유화 263
 자본주의 신노예제도 364
 자본주의4.0 364
 자숙건어품(주로 멸치) 118
 자영농민 87
 자원(字源) 34
 자유기업, 자유시장 원칙 143
 자유무역 364
 자유무역협정(FTA) 268, 277, 446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270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128
 자포니카 쌀 180

장 페어링 맵 458
장류 314, 457, 477, 485
장류 수출 458
장류 전체 생산량 457
장류공업 249
장류기업 196
장류제조 32
장립종벼(indica type) 27
장마당 338, 340
장면정부 165
장성택 323, 484
장티푸스 111
재배벼 24
재배콩 25
재스민 혁명 375
저울관세할당물량(TRQ) 274
저체중(underweight) 336
저탄산과즙음료 306
전두환정부 211
전봉준 44
전분당산업 428
전분제조업체 115
전쟁고아 320
전쟁미망인 319
전준용 회장 197, 209, 385
전지분유 식중독균 검출사건 300
전체인구 262
전택보 회장 177
전통 한과류 153
전통누룩 455
전통발효식품 485
전통음료 314
전투식량 197
전환기의 한국(Korea in Transition) 69, 260
절대 빈곤기 153, 189
절미운동 184
점령지 구제 정부자금 123
젓갈발효 31
정미 7조약 81
정부보급종자 266
정부수매 미국 145
정식품 200, 245, 248
정약옹(丁若鏞, 1762-1836) 42, 130
정어리 가공 117
정어리 어획량 97, 117
정재원 회장 200
정전협정 137
정조지(鼎俎志) 47
정주영 회장 321
제1차 농지개혁 131
제1차 한·일협약 80
제3차 동학농민운동 45
제4 빙하기, Würm glacial 20
제5공화국 213
제과 196, 217, 305
제과·제빵 분야 253
제과공장 115
제당 196, 197
제당산업 116
제면업 112
제민요술 29
제분 생산량 159
제분업 112, 115, 196, 428
제방업 112
제빵 196, 217, 305
제염업 112
제일냉동 252
제일제당 159, 244, 250, 308, 311, 313
제임스 게일 45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171, 324
제주 4·3사건 125
제한국회 125
제한국회 기도문 126
조개무덤 16
조독수호통상조약 63
조로수호통상조약 63
조류독감 파동 300
조류인플루엔자 386
조몬 중기 25
조미김 시장 460
조미료 산업 196
조미료시장 250
조미수호통상조약 63
조미식품 309
조불수호통상조약 63
조선 토지조사사업 87
조선건국준비위원회 124
조선경국전 41

조선기독교대학 139
 조선기행(Oppert, 1880) 49
 조선로동당 3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318
 조선사편수회 84
 조선식료품 동업발달지 112
 조선식물개론 102, 106
 조선의 개항 62
 조선의 개혁과 발전(1912-1913) 80
 조선제분 159
 조선제분주식회사 159
 조선증미계획 108
 조선총독부 84, 91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12-1940) 102
 조영수호통상조약 63
 조오수호통상조약 63
 조이수호통상조약 63
 조일산업 160
 존 스티스 펄퍼턴(John Stith Pemberton) 468
 증가집 449
 중서 생산기술 482
 종실류 154
 종자전쟁 264, 267
 종자주권 264
 종합조미료 250
 좌우합작위원회 124
 주곡 수급동향 186
 주곡의 지급 184
 주류산업 114
 주류업종 197, 203
 주류제조면허 115
 주문식단체 248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218, 243, 305, 308
 주산지 분포 93
 주세령 114
 주세법 303
 주식류 234
 주요 곡물 수입국 현황 396
 주요 사망원인 158
 주요 질환의 사망률 241
 주요국의 식품군별 식량자급률 276
 중국의 동북공정 21
 중국의 인권탄압 366
 중국인민지원군 135

중소기업적합업종 453
 중앙아메리카 문명 19
 중앙토지행정처 131
 중일전쟁(1937) 84, 103
 중화학공업 129, 172, 215, 230
 즉석 간편식품(fast food) 234
 즉석 용기 제품 250
 즉석밥 시장 313
 즉석밥 시장 규모 448
 즉석밥(햇반) 449
 즉석식품·편의식품류 410
 증산정책 185, 227, 428
 지구 평균기온 381
 지구온난화 374, 379, 382
 지글러(Jean Ziegler) 398
 지방질 섭취량 23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74
 지적재산권보호 220
 지주계급 133
 직업별 인구 구성비 87
 직접지불제도 227
 진로종합식품 311
 진서(晋書) 33
 집단수용소 320
 징병제도 118
 찌개문화 15, 485



착취적 정치제도 171, 324, 365
 참치 통조림 246
 창고비용 401
 채소 섭취량 190
 채소 종자시장 규모 268
 채소류 187, 188, 222, 231
 채소류 경지면적 230
 채식문화 18
 채유용 콩 400
 천안함 침몰 사건 322
 천일식품 251
 천주교의 전래 42, 61
 천주실의 42
 철기시대 34
 철의 장막 259

첨단 포장 기술 253
 첩반상 106
 청국장 457, 485
 청동기시대 22, 32
 청량리농유조합 118
 청량유로 71, 115, 197, 199, 253, 306
 청량유로 제조업 112
 청량유로시장 249
 청일전쟁 61
 체중변화 361
 촛불집회 289, 295, 367
 총 식품 섭취량 191
 총에너지 194
 최규하 211
 최소시장접근방식(MMA) 225, 228, 272
 최재우 43
 최초의 청주공장 74
 추곡 수매제도 229
 축산물위생처리법 302
 축산업 관련업 409
 축산장려정책 399
 준공기 156
 취동위(Qu Dongyu) 476
 치즈 222, 307
 치킨 체인점 246, 413
 칠성유료공업 207

ㄱ

카길(Cargill) 468
 카이로 선언 124, 125
 카이스(Elizabeth Keith) 82
 칼드웰(Jhon C. Caldwell) 133, 139
 칼로리자급률 402
 캔커피 시장 312
 커피 217, 254, 305, 312, 365, 473
 케네디 라운드 220
 코로나 19 팬데믹 366, 367, 388, 391, 476
 코리안 엑소더스 136
 코셰(Kosher) 인증마크 450
 코카콜라 199, 249, 468
 콜드 체인(Cold-chain) 243, 453
 콜레라 111
 콩 가공식품 32

콩 생산량 93
 콩나물 농약오염사건 255, 299
 콩의 원산지 24
 콩의 자급률 233
 콩의 재배와 이용 26, 36
 콩의 중국 전래 36
 쿠미유적 15
 크라운제과 160
 크래프트(Kraft Heinz Company) 468
 클라렌스 옛킬슨(Clarence R. Eskildsen) 143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260
 클래식 부대찌개 아미 스투 442

ㄴ

타이스푸드(Tyson Foods) 468
 타제석기(뎨석기) 15
 탄산음료 시장 306
 탄수화물 가공품 196
 탄화공 25
 탈냉전 259, 366
 탈북자 329, 333, 339
 탕(湯)문화 17
 탕 · 찌개문화 36
 탕류 485
 태평양전쟁(1941) 84, 103
 테크노크라트(전문직공무원) 287
 토기그릇(찌개그릇) 31
 토마토케첩 309
 토인비(Arnold J. Toynbee) 19
 토종 종자산업 264
 토지개혁 318, 325
 토지사용권 133
 톨루엔오염사건 256, 299
 통일미 120만 톤을 비축 426
 통일벼 179, 182
 통일벼 수매 중단 185
 통일신라시대 30, 36
 통일주체국민회의 166
 통조림 118, 153, 197, 203, 245, 253
 통조림 납 오염사건 256
 통조림 산업 112, 115, 160, 197
 통조림포르말린 300
 투기자금 377

통구스족 26
 트랜스유라시아어족의 기원 22
 트럼프 정권 366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 141
 트립신인히비터 26
 특수영양식품 252

ㅍ

파독 광부·간호사 169
 파리바게트 442
 파스퇴르 유업 244, 256
 파우치 개발 245
 86아시안게임 214, 234, 248
 88서울올림픽 214, 234, 248
 패스트푸드 247
 팍막걸리 456
 페놀 유출 사건 311
 펄시(PEPSICO) 199, 467
 평간종합식품 197
 평균 식품섭취량 346
 평균 신장 111, 358
 평균수명 46, 158, 242
 평균신장 242, 361
 평균체중 242
 평양 지하철 327
 평양건축종합대학 341
 평창 동계올림픽 324
 평화음료 161
 폐결핵 151
 폐기식품 190
 포스코인터내셔널 429
 포용적 경제제도 171, 365
 포장김치 시장규모 449
 포장두부 453
 포장랩유해논쟁 299
 포장육 410
 포츠담 선언 122
 포츠담 회담 124, 125
 포츠머스 강화조약 79
 포항제철 172
 폭식의 식습관 50
 표준 상처림 48
 푸드 인플레이션 381

푸드테크 431
 푸틴 정권 365, 376
 풀무원 311, 429, 453, 470
 품목별 소비량 변화 235
 중국주정공업 161
 품림상사 198
 프랜차이즈 가맹점 247, 306
 피난민 152

ㅎ

하노이농업대학 482
 하림의 팬오션 429
 하멜(Hendrick Hamel) 58
 하모도유적 27
 하이트진로 411
 학교급식법 303
 한(韓)족 삼한시대 30, 34
 한-칠레 FTA협정 269, 275
 한·독 경제협력협정 166
 한·일 병합 조약 81
 한·일 수교조약 166
 한·일의정서 80
 한과 314
 한국 기독교 139
 한국 대중가요(K-pop) 437
 한국 성인 남녀 비만 유병률 348
 한국 성인의 평균 체위 158
 한국 수출입 통계 215, 261, 368
 한국 식량정책의 흐름 184, 228
 한국 식품산업 상위 10개 업체 412
 한국 음식의 세계화 486
 한국 이야기(The Korea Story) 139
 한국 전통 식품기술 431
 한국 전통식품 산업화 연구회 314
 한국 전통음식의 건강기능성 485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 477
 한국과총의 학술지원 406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303
 한국국제협력단(KOICA) 430, 478
 한국네슬레 24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6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78, 45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2, 432

- 한국문화(K-culture) 437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417, 433, 447
- 한국식품(K-food) 438
- 한국식품공업협회 205, 209
- 한국식품사연구 13
- 한국식품산업협회 209, 470
- 한국식품생산자협의회 206
- 한국아쿠르트 244, 307
- 한국영양학회 190
- 한국영화(K-movie) 438
- 한국원자력연구소 129
- 한국의 감 70
- 한국의 대북지원 형태 356
- 한국의 식품산업 485
- 한국의 식품산업 규모 변화 113
- 한국의 인삼 55
- 한국인 신장과 체중 변화 111
- 한국인 영양 조사 189
- 한국인 영양권장량 157, 194, 240, 362
- 한국인 영양소 섭취량 362
- 한국인 잠정 영양기준 157
- 한국인의 기대 수명 13
- 한국인의 밥상 67
- 한국인의 사망률 110
- 한국인의 식단 35
- 한국인의 식사습관 153
- 한국인의 영양상태 66
- 한국인의 영양소 구성 345
- 한국인의 전통 표준식단 107
- 한국인의 최적 식사섭취 기준 362
- 한국인의 평균 체위 358
- 한국인의 평균수명 110
- 한국전쟁(또는 6·25사변) 129, 314, 319, 326
- 한국전쟁 상황도 137
- 한국전쟁의 피해규모 138
- 한국종자협회 266
- 한국코카콜라보틀링 307
- 한국공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26
- 한국형 드레싱 309
- 한국형 양념통닭 246
- 한류열풍 436
- 한류팬 438
- 한미 쇠고기협상 290
- 한미상호방위조약 129
- 한미식품(현 롯데칠성음료) 198
- 한미원조협정 123
- 한미재정협정 123
- 한민족의 국시(國是) 41, 437
- 한반도 분단 320
- 한반도 수산물 생산액 97
- 한반도 초기 무문토기시대 25
- 한반도지역 24
- 한백수호통상조약 63
- 한불수호통상조약 43
-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 34
- 한식 메뉴 개선 248
- 한식 식이처방 485
- 한양식품 198
- 한정수호통상조약 63
- 한정협회 177
- 한족(漢族) 34
- 한천제조업 112
- 한청통상조약 63
- 항복 조인식 122
- 항일 의병전쟁 81
- 항일무장투쟁 124
- 항해(Voyage) 59
- 해바라기운동 367
- 해방전선 135
- 해변의 채집인(littoral foragers) 18, 31
- 해외 곡물유통사업 429
- 해외 농업 협력사업 429
- 해외 진출 성공 요인 454
- 해외농장 개발 288
- 해조류 118, 231, 234, 265
- 해초무침의 유해색소사건 256
- 해태유업 244, 307
- 해태제과 160, 176, 200, 207, 308, 462
- 핵실험 321, 323, 324, 340, 342
- 햇반 313, 448
- 허문회 교수 180
- 허버트(Homer B. Hulbert) 67
- 현봉학 135
- 협성회회보 127
- 호상 요구르트 307
- 호상발효유 245
- 호주밀수출공사(AWB) 277
- 혼분식 장려운동 185

혼합장 457
 홍산문화 21, 30
 홍익인간 이화세계 41, 437, 478
 홍일식 교수 436
 홍콩 민주화운동 367
 화장실과 주방의 시설 개선 248
 화폐개혁 338
 화폐정리사업 81
 화학간장사건 255, 299
 화학조미료 논란 255, 299
 효소류 252
 후꾸이동굴 15
 후두량유적 15
 후한서(後漢書) 33
 휴전선 및 북방한계선 137
 휴전협정 129, 137, 319
 흥남질소비료공장 326, 340
 흥남철수작전 135

A-Z

ADM(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 468
 aT Grain Company(AGC) 279
 BBQ 442
 CJ제일제당 411, 430, 449, 459, 462, 469,
 470, 478
 FAO 식량가격지수 278
 FAO 통계자료(Statistical Yearbook) 356
 GM작물 개발 430
 GM작물실용화사업단 430
 IMF 구제금융 기간 264
 JBS 467
 K-Diet 263
 K-POP 263
 K-드라마 458
 K-푸드 열풍 443, 463
 PL480 원조(Public Law 480) 152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296
 WTO 무역자유화 364

